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2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

담당 연구원: 이승재(어문규범연구부)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2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출판: 국립국어연구원, 2003. 1. 1. 5. * 2003. 1. 1. 5.



국립국어연구원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2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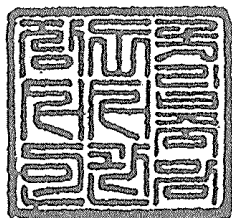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

담당 연구원: 이승재(어문규범연구부)

주 최 : 국제 고려학회 아시아분회 및 평양지부
조선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후 원 : 한국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3052111

머 리 말

국립국어연구원은 2001년 12월에 중국 베이징시 중원빈관에서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의 학자들을 만나 국어 순화와 조선어의 어휘 구성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남과 북의 언어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학술 회의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2001년도 학술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학술 자료 교환 사업도 추진하였고 남북 언어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협의도 꾸준히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 한 해를 넘기고 2003년 5월에 고유어와 방언을 주제로 한 학술 회의가 중국에서 열린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나 중국의 국내 사정으로 11월로 연기되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 회의는 2001년 학술 회의의 맥을 잇는 제2차 회의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남북 언어 교류의 디딤돌이 되는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 회의에서 토론의 주제로 삼았던 고유어와 방언은 우리 민족 언어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언어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면 남북 언어의 통일적 발전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집은 이번 학술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발표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논문집에는 고유어와 방언 그리고 국어 정보 처리에 관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술 회의의 주제가 고유어와 방언이기는 했지만 국어 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학술 회의에서는 고유어, 방언, 그리고 말뭉치와 부호 표준화에 관한 3개의 분과가 구성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종합 토론은 3개의 분과가 각각 별도로 진행하여 보다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 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귀중한 논문을 보내 주시고 여러 차례 연기되는 일정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 논문집이 남북 학술 교류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22일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제2차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을 내면서

2001년도에 남북 언어에 관한 제1차 국제 학술 회의에 참석한 후 2003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2차 국제 학술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2년 한 해를 보내고 2003년 5월에 중국에서 학술 회의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중국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으로부터 8월 이후에 회의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중국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8월 말에 학술 회의 개최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여 9월 말에 열리기로 했던 회의는 다시 10월 말로 연기되었고 최종적으로 11월 초에 확정이 되어 중국 베이징시에서 제2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열렸던 제1차 회의가 고유어와 국어 순화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토론하였던 회의라면 이번 학술 회의는 방언 조사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고 토론을 벌였던 학술 회의였습니다. 남과 북 모두 한 세대가 지나면 많은 양의 방언이 모두 제 모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를 보존하자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은 그러한 토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발표 논문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 논문집에는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의 글이 섞여 있습니다. 이 논문집에서는 남쪽의 글은 남쪽의 언어 규범대로, 북쪽과 중국의 글은 북쪽의 언어 규범대로 표기를 하였고 교정 과정에서도 남과 북의 언어 규범에 따라 별도로 교정을 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듯이 보이는 부분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집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2월 22일

담당 연구원 이 승 재

2003년 국제 학술 회의 참가자 명단

국 적	이 름	소 속 / 직 위
대한 민국	남기심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권재일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이승재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 학예연구관
	전수태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 학예연구관
	양명희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 학예연구관
	이준석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 학예연구사
	강신항	성균관대학교 명예 교수
	곽충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강춘	전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유병한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장
	이기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상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정	(주)민족네트워크 대표 이사
	홍윤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적	이 름	소 속 / 직 위
조선	문영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
	권종성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리호경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리승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방린봉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방정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홍석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곽선옥	사회과학원 대외사업처 처장
	리명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부원
	리창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신학철	사회과학원 과학지도국 부원
중국	이선한	베이징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소장
	전학석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부 교수
	조호길	베이징대학교 교수
	최순희	언어대학 교수
	량 성	베이징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언어대학 대학원

2003년 국제 학술 회의 일정표

(1) 11월 5일(수)

시 간	내 용
18:00~18:30	상견례(대표 인사 및 참석자 소개)
	▶사회: 이선한(베이징대학교 교수) ▶장소: 2층 明苑餐廳
18:30~21:00	환 영 만찬(2층 明苑餐廳)

(2) 11월 6일(목)

시 간	구 분	내 용		
		이 름	소 속	제 목
09:30~10:00	학술 대회 개최식			
	▶사회: 조호길(베이징대학교 교수)			
	인사말	이선한	베이징대학교 교수	
		문영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	
		남기심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10:00~11:50	기조 연설			
	▶사회: 최순희(문화언어대학교 교수)			
10:00~11:50	기조 연설	문영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과 민족고유어
		남기심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문화유산으로서의 국어
		전학석	연변대학교 교수	방언 조사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12:00~13:00	점 심 식 사(1층 咖啡廳(커피숍))			

시 간	구 분	내 용		
		이 름	소 속	제 목
13:00~15:25	제1분과 민족 방언의 공동 연구			
	▶사회: 방정호 소강춘			
13:00~14:00	발표	곽충구	서강대학교 교수	방언 자료 수집의 현황과 남북 공동 조사 방안
		홍석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조선어방언의 공동연구조사계획과 방법
	▷질의응답			
14:00~14:20	♠ 휴 식			
	▶사회: 홍윤표 전학석			
14:20~15:50	발표	방린봉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서북방언분포지역과 조사지점에 대한 연구보고
		이상규	경북대학교 교수	한민족 언어 지도 제작과 그 전망
		이기갑	목포대학교 교수	국어 방언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질의응답			
15:50~16:10	♠ 휴 식			
16:10~17:30	제2분과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			
	▶사회: 전수태 권중성			
16:10~17:30	발표	강신항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민족 고유어 쓰기
		리호경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어휘정리와 민족고유어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민족어 공동 순화를 위한 제안
	▷질의응답			
18:00~20:00	저 녁 식 사(2층 明苑餐廳)			

(3) 11월 7일(금)

시 간	구 분	내		용
		이 름	소 속	제 목
09:30~13:50	제3분과 말뭉치와 부호 표준화			
	▶사회: 리승길 박창원			
09:30~10:45	발표	권재일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구어 말뭉치를 통한 국어 문법의 통계적 분석
		권종성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원칙과 방 향
		홍윤표	연세대학교 교수	어휘의 역사 검색 및 사전 편찬을 위한 말뭉치 활용 방안
	▷질의응답			
10:45~11:05	♠ 휴 식			
11:05~11:55	발표	방정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코퍼스 자료의 론리정보언어와 부 호 덧붙이기
		소강춘	전주대학교 교수	남북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
	▷질의응답			
12:00~13:00	점 심 식 사(1층 咖啡廳(커피숍))			

시 간	구 분	내		용
		이 름	소 속	제 목
	▶사회: 이상규, 방린봉			
13:00~13:50	발표	리승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본문코퍼스구축을 위한 조선글입력 환경
		이승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자료 교환을 위한 파일 형식과 부호 표지 추가 방안
	▷질의응답			
13:50~14:10	♠ 휴 식			
14:10~15:00	민족어 관련 사업 소개 및 공동 사업 협의			
	▶사회: 권재일			
14:10~15:00	발표	전수태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민족어 관련 사업의 회고와 전망
		이승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민족어 순화 자료의 구축 현황
		양명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이준석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국제 한자 코드 표준화 활동의 현황
	▷질의응답			
15:00~15:20	♠ 휴 식			
15:20~16:50	종 합 토 론			
15:20~16:50	토론	1분과	토론자: 발표자, 권재일, 리창원	
		2분과	토론자: 발표자, 곽선욱, 남기심, 문영호, 양명희, 전수태	
		3분과	토론자: 권종성, 리승길, 방정호, 이승재	
16:50~17:10	♠ 휴 식			
17:10~17:50	공동 자료집 발간과 공동 어휘 정리 사업에 관한 실무 협의			
18:00~20:00	저 녁 식 사(2층 明苑餐廳)			

(4) 11월 8일(토)

시 간	내 용
09:30~12:00	남은 문제 토론 및 남북 언어 교류 협의회 구성
12:00~17:00	시내 관람
17:00~17:30	폐회 선언
18:00~20:00	송 별 만 찬(해당화 식당)

(5) 11월 9일(일)

시 간	내 용
10:00~12:00	분과별 토론 내용 정리 및 남은 문제 협의
12:00~18:00	개인별 시간
18:00~19:00	간 담 회 의

(6) 11월 10일(월)

- 학술 모임 참가자 귀국

차 례

인 사 말	1
-------------	---

〈기조 연설〉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과 민족고유어 / 문영호(사회과학원)	9
문화유산으로서의 국어 / 남기심(국립국어연구원)	13
방언조사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 전학석(연변대학교)	18

〈제1분과 민족 방언의 공동 연구〉

방언 자료 수집의 현황과 남북 공동 조사 방안 / 곽충구(서강대학교)	27
조선어방언의 공동연구조사계획과 방법 / 홍석희(사회과학원)	43
서북방언분포지역과 조사지점에 대한 연구보고 / 방린봉(사회과학원)	49
한민족 언어지도 제작과 그 전망 / 이상규(경북대학교)	54
국어 방언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 이기갑(목포대학교)	80

〈제2분과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

민족 고유어 쓰기 / 강신항(성균관대학교)	97
어휘정리와 민족고유어 / 리호경(사회과학원)	113
민족어 공동 순화를 위한 제안 / 박창원(이화여자대학교)	117

〈제3분과 말뭉치와 부호 표준화〉

구어 자료를 통한 국어 문법의 통계적 분석 / 권재일(국립국어연구원)	137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원칙과 방향 / 권종성(사회과학원)	159
어휘의 역사 검색 및 사전 편찬을 위한 말뭉치 활용 방안 / 홍운표(연세대학교) ...	164
코퍼스자료의 론리정보언어와 부호 덧붙이기 / 방정호(사회과학원)	223
남북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 / 소강춘(전주대학교)	230
본문코퍼스구축을 위한 조선글입력환경 / 리승길(사회과학원)	244
자료 교환을 위한 파일 형식과 부호 표지 추가 방안 / 이승재(국립국어연구원)	250

〈민족어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민족어 관련 사업의 회고와 전망 / 전수태(국립국어연구원)	265
민족어 순화 자료의 구축 현황 / 이승재(국립국어연구원)	275
북남 대역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 양명희(국립국어연구원)	282
국제 한자 코드 표준화 활동의 현황 / 이준석(국립국어연구원)	290
2003년 학술 회의 관련 사진	311

개 회 식

인 사 말

〈중국: 베이징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장〉

문영호 소장님을 비롯한 북에서 오신 존경하는 학자 귀빈 여러분! 남기심 원장님을 비롯한 남에서 오신 존경하는 학자 귀빈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평소 늘 존경하는 남과 북의 고명하신 학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가운데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 모임을 북경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말 연구의 본고장이 아닌 제3국의 일개 평범한 학자로서 모임을 주선하는 대표라는 명예로 개회사를 하게 됨으로 하여 황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평양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불원천리하고 북경까지 찾아 주신 데 대하여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남북 학술 교류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남북 언어학자들의 학술 교류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교류 협력을 통하여 민족 통일 기반의 조성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해 왔음은 물론이요 남북 학술 교류의 귀중한 경험들을 쌓아 왔습니다. 급속히 변화해 가는 세계사의 흐름은 민족의 숙원인 민족 통일의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선언은 이러한 시대의 산물이며 남북 학술 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적 사명감과 민족의 력원에 부응하여 남북 학술 교류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학술 모임이 득과 실을 잘 조화하고 소중한 경험들을 잘 살림으로써 남북 학술 교류의 더욱 실질적인 성과들을 이룩해 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학술 모임은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던 학술 모임의 원론적인 학술 발표의 한계를 초월하고, 탈피함으로써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어휘 자료 교환과 함께 방언 조사 연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방법을 내용으로 원만한 합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 모임을 통하여 남북 언어 학자들의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언어학 교류는 물론 민족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일구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민족 통일이라는 사명을 지니고 이번 모임을 빛내 주시기 위해 불원천리하시고 북경까지 와 주신 남과 북의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쪽: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학술 모임을 마련하고 우리 언어학자들을 초청하여 따뜻이 대해 주신 이교수님과 이번 학술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우선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도 우리 국어학자들이 모여서 이처럼 민족어의 통일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학술 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학술적인 명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는 민족의 통일, 민족어의 통일이라는 마음을 안고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숭고하고 성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이 누구나 다 민족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온 것이고 아울러서 이것은 우리 겨레의 제안이고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드시 북과 남의 언어적 차이를 줄이고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서 학술 이론적으로나 또는 실증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연구 발표와 논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 선언의 기치아래 온 민족이 다 함께 연대해서 민족 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통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는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해서 후배들에게는 반드시 통일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민족성과 순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우리의 고유한 민족어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그런 숭고한 사명감에서 이번 학술 모임에서 많은 토의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쪽: 국립국어연구원장〉

제 고향은 서울 부근이지만 오랫동안 외국 생활도 하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도 타향을 떠돌다가 서울로 직장을 마련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했오, 하오’와 같은 말들을 ‘했수, 하우’와 같이 표현하는데 고향 근처로 와서 고향 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수?’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 그 고향 말씨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 나갔을 때 상당히 큰 조직의 중간 우두머리를 하던 아주 무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어떠한 경우라도 배신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고향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무서운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것은 이 세상에서 배신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와 고향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나라의 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복잡하게 많이 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언어의 정보 전달의 기능이 중요하다고도 하고 우리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말의 기능으로 사람과 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꼽기도 합니다. 이 역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큰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과 정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의 말씨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민족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민족 공통의 언어와 사람과 정을 주고 받게 해 주는 고향의 말씨,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살리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상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각론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

인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인사말로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총론에는 대단히 강해서 총론은 잘 하는 데 각론은 잘 못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학술 회의를 하면서 총론과 원론은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임이 그러한 방식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그야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빈 면

■ 기초 연설 ■

전과 방언 조사 연구에 관한
이 기 호텔 ◆ 2003. 11. 6. ~ 2003. 11.
소 · 한국 국립국어연구원 · 국제 고려학회 아시아



빈 면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과 민족고유어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

박사, 교수 문영호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국어학자들과 인민들은 력사적인 6.15북남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있는데 맞게 북과 남의 언어적차이를 줄이고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통일이 민족통일의 기반으로 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온 응당한 요구라고 봅니다.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념원에 맞게 민족통일에 선행하여 언어통일을 이룩하자면 진지한 학술적탐구와 현실조사연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원칙과 방도들이 세워져야 하며 그에 따르는 실천적학술조직사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학술토론회는 자못 의미있고 의의가 큰 회합이라고 봅니다.

광복후 60년가까이 서로 다른 제도와 리념, 사회환경속에서 래왕은 물론 편지거래조차 완전격폐된 상태로 하여 빚어진 북과 남의 언어적차이는 참으로 심각한것이며 사람들의 언어의식과 일상언어생활로부터 언어규범과 언어체계를 통일시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조국이 통일되지 않은 오늘의 조건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시책과 언어규범이 시행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찾아야 하며 서로 리해하고 양보하며 민족이 단합하려는 원칙에서 언어통일의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민족통일에 앞서 언어통일을 실현하지 않고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언어생활을 자연발생성에 내맡겨둔다면 오래지 않아 민족의 기본징표인 언어의 단일성마저 잃

어버릴수 있습니다.

북과 남의 언어적차이를 줄이고 언어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최상의 방도는 민족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민족어를 발전시키는것입니다.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고유어를 위주로 하여 언어발전의 대를 세우면 지금과 같이 분렬되어있는 조건에서도 공통된 어휘체계에 따르는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이 담보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고유어는 다른 민족어의 침습을 받지 않고 그 민족이 대대로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민족적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고유어는 민족어에서 기본을 이룬다.》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과 남이 고유어발전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하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기본어휘가 고유어로 유지발전해오기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매개 민족어의 순수성, 고유성, 동질성을 고수발전시키는데서 문법체계, 음운체계, 기본어휘체계가 기본을 이룹니다.

이 세가지 체계만 고수되면 민족어는 절대로 이질화될수 없고 그 민족어의 고유성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어휘가 고유어로 되어있는 조건에서 선차적으로 고유어를 적극 보존하고 살려써야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어휘적인 기본토대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습니다.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에서 고유어가 기본으로 되는것은 또한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량적으로 고유어가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일반어단어 18만 4705개를 통계적으로 조사한데 의하면 고유어가 11만 1089개로서 60.14%를 차지하며 한자어와 외래어는 38.63%, 1.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과학기술문체나 사회정치문체를 놓고 볼 때 한자어, 외래어비중이

높은것으로 나타날수 있으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명사로 된 과학기술용어, 정치술어에 치우친것이고 일반어에서는 고유어가 여전히 우세를 차지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민족고유어가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우리 말 어휘구성의 질적상태에서 고유어가 기본구성요소를 이루기때문입니다.

단적인 실례로 우리말 어휘구성의 품사별분포에서 고유어는 절대적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말하여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에서 절대다수는 고유어이며 언어구조적으로 한자어, 외래어는 극히 적은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통계자료를 놓고 보면 대명사에서 고유어는 99%를 차지하고 한자어는 《자기》, 《당신》과 같이 1%정도의 어휘들이며 외래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도 고유어가 97~98%정도이고 한자어는 《타진하다, 모면하다(동사), 용하다, 경하다, 흉하다(형용사), 특히 과히(부사)》 등과 같은 자립성이 없는 한자말뿌리에 《하다, 되다, 히》 등의 뒤붙이가 붙은 2~3%밖에 안되는 정도입니다. 우리말 어휘구성의 이러한 질적 상태는 명사, 수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부류에서는 본질상 한자말, 외래어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시대발전과 과학기술분야별로 국제공용어를 받아쓰고 굳어진 한자말을 쓰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볼 때 고유어가 우리말 어휘구성에서 이처럼 높은 비중과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고유어를 적극 살려쓰는 문제는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과 언어의 민족성을 실현하는데서 반드시 중심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이 고유어를 적극 살려 북남언어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려면 광복직후부터 계속 진행하여오고있는 어휘정리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사전편찬과 출판보도, 교육사업에서 고유어를 살려쓰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언에 묻혀있는 좋은 고유어를 적극 찾아 문화어로 널리 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안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온 겨레의 념원에 맞게 지금 손쉽게 할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찾아 언어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국어학자로서의 민족적분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국어

남 기 심(국립국어연구원장)

1

언어가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어는 인류의 언어 보편적인 요소에 의한 구조적인 측면과, 어느 한 언어권의 오랜 생활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서의 문화적인 측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존재다. 사람이 언어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의 사람됨의 한 징표이며, 언어마다 다른 어휘 체계, 다른 표현 방식을 가졌다는 것은 각 언어가 여러 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는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일 수밖에 없다. 문자가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을 하면서도 말이 문화적 유산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주의를 하지 않는다. 새로운 문물제도가 생겨나면 그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생겨나고, 그러한 문물제도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면 그것들을 표현하던 말도 변화를 입거나 더는 쓰이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생활 풍습, 삶의 모습 등 과거의 문화적 양상을 넓게 그 속에 담아 가지고 그 때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에 쓰던, 또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쓰고 있는 말은 그대로 문화유산이요, 무형의 문화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를 건축, 공예, 미술, 예능 등과 더불어 언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사회의 지난날의 언어는 그 민족의 역사적 자료의 일부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문헌으로 남긴 기록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담은 그릇으로서 우리 생활의 흔적이요, 자취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생활, 우리의 문화를 보여 주는 역사적 유물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언어는 고고학적 유물과 더불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2

근래 우리말이 겪고 있는 변화는 전례 없이 그 폭이 크다. 장단음의 구분이 없어지고, 억양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존대법이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하는 등 일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말소리, 문법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어휘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이루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젊은이들이 개화기의 인쇄물을 읽지 못할 정도로 어휘가 소실되기도 하고, 늘어만 가는 외래어의 유입,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말로 인해 세대 간의 대화가 어려워질 만큼 그 변화의 양과 폭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러면 이렇게 소실되어 가는 말들을 그냥 버려 둘 것이며, 말소리가 달라져 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표준어의 보급과 함께 지역 방언이 소멸해 가는 속도도 대단히 빠르다. 오늘과 같은 표준어의 고른 보급은 해방 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의 힘든 노력의 결실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거니와, 그에 비례하여 후대에 전수되지 않고 빠르게 사라져 가기만 하는 많은 양의 방언은 그대로 방치해 버려도 좋은가? 언어가 과연 귀중한 문화유산이고, 소중한 문화재라면 소실되어 가고 있는 말들을 수집 보존하고, 더는 잃지 않도록 보호할 방안을 시급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막아지지도 않고 반드시 막아야 할 까닭도 없다. 다만, 급격한 언어의 변화는 언어 규범의 파괴를 가져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완급을 조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언어 변화의 궤도는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 자료들을 보존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의 언어는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 주는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이다.

옛날처럼 인쇄와 배포에 절대적 제약이 있던 때와 달리 오늘날의 말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쇄물을 통해 온전한 흔적을 남길 수 있지만, 지난날의 국어는 기록의 제약이 심하다.

그런데 실은 이런 사정이 옛말에만 한한 것이 아니다. 최근에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는 각 지역의 토박이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기록도, 조직적 보존 장치도 없이, 표준어의 성공적인 보급에 밀려서,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와 외래문화의 다량 유입과 더불어 흔적 없이 사라져 가고 있어 후대에 그것을 재구성해 볼 자료를 남기지 않고 있다.

모든 언어 자료는 글말 아니면 입말일 수밖에 없다. 옛말은 문헌(작은 문서 조각 같은 것을 포함하여)을 통해서 글말로밖에 접할 수가 없고, 현대어는 글말로나 입말로나 다 접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말은 이차자료인 글말보다는 일차자료인 입말의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의 토박이말이 그러하다. 얼마 전까지도 자기 고향을 멀리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들이 지방에 꽤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방으로 길이 뚫리고, 쉽게 차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 기회가 많은 까닭에 토박이말이 오염되어 있거나, 주거환경이 바뀌고, 농사가 기계화하는 등 의식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어휘가 큰 폭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토박이말들을 잃기 전에 이들을 수집 보존해야 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들 입말 자료는 당연히 녹취하여 일차 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 지역 방언의 수집은 조사 목록에 의한 어휘 차원의 수집뿐만 아니라 문장 차원의 조사도 병행이 되어야 하고, 음운론적 자료의 집적을 위한 충분한 양의 녹취 수집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우리말에 장구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담겨 있고, 민족의 얼이 스며 있는 것이라면 국어 자료는 단순한 언어자료로서가 아닌 문화재 차원에서의 수집과 보존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 작업을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 가능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여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수행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문헌 자료는 오래 된 것일수록 깊은 곳에 있어서 쉽게 접근이 되지 않는다. 내 칸이나 일기 같이 집안 깊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자료들은 자발적인 제보가 없이는 그 존재를 알기가 어렵다. 조사자의 손이 다 미치기 어려운 여러 지방의 토박이말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의 능동적인 제보와 작업에 의하지 않고는 완전한 채집이 불가능하다.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이제 이러한 국어 운동을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실천적인 강령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동은 비단 국어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자각, 국어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문화적 위기에 처해 있다. 필요에 의한 외래문화의 유입은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문화에 맞추어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반대로 직수입된 외래문화에 오히려 자신을 맞춘다. 요즘 세계는 문화적으로 급속히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노래를 듣고, 똑같은 옷을 입으며, 똑같은 자동차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서양의 어느 한 도시에서 시작된 유행이 잠시간에 전 세계로 퍼진다. 그래서 영어의 국내 공용어화 주장이 제기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인터넷의 세계적인 보급은 문화적 획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적 유산,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일이 이래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국어 운동이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 운동으로 크게 번져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방언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언어학적 목적의 것으로서 문화사적 측면의 배려가 별로 없었다. 이제 방언의 조사와 수집에 이러한 측면의 배려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거니와 토박이 말, 방언을 포함한 국어 자료의 수집이 남이나 북의 어느 한 편만의 것이어서는 반쪽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남에서 사라진 말의 흔적을 북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북에서 없어진 말을 남에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의 협력과 공동 작업이 이래서 요청되는 것이다. 다만 남과 북의 말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의 동포들의 언어, 특히 이주의 역사가 깊은 중국, 구 소련 지역 동포가 보존하고 있는 우리말도 마찬가지이다.

언어는 정보 전달, 정보 교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정서적 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지역적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적 생활 감정이 배어 있는 언어를 잃는 것은 정서적 생활을 잃는 것이며, 박제된 인간이 되고 마는 것과 같다. 위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국어 운동은 곧 자기 언어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한 자각은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개화기 이후로 지금까지 서양 문화의 도입과, 저쪽 문화의 학습에 몰두하면서 우리 것은 대부분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비하해 왔고 그것은 영어의 공용어화 주장의 또 하나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말, 나의 지역어에 대한 자각은 우리 것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더 큰 문화 운동으로 승화, 발전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국어는 우리 민족 공동의 오랜 역사적 문화유산이요, 무형 문화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옛 우리말, 오늘의 지역 방언을 잃는다는 것은 옛 사람들의 생활의 지혜를 잃는 것이요, 문화적 다양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풍요로운 언어가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닐 것이다.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방언조사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

전 학 석(연변대학교 교수)

이번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모임》은 남과 북의 언어학자들의 꾸준한 노력끝에 가지게 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학술모임이다. 특히 이번 학술모임이 이루어지기까지 로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완고하게 동서로 대치하고있던 독일도 베를린장벽을 허물고 국토를 통일하고 민족을 통일하였는데 우리 민족도 북위 삼십팔도선에 늘어놓은 철조망을 거둬내고 반도의 통일과 민족의 진정한 통일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선각한 언어학자들이 통일을 대비하여 학술모임의 자리를 만드는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앞으로 이런 학술토론의 장이 평양에서, 서울에서 주기적으로 펼쳐지고 남과 북의 학자들의 통일을 지향하는 뜻이 한방향으로 모아진다면 멀지 않은 앞날에 북과 남의 언어차이는 줄어들것이고 북과 남의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것이다.

특히 이번 학술모임이 남과 북의 방언조사연구에 역사적으로 남길만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토론자는 이 자리를 빌어 중국에서 쓰이고있는 우리말 방언은 어떤 역사적인 원인에 의하여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중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말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는 어떤 의의가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에 대한 북과 남의 학자들의 언어학적인 정위(定位) 평가를 받아 보고싶으며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의 조사, 연구 가치가 인정되고 남과 북의 방언 공동 조사,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어떻게 조사, 연구를 했으면 좋을가

하는 문제를 참고로 제안해 보려 한다.

그럼 아래에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하겠다.

1.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의 분포

2000년 11월 전국인구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조선족이 192.4만명이 살고 있다. 대부분 길림성, 흑룡강성, 료녕성에 살고있다. 길림성에 약 110만명, 흑룡강성에 약 43만명, 료녕성에 약 20만명이 살고있다. 전국적으로 조선족이 살고있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동북의 3개 성에서 살고있다.

중국에서 쓰이고있는 우리말 방언은 중국땅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쓰이는 우리말 방언은 반도에서 사회 역사적 조건과 자연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형성된것으로서 그 뿌리를 반도에 두고있다. 현재 중국에서 우리말 방언이 쓰이는것은 반도의 우리말 방언소유자들의 중국으로의 이주에 의한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의 분포는 우리말 방언소유자들의 중국으로의 이주력사와 밀접히 관계되어있다.

우리 민족의 중국으로의 이주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한가지 형태는 《자유이민》형태이고 다른 한가지 형태는 《집단이민》형태이다. 19세기중엽부터 1937년 《집단이민》 이전 시기는 《자유이민》 시기로서 반도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만강, 압록강 이북 지역으로 이주가 시작되어 점차 중국 동북의 내륙지방에까지 이주가 진행되였다. 그러다가 1937년 일본의 통치밑에 1945년 8월이전까지 《집단이민》이 진행되였다. 이런 관계로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의 분포는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있다.

현재 중국에서 쓰이고있는 우리말 방언을 보면 동북방언, 서북방언, 동남방언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쓰이는 외에 서남방언과 중부방언(경기도방언, 충청도방언, 강원도방언 등)도 일부 좁은 지역에서 쓰이고있다.

이 방언들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동북방언은 주로 길림성의 연변지구와 통화지구의 장백지방, 흑룡강성의 묵단강지

구와 합강지구의 일부 지방(목단강지구와 린접하여있는 지방)에서 쓰이고 서북방언은 주로 길림성의 통화지구(장백지방 제외)와 료녕성의 대부분 지구(개원지방 제외)에서 쓰이며 동남방언은 길림성의 장춘지구, 길림지구, 사평지구와 흑룡강성의 송화강지구, 수화지구, 눈강지구, 합강지구(목단강지구와 린접한 일부 지방 제외), 이춘지구, 료녕성의 개원지방 등에서 쓰이고있다. 내몽골자치구에서는 주로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이 쓰이고있는데 동남방언은 주로 홀룬부 이르맹, 흥안맹 등 지역에서 쓰이고 서북방언은 주로 적봉과 퉁료 등 지방에서 쓰이고있다.

서남방언은 교하현 천강진 홍풍촌, 교하현 천북향 영진촌 등 지방에서 쓰이며 중부방언에 속하는 충청도방언은 도문시 량수진 정암촌, 돈화시 현유진 립신촌 등 지방에서 쓰이며 경기도방언은 류하현 강가점향 오성촌 등 지방에서 쓰이며 강원도방언은 아성현 홍성향 해동촌, 안도현 영경향 고성, 동천 등 지방에서 쓰이고있다.

좁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방언들은 주로 《집단이민》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것으로서 대부분 《방언섬》을 이루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중국에는 제주방언을 제외한 여러 방언들이 분포되어 있다.

모두어 보면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분포는 중국 조선족의 이주력사와 더불어 좁은 방언분포지역으로부터 넓은 방언분포지역으로, 단순한 분포상태로부터 비교적 복잡한 분포상태로 변화하였다.

2.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에 대한 연구상황

2.1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에 대한 조사는 1963년 11월부터 1964년 1월까지 진행된 언어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1963년 11월부터 1964년 1월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어문 력사연구위원회(1964년 10월 27일 《연변조선족자치주력사언어연구소》로 개칭)와 연변대학 어문학부 조문학과가 공동으로 언어사용실태조사조를 묶어가지고 세개 조로 나뉘여 훈춘시의 진교향, 영안향, 안도현의 삼도향, 도문시의 월청향 등 지방에 내려가 언어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당시의 언어실태조사는 연변대학의 최윤갑, 김종수, 서영섭 등 교원

과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어문력사연구위원회의 립천 등 연구원들의 지도밑에서 진행되었다. 조사를 통하여 연변에서의 한자어사용상황, 방언사용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였으나 보고서는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출판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에 대한 조사는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비교적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81년 7~8월 2개월동안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협의령도소조 판공실의 조직 밑에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연변대학 조문학부,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협의령도소조 판공실, 연변언어연구소 등 단위의 교수, 연구일군들로 흑룡강성 수화현 홍화향 홍화촌과 길림성 도문시 월청향 마패촌에서 시점조사(試点調査)를 진행한 기초상에서 1982년 7월부터 11월까지 동북3성의 13개 지점에서 《조선어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12개 단위의 22명 조사원이 참가하였다.

《보고서》의 집필을 위하여 《조문집필조》에서는 1983년에 보충조사를 진행했고 《한문집필조》에서는 1984년과 1985년에 보충조사를 진행하였다.

《조문집필조》(김상원, 리윤규, 심희섭, 전학석)는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라는 이름으로 1993년 5월에 민족출판사에서 조사결과물을 출판했고 《한문집필조》(김순배, 선덕오, 조습)는 《조선어방언조사보고》라는 이름으로 1991년 4월에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조사결과물을 출판하였다.

1989년 3월에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협의령도소조 판공실과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언어조사팀을 묶어가지고 길림시 영길현, 반석현, 교하현에 가서 언어조사를 진행하였다. 언어조사의 주요한 목적은 길림시에서의 우리말 방언분포도를 그리려는데 있었으며 겸하여 이중언어사용상황도 조사하려는데 있었다.

이번 조사에는 연변대학의 최윤갑, 최희수,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협의령도소조 판공실의 리윤규, 김규필 등의 지도밑에 진행되었다. 언어조사결과물은 아직 출판되지 못하였다.

1987년부터 1988년사이에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심희섭과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협의령도소조 판공실의 리윤규가 공동으로 연변에서의 우리말 방언분포상황

을 조사하였다. 방언분포 조사결과물은 1989년 12월 연변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조선학연구》(2)에 발표되었다.

전학석은 1980년부터 1981년사이에 훈춘시의 37개 지점을 현지 답사하고 1986년에 《훈춘지방말의 어음론적특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어문석사론문집》에 발표하였으며 1983년 1986년에 선후로 연길시 신흥가두와 개원현 소구사촌에서 우리말 방언의 음조를 조사하고 1988년에 《중세조선어의 방점과 연길, 개원 지방말의 고저장단 비교》라는 이름으로 《조선어 연구》(2)에 발표하였다.

조일권은 1989년에 왕청현에 내려가 경상도방언의 어음을 조사하고 1990년에 《표준어 <->음에 대응된 경상북도 안동, 문경, 상주 방언현상에 대하여》란 석사학위론문을 발표하였다.

2.2 한국 학자들에 의하여 중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말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5년 8월 곽충구교수의 중국 훈춘시 경신향 회룡봉에서의 방언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1998년 최명옥, 곽충구, 배주채 등에 의한 두만강 이북의 경신, 밀강, 월청, 삼합 등 지방에서 쓰이는 방언(륙진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물이 2002년 12월에 《함북북부지역어 연구》라는 이름으로 태학사에서 출판되었다.

곽충구교수는 1995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여러 차례 대학원생들을 이 지역에 떼리고 와서 방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리병근교수도 대학원생을 떼리고 료녕성 심양시 만음촌 등 지방에 와서 방언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덕녀대의 신흥예는 《중국심양지역의 평안북도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1997)라는 제목의 학위론문을 완성했고 서강대의 소신애는 《연변 훈춘지역 조선어의 진행중인 음 변화 연구》(2001)라는 제목의 학위론문을 완성했다.

소강춘교수는 다년간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 료녕성 여러 지방에 가서 방언조사를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필자가 잘 알고있지 않다.

이상 중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말 방언에 대한 조사상황을 간추려 보았다.

3. 중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말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가 가지는 의의

3.1 우리말의 옛모습을 찾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은 오래동안 평양이나 서울의 언어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환경에서 보존되어왔으며 중국의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어의 포위속에서 강한 지역성을 가지고 보존되어왔다. 따라서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에는 우리말의 옛모습이 많이 보존되어있다. 여기에 조선이나 한국에 분포되어 있는 방언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또한 여기에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이 조사대상어로 될만한 가치가 있다.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방언가운데는 아직도 중세기 우리 글 문헌에서 찾아볼수 있는, 또는 중세기 문헌에서 찾아볼수 없는 언어 현상들이 많이 보존되어있다. 그러므로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방언을 보다 폭넓게,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는것은 우리말 역사를 연구하는데 자못 큰 의의가 있다.

3.2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언어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국 조선족은 백여년간 중국어를 통용어로 하는 언어환경에서 살아왔다. 중국에 사는 우리말 방언화자들은 중국어의 영향에 의하여 어휘, 문법적인 면에서 비표준적인 또는 이상한 언어표현들을 쓰기도 하며 이중언어생활에 습관되었고 언어코드바꾸기에 비교적 능란하다.

이런 언어현상들은 중국에서 찾아볼수 있는 언어현상이며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3.3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에 대한 조사는 우리말 방언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방언은 반도에 분포되어있는 방언과 지리적으로 린접하여있으며 200만이 쓰고있는 특색이 짙은 우리말 방언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방언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고 할 때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을 연구대상어로 잡는것은 여러가지로 의의가 있다.

4. 중국에서의 우리말 방언조사에 대한 제안

4.1 남과 북의 공동적인 방언조사 계획안에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도 조사대상어로 잡아줄것을 제안한다.

우선 남과 북이 우리말 방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서는 《방언조사협력기구》가 필요할것이며 협력기구의 통일적인 계획속에서 방언조사가 이루어지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통일적인 방언조사계획속에서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을 조사하는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안이다.

이렇게 된다면 《방언조사협력기구》 산하에 한국부, 조선부, 중국부를 두어 각각 해당 지역의 방언조사를 추진시킬수 있을것이다.

4.2 방언조사에 필요한 경비조달과 방언조사 결과물출판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는 제도장치가 잘 되어야 할것이다.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에 대한 조사경비와 조사 결과물출판과 관련한 문제를 《방언조사협력기구》에서 전반 방언조사계획속에서 함께 고려해 주기를 제안한다.

4.3 중국에 분포되어있는 우리말 방언은 중국의 학자들이 자체의 노력으로 진행할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경비가 충분히 조달되는 전제하에서는 북이나 남의 학자들이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현지조사를 진행할수 있다.

빈 면

방언 자료 수집의 현황과 남북 공동 조사 방안

곽 충 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방언은 언어학의 주요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한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사를 반영하고 있듯이 방언은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세계와 사물에 대한 인식, 제도나 관습과 같은 삶의 양식을 보여 주기도 하여 문화 인류학이나 언어 지리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한 언어의 하위 변종으로서의 방언은 그 방언이 속한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자신은 독자적인 역사와 함께 그 안에서 형성된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어떤 방언적 요소이든 그것은 그 방언의 음운, 어휘, 문법 체계 속에서 그 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방언학은 한 언어가 인문 또는 자연 지리적 조건 속에서 분화해 온 역사를 연구하거나, 사회적 요인에 따른 다양한 변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방언은 언어사를 기술하거나 재구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규범어 또는 문자로 씌어진 서사어와는 달리 역동적인 언어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므로 언어의 본질이나 다양성을 관찰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 밖에 언어 정책, 사전 편찬, 언어 교육 등에서도 방언 조사·연구는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가령, 북은 방언을 문화어화하거나 말다듬기의 재료로 활용한 바 있고, 또 방언의 어휘 의미를 사전에 적극 반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방언 중에는 표준어(또는 문화어)로 대응시킬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들은 표준어로 삼아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 또 언어 연구의 역사가 깊고 또 방언에 대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구미 여러 나라의 대사전에서는 표준어와 방언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기도 한다. 가령,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1971-1980)은 방언을 표제어로 올리고 그 방언의 품사·성·발음·예문·분포 지역 등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며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와 같은 독일의 사전들도 그에 못지않다.

한편, 방언은 문화 인류학 또는 민족지학의 영역에서도 중요하다. 이탈리아의 방언 조사가 민속 관련 조사를 병행하고 그것을 《이태리 및 남부 스위스의 언어 민속 지도 Sprach- und Sachatlas des Italiens und der Südschweiz》(1928-1940)로 구현한 것이나, 민족지학적 관점에서 언어 지도를 작성한 몽고의 언어 지도가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또 지표면의 다양한 현상을 언어를 통해서 연구하는 지리학의 영역에서도 연구 대상이 된다. 가령, 함경도에 산재한 여진어 지명이나 함경도 방언 어휘 속에 들어 있는 여진어 또는 러시아 어 차용어가 함경도의 역사와 관련된다는 등의 연구가 그러한 예이다.

그리고 ‘현대 및 고전문학 작품이나 역사문헌’을 읽는 독자를 위하여 방언을 표제어로 올렸다는 《조로대사전, Boljšoj Korejsko-Russkij Slobarj》(1976)의 서문 내용처럼 표준어(또는 문화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의 어휘적 또는 문법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기 위해서도 방언 조사는 필요하다. 이러한 공리적 측면 외에도 방언은 그 자체로서 존재 의의를 갖는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언은 민족 구성원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지역적 변종이다. 또한 그 속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방언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이유가 있다.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은 여러 관점에서 국어를 다양하게 연구해 왔다. 그러나 상호 교류 없이 고립과 단절 속에서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연구 목적·방법·대상에서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방언 연구는 현지 조사가 필수적이거나 남과 북은 각각 상대 지역의 방언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북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리 방언학적 연구는 매우 적었고 특정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한 연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료가 빈약하거나 정밀하지 못한 탓으로 깊이 있는 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언어 지도집 Language

Atlas of Korea》(1993)의 제작에 참여했던 발표자로서는, 방언 연구의 결집이라 할 수 있는 이웃 여러 나라의 언어 지도 예컨대, 《中國言語地圖集 Language Atlas of China》(1988), 日本 言語地圖(1974), 《몽고 민족 국가의 민족지학 및 언어 조사 연구 Mongol Ard Ulsyn Ugsaatny Sudlal Khelnii Shinzhleliin Atlas》(1979) 등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독자적으로 방언을 조사하고 또 서로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연구해 왔다. 어떤 분야는 남북의 조사 자료나 연구 결과를 통합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방언은 그 연구 대상과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현지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은 각각 상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가 된다.

남과 북에서 방언 연구에 종사하는 이들은 상대 지역의 조사가 불가능한 탓으로 항상 자료의 부족과 빈곤을 느껴 왔다.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남과 북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나라 밖에서 거주하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는, 다소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사회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나름대로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이중 방언 또는 이중 언어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것이어서 연구 자료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남과 북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조사·연구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극복하기 어려웠던 불합리한 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주로 광복 이후에 조사된 자료와 그 자료의 성격을 보이고자 한다. 남과 북이 기왕에 조사한 자료를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 발표자의 생각을 간단히 밝혀 보고자 한다.

2. 방언 자료의 수집 현황

2.1. 문헌 자료

국어사에 관심을 둔 학자들이 국어사 관련 고문헌을 발굴하고 그 자료의 사료적 가치를 고증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방언이 반사되어 있는 문헌을 다수 발굴하였다. 《杜詩諺解》(重刊本), 《念佛普勸文》, 《四法語》, <物名纂>(《蘊各書錄》), 《수경옥낭자전》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들 문헌은 홍운표의 <방언사 관계 문헌 자료에 대하여>(《행촌 김영배 선생 회갑 기념 논총》, 1991[남북한의 방언 연구, 1992, 경운출판사에 재수록])에서 목록과 함께 그 서지와 수록된 자료의 성격이 밝혀졌고, 이를 중심으로 방언 관련 문헌 93종에 대하여 간략한 해제를 붙인 것이 《方言學事典》(2001)의 '부록 1'에 실려 있다. 이들 문헌 자료는 그 문헌이 간행될 당시의 특정 지역 방언을 전면적으로 보여 주지는 못하고 대체로 음운사 또는 어휘사적 특징만을 알려 줄 뿐이지만, 국어사나 방언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한편, 외국에서 출간된 문헌 중에도 국내의 특정 지역 방언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세기 초 러시아의 카잔에서 간행된 일련의 문헌 자료이다.¹⁾ 아래에 몇 예를 보인다.

(1) 러시아의 카잔에서 간행된 자료

가) Azbuka dlja Korejtsev(1902)

나) Pervonachalnyj Uchebnik Russkago Jazyka dlja Korejtsev(1902)

다) Russko-Korejskie Razgovory(1904)

라) Slova i Vyrasheniya k Russko-Korejskim Razgovoram(1904)

마) 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1904)

(2) Corean Primer(1877)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982),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1883)

1) 이들 문헌 목록은 일찍이 아래와 같은 논문에서 소개된 바 있다.

빼뜨로와(1956), <로씨야와 쏘련에서의 조선어 연구사 개요>, 《조선어문》 1.

Koncevich, L.R.(菅野裕臣 譯註)(1971), <蘇聯의 韓國語學>, 《아세아 연구》 14-4, 고려대.

(1)의 러시아 자료는 함북 북부 육진 방언의 구어체 문장을 정밀 전사한 것인데, 그 무렵의 육진 방언을 생생히 보여 준다. 음성·음운·통사·어휘 등 지역 방언의 모든 면을 살필 수 있다. 일찍이 G.J. Ramstedt나 A.A. Xolodovich가 국어사의 재구 또는 국어 문법을 기술하는 데 이용한 바 있다. (2)는 전사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19세기 후기 서북 방언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헌 사료이다.

북도 위에서 보인 것과 같은 유형의 국내외에서 간행된 방언 관련 문헌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교환한다면 방언사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2.2. 현지 조사 자료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조사한 방언 자료는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지역적 변종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가 된다. 그러나 역사 언어학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진 그의 조사는 주로 음운사에 치우친 역사적 잔재 유형 또는 그 직접적 반사형들을 찾거나 특이한 방언 어휘의 발굴 혹은 방언 구획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 관점에서 방언 현상을 논의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고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일찍이, 이송녕의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동방학지》 3, 1957), 김병제의 《조선어방언학개요》(상, 과학원출판사, 1959)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비록 조사 항목이 다양하고 균질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조사가 안 된 곳이 있고(함남 장진, 함북 온성, 강원도 회양, 통천 등), 또 모든 조사 지점에서 동일한 조사 항목을 두고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항목에 따라서는 방언형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적지 않다.

때문에 50년대부터는 조사가 미진했던 문법 및 어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국지 방언을 단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개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집한 자료가 자료집으로 엮어졌다. 김형규의 《한국 방언 연구》(1974), 최학근의 《한국 방언사전》(1978)이 그 대표적인 예다. 조사자들은 조사 항목을 늘리고 특정 문법 범주를 체계적으로 조사한다거나 또는 어휘의 의미를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오구라의 조사가 그러하듯 조사 항목의 구성이 비체계적이고 음운사 관련 어휘나 방언 어휘의 형태 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방언형과 관련된 정보—어휘 체계, 의미, 굴절 어간의 기저형, 초분절 음소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때마침 불어 닥친 구조 기술 언어학의 영향으로 이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과거의 연구가 개체사적이며 원자론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조사 항목의 선정에서는 어휘의 체계성이 고려되지 못했고 자료 조사에서는 어휘 의미가 면밀하게 조사되지 못하여 형태와 의미의 대응이 정확하지 못하다든가 또는 명사의 곡용이나 동사의 활용이 온전하게 조사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 것이 그러한 예다(이병근(1979), <방언 연구의 흐름과 반성>, 《방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렇게 체계를 중시하는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에 알맞은 조사 방법론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방언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한 업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증가하고 도 단위의 방언 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규모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이는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요하는 일이어서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광역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무렵인 1978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어문학 연구실에서는 첫 국책 연구 과제로 ‘전국 방언 조사 연구’라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전국 각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여 방언 자료집과 언어 지도를 간행하고 국어 방언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를 모색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업의 대강을 요약²⁾하여 아래에 보이겠다.

(1) 기본 계획. 1978년 이 사업의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가 1978년 8월 18~19일 사이에 열렸고 이를 토대로 어문학 연구실(실장 유창균)은 같은 해 10월에 ‘전국 방언 조사 연구’라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 연구 사업을 추

2) (1)~(5)까지의 경위는, 이병근, <전국 방언 조사 연구의 경위>, 《한국 방언 자료집》 I~IX (1987~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진하기 위한 단계별 일정과 목표를 내규로 정하였다. 내규는, ① 조사 항목의 작성, ② 질문지 작성, ③ 조사원 선정 및 연수, ④ 현지 조사 및 자료 정리, ⑤ 방언 지도 및 자료집의 편찬, ⑥ 방언의 특징 구명과 같은 실행 목표를 담고 있다. 그 밖에 자문 위원회, 연구 위원회, 조사원의 역할과 보고서의 간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2) 연구 위원회. 1978년 11월에는 자문 위원 12인과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연구 위원회의 위원 5인(간사 이병근, 위원 박양규, 이익섭, 전광현, 최명옥)을 위촉. 위원들은 내규에 규정된 대로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항목 및 질문지의 작성, 조사원의 연수, 현지 조사의 지휘·총괄, 조사 자료의 정리, 방언 지도 작성 및 방언 자료집의 편찬, 방언 조사·연구에 대한 이론의 연구와 정립, 조사 연구 보고서 《방언》지의 편찬 등 이 사업의 주요한 사안을 기획·심의하고 업무를 추진. 위원회의 간사로서 이병근, 김충희, 홍윤표, 송기중이 차례로 행정 책임을 맡음.

(3) 조사원. 조사 항목의 선정 후, 1979년 7월부터 조사원 6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조사원은 방언 조사 방법 및 방언 연구 이론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연수 내용은 방언 연구의 의의, 국어 방언 연구사, 현지 조사 절차, 음성 부호, 전사법과 조사 지점 선정 및 제보자 선정 요령, 면담, 질문지 작성 요령 등. 또한 음성학 전공자로부터 음성 훈련을 받고, 이어 cardinal vowel 녹음 테이프, Nottingham 대학의 An Introduction to Phonetics의 녹음 테이프, Winitz Reed & Riviere의 Phonetics: A Manual for Listening, Marburg 대학 언어 지도 연구소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훈련을 쌓았으며 나아가 4차에 걸쳐 연구 위원들과 함께 현지 실습 및 예비 조사를 하면서 시안으로 마련한 조사 항목표 및 질문지를 검토하고 수정.

(4) 질문지.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가 1978년 11월~1980년 6월 30일까지 1년 반에 걸쳐 작성 간행됨. 본책 495면+그림책(별책 부록) 171면. 조사 항목은 1,782개, 질문문은 2,766개이며 주 항목, 보충 항목, 부수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질문지는 어휘·문법·음운의 세 편으로 짜여져 있는데, 어휘 편은 기본형, 조어법, 연어 및 관용구의 형성, 의미 차, 어휘 선택 등을 고려하였고 문법 편은 문법 범주 개개의 방언형을 파악하되 여러 문법의 제약들에 따른 방언 차를 살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음운 편은 음운 체계와 개별 음운 현상을 확인하고 음운 현상들을 유기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음운사적인 항목들은 어휘 부분에 배정. 방언 차를 보일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전국 방언 분포의 개략적인 상황을 공시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되, 통시론적인 주제로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목과 질문지가 작성됨.

(5) 현지 조사. 1980년 7월 20일부터 시작. 조사 지점은 1군에서 1지점을 선정하여 총 138개 지점에서 조사(경북 울릉군은 실패). 제보자는 제보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의 남자 1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보조 제보자를 두었다. 현지 조사는 1980년에 41지점, 1981년에 60지점, 1982년에 18지점, 1983년에 13지점, 1984년에 4지점, 1985년에 2지점을 조사.

(6) 교열 및 확인 조사. 단순히 전사상의 오류로부터 조사 내용상의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열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오류는 녹음 테이프를 통해 정정하고 의심스러운 응답형은 추후 확인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자료를 도 단위로 2,040장의 카드에 옮겨 적은 후, 카드에 모아진 도내(道內) 각 군(郡)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 조사할 내용을 가려 뽑거나 또는 자료를 지도에 옮긴 다음 도면(圖面)에 나타난 미심쩍은 방언형을 가려 뽑아 확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포가 고르지 않은 방언형, 제보자가 불확실하게 제시한 자료, 조사원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자료 등이 모두 확인조사의 대상. 1지점 당 확인 조사 항목은 대략 200~250여 개.

(7) 자료집의 간행. 1987년에 《한국 방언 자료집》Ⅲ(충북 편), V(전북 편)이 간행됨. Ⅶ(경북 편, 1989년), IV(충남 편, 1990), II(강원도 편, 1990), VI(전남 편, 1991), Ⅷ(경남 편, 1993), IX(제주도 편, 1995), I(경기도 편, 1995)이 차례로 간행되어 1995년까지 9권의 도별 자료집이 완간.

(8) 방언 지도의 작성. 연구 위원들은 《한국 방언 자료집》을 기초 자료로 삼아 천연색 언어 지도 제작을 목표로 95년~96년, 98년의 3년 동안 200여 장의 지도 및 그림을 작성. 출판 준비 중.

(9) 《방언》지의 간행. 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방언 연구를 고취하여 국어학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방언학 전문 학술지 《방언》지를 출간.

1979년에 창간호를 낸 후 1985년까지 8호를 냄.

이처럼 《한국 방언 자료집》은 조사 항목의 구성이 체계적이며 또 훈련을 받은 전문 조사원이 오랜 동안 137개 조사 지점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펴낸 것이다. 각 자료집의 구성은, 항목 번호, 표제어, 한글 자모로 적은 방언형을 먼저 제시하고 그 아래에 각 군의 이름을 적고 그 군에서 쓰이는 방언형을 국제 음성 기호(I.P.A.)로서 표시하였다.

이 밖에 주로 道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자료집이나 사전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모아 보이면 다음과 같다(북은 확인된 것만 수록).

<자료집 및 사전>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Ⅰ/1997, Ⅱ/1998, Ⅲ/2000).

경성 사범학교 조선어 연구회 편(1936), 《방언집》(유인본)[이상규 편, 대구: 모산학술 연구소, 1995 재판 및 해설].

김계곤(2001), 《경기도 사투리 연구》, 박이정.

김병제(1980), 《방언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영배(1997), 《평안 방언 연구》(자료 편), 태학사.

김영태(1975), 《경상남도의 방언 연구(1)》(자료 편), 진명문화사.

김이협(1981), 《평북 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인기(1998), 《강원 방언 총람》, 한림출판사.

김태균(1986), 《함북 방언사전》, 경기대 출판부.

김형규(1974), 《한국 방언 연구》, 서울대 출판부.

남기탁·손주일·한길·최윤현(2002), 《방언》(강원 전통문화 총서 4), 국학 자료원.

박용후(1988), 《제주 방언 연구》(자료 편), 고려대 민족 문화 연구소.

서울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연구실(1996), 《방언 자료집》.

석주명(1947), 《제주도 방언집》, 서울신문사.

宣德五·趙習·金淳培(1991), 《朝鮮語方言調査報告》, 延邊人民出版社[1991년 태학사 영인].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 편(1998), 《전남 방언사전》, 태학사.

이돈주(1978), 《전남 방언》(어문총서 206), 형설출판사.

이상규(2000), 《경북 방언사전》, 태학사.

장정룡·연호택(1997), 《강릉 사투리 자료집》(강릉 문화 총서 2), 동해안 발전 연구회.

丁泰鎭·金炳濟(1948), 《朝鮮古語方言辭典》, 一成堂書店.

제주도(1995), 《제주어 사전》.

최명옥·김주석(2001), 《경북 방언 속담·말 사전》, 한국문화사.

최학근(1978), 《한국 방언사전》, 현문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韓國 方言 資料集》 I ~ IX.

한영목(1999), 《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 연구》(자료 편), 정연사[재판, 태학사, 1985].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上: 資料篇), 東京: 岩波書店.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一銜語攷一》, 부록 <方言語彙>, 京城: 東都書籍.

<구어 전사 자료>

임석재(1989), 《한국 구전 설화》, 평민사.(총 12권)

뿌리깊은나무 사(1990), 《민중 자서전》.(총 1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1992), 《한국 구비 문학 대계》.(총 85권)

위 자료집 또는 사전은 그 편찬 방식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후기에 편찬된 것들은 사전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것도 있다. 이외에 단행본 연구서의 부록에 지역 방언 형이 다수 수록되었다. <구어 전사 자료>는 방언 연구를 목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지만 자연 발화를 채록한 것이어서 연구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음성 자료로 디지털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조선족으로부터 조사한 방언 자료도 있다.

2.3. 음성 자료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는 2002년부터, 연구원이 조사한 바 있는 서울 방언 자료 테이프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방언 조사 녹음 테이프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CD에 수록하고 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또

모든 연구자들이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방언을 연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4. 방언 자료의 통합과 검색 시스템의 개발

남의 문화 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21세기 세종 계획 한민족 언어 분과'의 '방언 검색 시스템 개발(연구 책임자: 홍운표·이태영)'에서는 기존의 자료집이나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방언 자료를 망라하여 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를 언어 지도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000년에 기초 자료 수집을 끝내고, 2001년에는 《남한 방언 검색 시스템》, 2002년에는 《북한 방언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올해는 재외 동포의 방언을 수집 정리하고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방언 자료를 전자 정보 형태로 가공하면 민족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이거니와 방언과 관련된 학술 연구나 국어 교육 또는 문예 창작과 같은 비언어학 분야에도 기여할 것이다.

3. 남북 공동 조사 방안

3.1. 의의

최근에는 남북 모두 표준어 또는 문화어가 널리 보급되어 고유한 방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남북이 지역 방언을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방언은 국어사, 지리 방언학, 사회 언어학, 개별 방언에 대한 체계적 연구, 언어 정책, 사전 편찬, 국어 교육 등 여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목적에 부응하려면 단편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전에 조사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항구적으로 자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여 애써 벌인 사업이 일

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도 그 목적 또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또 체계적이며 균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방언은 보수적인 규범어에 비해 항상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다. 또 특정 지역에 역사적 기반을 둔 것이므로 조사·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는 기존의 조사 자료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 언어학의 관점에서 조사·연구한다거나 특정 지역의 음운·어휘·문법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로 기존의 조사 자료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많은 방언 자료가 남과 북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연구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 때문이다. 북은 남의 체계적인 자료가, 북은 남의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방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이 공동으로 방언을 조사 또는 연구한다면 먼저 그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혀 두고 그 바탕 아래에서 전반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동 조사·연구가 가능한 부분을 보이고 그 방법론의 일단을 간단히 말해 보고자 한다. 이는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니 만큼 이에 대한 질정 또는 고견을 많이 들려주기 바란다.

3.2. 공동 조사 대상

3.2.1. 광역 조사와 자료집의 간행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방언 조사 질문지》를 참고로 하되 조사 항목을 적절히 가감하여(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분단 이후 남북의 언어 정책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달라진 남북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조사 항목 등을 추가) 남북의 조사원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방언 자료집》으로 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국 방언 자료집》과 통합하여 명실 공히 남북을 망라한 ‘방언 자료집’을 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의 조사 자료가 대략 20년의 시차를 두게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되고 또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군’이라는 행정 구역은 남과 북에서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 지점의 선정이 문제가 된다. 이는 옛 행정 구역을 참고하거나 개별 군의 역사성 또는 사회적 교류망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조사 방법으로는 물론 직접 조사가 가장 좋다. 신뢰할 수 있는 균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조사원이 현지 조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때 조사 지점과 제보자의 선정, 조사 방법,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 정도, 전사, 질문 방법, 개별 항목에 대한 조사 범위 등을 사전에 조사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특히, 정밀 전사할 음성 특징 및 성조(또는 악센트) 등 초분절 음소, 활용과 곡용, 어휘의 의미, 문법 형태소의 의미와 기능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원을 교육해야 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남북의 방언 전공자 또는 음성학자 등이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공동 조사가 어렵다면 북에서 조사를 하되 사전에 남북의 방언 관계 학자 및 실제 조사를 담당할 조사원이 함께 모여 방언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방언 조사 방법론, 음성 훈련 등에 대하여 이해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간접 조사 방법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대신 현지에서 직접 조사할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 80년대 초 중국 사회 과학원이 동북 삼성의 조선어를 조사할 때 조사원을 북경에 모아 집중적으로 교육한 일이나, 일본의 국립 국어 연구소가 전국의 조사원들을 교육한 사실이 여기에 참고된다. 중국의 《朝鮮語方言調查報告》(1991)는 음성 전사에 유의하였지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가령, 서북 방언이나 육진 방언에 대한 조사에서 치음 계열의 자음에 대한 전사, 모음 음성에 대한 전사 등이 발표자가 보기에는 미흡하고 또 동북 방언이나 육진 방언에는 성조 표시가 없다. 그리고 어휘 의미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간접 조사의 경우 어휘나 문법 조사는 전사에 별문제가 없으나 음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음운의 경우는 전문 학자가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려면 전사 체계는 물론 조사 방법이 동일해야 한다.

3.2.2. 방언 지도의 작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을 아우른 방언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이는 민족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은, 1) 이미 남에서 밑그림으로 작성한 방언 지도에다 북에서 조사한 자료를 채워 넣어 방언 지도를 완성하는 방안이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정신문화연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남북이 공동으로 동일한 조사 항목을 마련하고 조사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새롭게 방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어의 지리적 분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전형적인 조사 항목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조사하여 방언 지도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음성·음운·형태·문법·어휘·의미 등 각 영역에서 방언 차를 잘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을 미리 선정하고 조사하여 방언 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경비와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어휘는 통신 조사 방법으로, 음운 및 확인 조사는 직접 조사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언 지도 작성도 가능하므로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2.3. 음성 자료의 확보 또는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문자로 전사된 자료가 아니라 실제 발화음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을 뿐더러 방언의 음운·어휘·문법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음장이나 성조와 같은 초분절 음소, 운율 구조, 통사 구조상의 특징, 또 사회적 변인에 따른 차이, 지리 요인에 의한 차이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어학뿐만 아니라 표준 발음이나 맞춤법 등 언어 정책의 수립, 음성 합성과 음성 인식 등 여러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길고 긴 역사 속의 한 시기 민족어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도 있다. 음성 자료도 시간이 흐르면 역사적 가치를 가질 것이므로, 훗날 국어의 변화를 다방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역시 남북의 학자들이 모여서 조사 항목의 선정과 조사 방법론의 마련 등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3.2.4.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 또는 단계적 연구

음운사적 항목이든 문법 항목이든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남과 북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방법이다. 가령, 북에서 제시한 ‘으, △, 뽕’ 등의 반사형을 조사한다거나 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때 조사 항목의 선정은 단지 중세 국어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여러 방언의 공시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선정할 일이다. 가령 함북에서는 ‘마시다’를 ‘마이다’라고 하고 전남에서는 ‘가시나이’를 ‘가이나이’, ‘가지나이’라 하며, 평남북 및 황해도에서는 ‘머슴’을 ‘뎌, 뎌꾼’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방언형은 중세 국어의 ‘△’에 대응되는 예가 아니지만, 그 역사적 발달은 △ 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에도 △ 은 존재한다. 따라서 중세 국어 ‘아스(弟)’의 반사형 ‘아우, 아수, 아시, 앓기~엓기([애끼]) ...’ 등만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을 선정할 일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는 지리 방언학(개신 규칙의 발생과 전파 등)은 물론이거니와 음운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항목 선정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법에서는 특정 문법 범주 이를테면 서법이나 상대 경어법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든 항상 조사 목적에 알맞은 조사항목을 선정함은 물론 동일한 조건을 갖춘 제보자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균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연구 여건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실제로 조사·연구가 가능한 작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3.2.5. 사회 언어학적 조사·연구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차이로 인한 언어 변화의 양상을 조사 연구할 수 있다. 특정 주제를 두고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조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남과 북의 주민의 실제 언어생활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고 또 광복 이후 남북 언어의 차이 또는 남과 북의 상이한 언어 정책으로 말미암은 언어의 변화나 변이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북에서 출생하고 언어 습득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1) 북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 3)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 거꾸로 남에서 출생하고 언어 습득기를 남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1) 남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람. 3)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언을 조사하여 비교 또는 대조하여 모방언이 정치·사회·문화 등 이질적 환경에서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민족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민족의 문화유산인 민족어를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보존하려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통일 이후의 언어 정책 수립은 물론 먼 훗날 후손들의 민족어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념이나 정치적 편견을 떠나 순수히 민족의 언어를 조사·연구하고 보존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남과 북이 상호 보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손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민족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숙원하던 바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조선어방언의 공동연구조사계획과 방법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학사 홍 석 희

우리의 언어유산가운데서 방언도 매우 중요한 언어적재부이다.

그것은 방언에 민족고유의 언어적요소들이 많이 묻혀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기간 방언을 연구조사하여 력사문화적재부로서 보존하며 방언자료를 통하여 우리 민족어의 변화발전과정을 연구하고 우리 민족어의 단일성을 론증하며 방언속에 있는 좋은 말들을 적극 찾아내여 살려 쓰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맞게 언어규범을 바로 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려 왔다.

현시점에서 방언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시기 방언연구조사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토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세밀한 방언연구조사계획과 방법론을 찾는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방언연구조사실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앞으로 전망적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연구조사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우리 나라에서의 방언연구조사 현황

1) 방언연구실태

우리 나라 북반부지역에서의 방언연구실태를 분석해 보면 시기별로 보아 두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단계로서 광복전부터 1982년사이에 이루어진 조선어방언에 대한 전면적인 이론 연구단계이다.

이 시기에 저술된 학술론저로서는 《조선어 방언학개요》(상)(김병제, 과학원출판사 1959년), 《조선어 방언학개요》(중)(김병제,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년), 《조선어 방언학개요》(하)(김병제, 사회과학원출판사 1975년), 《조선어 방언학》(한영순,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4년), 《조선어 방언학》(김영환,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년)들이 있다.

이 저서들에 의하여 조선어방언의 형성과정과 구체적인 현상들 연구대상문제,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밝혀 지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둘째단계로서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사이에 진행된 선행리론에 기초한 조선어 방언의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단계이다.

이 시기에 집필된 대표적인 논문들을 보면 《조선언어지리학시고》(김병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년), 《함경도방언연구》(정용호, 교육도서출판사 1988년), 《조선어음운과 형태》(김백련,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년), 《문화어에 의한 평안도 방언의 수평화에 대한 연구》(리근용, 1993년), 《황해도방언의 어음 및 형태론적특성》(고현철,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1998년), 《조선어방언연구의 몇가지 이론문제》(김병삼, 1996년), 《조선어동서방언비교연구》(황대화,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년), 《륙진방언연구》(한진건, 중국민족출판사 2000년)를 들수 있다.

《조선언어지리학시고》는 같은말선에 의한 방언지도의 작성과 그에 의한 방언연구의 방법론을, 《조선어동서방언비교연구》는 여러 방언지역들간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비교고찰하여 방언적특성들을 도출한다는 비교연구방법론을, 《조선어음운과 형태》는 력사자료에 의한 방언연구방법론을 제기한 논문이다.

《함경도방언연구》, 《문화어에 의한 평안도방언의 수평화에 대한 연구》, 《황해도방언의 어음 및 형태론적 특성》, 《륙진방언연구》는 다 지역방언의 특징을 방언언어체계의 틀거리안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논문들이다.

이상의 저서들을 종합해 볼 때 매개 저서들은 다 개별적인 저자들이 자기의 연구 목적에 따라 방언조사대상을 정하고 그 한계안에서 조사장악된 자료들에 기초하여

리론적으로 서술한것이다.

방언조사에서 기본은 방언소유자들의 입말을 그대로 조사하는것이다.

입말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방언에서 문화어에 대응하는 입말의 음가와 말소리결합과정에 나타나는 변이와 변종, 말소리의 길이, 단어의 악센트, 말의 속도, 억양 등의 표현은 현대적인 음향측정설비와 전문가적인 기술이 없이는 어렵다.

지난시기 방언연구에서는 시대적인 제한성, 연구목적의 제한성으로하여 방언의 입말을 생동하게 그려내지 못한 부족점이 있다고 볼수 있다.

현시대는 정보화의 시대이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방언자료를 생생한 음성자료로 채취하여 자료기지화함으로써 민족의 유산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대한 량의 방언음성자료들을 자료기지화하기 위한 방법론적문제들이 제기된다. 또한 한가지 기준에 의하여 전국 각 지방의 방언적특징들이 로출되고 비교고찰될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과학적인 방언연구조사방법도 제기되어야 할것이다.

2) 방언조사실태

지난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학자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하여 많은 량의 방언자료들이 수집되었다.

방언자료들을 수록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방언사전》(김병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년)과 《문화어와 사투리》(각도, 직할시 사범대학출판사 1982년)을 들수 있다.

《방언사전》에서는 제1편 《방언에 대응하는 문화어》에 약 1만 2,000여개의 방언자료를 제시하였고 제2편 《문화어에 대응하는 방언》에서는 약 2,300개의 문화어올림말에 대응하는 방언자료를 군지명을 밝혀 제시하였다.

《문화어와 사투리》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각도, 직할시 사범대학 교원들과의 협력하에 만든 방언자료묶음집으로서 올림말총수는 약 1만 7,000개이다.

이밖에 《륙진방언자료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60년)이 있는데 이 자료집은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어학과 학생들로 방언조사실습조를 묻고 옛 육진지방을 편답하면서 수집한 방언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한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1960~1980년기간에 방언을 전문하는 선생님들과 사회과학대학 학생들로서 조직된 방언실습조를 통하여 수집된 방언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카트형식으로 보관한 약 5만여카트의 방언자료가 있다.

그중 자모순배렬카트가 2만개이고 지역별배렬카트가 3만개이다.

방언의 출처는 주로 군을 단위로 하여 주었으며 서북방언의 경우에 더러 리까지 밝혀 적은것이 있으며 더러는 도이름만으로 된것도 있다. 방언조사기간과 조사자들이 각이한것으로하여 자료들의 출처가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록음자료로서는 1980년대초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동북방언지역의 3개도의 15개군에 나가 록음한 방언음성자료와 1990년대초에 서북방언지역의 3개도(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의 15개 군에 나가 록음한 방언음성자료가 있다.

이때의 록음대상자로서는 동북방언지역에서 50살~75살사이의 로인 40명(그중 남자 25명, 여자 15명)을 택하였으며 서북방언지역에서는 50살~75살이의 로인 30명(그중 남자 15명, 여자 15명)을 택하였다. 록음내용을 보면 해당 방언소유자들의 자연담화, 질의응답형식으로 얻은 생활이야기, 농사이야기, 사물현상에 대한 표현 등이다.

한편 1960년대초에 리극로선생님을 책임자로 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방언수집조사 자강도 자성군과 함경남도 북청군에 나가 조사장악한 자성지방의 방언과 심마니말, 북청방언의 어조연구를 위한 방언음성이 있다.

방언지도로서는 《조선언어지리학시고》에 반영된 총 83매의 기초자료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며 199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작성한 수백매의 방언지도가 컴퓨터상에 보관되어 있다.

2. 앞으로의 방언연구조사계획과 방법

앞에서 본 우리 나라에서의 방언연구조사현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을 찾아 볼수 있다.

첫째로...언어지리학적측면에서 방언구획을 정확히 하는것이다.

《조선언어지리학시고》에서는 조선어방언지역을 구획지으면서 크게는 동부지구와 서부지구로 나누고 그안에서 다시 6개방언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조선어동서방언비교연구》에서는 조선반도를 종적으로 갈라 동부와 서부로 갈라 보면서 동북과 서북, 동남과 서남사이의 방언적인 특성들을 비교고찰하였다.

한편 학계에서는 서북방언과 중부방언의 경계문제, 서북방언의 분포지역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구체적인 방언조사자료에 기초한 언어지리학적측면에서의 방언지역을 정확히 구획짓는 문제가 제기된다. 방언지역을 정확히 확정하여야 지역별, 단계별 연구조사계획과 분담을 잘할수 있다.

둘째로...언어학적측면에서 방언지역들간의 특징들을 명백히 하는것이다.

실례로 동북방언에서의 구개음화현상이 동남방언에서의 구개음화현상과 어느정도 일치하는가? 다르다면 어느정도의 질적차이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한 자료로서 확정하는것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방언연구조사를 크게 두 방향에서 계획하고 있다.

하나는 전망적인 계획으로서 우리 나라 북반부 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진행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면한 계획으로서 현재 문제점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이다.

전망적인 계획에는 해당 방언지역의 전통적인 방언을 조사하는것과 방언의 현상태를 조사하는것을 넘두에 둔다.

전통적인 방언을 조사하는데서는 나이가 많은 전형적인 방언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시기성을 띤다.

한편 방언의 현상태를 체계적으로 서술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언조사에서는 남녀로소를 망라한 각이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량의 방언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는만큼 조사범위와 역량타산을 잘하여야 한다.

당면한 계획으로서는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북방언과 중부방언의 경

계를 구획짓는 문제, 서북방언의 분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진행하는것이다.

방언조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방언의 언어적특성 즉 어휘, 어음, 문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낼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하나의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각 지방의 방언현상을 조사장악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해당 지역의 방언적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방언조사항목을 따로 정하고 그에 의한 방언조사를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방법은 전국규모의 방언연구조사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면 두번째 방법은 해당 지역의 방언적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공동방언연구조사에서는 방언의 조사방법과 방언의 정밀전사방법, 자료의 정리 및 자료기지화의 통일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서북방언분포지역과 조사지점에 대한 연구보고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방 린 봉

방언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사용하여온 우리 민족어의 고유한 유산이 다양한 형태로 묻혀있는 귀중한 언어자료이다. 방언에 대한 통일적인 조사와 연구는 한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언어의 공통성을 론증하며 조선어력사연구에서와 우리 말을 주체적으로 발전풍부하시키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1. 서북방언의 분포지역

먼저 력사지리적개념으로서의 서북방언의 분포지역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서북방언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를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의 서북부에서 쓰이는 방언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우리 말 방언의 분포에 영향을 준 행정구역은 고려시기를 기점으로 하고있다. 고려시기부터 평안남북도지역에 고착되어온 행정구역과 그의 경계선은 서북방언의 형성과 변화, 그의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안남북도의 지역은 고려 995년에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10개 도를 내올 때에 패서도로 되였다. 그후에 북계로 고쳐졌고 1102년에 서북면으로 고쳐졌다가 1413년에 와서 평안도로 되였다. 1896년에 와서 전국이 13개도로 개편되면서 이전의 평안도가 갈라져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로 되었다. 광복후에 1949년 평안북도의 일부지역으로 자강도를 새로 내왔다.

서북방언은 북동쪽으로 뻗은 랑림산줄기와 북대봉산줄기를 축으로 하여 동북방언과 구별되고 황해도를 사이에 두고 중부방언과도 구획된다.

황해남북도의 북부지역은 서북방언의 령역에 포괄되며 그의 남부지역은 중부방언 령역에 속한다. 즉 황해남도의 은률, 안악, 은천 등 일대와 황해북도의 황주, 송림, 연탄, 연산 등 일대는 역사적으로 평안도방언의 영향을 받아온 지역으로서 서북방언에 속한다.

황해남북도의 지역은 서북방언과 중부방언의 교차지역으로서 특수한 지위에 놓인다. 그러므로 방언연구자들속에서는 이 지역의 서북방언과 중부방언의 령역을 놓고 리해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황해북도의 금천, 토산, 개풍, 장풍군과 이전 개성지구를 제외한 전지역, 황해남도의 청단, 연안, 배천군을 제외한 전지역을 포괄하여 서북방언지역에 포함시키는것, 황해북도의 북부지역의 황주, 송림, 연탄, 연산군 등 지역만을 서북방언지역에 포함시키는것, 황해남북도 중부일대는 서북방언과 중부방언의 완충지대로서 특수한 지위에 두는것 등이다.

다음으로 방언현상의 분포자료를 놓고 서북방언의 지역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방언현상은 어음, 어휘, 문법의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상 서북방언의 어음적특성을 기본으로 하여 보기로 한다.

서북방언의 특징적인 어음현상의 하나는 문화어의 《ㅙ:》가 《ㅑ: ㅓ》로 《ㅙ:》가 《ㅑ: ㅓ》로 대응되고 있는것이다.

○ 사:이(새), 가:이(개)

○ 거:이(게), 너:이(넋)

이와 함께 서북방언에는 홀모음 《ㅑ》와 겹모음 《ㅑㅑ》가 존재하지 않는 특성도 있다. 서북방언에서 문화어의 《ㅑ》는 《ㅑ》와 《ㅙ》로, 《ㅑ》는 첫소리마디인 경우 [—] 또는 [ㅑ] 로, 둘째소리마디부터는 [ㅑ] 로 대응되고 있다.

○ 왜삼춘(외삼춘), 애삼춘(외삼춘), 쇠(쇠)

○ 으사(의사), 이사(의사), 토이(토의)

서북방언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구개음화현상이 없는것이다. 특히 평안도방언에서 전형적이다.

○ 덩심(점심), 덩쟁이(정쟁이)

어두의 《ㄴ》이 《ㄴ, ㄷ, ㄱ, ㅁ, ㅂ, ㅅ, ㅈ》앞에서 그대로 발음되는것도 또한 서북방언에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 닐구, 닐굽(일곱), 녀름(여름)

자음 《ㅅ, ㅆ, ㅌ》뒤에서 모음 《ㅣ》가 《ㅡ》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다.

○ 줌성(짐승), 습원(십원)

서북방언에서는 모음 《ㅡ》를 《ㅏ》(평안도방언), 《ㅓ》(황해도방언)로 대응시키고 있다.

○ 두물다(드물다), 수물(스물)

○ 언행(은행), 커나컨(크나큰)

서북방언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비추어 조사된 방언자료들을 고찰해보면 방언의 분포가 행정구역의 소속과 무관계하게 나타나는것을 알수 있다. 레컨대 자강도의 랑림, 평안남도의 대흥, 신양, 양덕, 회창 등지에서는 서북방언에서의 전형적인 특성이 희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서북방언의 분포를 오늘날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어디까지로 확정하겠는가 하는것은 더 연구해보아야 할것이다.

서북방언은 지역상 일련의 방언적특성에 따라 3개 지역으로 갈라보고있다. 그것은 청천강, 묘향산을 경계로 하는 평안남도지역(평양시, 남포시 포함), 평안북도지역(자강도 포함), 황해도지역이다.

이 지역들간의 방언적차이는 언어적체계전반에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체계의 부분적측면, 주로는 개별적방언요소에 관계되고있다. 레하며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차이는 《디과》와 《감지, 호감지》와 같은 말마디에서 차이, 《노티》가 평안남도 방언에는 있었으나 평안북도지방에는 없는것과 같은 단어체계에서의 차이, 《잔디》와 《쨌디》와 같은 말소리의 차이 등에서 나타나고있다.

황해북도북부지역은 큰 지리적장벽이 없이 평안남도와 린접해있고 사회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평양을 가까이 하여 방언이 전반적으로는 서북방언의 특성을 가지

면서도 고유한 지역적특성을 띠고있다.

서북방언 역시 방언현상은 군을 단위로 기본적으로 분포되면서 일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지역적변종으로서의 방언현상이 그 지역의 자연지리적, 사회력사적환경의 영향과 관련된다. 례하면 묘향산줄기의 동북부의 높고 험준한 산발들은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경계와 일치되어 있어 이 지역의 방언들은 지역적특성을 나타내며, 력사적으로 이웃나라로 나드는 관문지대였던 피현—의주지역은 방언현상에서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오늘날에 방언현상들은 엉키고 뭉치여 같은 말선을 명백하게 긋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의 방언조사체험에 의하면 지금은 한 지역안의 사람들이 방언을 쓰는데서 달리하거나 두가지 방언을 다 쓰는 경우도 있어 전통적인 방언선을 긋는데서 복잡성을 조성시키고있다.

최근에 우리가 조사한 방언자료들과 이미 조사된 방언자료들을 대비해보면 같은 말선들이 서로 다른데 그어지거나 얹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비록 방언현상들에서 같은 말선들이 서로 다르게 그어지는 경우에는 방언현상의 분포지역은 실지로 존재하고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정확히 조사확정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방언현상의 분포지역을 확정하기 위한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연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서북방언의 조사지점

다 아는바와 같이 방언이란 한 민족안에 있는 지방말이다. 방언은 해당 지방에서 쓰이는 특징적인 언어현상과 함께 문화어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언어현상까지 포괄하고있다. 하지만 《방언과 문화어》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방언이라고 할 때는 문화어는 제외하고 그 지방의 고유한 특징적인 언어현상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서북방언의 특성과 분포지역을 보다 정확히 조사하자면 조사지점을 정확히 선정하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방언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곳을 다 일일이 조사하기 어

렵다는 실정과 오늘날 방언현상의 분포가 얹혀진 상태로 이루어져있다는 특성과 관련된다. 해당 방언현상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방언현상의 교차를 명백하게 밝힐수 있는 지점을 조사지점으로 하여 방언조사를 구체화하여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리조시기부터 오래동안 전해져오는 군을 기본조사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지난시기의 군은 다른 군에 속해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약화시켰고 언어적차이를 증대시켰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군은 그때의 정치, 경제, 문화적조건과 자연지리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지역적거점으로서 당시 군안에서는 방언현상이 비교적 균일하게 되어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례하면 평안남도지역에서는 중화, 대동, 룡강, 평원, 성천, 순천, 상원, 강서, 안주, 숙천, 개천, 덕천, 녕원, 은산, 양덕, 강동, 맹산, 증산, 순안 등이며 평안북도지역에서는 의주, 정주, 녕변, 선천, 창성, 구성, 룡천, 철산, 삭주, 벽동, 운산, 박천, 태천, 꾀산 등이며 자강도지역에서는 강계, 위원, 회천, 자성, 초산 등이며 황해남북도지역에서는 황주, 안악, 해주, 평산, 봉산, 곡산, 서흥, 장연, 재령, 수안, 신천, 신계, 송호, 은률 등이다.

서북방언의 조사지점은 자연지리적조건과 역사적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오늘의 행정구역단위와 선행한 방언조사자료를 충분히 고려참작하여 서북방언의 분포와 관련한 연구의 미비함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선택하여야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조사장악된 서북방언의 분포지역과 관련한 자료들은 귀중한 밑천으로 될것이다.

이상에서 서북방언의 분포지역과 조사지점에 대하여 간단히 보았다. 이번에 준비하여온 방언지도상의 분포지역은 우리가 수집한 방언자료와 이미 수집된 자료에 의거한것이다.

앞으로 서북방언의 보다 정확한 조사와 연구를 위하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민족 언어지도 제작과 그 전망

이 상 규(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한민족 방언 조사의 필요성

1.1 언어와 민족 그리고 국가

인터넷이라는 초고속 통신 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의 인류 문화나 언어가 “크리스탈과 같이 투명한 하나의 세계(the crystallisation of the entire world as a single place” Robertson 1987:38)”로 바뀔 것이라 예상한다. 이 같은 가상 세계의 시대를 흔히들 범세계화 시대라고 말한다. 범세계화 시대는 인류 문명과 언어가 자본의 힘에 의한 획일화가 가속되리라는 전망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언어 규범에 따라 동일하던 언어가 다른 언어로 분할될 수 있다는 사례를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방언 연속체가 스웨덴 어와 노르웨이 어 그리고 덴마크 어로 개별 언어로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예가 있다. 또한 서부 로망스 방언 연속체를 형성하고 있던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스페인 어와 포르투갈 어로 통용되다가 최근 무려 9개의 서로 다른 개별 언어로 분리되었다.¹⁾ 이와 같은 사례는 범세계화의 시대가 반드시 동일한 언어와 문화권으로 진입되리라는 우려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거시적인 지역주의(macro-regionalism)”로 진행될 것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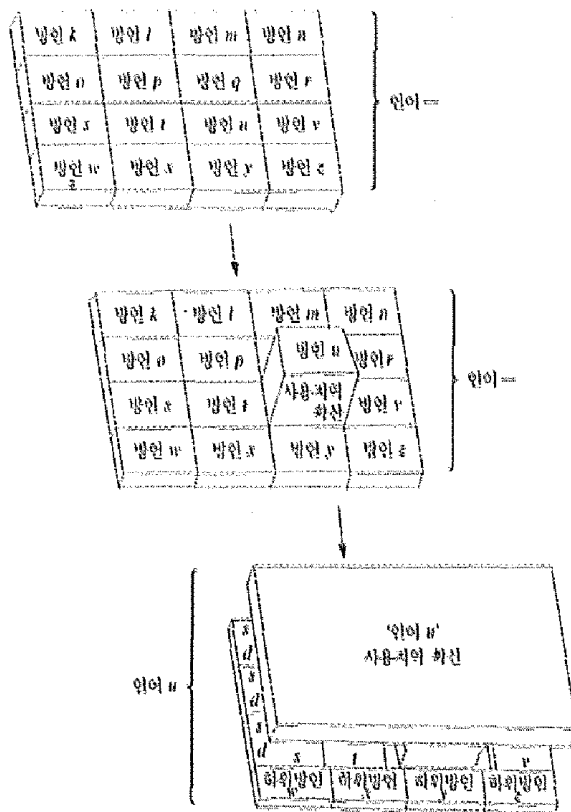
1) 2003년 4월 6일 일본 神田專修大學에서 발표한 Peter Trudgill 교수의 “Glocalisation and the Ausbau Social-linguistics of modern Europe” 발표문 참조.

예측(Nederveen Pieterse, 1995:29)도 부정할 수 없는 금세기의 추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통신 교류나 물류 이동이 적었던 지난 세기의 미시적 지역주의(micro-regionalism)에서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폭넓게 문물이 교류되는 거시적 지역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문제는 이러한 거시적 지역주의의 현상과 전혀 다른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에서 예를 든 이베리아 반도의 서부 로망스어가 9개의 개별 언어로 분화된 요인을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에 서부 로망스어 방언 연속체인 포르투갈어(Portuguese)와 스페인어(Spanish) 두 가지 언어밖에 없었다. 1939년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카탈루냐 인들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시민전쟁 이후 카탈루냐어와 문화를 되살리는 한편 언어 규범을 새로 정하고 또 이에 따른 문법서와 각종 사전을 편찬하였다. 20세기 들어 프랑스에서는 한때 카탈루냐어를 사용한 모든 문화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1977년 이후 카탈루냐가 독립되면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의 모든 방면에서 카탈루냐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로 분리된 것이다. 이처럼 카탈루냐어(Catalan)가 제일 먼저 분리한 이베리아 반도는 여섯 민족 국가들이 자국의 민족어를 규범화함으로써 계속해서 핵분열이 이루어지듯이 9종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베리아 반도 언어 분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민족적 단합과 또 그들의 언어 규범의 제정과 통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사례를 고려한다면 한민족인 우리의 남북의 언어가 현재와 같은 방언 차이에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언어 규범을 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다면 결국 서로 다른 개별 언어로 분리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언어의 분열은 곧 영원한 민족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1.2 공통어에 기반을 둔 표준어



〈그림 1〉 서울 방언의 공통어화 현상의 모델

1930년대 우리 언어의 규범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표준말 사정 조건은 <<표준어 사정 원칙>> 총칙에 근거하거나 <<조선어 철자법 총칙>>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언어 규범의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위에서 제기된 개별 언어로의 분리 가능성이 매우 능후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한민족 어문 규정에 대해서는 극단적 한계성을 비켜섬으로써 민족어의 단일적 성격을 나름대로 유지해 오고 있음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남한의 표준어 규정은 소화 24년 이전의 일본의 표준어 규정과 너무나 흡사하다. 곧 일본의 표준어의 기준을 “동경의 야마노테선(山手線) 안에 거주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정의하고 있듯이 지역적으로 “동경과 서울”, 계층적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의 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도 동경 표준어 기준에서 탈피하여 공통어 규범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아직 남한에서는 “오늘날 서울 지역의 교양인들의 언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지역의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미 60여 년 동안 표준어 규정에 의한 교육의 결과 <그림 1>처럼 서울 방언이 남한 전역의 공통어로 자리를 잡았다. 곧 국어를 구성하는 여러 방언들(방언k, 방언l, 방언m...방언z) 가운데 “방언u”를 (서울말) 표준어로 규정함으로써 이 “방언u”가 대부분의 남한 지역 전체에 확산되어 하나의 공통어로 자리 잡았다.

둘째, 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이미 서울 지역의 언어라는 의미

는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 규정의 지역적 제약에 의해 지역 방언이 급격하게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북조선에서의 문화어 규정과 남한의 표준어 규정을 대비해 보면 먼저 지역적 제약성과 계층적 제약성에서 차이를 보여 준다. 북조선의 문화어를 규정하는 기본 원리는 지역성이나 계층성이 아닌 “다수의 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정 지역 외의 언어라도 다수의 인민이 사용하는 공통성이 많으면 수용될 수 있다는 규정은 남한의 경우보다 융통성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간성에 대한 기준은 남북 공히 “현대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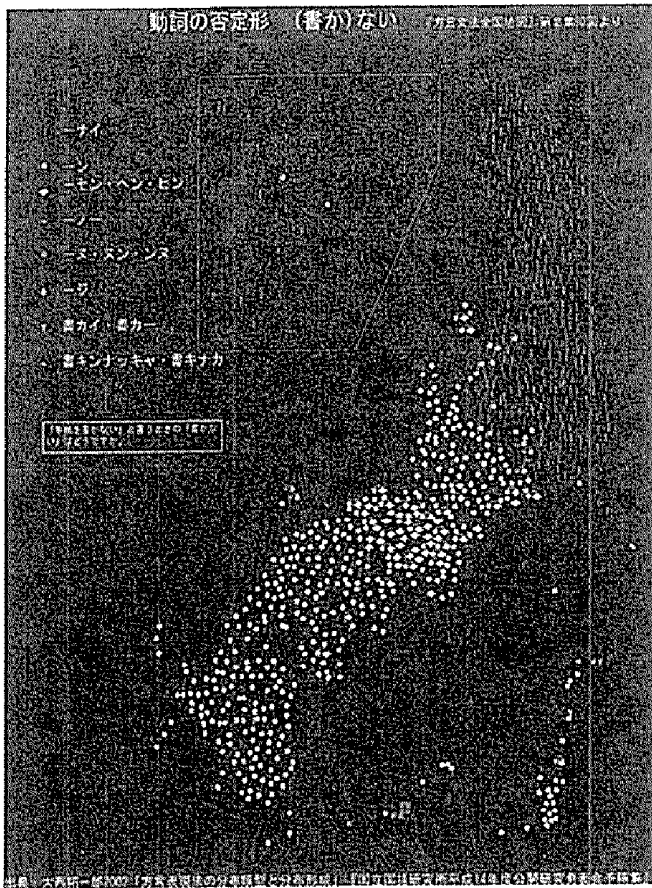
여기서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라는 개념은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언어 간에 공통적인 요소가 많은 언어, ② 한민족 언어 내에서 방언 간의 공통성, ③ 지역 사회의 성원 간의 공통어로 구분될 수 있다. 한민족 언어의 규범이 되고 또 잘 다듬어진 말인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공통어는 바로 “② 한민족 언어 내에서 방언 간의 공통성”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 국어 ⇒ 표준어 ⇐ 공통어 ⇔ 방언

<표 1> 한민족 국어를 구성하는 인자

한민족의 국어는 여러 방언을 토대로 하여 그 방언의 공통성을 모아 표준어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곧 “한민족 방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를 표준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어와 방언이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라면 표준어는 공통어를 기반으로 다듬은 인공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바탕을 세우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방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에 대한 현지 조사가 선



<그림 2>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 오니시 타쿠이치로(大西拓一郎)의 홈페이지(方言の宇宙) (http://www2.kokken.go.jp/~takoni/English/E_takoni_GAJ2-80_kakanai.html)에서 따옴.

행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전면적인 언어 분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 방언의 조사와 보존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지름길인 동시에 민족자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동경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 정책에서 다시 공통어를 기반으로 한 표준어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지속적인 언어 분포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²⁾ 일본에서는 명치(明治) 시대부터 국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음운 분포 조사』(1905년), 『국어 어법 분포도』(1906년)를 발간하였으며 최근 국립국어연구소에서 1966년-1985년에 간행한 『일본 언어 지도』 전 6권과 1989년에 시작, 2005년에 완성될

『방언 문법 전국 지도』 제5집(<그림 2>)부터는 전면적인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러 대학 연구실 단위의 수백 여 건의 언어 지도화 작업의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순수한 언어 지도화 연구 성과가 약 400여 건에 이를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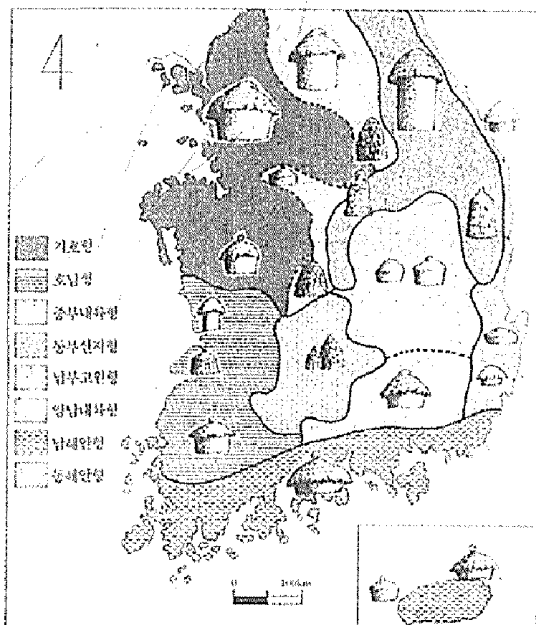
지역의 방언 조사는 학술적으로 국어사의 흐름을 밝혀내기 위해 매우 필요한 동시에 위와 같이 어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의 연구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 언어의 본성인 분리성을 남북 간에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서로 다른 어문 정책에 기인된 분리가 가속화된다면 이베리아 반도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언어 분

2) 文化廳(1952), 『標準語と方言』 ことばシリーズ 6.

리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민족의 정신의 분리로 치달을 위험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언어 지도의 개념과 유형

2.1 언어 지도의 개념



<그림 3> '짚가리' 형태의 지리적 분포(최영준, 2002:132)

지도(Map, Atlas)는 인류의 삶이 시작되면서 발달한 다원적 우주 공간 개념을 그림이나 문자나 기호 등으로 표현해 온 양식이다. 따라서 지도의 기원은 문자의 기원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원시 이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가에 둘러 앉아 어느 곳에 어떤 종류의 고기가 더 많이 잡힐 것인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려 설명하던 모래 그림(sand map)이 인류 최초의 지도 양식이었다.(織田武雄, 1963:16).

그 이후 지도는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 최근의

GIS 프로그램에서는 시간과 공간 개념까지 합성할 뿐만 아니라 가상의 시·공간까지 지도에 묘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언어 현상의 지리적 분포를 밝혀내고, 그로써 크고 작은 방언 경계를 찾아내어서 그 경계들이 왜 생겨났으며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는 일들이 방언학도들의 본연의 과제이다.(이익섭:1978) 이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언 지도를 그려 내고, 그것을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정밀하고도 정확한³⁾ 언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언어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 단

계로 그것을 지도에 묘사하여 언어의 지리적 분포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정밀한 방언 지도(dialect map)를 그려야 한다. 또한 크고 작은 방언 경계를 확인하여 체계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또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인 변화의 관계를 찾아내야 한다.

언어(이하 “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됨)와 관계되는 지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 지도(linguistic map)와 방언 지도(dialect map)가 그것이다. 언어 지도는 하나 이상의 언어를 대상으로 다루는 경우이고, 방언 지도는 한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 둘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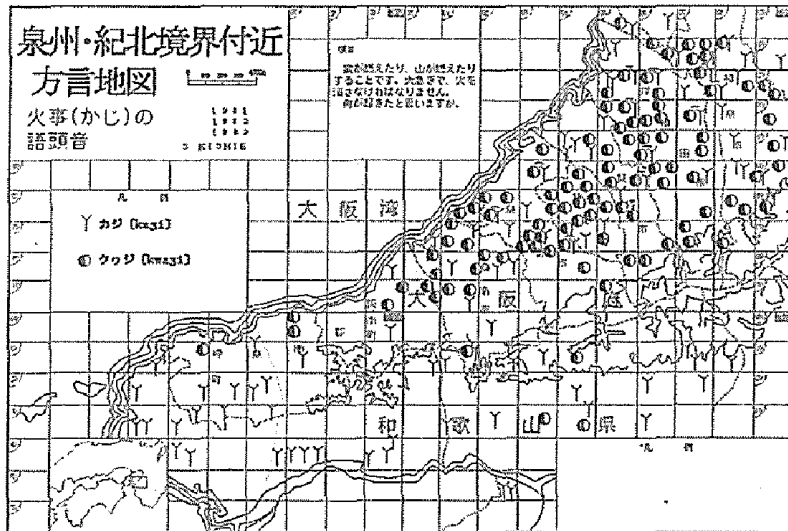
이와 교차하는 기준에서 다시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먼저 언어 그 자체의 지리적인 분포를 다루는 분야가 있다. 사회 언어학·언어 정책론에서 말하는 “종합 계획”에 관계되는 지도이다. 예를 들면, 세계의 공용어 분포 지도가 그 전형이다. 방언 지도는 개개의 언어 현상에 대한 분포를 다룬다. 사회 언어학·언어 정책론에서 말하는 “부분 계획”에 관계되는 지도이다. 또 비언어인 현상을 다루는 <그림 3>과 같은 인문 지리학적 지도도 언어 연구자들의 관심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제3의 부류로 처리한다.⁴⁾ 완성된 지도 전산화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엄격하게 언어 지도와 방언 지도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언어 현상의 지리적 분포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리 언어학에서는 언어 지도

3) 여기서 정확성의 의미는 아마도 보편성(Universal)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언어, 곧 지역 방언이란 어떤 특정의 토박이만이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토박이들의 공통된 생활 언어라고 생각한다.

4) 이노우에 후미오(井上 史雄)(2002), 「言語地圖の魅力」, 『일본어학』 9월 호. 언어와 관련되는 언어 지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언어 체계 전체 종합 계획	언어 개별적 사항 부분 계획	비언어현상
언어 지도	① 언어 분포도	③ 언어 간 방언학	⑤ 문화 지도 등
방언 지도	② 방언 구획론	④ 방언 분포론	⑥ 민속 지도 등



<그림 4> 키시에 신수케(岸江信介) 교수의 홈페이지(岸江研究室) (http://www.ias.tokushima-u.ac.jp/kokugo/_private/kishie.htm)에서 따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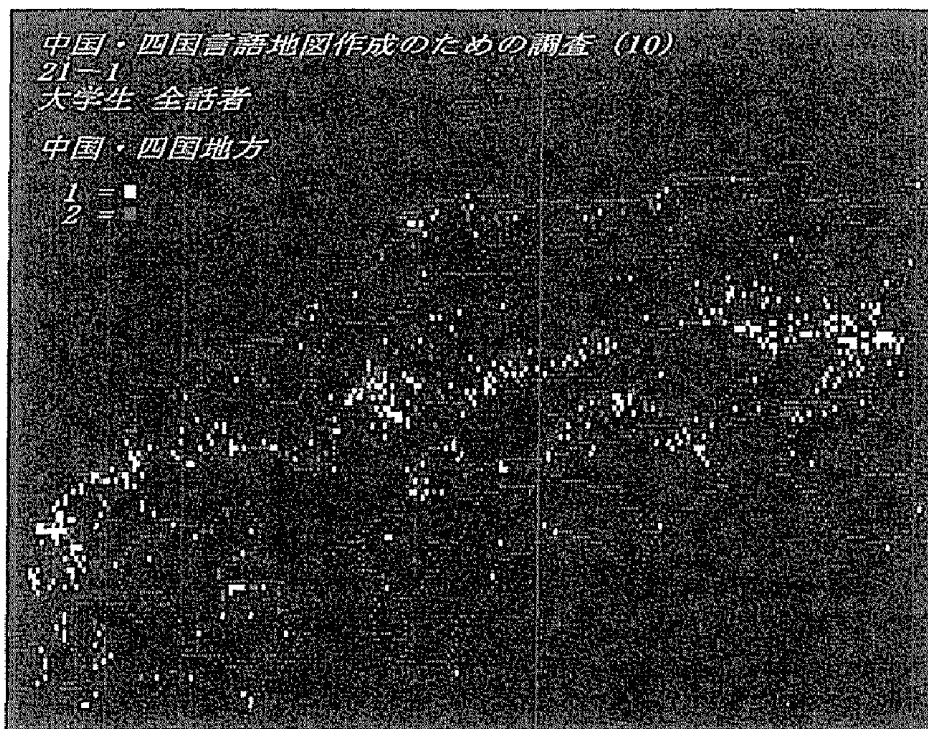
를 매개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어의 역사나 공식적 체계화를 위해서는 언어 형식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화하고 또 어떤 변종을 보이고 있는지, 언어 자료에 대해 먼저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인 언어의 지역적

변종을 지도에 기입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역적 분포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지역적 변종과 변화의 요인을 추정할 수 있다. 언어 지도는 지리 언어학에서 개발된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사회 언어학적인 목적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언어는 시·공간의 차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연령이나 남녀·성별 등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분화된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언어 차이를 언어 지도상에 그려 넣으면 언어 차이에 대한 해석과 함께 언어 변화의 추이를 밝혀내는 데 매우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 지도의 방법을 단순히 지리 언어학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Tusnana Ogino(1975)가 개발한 GLAPS(Generalized Linguistic Atlas Printing System)는 지리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사회 언어학자들 간에 광범위하게 활용된 바가 있다.⁵⁾ 또 글로토크램을 활용한 3차원의 언어 지도에 사회 언어학적 변화 과정을 기술한 타카하시 겐지(高橋 顯志)의 “보령 언어 지도”도 지리 언어학과 사회 방언학의 연구 방법을 연결시켜 주는

5) Tusnana Ogino(1984), “Computer-assisted Analysis of Field Survey Data, -GLAPS and it's Application-”, 『Quantitative Linguistics』 Vol. 21, 『DIALECTOLOGY』, edited by H. Goebel. 참조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⁶⁾ 특히 정밀 스케일(micro-scale)을 활용한 언어 지도 작성 방식인 GLAPS와 같은 언어 지도는 케토그래픽 지형도(cartographic map)의 양식을 활용하여 클러스트 지도(cluster map), 격자형 지도(grid map)나 연계 지도(continuum map) 등의 양식으로 그리기 때문에 반드시 2차원적 지도 도면상에 표현한다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림 5> 타카하시 겐지(高橋 顯志)의 글로토그램 언어 지도(<http://home.hiroshima-u.ac.jp/~hoogen/index.html>에서 따옴)

뿐만 아니라 지도 도면상에 하천이나, 산맥 등 다양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표시한 위에 언어 분포를 묘사하는 3차원 지형도(topography) 7) 형식의 언어 지도도 있다. 그리 앞으로 GIS를 활용한 언어 지도 묘사 방식

은 3차원 이상의 세계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합성한다든지 미래와 과거의 공간을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의 언어 지리적 환경을 연출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원이든 4차원이든 지도상에 언어 또는 방언형을 묘사하는 방식도 생생한 자료

6) 타카하시 겐지(高橋 顯志)(2002), “보령 言語地圖”, 『일본어학』 9월 호.

7) John Ambrose(1980), “Micro-scale language mapping: An experiment in Wales and Brittany”, Discussion Papers in Geolinguistics 2. North Staffordshire Polytechnic Dept. 참조

인 방언형이나 또는 이를 상징 부호(부호, 숫자, 색상 등)로 전환하여 묘사하던 방식에서 제보자의 음성 자료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⁸⁾

따라서 지금까지 언어 지도를 지리 언어학의 관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언어 지도가 마치 지리 언어학의 전유물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방언학 사전』: 2001:265)과 같이 단순히 2차원적 지도 형식을 빌어 언어 차이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지도나 도면 또는 3차원 이상의 공간에 언어적 특질을 중심으로 기입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곧 종래에 “지리 언어학에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언어 위에 묘사함으로써 언어 분화의 경계를 찾아내든지 또는 언어의 체계적 분화 과정과 역사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언어의 시간과 지리 공간 속에서 사회적 요인이나 인문 지리학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분화된 양상을 지도 속에 묘사한 양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지도를 여러 장 묶은 것을 지도첩(linguistics atlas)이라고 하지만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보통 언어 지도(linguistics map)라고 부른다.

2.2 언어 지도의 유형과 한민족 언어 지도

1) 표현 양식에 따른 언어 지도의 유형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되거나 온라인상에 제공된 언어 지도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유형 분류의 일차적인 방식은 진열 지도와 해석 지도로 2분법으로 분류한 것과 그리는 방식에 따라 손으로 그린 지도와 전산화에 의한 지도 등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보급된 이래 언어 지도 형식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자료의 양과 형태 면에서, 그리고 표현 양식 면에서, 논리의 종합화와 단순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자료의 시

8) 언어 정보학의 발달로 음성 자료의 데이터화와 검색을 위해 음성 코퍼스 구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음성 자료의 코퍼스 구축과 음성 언어 지도는 별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각적 표현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또 지도 형식은 조사 지역의 크기나 지도의 규모에 따라서나 조사 지점의 수, 조사 자료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⁹⁾

언어 지도를 분류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언어 지도의 양상을 용이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 유형을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언어 지도의 양식을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유형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그 발달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⁰⁾ 언어 지도를 작성하는데 작성자의 해석이 가해지는가에 따른 구분 방법과 그리고 바탕 지도를 두고 언어 지도를 그리는가에 따른 구분 방식, 2차원의 언어 지도인지 그 이상 다차원적 언어 지도 양식인지에 따른 구분, 묘사 방식에 따라 손으로 그리느냐 전산화에 의해서 그리느냐와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2) 한민족의 언어 지도 제작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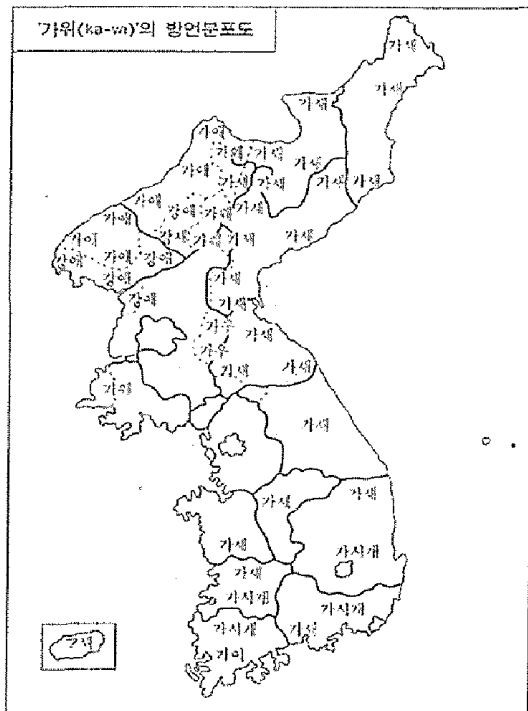
언어 지리학적인 목적으로 언어 지도를 그린 것은 대학 연구실이나 개인적 연구 차원에서부터 국가적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언어 지도가 소개되었다. 지금까지 방언 자료를 언어 지도로 묘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손으로 지도상에 방언형이나 기호로 전환하여 기입하는 방식과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 지도를 전산화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워드(OCHP, 보석글, 한글)나 화상 처리 소프트웨어(페인트 볼러쉬,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자료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DB, 엑셀, 워드패드, 메모장)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1) 손으로 언어 지도를 그리는 방식

방언 자료를 하나하나 대상 지역의 백지도 상에 방언 분화형이나 또는 상징 부호

9) Chamb er & Trudgil(1980)dms (1) 진열 지도, (2) 해석 지도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W. N. Francis(1983:105-144)는 (1) 생생한 자료 지도(raw data map), (2) 지도와 목록의 조합(map and list combinations), (3) 편집 지도(edited map), (4) 해석 지도(interpretative map), (5) 등어선 지도(isogloss map), (6) 구조적 지도(structural map)로 구분하고 있다.

10) 田原廣史(2002), "コンピータと方言研究", 『21世紀の方言研究』, 國書刊行會.



<그림 6> '가위'의 방언 분포도(김병제, 1988:241. 참조)

를 지도상의 각 지점에 직접 손으로 그리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그린 지도는 인쇄 과정을 통해 다시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손으로 그린 언어 지도 그림을 그대로 읍셋트로 인쇄(마스타 인쇄 기법도 동일한 원리이다.)하는 읍셋트 기법이 있다. 예로는 최학근(1958), 김병제(1988)¹¹⁾를 비롯하여 이송녕(1967)¹²⁾, 천시권(1965)¹³⁾ 등에 의한 낱장 형식이 보고된 바가 있다.

연구자가 손으로 그린 지도를 인쇄 전문 도안사가 트레싱지에 다시 옮겨 그리는 기법인 트레싱 기법이 있다. 오구라심페이(小倉進平)(1944)의 조선 방언 지도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출판 사정이 좋아지면서 주로 트레싱 기법으로 그려진 방언 지도가 워크시트 형식으로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서나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언어 지도를 제작한 사례는 이익섭(197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손으로 그리는 방법은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도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언어 지도를 손으로 그리는 방식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그리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PC를 활용하여 언어 지도를 그리는 방식

최근 컴퓨터의 보급으로 PC를 활용한 언어 지도 작성 방법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11) 김병제(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2) 이송녕(1967), 『한민족 방언사』, 한민족 문화사 대계 V,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3) 천시권(1965), 『경북 지방의 방언 구획』, 『어문학』 13, 한민족어문학회.

있다. 방언 자료를 PC를 활용하여 그리는 일은 사실 단순 작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방언 연구자들의 연구 과제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나 컴퓨터를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언어 지도 작법에 대한 연구가 현재의 시점에서는 매우 요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PC를 활용한 언어 지도 제작 방식은 백지도를 그림 파일로 만들어 그 위에 각 지역의 방언형(한글 또는 IPA전사 형식)이나 부호 또는 색채 등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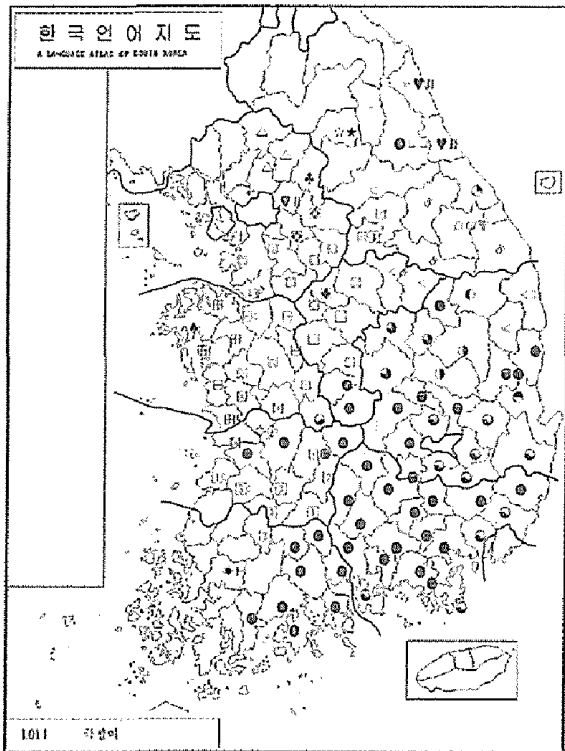
최근까지 전산 방식을 이용한 방언 지도 제작은 1980년대 초, 김충희(1991)에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연구는 대체로 방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식에 대한 연구와 언어 지도의 제작과 화상 작업, 그리고 방언형을 전산에 의해 부호로 전환하여 백지도에 기입하도록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① 정인상(1985): 이 연구는 8비트 애플(APPLE)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어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가능성에 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로는 dBASE II를 활용한 것으로 방언 자료 처리를 위한 모색 작업이었다.

② 김충희·홍윤표·김병선·소강춘(1991): 한민족 전 지역에서 조사된 방언 자료의 전산 처리를 위한 최초의 전산 처리 방식이었다. 전국적인 진열 지도와 해석 지도의 작성을 목표로 한 컴퓨터를 활용한 최초의 전산화 작업 성과였다.

방언 자료 처리와 색인을 위해서는 dbase III plus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자료 처리용 패키지인 dbase III plus와 호환성이 있는 클리퍼 컴파일러(Clipper Compiler 1988, summer version)를 활용하여 백지도를 만들었다. 이는 방언 자료 처리와 색인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하여 직접 처리하고, 그것을 다시 언어 지도로 제작하기 위해 플그림을 만들어 냈다는데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¹⁴⁾

③ 김충희(1992): 이 연구는 유고 저서로 발표되었는데, 각 조사 지점의 기본 자료의 입력은 워드 프로세서 '보석글II'를 이용하고, 자료의 분류 및 정리는 한글 데이터베이스인 'HANDB'를 활용하였다. 또한 언어 지도 작성은 별도의 플그림 없이 '보석글 II'를 이용하여 방언형 기호가 들어갈 지점을 지정한 뒤, 별도로 제작된 기본



<그림 7> “극쟁이”의 방언 분포도(제작 이상규: 1999)
(천연색 지도임)

지도 도면에 프린트를 이용하여 겹쳐 찍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종의 그리드 제작 기법에 해당한다. 이것은 특별한 지도 제작 플그림 패키지를 개발한 것도 아니지만 당시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김충희(1992)는 약 90여 장의 충청북도 방언 지도를 제작하였다.¹⁵⁾

④ 이기갑(1994)은 언어 지도 상에 언어 변화의 방향이나 언어 분화의 추이를 상징 부호의 방향 표시로 언어 지도에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물론 전면적인 자동 전산화 과정은 아니지만 지도 제작 의도를 확장시킨 성과였다.

⑤ 김덕호(2001): 워드 프로세스 <훈글>의 메일머지를 활용하여 페인트 블러쉬(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화상 소프트웨어도 활용함) 등을 활용하여 그린 백지도 위에 적절한 방언 분화형을 부호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독자적인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지는 못했으나 김덕호(1995, 2001)의 방식이 가장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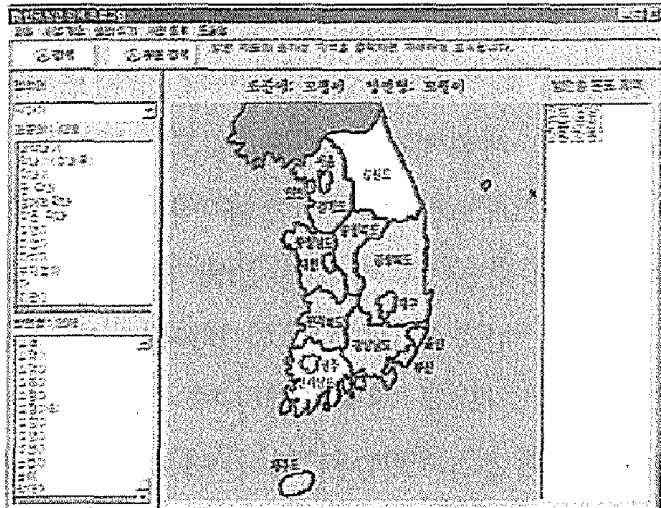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시작용으로 제작한 남한 방언 지도를 백지도로 한 김덕호의 언어 지도 방식이 널리 보급되면서 연구자가 개인별로 화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등어선 지도를 그리든지(최명옥: 1992, 1994, 김정대: 1998, 이상규: 1998, 김택구:

14) 이와 같은 방식의 언어 지도 제작 방식은 일본에서도 타카하시 겐지(高橋 顯志)가 활용하고 있다.

15) 김충희(1999), 『언어 지도 작성법』 - ‘보석글 II’를 이용하여, 충북대학교 출판부.

한국에서 언어 지도의 전산화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어 전산화 발전을 위해 선두 역할을 하셨던 고 김충희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이다.

16) 김덕호(1995b), 「컴퓨터를 활용한 광역 언어 지도 작성 방법론」, 『국어학』 26.을 참조.



<그림 8> 국립국어연구원(2002), “한민족 방언 검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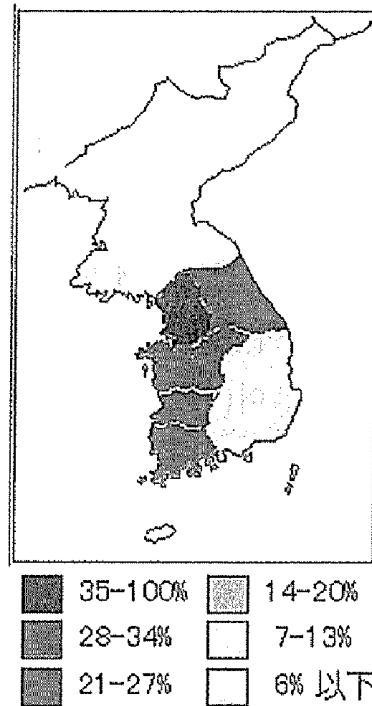
1991) 또는 대상 지역을 축소한 도나 군 단위의 언어 지도(작성 방법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유의 방식은 손으로 그리는 방식보다는 진일보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구미나 일본과 같이 언어 지도 작업의 전면적인 전산화 작업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연계한 방식으로 언어 지도를 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언어 지도의

전산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⑥ 국립국어연구원(2001)에서 세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한민족 방언 검색 프로그램”의 방언 자료의 검색 방식은 그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 “한민족 방언 검색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방언자료 검색 시스템으로는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 지도 작성 방식도 매우 독특한 마스크 기법을 활용하여 방언 분포를 언어 지도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이다.¹⁷⁾ 앞으로 다양한 언어 지도 제작 기법 가운데 마스크 기법은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색 시스템에 부착된 방언 지도는 정교한 언어 지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데이터의 입력이 불가능하여 전혀 언어 지도 제작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비주얼 기능만 갖추어진 프로그램이다. 한민족의 21세기 세종 계획 프로젝트의 한민족 언어 정보화 분과에서 개발한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비주얼 기법인 마스크 기법에 의한 언어 지도가 있다.¹⁸⁾

17) 두길수·안동언(2002), 「한민족 방언 검색 프로그램 개발」, 『한민족어와 정보』, 우산 홍운표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18) 두길수·안동언(2002), 한민족 방언 검색 프로그램 개발, 『한민족어와 정보화』, 태학사



<그림 9> 한민족 방언 인식 지도
<http://nihongo.human.metro-u.ac.jp/long/maphk-pleasantmap.html>

일본에서는 언어 정보화의 발전과 더불어 음성 데이터화 작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언어 지도 형식에다가 음성 자료를 함께 첨부한 음성 언어 지도가 최근 개발되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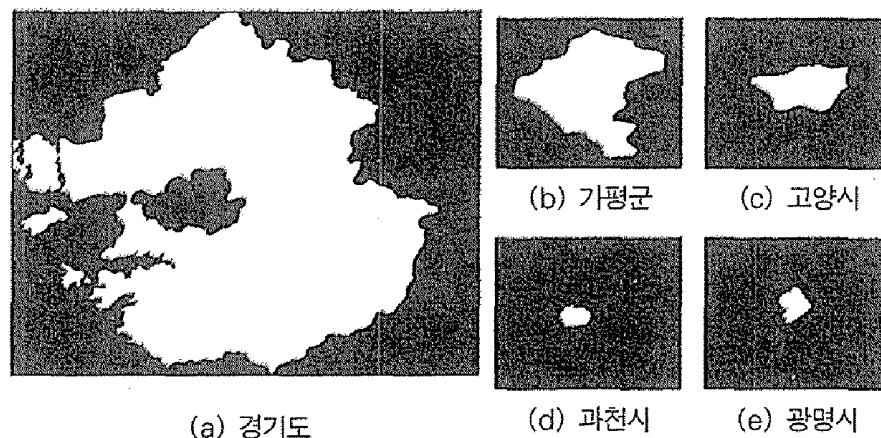
최근에는 거주자들의 언어 인식을 조사하여 방언 구획을 시도하거나 혹은 사회 인식 차이에 의한 언어 또는 방언의 차이를 현장 조사를 통해 계량화한 인식 지도

19) 키시에 신수케(岸江信介)·키베 노부코(木部暢子)·이시다 유우코(石田祐子)(2002), 「聲の言語地圖」, 『日本語學』 9月号. 언어 지도 상에 음성 데이터를 연계하여, 언어 지도와 함께 생성한 제보자의 음성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徳島大學 岸江 言語研究所 홈페이지에 음성 언어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래아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는 개체삽입(OLE: Object Linking & Embedding) 기법을 활용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HTML 문서에서는 “하이퍼 링크”를 이용하여 음성 언어 정보를 언어 지도 상에 나타내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perceptual map) 형식이 있다.²⁰⁾ 한민족 방언 인식 지도(Perceptual Dialect Maps of Korea)로서는 임영철 교수가 참여하고 Daniel Long 교수와 Isao Onishi 교수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작한 것이 있다.

이처럼 한민족에서의 언어 지도 작성의 전산화 과정은 방언 자료의 데이터 구축 방식에 대한 모색, 백지도의 화상화 및 출력 방식, 방언 자료의 부호화와 아울러 백지도 상에 진열하는 문제 등으로 집약된다. 데이터의 전산화는 주로 'OHP', '보석글', '흔글'과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였으며, 백지도의 화상화 및 출력 문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비트맵, 페인트 블러쉬)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화상 진열 및 출력 방식은 워드의 메일머지를 활용하거나 백지도 상에 그리드를 설정하여 지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그림 10> 경기도 지역 마스크 표현 기법(두길수·안동연(2002: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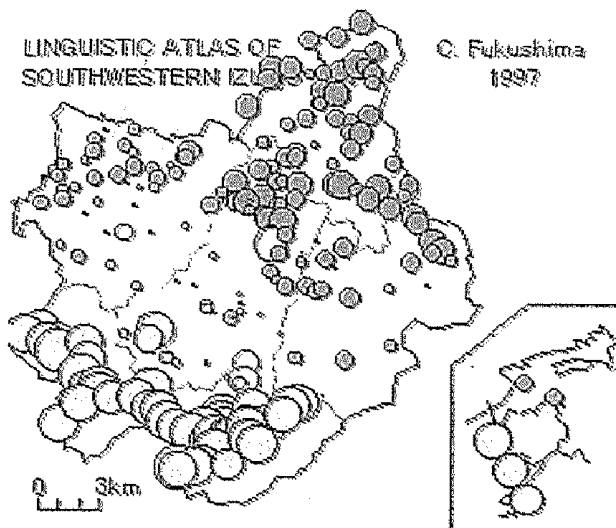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한민족에서는 방언 자료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언어 지도를 제작하여 출력하는 모든 과정을 전면 전산화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0) Dennis R. Preston(1989), 『Hawaiian Perception of United State Dialect Distribution』, Published by Foris Publications Holland,

3. KSeal을 활용한 한민족 언어 지도 제작

3.1 KSeal이란 무엇인가?

1983년에 Chitsuko and Yusuke Fukushima가 PC에서 작동하는 언어 지도 제작



<그림 11> Fukushima 교수의 홈페이지 <언어의 방> (A Room for Linguistic Geography) (<http://www.nicol.ac.jp/~fukushima/english/index.html>)에서 따옴.

시스템을 개발한 이래,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여 현재 GUI(그래픽 유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윈도우 xp에서 작동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다. 특히 후자는 개인 컴퓨터를 활용, 방언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고, 언어 지도까지 제작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2003년 현재 SEAL 6.3E판은 영어판 윈도우에서 구동되며 앞으로 다국어의 언어 자료의 정보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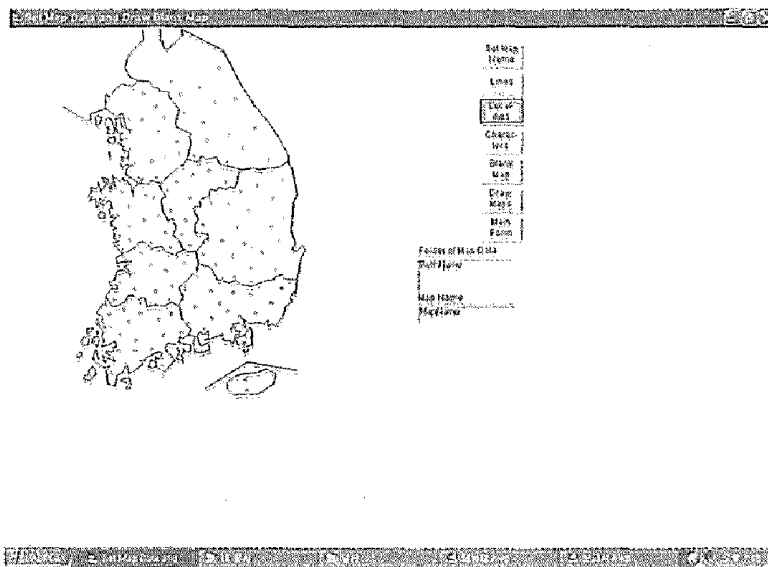
망이다.

2003년 4월 이 SEAL 6.3E판에는 한글 방언 자료를 전사할 수 있도록 3개의 문자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따라서 SEAL로 한글 방언 자료의 정밀 전사가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SEAL을 한글 윈도우 환경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전환한 KSeal은 한글은 물론이고 IPA전사 자료로도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3.2 KSeal의 장점

KSeal 시스템의 기반인 SEAL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²¹⁾ 간단히 말하자면 진열 지도와 해석 지도 형식을 모두 전산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연구실 단위에서도 매우 다양한 언어 지도를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시스템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Seal을 활용한 KSeal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지 살펴보자.

(1) 데이터의 입력이 매우 용이하다. 아울러 보다 깨끗한 언어 지도를 작도할 수



<그림 12> 남한 지역 방언 조사 지점(이상규: 2003)

있다는 이점과 그리고 자료를 반복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SEAL 시스템은 각 지점의 특수 단어 형태의 출현 빈도를 고려한 기능과 언어 지도 상에 조사된 빈도수를 記號의 크기, 색깔, 형태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Inoue(1996 a, 1996b) 소위 “동질화 방법”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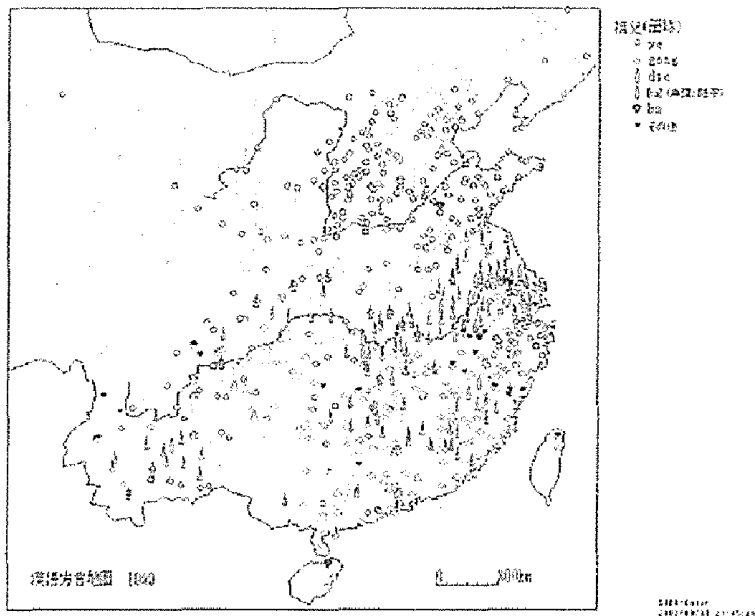
부른다. 만일 우리가 이 방식을 지도상에 따라 응용한다면 그것은 “축척된 동질성의

21) 岸江信介・目部暢子・石田祐子(2002), 聲の言語地圖, 日本語學, 9月号. p. 61

일본에서도 SEAL이 언어 지도 작성 방법 가운데 가장 정교한 언어 지도 작성 소프트웨어로 평가하고 있다.“なかでも福島氏のプログラミングによるSEALはパソコンの性能の進展に伴って何度もバージョンアップが繰り返されね 現在では最も精巧な言語地圖作成 ソフトであると評價できる。(그중에서도 후쿠시마(福島秋子) 선생의 프로그래밍에 의한 SEAL은 PC의 성능의 진전에 부응하여 몇 번이나 버전 업을 되풀이하여 현재에서는 가장 정교한 언어 지도 작성 소프트웨어라고 평가된다.)”

방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는 언어 지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적절한 언어 특질의 지역적 분화를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3) 아울러 해석 지도로서 방언 분화형의 빈도수를 반영한 <그림 11>과 같은 확산 지도를 그려냄으로써 언어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량적 분석에 의한 대조 지도를 제작할 수 있어 언어 지도 제작과 함께 언어 지도에 대한 계량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3> SEAL을 활용하여 Ray Iwata 교수가 제작한 중국의 언어 지도의 예.

(4) SEAL을 활용하여 이미 영국 언어 지도²²⁾ 뿐만 아니라 Ray Iwata 교수²³⁾에 의해 중국 방언 지도가 시험적 제작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 방언 자료의 데이터화 및 언어 지도도 성공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 데이터 작성을 위한 IPA 코드의 통

22) Viereck, Wolfgang, in collaboration with Heinrich Ramische, The Computer Developed Linguistic Atlas of England 1. Max Niemeyer Verlag, Tuebingen. 1991.

Viereck, Wolfgang and Heinrich Ramische, The Computer Developed Linguistic Atlas of England 2. Max Niemeyer Verlag, Tuebingen. 1997.

Professor Dr. Wolfgang Viereck (University of Marburg, Germany) 교수의 Computer Developed Linguistic Atlas of England (CLAE) 1 & 2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SEAL 시스템으로 Fukushima 교수가 만든 영국 지도가 소개되어 있다.

23) Ray Iwata (2000),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its diachronic formation of modern Chinese dialects", In Linguistic Geography and Humanistic /Physical Geography in China 7.

일과 부호에 대해 부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한자어권에 적용되는 범언어 지도 제작용 시스템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5) 끝으로 SEAL을 활용하여 학술적인 목적으로 지도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단지 Chitsuko and Yusuke Fukushima에 의해 개발한 SEAL 시스템을 활용한 것임을 밝혀서 그 제작물을 준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6) 한민족 언어 지도 제작 전용인 KSeal에서는 방언 자료가 한글 또는 IPA로 전사되어 있어도 언어 지도 제작이 가능하다.

3.1 KSeal을 활용한 언어 지도 제작 방법

1) KSEAL의 인스톨과 구동

현재 KSeal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SEAL 6.3E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²⁴⁾ 인터넷 Explorer나 Netscape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만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필자가 직접 CD-R에 인스톨 파일로 우편해 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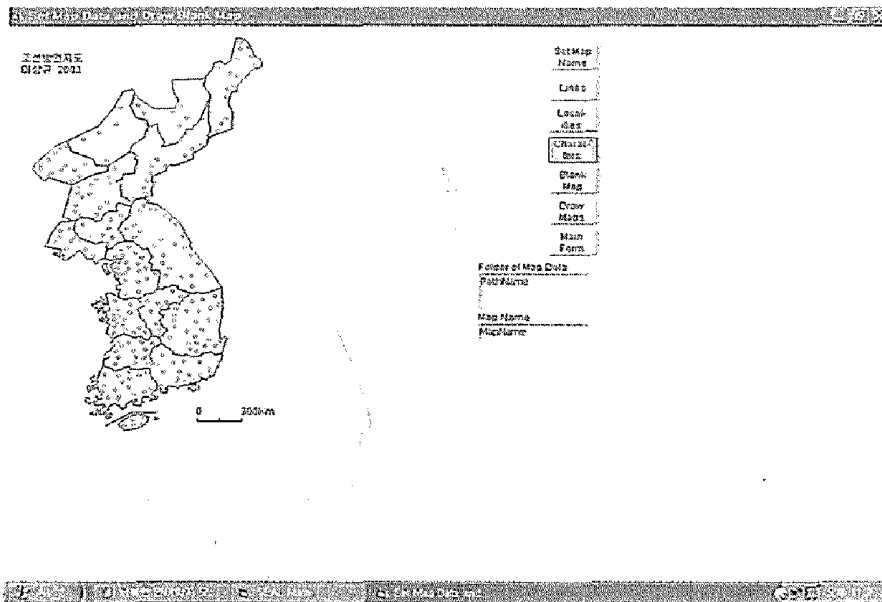
여기서는 인터넷상에서 SEAL 6.3E를 인스톨하는 형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언어 지리의 방(A Room for Linguistic Geography)에 들어가서 하드 디스켓에 Seal6.3ESetup.exe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직 영어만 선택될 수 있으나 곧 완전 한글판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KSeal의 구동을 위한 절차와 방언 자료의 데이터 구축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KSeal 시스템을 공개할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2) KSEAL을 활용한 남북 언어 지도의 사례

현재로서는 남북 언어 지도를 그릴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구라심페이(小倉進平)(1944)의 『조선 방언의 연구(朝鮮方言の研究)』(상)를 대상으로 한 남북 방언 지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KSeal을 활용하기 위해서

24) 필자는 SEAL 6.3E는 2003년 4월 Fukushima 교수로부터 제공받았다. SEAL 6.3E는 KSeal을 구축하기 위해 SEAL 6.2E에서 한글 전사를 위한 정밀 음성 부호를 보완한 것이다.



<그림 14> 小倉進平(1944)의 『朝鮮方言の研究』(상)의 259개 조사 지점(이상규, 2003: 4)

는 반드시 한글 윈도 2000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방언 자료가 한글 또는 IPA로 전사 되어 있어도 언어 지도 제작이 가능하다.

오구라심페이(1944)의 『조선 방언의 연구』(상)에서 제시한 방언 조사 지점은 259개 지점인데 이를 언어 지도 상에

나타낸 지도가 <그림 13>이다. 『조선 방언의 연구』(상)에 소개된 “고구마”라는 항목의 방언 분포도를 제작하기 위해 방언 자료를 엑셀(Excel)이나 윈도 2000의 워드패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구축한다. 여기서는 한글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나 IPA로 구축할 수도 있다. 특히 한글 전사 자료로 바로 자료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밀 지도를 그려야 할 경우는 IPA나 또는 KSeal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문자를 활용할 수 있다.

259,"c:\Seal63E\Seal\SealData\SKorea\Ling\koguma.dbs"

1," -"

1,"감저"

1," -"

1,"감저"

1,"감제"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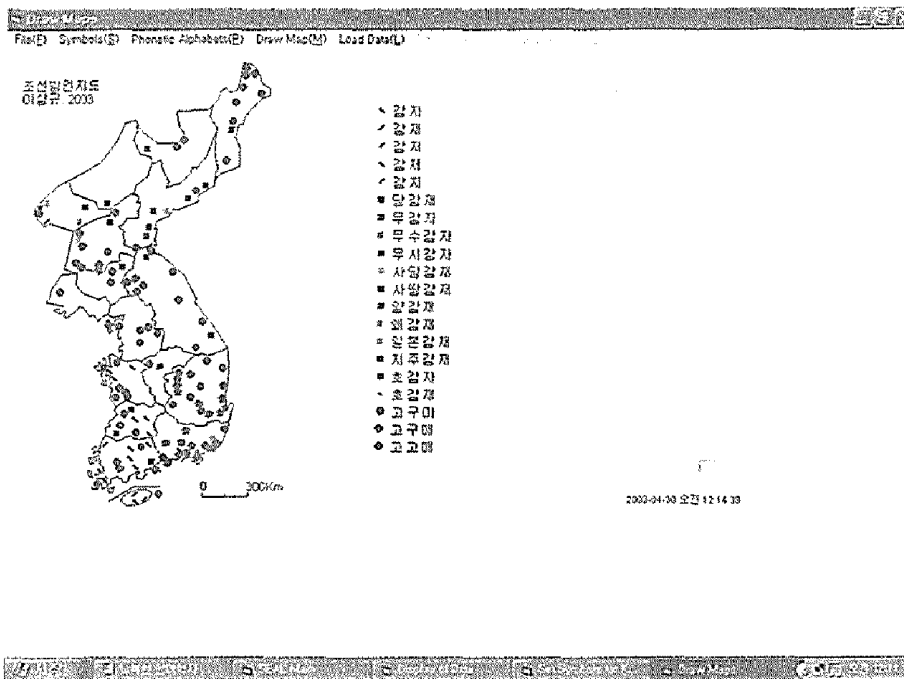
1,"감자"

2,"고구매"

1,"고구마"

2,"당감제"

KSeal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글 윈도 2000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총 259개 지점의 방언 자료를 언어 지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로 구축한 다음 KSeal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우 손쉽게 언어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며 아울러 매우 선명하고 아름답게 인쇄까지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림 15> KSeal을 활용한 한민족 언어 지도 제작 사례(이상규 2003)

3. 전망과 마무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언어 지도를 지리 언어학적인 목적으로만 제작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회 언어학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 효용성이나 설명력이 보다 넓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언어 지도 작성은 언어 분화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의 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으나 이제는 지도화 그 자체가 새로운 논리적 해명을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언어 지도는 단순한 2차원적 언어 지도가 아니라 3차원 이상의 언어 지도로 발전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가 지원되는 언어 지도나 또는 지형도 곧 산맥이나 강 등의 인문 지리학적 정보가 지원되는 언어 지도의 형식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그 방향은 GIS를 목표로 한 언어 지도 데이터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최소한 경도, 위도와 같은 지리적 정보는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되어야 한다. 언어 지도의 정보를 연계시키거나 언어 이외의 정보와 조합하거나(예를 들어, 산맥·교통망·해로·반경 등에 대해 행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영성했다)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장래에는 방언 자료 분석 시뮬레이션의 방법도 기대된다. GIS 시스템을 활용한 언어 지도 전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다차원의 공간 속에 연출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일본 도야마대학(富山大學校)의 인문학부를 중심으로 GIS연구회가 『인문과학과 GIS(人文科學とGIS)』 잡지를 2003년 창간하였다. 특히 언어학뿐만 아니라 민속학, 사회 언어학 등 공동 학제 간의 연구회로서 앞으로 지리 정보 시스템(GIS)를 언어 지도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될 전망이다. 지리 정보 분석 지원 시스템인 MANDARA를 이용하여 언어 분화의 요인을 다원적으로 해석하려는 초보적인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이처럼 GIS를 활용한 우주 언어 지도 제작도 가능한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언어 지도 제작 시스템 개발이 개별 국가나 개인 연구자의 연구실 단위로 진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인적, 경제적 낭비가 야기될 수 있어서 아쉽다. 현재 한자(간체자) 처리 문제가 해결된, 보다 유용한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우선 한·중·일 삼국이 공용화할 수 있는 언어 지도 제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세 나라를 포함하는 한자어 문화권의 모든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어, 앞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지도 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은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국제

학술회의나 국가 간 학자 교류 등을 통해 공용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국제적인 언어 지도 제작 방법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민족 언어를 살리는데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연구에 매진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한민족이 하나 되는 내일을 위해 한민족 민중들의 언어를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한 공통어의 기반 마련과 함께 규범 언어인 한민족 표준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한민족이 하나 되는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민중들의 언어가 한민족 언어 지도에 묘사될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 논저

- 김덕호(2002), 『경북 방언의 지리 언어학』, 월인
- 김택구(1991), 「경상남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 논문.
- 소강춘(1994), 「방언 자료의 전산 처리에 대하여-음운론적 현상과 언어 지도 작성 방안-」, 『정신문화 연구』 56.
- 두길수·안동연(2002), 「한민족 방언 검색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 이기갑(1994), 「언어 지도 작성 방법」, 『인문 과학』 10,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 이상규(1995), 「조선어 연구부 편 『방언집』 검토」, 『방언집』, 모산학술연구소.
- 이상규(1996), 「언어 지도의 상징 부호에 대하여」, 대구언어학회
- 이상규(1997), 「존대 형태소 ‘-시-’의 두 가지 기능」, 『어문론총』 31, 경북어문학회.
- 이상규(1998), 「계열어의 방언 분화 양상」, 『추상과 의미의 실재』, 박이정.
- 이상규(1998), 「동남 방언」,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연구원.
- 이상규(1991), 「경북 방언의 경어법」,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연구원.
- 이익섭(1979), 「강원도 영서 지방의 언어 분화」, 『진단학보』 48, 진단학회.
- 최학근(1958), 「언어 지리학의 방법과 성질」, 『동덕학보』 1, 동덕여대.
- 최학근(1958), 『국어 방언학 서설』, 동학사.
- 岸江信介・中井精一・鳥谷善史・石田祐子(2000), 「エクセルとファイルメーカープロを利用した言語地圖の製作-『徳島縣言語地圖』製作を例として-」(『大阪樟蔭女子大學日本語研究センター報告』)

- 岸江信介・中井精一・鳥谷善史(2001), 『大阪府言語地圖』(近畿方言研究會)
 國立國語研究所(2002), 『方言文法全國地圖』, 第5集(財務省印刷局)
 徳川宗賢(1993), 「電子計算器の「言語地圖」への作成適用」, 『方言地理學の展開』(ひつじ書房)
 富山大學人文學部日本語學研究室(2001), 『富山言語動態地圖』
 中井精一・坂口直樹(2000), 「データベースソフトによる富山縣言語動態地圖の製作について」(『富山大學人文學部紀要』33)
 中村和郎・寄藤昂・村山祐司(1998), 『地理情報システムを學ぶ』(古今書院)
 福嶋秩子・福嶋祐介(2001), 『パソコンによる言語地理學その方法と實踐 SEAL ユーザーズテムの世界』(ニュートンプレス)
 Fukushima, Chitsuko(1983a), "Pasokon niyoru Gengo-chirigaku eno Apuroochi (An Approach to Linguistic Geography Assisted by a Personal Computer).(SEAL User's Manual)", Private edition.
 Alan R. Thomas(1980), Areal Analysis of Dialect Data by Computer, Cardiff Univ. of Wales Press.
 Fukushima, Chitsuko(1983b), "Izumo ni okeru kaion-rui no bumpu to sono soogooka : Pasokon niyoru Gengo-chirigaku no ichire tosit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Forms Related to the Old Vowel [au] and Its Synthesization : An Example of Linguistic Geography Assisted by a Personal Computer)", Tokyo University Linguistic Papers 4 : 103-10.
 Fukushima, Chitsuko(1995), "Tokunoshima ni okeru shinzoku-meisho (Kinship Term in Tokunoshima)", Tokyo University Linguistic Papers 14 : 339-57.
 Fukushima, Chitsuko(1997), "Standardization in England Based on the Morphological Data of CLAE." In : Viereck and Ramisch(1997) : 51-56.
 Viereck, Wolfgang, in collabolation with Heinrich Ramische, The Computer Developed Linguistic Atlas of England 1. Max Niemeyer Verlag, Tuebingen. 1991.
 Viereck, Wolfgang and Heinrich Ramische, The Computer Developed Linguistic Atlas of England 2. Max Niemeyer Verlag, Tuebingen. 1997.

국어 방언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이 기 감(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시작하면서

지역에 따른 방언적 차이는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어서, 방언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이 학문적인 대상이 된 것은 19세기 말 유럽에서의 일이다. 독일의 Wenker에 이어 프랑스의 Gillieron이 방언 조사를 실시한 것이 1896년부터이고, 조사 결과가 방언 지도로 옮겨진 것은 1902년부터 1910년 사이이며, 지도의 해석 작업이 1912년 Gillieron과 Roques에 의해 『언어 지리학 연구』(Etudes de Geographie Linguistique)라는 작업으로 이루어졌으니, 여기서 생긴 ‘언어 지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은 곧 방언을 통해 언어의 역사를 밝히려는 목표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방언 연구는 小倉進平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수였던 小倉進平은 우리말의 역사를 알아볼 목적으로 방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어의 방언에 대한 그의 첫 논문인 「제주도 방언」을 『朝鮮及滿洲』에 발표한 시기가 1913년임을 감안하면, 국어의 방언 연구는 서양과 비교해 볼 때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다.

해방 전 방언 연구는 小倉進平과 그의 제자 河野六郎에 의해 주도되었다. 小倉進平은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고, 조사할 때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중에 이를 묶어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으니, 1944년에 펴낸 『조선어 방언의 연구』는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河野六郎은 논문 『조선방언학시고』를 통해 鷄林類事에서 ‘剪刀曰割子蓋’로 나타나고, 중세어에서 ‘ㄱ새’, 현재의 경상도 방언에서 ‘가시개’로 쓰이는

‘가위’의 고대형을 재구하려고 하였다. 이 작업은 언어 지리학이 어떻게 역사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모범적인 예라 하겠다.

해방 이후 우리말의 방언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다지 활발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언어학적 훈련을 받은 이가 많지 않은 데다가, 이들마저도 주로 중앙어에 관심을 쏟다 보니, 방언에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단편적인 어휘 수집 차원을 벗어나 방언을 언어학적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의 일이었다.

방언을 기술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해당 방언을 다른 방언과의 관련 없이 공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 방언의 종결 어미 목록을 제시하고, 각 어미의 기능을 기술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두 방언 또는 그 이상, 다수의 방언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기술하는 경우이다. 무릇 방언이란 한 언어 내부의 지역적 변이 양상을 가리키므로, 변이가 주된 대상이 되는 후자의 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해방 전 小倉進平과 河野六郎의 연구도 변이체로서의 방언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방언의 독자적 체계를 중시하는 경우에도 결코 변이체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개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표준어 또는 중앙어와의 비교를 전제로 하여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방언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도 우선은 하나의 방언 체계가 정밀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에, 방언의 공시적 체계를 기술하는 일도 전혀 무의미한 작업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방언에 대한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방언학 연구로 간주하고, 분야별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를 검토하려 한다.

국어 방언의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는 것은 글쓴이의 능력 밖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법 분야를 주로 다루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으로 그치고자 한다.

2. 문법

국어 방언의 문법 기술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小倉進平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 『조선어 방언의 연구(하)』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등 북한 지역의 방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으며, 남한 방언의 종결 어미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남부 방언에 나타나는 높임의 '-게-'를 높임의 존재 동사 '겨-'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 등, 小倉進平은 비록 한 방언 전체의 문법 체계를 망라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하였지만, 각 방언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을 만한 특이한 문법 형태를 제시하고, 그 지역적 분포를 밝히면서, 경우에 따라 문법 형태의 어원이나 역사적 변천까지 언급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특정 방언 전체의 문법적 체계가 총체적으로 기술되기 시작한 것은 이송녕에 의해서이다. 이송녕은 1957년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에서 제주도 방언의 특이한 조사와 어미(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 등)의 목록과 그 쓰임새를 비교적 정밀하게 제시하였고, 특히 상(aspect)과 관련된 어미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960년대까지는 제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에 관한 몇 편의 단편적인 글들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방언 문법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 주는 작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의 방언 문법 연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순수 문법 연구가 수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방언학 사전』의 참고 문헌에 나타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문법을 다룬 연구는 모두 13편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인데, 이마저도 제주도와 경상도 방언을 다룬 것이 전부이어서 다른 지역의 방언 문법은 거의 소홀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어 문법학계에서는 미국의 변형 생성 문법의 새로운 바람을 맞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60년대까지 지지부진하였던 현대 국어의 문법 기술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법 형태의 기술도 단순한 기능의 파악에서 통사적 제약을 밝히고, 발화 상황이나 화자 또는 청자의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하는 이른바 화용론적(pragmatic) 설명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조사나 어미 등 문법 형태소에 머

물렸던 기술의 대상도, 부정문, 피동문, 사동문, 보문 등 통사적 구성을 문제 삼는 통사론(syntax)으로 기술의 분야를 넓히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 국어에 대한 문법 기술의 연구가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방언 문법의 기술 역시 자연스럽게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방언 문법은 일반적인 문법 연구의 흐름이나 수준을 곧바로 따르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의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살펴보면, 제주 16, 경남 12, 경북 7, 경기 1, 강원 5, 전남 4, 전북 2, 충남 3, 충북 1 등으로서 제주 및 경상도 방언의 연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여전히 특정 방언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편 연구 분야도 종결 어미를 다룬 연구가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등, 형태론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의 대표적인 연구로 최명옥(1976)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경남의 서남부 지역어의 의문법 어미를 다룬 것이다. 이 연구는 의문법 어미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가/고’와 ‘-나/노’ 등이 중세어와 마찬가지로 의문사의 유무에 의해 구별되어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래’와 같은 어미는 서술어가 동사이며 주어가 2인칭일 때에 한하여 쓰일 수 있다는 기술도 돋보인다. 이러한 기술은 곧 하나의 문법 형태소가 사용되는 통사적 환경이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는 1970년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제주도와 경상도 방언의 편중에서 벗어나 기타 방언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시기 방언별 연구 수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 30, 경북 20, 경남 18,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2, 전남 18, 전북 14 등인데, 여기에서 보듯이 특히 서남 방언의 연구가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분야에서도 종결 어미에 치우쳤던 이전 시기에 비해 조사나 연결 어미, 시제, 인용법 등 문법의 여러 분야로 넓혀지는 변화가 보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업적인 박양규(1980)은 서남 방언에 나타나는 존대의 ‘-게-’의 통사적 제약을 살핀 것이다. 이 ‘-게-’에 대해서는 이미 小倉進平(1944)에서 그 존재와 사용 지역,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그 통사적 특

징이 밝혀진 것은 박양규(1980)에 와서의 일이다. 이 논문에서 존대의 '-게-'는 부사형 어미 '-어' 뒤에 와야 하며, 또한 그 자체로 형태 '-어'를 포함하고 있음이 비로소 밝혀졌다.

서정목(1987)도 동남 방언의 의문법 어미를 통사적으로 다룬 업적이다. 앞서 언급한 최명옥(1976)에서 경남 방언의 의문법 어미 '-나'와 '-노', '-은가'와 '-은고'가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어 쓰인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즉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는 '-노'와 '-은고',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는 '-나'와 '-은가'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목(1987)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논의의 범위를 복합문에까지 넓히게 되었다. 즉 내포문에 의문사가 올 경우, 보문의 종결 어미가 의문법일 때에는 모문의 종결 어미에까지 의문사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여 보문만 설명 의문의 어미가 쓰이고 모문은 판정 의문의 어미가 쓰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니는 놀로 순이가 좋아하노고 모르나'에서 보문의 어미는 '-는고'이지만 모문의 어미는 '-나'이다. 반면 보문의 종결 어미가 의문법이 아닐 경우에는 모문의 종결 어미가 설명 의문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니는 순이가 언제 온다꼬 생각하노?'와 같다.

이와 같이 문법 형태소의 제약이나 그 기능이 보다 정밀하게 밝혀지고, 단순문뿐 아니라 복합문의 환경까지 고려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로서,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문법 연구는 특정 방언 또는 특정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어미나 조사 또는 시제나 부정법 등 형태론 내지는 통사론적 특징을 공시적으로 살피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중앙어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문법 현상을 부각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방언 문법의 역사적 연구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고광모(1999/2000/2001)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광모(1999/2000/2001)은 서남 방언의 높임 표현 '-게-'의 생성을 다룬 논문으로서, 小倉進平이 이 형태를 존제의 '겨-'와 관련시킨 바 있으나, 고광모는 '겨시-'에서 온 것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즉 '-어 잇-'이 과거 시제 형태소 '-엇-'으로 변하듯 '-어 겨시-'와 같은 통사적 구성(보조 동사 구문)도 '-어졌-'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졌-'은 높임의 과거 시제인 셈이다. 이 '-어졌-'의 '-졌-'이 '-겨-'와 '-엇-'으로 재분석(reanalysis)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높임의 '-겨-'가 생겨났다고 해석한다. 과거의

전해들이 ‘겨-’로부터 높임의 ‘-겨-’(또는 ‘-게-’)가 생겨나고, 여기에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덧붙여 ‘-졌-’(또는 ‘-졌-’)이 된 것으로 본 것과는 상반된 방향을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우리 옛말이 결코 ‘겨-’만으로 쓰인 예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남 방언 ‘-겨-’에 대한 연구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세 단계의 발전 양상을 엿볼 수 있다. 小倉進平의 ‘-겨-’에 대한 존재 확인 및 ‘겨-’와의 관련성을 시작으로 하여, 박양규(1980)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겨-’의 통사적 제약, 그리고 고광모(1999/2000/2001)에서 보여진 ‘-겨-’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해석이 그것이다.

이처럼 국어의 방언 문법은 小倉進平에 의해 문을 연 이래, 1970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서, 일반 문법의 발전 양상과 평행하게 발전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 문법 형태나 통사적 구성의 기능을 정밀하게 기술하는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술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기술 대상이 되는 방언들도 더욱 다양하게 되었다. 도 단위의 방언권을 대상으로 한 광역적인 문법 기술과 함께 더 작은 지역의 문법 체계도 기술의 대상이 되면서, 방언학에서 다루어지는 지역이 점차 넓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질적으로 깊이 있는 기술이 이루어지면서, 양적으로 더욱 많은 방언들이 기술되게 되는 변화가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업적 가운데 단행본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는 김영태(1983)인 『창원 지역어 연구』, 강정희(1988)인 『제주 방언 연구』, 성낙수(1992)인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와 이상규(1999)의 『경북 방언 문법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이기갑(1998)인 『호남의 언어와 문화』와 한영목(2000)인 『충남 금산 지역어 연구』에서도 서남 방언과 충남 방언의 문법 체계가 일부 기술되어 있다.

한편 문법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방언의 독자적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각 방언 간의 비교를 통해 국어 방언의 분화 양상을 보여 주려는 연구도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발간된 이기갑(2003)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국어의 형태론과 통사론 분야에서 한반도의 여러 방언들이 어떠한 양상을 갖는지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조사와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시제 형태소, 부정법, 인용

법, 피사동 접미사, 기타 문법적 특징 등이 한반도의 여러 방언에서 달리 실현되는 다양한 변이 양상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방언 문법 연구를 종합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3. 음운

小倉進平과 河野六郎은 국어의 음운론적 현상을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 小倉進平은 /ㄹ/, 이중 모음, 어중의 자음 [g]와 [b], /△/ 등의 역사를 다루었고, 河野六郎은 같은 문제가 포괄적으로 관여된 'ㄱ시개'의 재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비체계적 태도는 해방 후 1960년대까지 방언 음운론 연구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이 시기에는 기초적인 음운 목록의 작성 등이 시도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언어 체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방언의 기술 대상을 전국이 아닌 좁은 지역으로 한정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즉 특정 방언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기술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때 관심을 얻게 된 분야는 구개음화, 비원순 모음화, 이중 모음으로부터의 방언 분화 등이었다. 한편 1970년대 들어서는 형태 음운론적 교체가 기술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교체를 지배하는 규칙이 정밀하게 기술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익섭(1972), 이병근(1973), 최명옥(1976a) 등이 이런 범주에 드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198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정 방언의 음운 체계와 여러 음운 현상을 공시와 통시적 관점에서 기술하려는 연구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승재(1980)이 전남 구례 지역어의 공시적 체계를 다룬 논문이라면, 최명옥(1982)는 경북 월성 지역어를 다룬 것이다. 이들은 각각 서남 방언과 동남 방언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다룬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서남 방언과 동남 방언의 음운론 연구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백두현(1982), 정철(1989), 신승원(1997) 등은 동남 방언을 다룬 연구이고, 백두현(1992)는 영남 방언이 반영된 문헌을 기초로 한 음운사 연구이다. 소강춘(1989), 배주채(1994)는 서남 방언을 다루고 있

으며, 특히 최전승(1986)과 최전승(1995)는 19세기 후기의 서남 방언을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제주도 방언 음운론을 다룬 정승철(1988)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곽충구(1994)는 20세기 초 러시아 까잔에서 간행된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함경북도 육진 방언의 음운론을 공시와 통시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이어 최명옥 외(2002)는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육진 방언을 직접 현지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음운 목록, 음운 과정과 음운 규칙으로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현상을 다루고 그 밖에 어간과 어절의 성조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음운론 외에도 문법과 어휘가 함께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보듯이 1970년대 이후 방언의 음운론 연구는 좁은 지역 방언을 정밀하게 기술하는 경향이 주도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 방언 어휘집과 방언 분화

4.1 방언 어휘집

방언 어휘의 수집은 방언 연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어휘의 연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어휘의 형태를 통하여 음운론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언에 따른 어휘의 차이는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어휘의 수집도 小倉進平(1944 상)에서 그 모범적인 예를 볼 수 있다. 이 작업은 하나의 어휘 항목에 대응하는 각 지역 방언형들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어휘의 제시는 유해식으로 분류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小倉進平의 방식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답습되어 전국적 방언형을 수집한 김형규(1974)나 최학근(1978)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방언형의 비교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국정신문화원 간행의 『한국 방언 자료집』이다. 이것은 동일한 조사 항목을 통해 이루어진 군(郡)별 조사 결과를 도(道)별로 묶어 놓은 자료집으로서, 본시 방언

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집이지만, 그 자체로 훌륭한 방언 어휘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특정 방언의 어휘만을 골라 모아 놓은 자료집도 출현하게 되는데, 경남 방언의 김영태(1975)나 전남 방언의 이돈주(1978)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어휘 자료집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평북 방언 어휘를 수집 정리한 김이협(1981), 즉 『평북 방언사전』이다. 이 자료집은 평북 지역의 어휘들을 사전식으로 모아 놓은 것이 특징인데, 이로부터 이른바 ‘방언사전’이라 할 만한 자료집이 속속 출간되게 된다. 1986년의 『함북 방언사전』(김태균), 1995년의 『제주어 사전』(제주방언연구회), 1998년의 『전남 방언사전』(이기갑 외) 그리고 2000년의 『경북 방언사전』(이상규) 등이 사전 형식을 띠고 특정 방언 어휘를 수집 정리해 놓은 어휘집이다. 이 밖에도 김주석/최명옥(2001)인 『경주 속담·말 사전』은 경주 지역어의 어휘와 속담을 사전식으로 모아 놓은 것이며, 김계곤(2001)인 『경기도 사투리 연구』는 저자가 오랫동안 수집한 경기도 지역의 어휘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4.2 방언 분화

河野六郎(1945)는 ‘가위’의 전국적 방언형을 토대로 하여 고형을 재구해 보려 했던 언어 지리학적 연구의 출발이었다. 이러한 언어 지리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분화상을 보여 주는 ‘방언 지도’의 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80년대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남한 지역의 방언 지도 작성을 위한 대대적인 방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한국 방언 자료집』 형식으로 출간되었지만 아직까지 전체 방언 지도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1993년에 발간한 ‘한국 언어 지도집’은 일부 어휘와 운율적 특징만을 선택하여 한반도 전역 또는 특정 방언 내에서의 분포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국어 방언 지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지도집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말(言)’, ‘여우’, ‘새우’, ‘듣다(聞)’ 등의 전국적 방언

분화상, 동남 방언에서의 삼 음절 명사의 성조형과 사동과 피동형의 성조, 서남 방언에서의 부사형 어미 ‘-어’의 변이, 동북 방언에서의 ‘곱다(麗)’의 활용과 운율, ‘춡다’의 형태 음소적 변동 등이다.

이처럼 광역적인 방언 지도의 작성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지부진한 상황하에서도 좁은 지역, 주로 도(道) 단위의 방언 지도 작성은 꾸준히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출발은 이익섭(1981)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주로 어휘를 기준으로 하여 강원도의 분화상을 탐색해 본 것이었다. 이후 각 도별로 이루어진 작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기갑(1986): 전라남도

소강춘(1989): 전라북도

김충희(1990): 충청북도

김택구(1991): 경상남도

김덕호(2001): 경상북도

그 밖에 강대갑(1998)은 경남 함양 지역의 분화상을 다룬 것으로서, 군(郡) 단위의 방언 지도로는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5. 앞으로의 방향

1970년대 이후 체계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개별 방언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연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 개별 방언의 언어 상태가 밝혀진 뒤에야 이를 토대로 다른 방언과의 비교 연구 등, 방언 분화에 관한 기술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에서 그 기술이나 설명의 정밀도는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로 방언을 다루는 일부 학자들의 경우, 음운학이나 문법학 등의 현대 언어 이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채 방언에 접근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방언이라 해서 그 기술의 수준이

중양어에 비해 낮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편 동남 방언과 제주 방언 그리고 최근에는 서남 방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방언의 기술이 시도되지 않은 방언 또는 지역어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홀히 되어 온 방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대체로 충청도나 경기도 지역 등 중부 방언의 연구가 다른 방언에 비해 부진한 편이므로, 이런 방언의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방언을 다루는 학자들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대개는 토박이들이 방언을 다루는 수가 많으므로, 해당 지역의 토박이 학자들이 자기 출신 지역 방언을 일차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중부 방언의 경우, 혹시 중양어 또는 표준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 방언 연구가 소홀히 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문제이다. 최근에는 서울 토박이말(또는 서울 사투리)에 관한 관심도 새로 일어나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선입견은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방언 연구 대상 지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중국 조선족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지역의 방언들은 비록 한반도 내부의 방언들로부터 분화된 것이기는 하나, 수십 년 동안 고립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발달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방언의 독자적 발달 과정에 대한 탐색도 방언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개별 방언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방언의 비교 또는 방언 분화에 관한 연구도 이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이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개 방언에 대한 관심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방언학 본래의 과제인 방언 분화 현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에 따른 방언 분화의 양상이 기술되고, 이에 대한 역동적이고 역사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제대로 된 방언학이 성립될 수 있다.

방언 분화의 연구를 위해서는 분화상을 보여 주는 방언 지도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미 남한에서는 방언 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자료집 형식으로 출간된 바 있지만, 북한 지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이것이 지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방언 조사 질문지를 사용한 방언

조사가 북한 지역에서도 이루어져서 한반도 전체의 방언 지도가 작성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지역의 조사 자료는 이미 20여 년 전의 것이므로, 북한 지역의 조사가 늦어질수록 두 지역 사이의 시간 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대등한 방언 자료로 취급되기 어려운 사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남북한의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언 지도의 작성 외에도 남북한이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 내야 할 많은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 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연구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방언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를 서로 교류하고 통합하여 국어 방언 전체의 연구로 승화시킬 문제도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남북한의 방언학자 또는 국어학자들이 협력해야 할 분야의 하나로서, 말뭉치(corpus) 자료의 수집 및 교환을 들 수 있다. 특히 방언 문법의 경우, 일반적인 방언 조사만으로는 문법 형태의 다양한 쓰임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입말을 반영한 말뭉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 남한에서는 『한국 구비 문학 대계』가 발간되어 어느 정도 방언의 말뭉치가 모아진 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보다 많은 양의 다양한 말뭉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북한의 서북 방언이나 동북 방언 그리고 육진 방언을 대상으로 한 말뭉치 자료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역시 하루빨리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말뭉치 자료는 입말의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법 형태뿐 아니라 담화 연구나 화용론 연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방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방언학회나 방언 전문 학술지가 나오지 못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방언 연구는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바, 이를 통합하고 이루어진 연구 업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언 연구자들의 모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이 모임을 바탕으로 한 방언 학술지의 간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나왔던 『방언』이 8집을 끝으로 폐간된 것은, 그것이 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방언조사

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언학 전문 학술지의 간행은, 요즘처럼 학문이 분화하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덧붙여 남북한의 방언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대갑(1998), 「함양 지역어의 지리 언어학적 연구」. 경남대 박사 학위 논문.
-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 출판부.
- 고광모(1999), 「문법화의 한 양상-전남 방언의 주체 높임법에 쓰이는 '-게-'의 경우」. 『언어와 역사』 (성백인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태학사.
- 고광모(2000), 「일부 방언들의 주체 높임법에 나타나는 '-겨-'의 역사(1)-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졌-'의 형성」. 『한글』 250. 한글 학회.
- 고광모(2001), 「일부 방언들의 주체 높임법에 나타나는 '-겨-'의 역사(2)-선어말 어미 '-어겨-'의 형성과 '-겨-'의 분포 변화」. 『언어학』 28. 한국언어학회.
- 곽충구(1994),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론: 20세기 초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 자료에 의한』. 국어학 총서 20. 태학사.
- 김계곤(2001), 『경기도 사투리』. 박이정.
- 김덕호(1997), 「경북 방언의 지리 언어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 학위 논문.
- 김영태(1975), 『경상남도의 방언 연구(1)』, 진명문화사.
- 김영태(1983), 「창원 지역어 연구」. 중앙대 박사 학위 논문.
- 김웅배(1991), 『전라남도 방언 연구』. 학고방.
- 김이협(1981), 『평북 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주석/최명옥(2001), 『경주 방언 속담·말 사전』. 한국문화사.
- 김충희(1990), 「충청북도의 언어 지리학-충청북도의 방언 구획론」. 단국대 박사 학위 논문.
- 김태균(1986), 『함북 방언사전』. 경기대 출판부.
- 김택구(1991), 「경상남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 학위 논문.

- 김형규(1974), 『한국 방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나진석(1972), 『우리말 때매김 연구』. 과학사.
- 대한민국학술원(1993), 『한국 언어 지도집』. 성지문화사.
- 박양규(1980), 「서남 방언 경어법의 한 문제-이른바 주체 존대법에 나타나는 ‘-게’의 경우」. 방언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용후(1988), 『제주 방언 연구(고찰편)』. 과학사.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배주채(1994), 「고흥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 백두현(1982), 「금릉 지역어의 음운 체계」. 문학과 언어 연구 11.(경북대)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경상도 방언과 중세 국어의 WH 현상을 중심으로』. 탑출판사.
- 서정목(1988),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1)」. 『국어학』 17. 국어학회.
- 서정목(1989), 「‘반말체’ 형태 ‘-지’의 형태소 확인」. 『이혜숙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한신문화사.
- 서정목(1994), 『국어 통사 구조 연구 1』. 서강대학교 출판부.
-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 소강춘(1989) 「전북 방언의 공시적 언어 분화에 대한 연구」. 전북대 박사 학위 논문.
- 신승원(1997), 「경북 의성 지역어의 음운론적 분화 연구」. 영남대 박사 학위 논문.
-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 지리』. 탑출판사.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1998), 『전남 방언사전』. 태학사.
- 이기갑·유영대·이종주(1998), 『호남의 언어와 문화』. 백산서당.
- 이돈주(1978), 『전남 방언』. 형설출판사.
- 이병근(1973), 「동해안 방언의 이중 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 이상규(1999), 『경북 방언 문법 연구』. 박이정.
- 이상규(2000), 『경북 방언사전』. 박이정.
- 이승녕(1957/197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승재(1980), 「구례 지역어의 음운 체계」. 국어 연구 45.
- 이익섭(1972), 「강릉 방언의 형태 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3.

- 이익섭(1981), 『영동 영서의 언어 분화-강원도의 언어 지리학』. 서울대 출판부.
- 정승철(1988), 「제주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 현상」. 국어 연구 84.
- 정철(1989), 「경북 의성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 제주방언연구회(1995), 『제주어 사전』.
- 최명옥(1976a), 「서남 경남 방언의 부사화 접사 '-아'의 음운 현상」. 국어학 4.
- 최명옥(1976b), 「현대 국어의 의문법 연구-서남 경남 방언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 15.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최명옥(1982), 『월성 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97), 「동남 방언과 동북 방언의 대조 연구」.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 기념 논총). 태학사.
- 최명옥(1998), 「진양 지역어와 김해 지역어의 대조 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 기념 논총). 태학사.
- 최명옥/곽충구/배주채/전학석(2002), 『함북 북부 지역어 연구』. 태학사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의 음운 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전승(1995),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 최학근(1978), 『한국 방언사전』. 현문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 방언 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영목(1999a), 「충남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어말 어미」. 어문 연구 32. 어문연구학회.
- 한영목(1999b), 『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 한영목(2000), 『충남 금산 지역어의 연구』. 한국문화사.
- 현평효(197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동국대 박사 학위 논문.
- 홍종림(1993),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 小倉進平(1924), 『南部 朝鮮の 方言』. 朝鮮史學會.
- 小倉進平(1944), 『朝鮮語 方言 の 研究』. 岩波書店. 東京.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缺’語攷』. 東都書籍. 東京.

제2분과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



빈 면

민족 고유어 쓰기

강 신 향(성균관대학교 명예 교수)

1. 머리말

우리 겨레는 5천 년 동안 거의 하나의 민족으로 굳건히 살아오면서, 하나의 언어를 지켜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말은 7천만이라는 큰 인구가 사용하고 있어서, 약 5천 개가 된다는 세계의 여러 말 가운데에서 열세 번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은 5천 년 동안 발달해 오면서 순수한 우리 고유어만을 지키며 써 온 것은 아니었다. 우리 고유어를 지키는 한편 이웃 나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말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우리의 말을 더욱 이지게 하였다. 우리 겨레가 받아들인 것은, 말의 세 가지 요소인 음운, 어휘, 어법 가운데에서 주로 어휘 분야였다. 그리하여 우리말은 역사상 가장 접촉이 잦았던 한어 계통의 어휘를 많이 받아들였다. 또 같은 계통의 언어라는 몽골 어, 만주어, 그리고 터키 어 등으로부터도 조금씩 이나마 어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여러 나라의 어휘 가운데에서 한어의 영향은 너무나도 컸었다. 특히 삼국 시대 초기부터 한어의 글자인 한자와 그들의 글인 한문을 빌려 써 오고 신라 시대부터 유교 교육이 실시되면서 한자와 한문에서 빌려 쓰게 된 한자어, 특히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우리말 어휘 속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신라와 고려 이후 19세기까지 한자와 한문이 공식 문서로 쓰이게 되자, 우리말 속에 엄청난 양의 한자어가 흘러 들어왔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크게 깨달은 선각자들이,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자는 운동을 크게 벌여서 우리말과 우리글은 비로소 제자리를 잡는 듯하였다.

그러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와, 일제가 우리 강토를 강점하고 우리 겨레에게 그들

의 말과 글을 공통어로 쓰도록 강요하여, 우리 말과 글은 또다시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오늘날 우리들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고유어와 함께 꽤 많은 양의 한자어를 쓰고 있고, 일본어 계통의 어휘도 적은 양이지만 일부 직종 종사자 사이에서는 아직도 쓰이고 있다.

2. 고유어 되살려 쓰기 운동 전개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이후 우리 겨레가 무엇보다도 먼저 서두른 것이 우리 고유어를 되살려 쓰자는 일이었다. 그 당시로서는 한자어보다도 하루 속히 일본 말을 버리는 일이 급했었다. 일본 강점기에 우리는 일본의 공통어인 일본 말에 익숙해져서, 우리 고유의 어휘를 꽤 많이 잊었거나 하도 오랫동안 쓰지 않아, 일부 우리말 어휘는 이미 죽은 말이 되기도 하고, 옛말처럼 되고 만 예들도 많았다.

이에 뜻있는 분들이, 광복 후에 이른바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을 크게 벌여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1) 본디 우리말이 있는데 일본 말에 억눌리어 거의 안 쓰게 된 말은, 일본 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쓴다.

아게시호(上潮)	→ 밀물
앗사리	→ 산뜻이, 깨끗이, 말끔히
기지(生地)	→ 감
오시이레(押入)	→ 반침
가꾸부찌(額椽)	→ 틀, 테
시아게(仕上)	→ 마무리, 마무리기, 끝손질
이찌오(一應)	→ 대체, 대강
잇단(一旦)	→ 한번
아께와다시(明渡)	→ 내주기(내주다), 비워주기(비워주다)

도리아쓰카이(取扱)	→ 다루기, 다루다
야꾸와리(役割)	→ 구실

위의 예들 가운데서, 원래 우리말에 있었으나 일본 말에 밀려났던 ‘밀물’, ‘뜰’, ‘감’ 등은 쉽게 우리말을 되살려 쓸 수 있었다. 그러나 ‘明渡’, ‘一應’, ‘一旦’, ‘取扱’, ‘役割’ 등은 한자로 기록된 것을 일본어식 훈(새김)으로 발음하는 대신에 우리 한자음으로 ‘명도’, ‘일응’, ‘일단’, ‘취급’, ‘역할’처럼 읽어서, 그대로 쓰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말을 되살려 쓴다는 것이 도리어 한자어만 더 늘리는 셈이 되는 수도 있었다.

(2) 우리말에는 없어서 일본 말을 쓰는 것은 우리의 옛말에서 찾아보아 비슷한 것이 있으면, 이 말을 끌어다가 새 뜻을 만들어 쓰기로 한다.

아베고베	→ 거꾸로, 뒤집어, 반대
이가따(鑄型)	→ 거꾸집
잇쇼겐메이(一生懸命)	→ 기 쓰고, 한사코
아미아게구쓰(編上靴)	→ 목다리 양화
잇뽕료리(一品料理)	→ 단찬
강끼리(罐切)	→ 통따개, 도림칼
간리(元利)	→ 본변
갯세끼도도께(缺席届)	→ 말미사리

위의 예들 가운데에서도 ‘일품요리’, ‘원리(금)’, ‘결석계’라는 한자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3) 일본 말에만 있고 우리말에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 쓴다.

벤또(辨當)	→ 도시락
우찌와께(内譯)	→ 속가름
우라가끼(裏書)	→ 뒷다짐, 뒷도장, 뒷보증
간즈메	→ 통조림

가리누이(假縫)	→ 시침바느질
스시	→ 초밥
곤다테(獻立)	→ 차림, 음식차림

위의 예들 가운데에서 ‘통조림’, ‘초밥’, ‘도시락’ 등은 제자리를 잡았고, ‘내역’, ‘이서’, ‘가봉’ 등은 한자어로 쓰이고 있다.

(4) 한자어도 되도록 우리 겨레가 익숙하게 써 온 것으로 바꾼다.

안나이쵸(案内狀)	→ 청첩(請牒)
아까지(赤字)	→ 결손(缺損), 부족(不足)
우께쓰게(受付)	→ 접수(接受)
우찌아와세(打合)	→ 협의(協議), 상의(相議)
가끼도메(書留)	→ 등기(登記)

이 가운데에서 아직도 ‘안내장’, ‘적자’, ‘타합’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우리말 도로 찾기’의 몇 가지 원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유어를 되살려 쓰려고 힘쓸 때, 한결같이 꿰뚫어 온 정신이었다.

그러나 우리 ‘고유어를 되살려 쓰고’ ‘국어를 순화’해 온 운동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첫째는 우리말을 되살려 쓴다고 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 겨레가 오랫동안 써 온 말 대신에, 일본 말이나 한자어를 직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본 말>	<우리말>
가이랑(回覽)	돌려 보기
넌쥬교오지(年中行事)	햇일
마찌아이시쓰(待合室)	기다림방

도리아쓰까이쇼(取扱所)	다루는 곳, 처리소
가시리(飾)	꾸밈새
마키카에(巻換)	갈아감기, 되감기
이나리스시(稻荷鮓)	유부초밥
와리깡(割勘)	나눠내기, 추렴

위의 예에서 ‘와리깡’은 ‘추렴’ 말고도 ‘되로리(合錢飲)’라는 우리말이 있었다.

두 번째는 서양 말 계통의 외래어를 되도록 쓰지 말고, 국어를 순화한다고 하면서 서양 말 계통의 외래어 대신에 한자어로 바꿔 놓은 일이다.

<외래어>	<순화된 말>
멜러드러머	통속극(通俗劇)
가스마스크	방독면(防毒面)
다이얼	번호판
리포오트	보고(서), 보도
에픽드라마	서사극(敍事劇)

세 번째는 한자어도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바꿔 쓰자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자어를 직역한 것은 대중이 외면했다.

<한자어>	<우리말>	<한자어>	<우리말>
채집(採集)	모으기	생물(生物)	산것
사구(砂丘)	모래언덕	무생물(無生物)	안산것
수분(水分)	물기	회전(廻轉)	맴돌이
어류(魚類)	물고기	삼각형(三角形)	세모꼴
저변(底邊)	밑변	단체생활	모듬사리
기송부(既送付)	이미보냄	복망(伏望)	간절히 바람

악성(惡性)	나쁜	우거(愚擧)	어리석은 일
잔형(殘刑)	남은형(기)	저변(低邊)	밑바닥
출영(出迎)	마중	하량(下諒)	헤아림

네 번째는 고유어의 어색한 쓰임이다.

민족 고유어 되살리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겨레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써 온 말을 아껴 써야 한다. 이러한 말에는 우리 겨레의 말 만드는 방식과 정서가 담겨 있다.

그런데 근래 우리말을 아껴 쓰는 일에 힘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통적인 우리말을 살려서 쓰거나 배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새말을 만들어 쓰는 일이 있다.

우리가 남녀를 통틀어 욕을 할 때에 ‘년놈들’이라고는 하지만, ‘년’과 ‘놈’ 앞에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년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든지 “놈이 요새 왜 안 보이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이러한 예는 명사 ‘거리’, 형식 명사 ‘나름’, 접미사 ‘어치’도 마찬가지여서, “나름대로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고, 조어법을 안 지키고 동사 어간 ‘먹-’에 ‘-거리’를 결합시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우리말에서는 명사나 어간 아래에 ‘-롭다’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 쓸 수 있다. 슬기+롭다→슬기롭다, 새+롭다→새롭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러한 형식이 너무 넓게 쓰이는 느낌이 있다. 정의+롭다→정의롭다, 여유+롭다→여유롭다.

또 우리말에서는 명사 또는 명사형인 말 아래에 ‘-스럽다’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 쓴다. 평화+스럽다, 밭살+스럽다.

이러한 예도 근래에는 지나치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 존경+스럽다→존경스럽다, 검사+스럽다→검사스럽다, 어린애+스럽다→어린애스럽다. 신사+스럽다→신사스럽다.

또 어떤 사람을 빗대어 ‘-스럽다’를 붙이기도 한다. 길동+스럽다→길동스럽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겨레는 지난날 50여 년 동안 꾸준히 우리말을 되살려 쓰려고 힘써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래 우리 겨레가 써 온 말에 맞도록 되살려 쓴 것은, 일반 대중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본 말>	<우리말>	<한자어>	<우리말>
스리	소매치기	사취(詐取)	등치기
오이꼬시(追越)	앞지르기	매점매석(買占賣惜)	사재기
간즈메	통조림	기여(寄與)하다	이바지하다
전격적(電擊的)	벼락치기	모두(冒頭)에	첫머리에

이에 반하여 어색하게 새로 만든 말들은 일반 대중의 언어생활에서 외면당했다.

	<바꾼 말>	<실제로 쓰는 말>
연소꾸(遠足)	먼거님	소풍
와리바시(割箸)	짜개젓가락	소독저(消毒箸)
좌절감(挫折)	꺾인 느낌, 무너진 느낌	좌절감

새삼 말이라는 것은 대중의 관행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 기초 고유어 쓰기의 번짐

애당초 우리 겨레는, 우리보다 앞선 문화를 가진 중국의 이웃에 살면서도, 우리말을 지키며 살아 왔었다. 그러다가 차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사람의 성과 이름, 벼슬 이름까지 중국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500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 어휘는 순수한 고유어를 지켜 왔다.

아비·어미	하나 두볼(둘)	온(백)·즈믄(천)	위 아래
하늘(하늘)	바를(바다)	꺾롬(강)	

냄새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다. (맞춤법은 현행대로)

비린내(腥)	누린내(糲)	노린내(羊東)	단내(焦)
구린내(朽)	풋내(草腥)	눗는내(火胡氣)	

땅 이름도 다음과 같은 고유어가 있었다.

애오개(아현)	배오개(장)(梨峴, 동대문(시장))	구리개(銅峴, 을지로)
진고개(泥峴, 충무로)	솔모루(松隅)	텃골(基谷)

그러던 것이 한자와 한문 교육의 보급으로 일부 어휘는 한자어에 밀려서 ‘즈른’이 ‘천’으로, ‘온’이 ‘백’으로, ‘피’가 ‘산’으로, ‘가람’이 ‘강’으로, ‘한밭’이 ‘대전(大田)’으로, ‘새터’가 ‘신촌(新村)’으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기초적인 고유어를 되살려 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 겨레의 이름 짓기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 주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항렬 글자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 대신에, ‘기쁨’, ‘으뜸’, ‘아람’, ‘나리’, ‘다솜’이라 하게 되었다. 책 이름도 딱딱한 한자어 대신에 ‘얼굴’, ‘마음 꽃’, ‘컴퓨터 길라잡이’, ‘콩나물시루’, ‘달과 강’, ‘한글떼기’, ‘나는 한밤중에도 깨어 있고 싶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 하고, 출판사 이름도 ‘길벗’, ‘돌베개’, ‘해냄’, ‘샘이 깊은 물’, ‘가람 기획’, ‘반딧불’이라 하게 되었다. 일반 회사 이름이나 가게 이름도 ‘구궁넷’, ‘히미나(←힘이 나)’, ‘새로나(←새로 나온)’, ‘놀이방’(탁아소), ‘어린이집’(탁아소), ‘아가방’(탁아소, 또는 어린이용품 가게), ‘꾸밈방’(가구점), ‘머리방’, ‘찜질방’ 등이 있다.

대중이 새말을 만들 때에는, 사람의 이름에서 일부를 따오기도 한다. 우리 겨레는 일반 서민의 이름에 ‘-돌이’(남자), ‘-순이’·‘-분이’(여자)를 많이 붙여서, ‘삼돌이’, ‘복순이’, ‘갑분이’라고 하는 일이 많았었다. 그래서 요즈음 고유어로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러한 습관대로 ‘공돌이’(공원), ‘공순이’(여자 노동자), ‘또순이’(알뜰히 사는 여자

의 대명사), ‘포돌이’(경찰 상징 휘장), ‘피돌이’(피가 많은 사람)라고 한다.

약 20년 전부터 젊은 세대에서는, 고유어를 쓰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쓰기 시작한 말들이 이제는 국가적인 행사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 다음에 몇 예를 들어 보겠다.

동아리(←서클(circle), 목적이 같은 사람이 한패를 이룬 무리)
 새내기(신입생, 신입 회원), 풋내기
 해오름식(발대식)
 달거리 소식(월보)
 도우미(←도움+이, 봉사 요원)
 알리미(←알림+이, 홍보 요원)
 지킴이(←지킴+이)
 나눔의 문화(기부 문화)
 들머리(서론, 토론)
 갈무리(물건을 잘 정돈하여 간수함)
 열개(짜임새, 구조)
 마무리(결론)
 홀로 서기(독립)
 파란불(←청신호, 좋은 일)
 빨간불(←적신호, 나쁜 일)
 눈높이(자기 수준)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고유어보다 한자어나 외래어(또는 외국어)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있다.

값이 싸요, 눅어요	→	가격이 저렴해요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달콤한 말, 꾀말	→	감언이설
서로 짜다	→	결탁하다
훌륭한 분	→	고매한 분
많은 돈	→	다액의 (금품)

이리하여 우리 주위에서는 “건축 예정 부지(敷地, 일본 말)에 조기(早期) 착공해서 공기를 단축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말은 “집을 지을 터에 빨리 일을 서둘러서 끝마무리를 하겠다.”라고 고쳐서 말을 할 수 있는 예다.

4. 민족 고유어를 살려서 쓰는 일

(1) 사전에 실려 있는 말을 열심히 익혀서 써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면으로 볼 때 어색하고 미숙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겨레는 꾸준히 우리 고유어를 되살려 쓰고, 새로 만들어 쓰려고 여러 모로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처럼 우리는 ‘소주밀식(小株密植)’이라는 구호를 60년대 중반에 내걸었을 때, ‘종종모’(아주 촘촘히 심은 벚모)라는 좋은 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작은 모 촘촘히 심기’로 새로 만들어 쓰려고 했었다.

이와 같이 우리말 사전을 조금만 넘겨 보면, 뜻밖에도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 가운데, 귀중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적절하게 살려 쓸 생각을 앎고, 겨우 몇 개밖에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에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사전의 ‘ㄱ’줄에서 우리 고유어 단어 예를 몇 개만 들어보겠다.

가늠	<명>	목표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리는 표준.
가늠보다	<동>	시세의 기미를 엿보는 눈치.
가달박	<명>	바가지 모양의 나무 바가지.
가두리	<명>	토지·가옥을 교환할 때 평가의 차액.
가랑가랑	<부>	얼굴이 야윈 듯하면서도 탄력성이 있어 보이는 모양.
가랑스럽다	<형>	조출하지 못하여 격에 맞지 않다.
가로지	<명>	포목·종이 등의 가로 넓은 조각.

세로지	<명>	포목·종이 등의 세로 넓은 조각.
가로지나 세로지나<성구>		횡이나 종이나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
가루다	<동>	시비를 가리다.
가루지	<명>	옆으로의 넓이(橫幅).
가리트다/틀다	<동>	뜻밖으로 생긴 이득을 분배하자고 강요하다.
가린스럽다	<형>	다람게 인색하다.
가린주머니	<명>	다람게 인색한 사람.
가뭇없다	<형>	눈에 띄지 않다, 소식이 없다, 행방불명.
가분가분	<부>	말이나 동작이 진중하지 아니하고 가벼운 모양.
가살	<명>	가랑스러운 야살. 언행이 알망곳고 되바라져 잘 어울리지 않는 태도.
가살스럽다	<형>	가랑스럽고 야살스럽다.
가살이, 가살쟁이	<명>	가살스러운 사람.
간실간실	<부>	간사한 언행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모양.
간잔지런하다	<형>	줄리거나 술에 취해 눈시울이 가늘게 처지다.
갈가워	<명>	인색하게 안달하며 제 실속만 차리는 사람.
갈가지	<명>	범 새끼, 개호주.
갈강갈강하다	<형>	얼굴이 파리하나 단단하고 굳센 기상이 있어 보인다.
갈근거리다/대다	<동>	음식이나 재물에 대하여 체면 없이 함부로 욕심을 부리다.
갈래다	<동>	짐승이 갈 바를 모르고 왔다갔다 하다.
갈마들다	<동>	서로 번갈아 들다.
갈매	<명>	짙은 초록색.
갈붙이다	<동>	남을 중상하여 이간 붙이다.
까드락거리다/대다<동>		무례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다.
까드락까드락	<부>	까드락거리는 모양. =까들까들, 까들막까들막.
까들거리다/대다	<동>	=까드락거리다/대다.
갈때기	<명>	기름종이로 만든 군인용 표주박.

이상의 어휘를 요즘도 흔히 쓰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젊은 사람 중에는 의아해하는 어휘들도 있다. 물론 나이 많은 축에서도 새삼스러운 어휘들도 있다.

다음은 10여 년 전에 창간된 이래 줄곧 우리 고유어 쓰기에 힘써 온 어느 신문의 예를 보기로 하겠다. 이 신문에 실린 한 논설위원의 짧은 글에도 다음과 같이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귀중한 고유어들이 쓰이고 있다. 글 안의 순서대로 늘어놓아

보겠다.

윙뚝뚝이: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응골지다/차다: 실속 있게 짝 차다.

용춤 추는 풍경: 남의 추어 춤(비위를 맞추기 위해 칭찬하여 춤)을 받아 좋아서 하라는 대로 행동하다.

되슬래잡는다: 잘못을 빌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남을 나무란다.

초꼬슴: 일을 하는 데 맨 처음. 첫고등.

엇나가다: 비뚤로 나간다.

두남둔: 편들다, 가엾게 여겨 도와줌.

으밀아밀: 남모르게 비밀히 이야기하는 모양.

도끼눈: 분하거나 미워서 쏘아 노려보는 눈.

버팀목: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버티는 나무.

막나간다: 거침없이, 예의 없이 나간다, 일을 한다.

새통스럽지만: 어처구니없이 새삼스럽지만.

뜬금없다: 오감스럽다, 느닷없다, 갑작스럽고도 엉뚱하다.

생먹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모르는 체하다.

싸목싸목: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

중뿔나서: 관계없는 사람이 옆에서 참견을 해서.

소가 옷을 일이다: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소까지 비웃는다.

(2003년 4월 4일자 한겨레 신문, 손석춘 논설위원)

하나의 짧은 글에서 이만큼 고유어를 살려 쓰려면, 평소에 이러한 말들을 꾸준히 익혀서, 아주 알맞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신문의 '경제' 난을 보면, 전문 분야이기는 하지만, 제목부터 설명문에 이르기까지 온통 한자어투성이다.

제목	양극화된 채권시장
	비우량채 거래 실종
	중소업체 직격탄

설명문

충격이 몰고 온 자금시장의 불안감
투신권의 환매 사태와 시장금리의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일부 우량
대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이 넘쳐나는데
최근 채권시장은 지표금리가 3월 초 수준으로 돌아가지만 회사채
금리가 갈수록 양극화하는 등 왜곡된 자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 위에서 보인 예들은, 우리 고유어가 이와 같은 경제 분야에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자어가 참으로 여러 분야에서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까지 고유어를 널리 쓰려면 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2) 방언을 살려 쓰는 일

방언은, 어느 특정 지역 안에서만 쓰이는 ‘지역 공통어’이지만, 그 나름대로 훌륭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말이며, 우리 겨레가 남겨 놓은 문화유산의 하나다. 따라서 전국 공통어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고유어를 되살려 쓰고자 할 때에, 방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받아들여, 전국 공통어를 더욱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말에는 인사말이 부족한데, 경북 안동 지방에서는 새벽에 마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밤새’ 하면서 인사를 나눈다. 이 말은 아침 인사말로서 널리 썼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서양의 아침 인사말을 번역하여 “좋은 아침이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인사말이다.

또 성대(聲帶)를 새들의 발성기관인 명관(鳴管)의 이름을 빌려다가 ‘울대’라 하고, 성대 위에 있는 후두개(喉頭蓋)를 ‘울대마개’라고 하는 것도 좋은 표현이라고 여긴다.

충청도 지방에서는 사람에 대한 욕을 심하게 하는 일이 드물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러한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개목’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라고 하는 것이 고작이다. 듣기 거북한 쌍시옷 소리보다 이러한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

것도 좋을 듯하다. 평안 방언에서 ‘싸구려’를 ‘늑거리’라 하고 호남 지역에서 ‘재주가 있다’를 ‘연베가 밝다’라고 하는 것도 널리 쓰일 수 있는 말이다.

(3) 땅 이름도 되도록 고유어로

우리 겨레는 역사적으로 고유의 땅 이름을 써 와서 ‘모래내’, ‘새터’, ‘살곶이’, ‘감밭’, ‘갈티’, ‘텃골’, ‘지새울’, ‘무너미’라고 해 왔었다. 이것을 글로 기록할 때에는 모두 한자어로 바꿔서, ‘감밭→柿田’, ‘텃골→基谷’, ‘지새울→瓦山’, ‘무너미→水躰’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 이름이나 다리 이름, 또 학교 이름과 행정 구역을 나타낼 때, 꼭 한자어로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관례대로 ‘한강대교’, ‘남부대로’, ‘북악중학’, ‘노원구’ 등이라고 한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써 온 것을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새로 지을 때에는 ‘큰다리’, ‘큰길’, ‘배밭골중학’, ‘새터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즈음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4) 한자어 쓰기

이미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한자어는 그대로 쓸 수 있다. 문(門), 방(房), 사주(四柱), 편지(片紙), 책(冊), 귀(貴)하다 등.

때로는 한자어가 우리 뜻을 더욱 적절히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한자어라고 무조건 전부 버릴 수는 없다.

(5) 교육의 중요함

고유어 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규범에 맞게 말을 해야 하는 일이다. 오늘날 일반 사람들 가운데에는, 규범어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개) 발 음

① 우리말의 기본 모음 10개 가운데에서, ‘에[e]’와 ‘애[ɛ]’를 구별 못하고, 그 중간 모음인 [E]처럼 발음한다. 그래서 ‘재수’와 ‘제수’를 구별하지 못한다.

② ‘으[i]’와 ‘어[a]’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림을 그린다.”를 “거림을 거린다.”라고 하기도 한다.

③ 까닭 없이 된소리를 많이 쓴다.

과(科) 교수들	→	까 교수들
다른 사람	→	따른 사람
동그라미	→	똥그라미
소주	→	쏘주 → 췌주

(나) 어 휘

① ‘가르치다(敎)’와 ‘가리키다(示)’를 구별하지 못하여, “내가 가리키는 학생들”이라고 한다.

② ‘다르다(異)’와 ‘틀리다(誤)’를 구별 못하고, “그 사람은 나와 달라요.”라고 할 것을 “그 사람은 나와 틀려요.”라고 한다.

③ 호칭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서, ‘친가 아버지·어머니’와 ‘장인·장모’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아버지·어머니’라고 한다. 또 가게에 찾아온 나이 많은 손님에게는 덮어놓고 ‘아버님·어머님’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버지’와 ‘남편’을 모두 ‘아빠’라 하고, ‘남편’을 ‘형, 오빠’라고도 한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성인 남자는 모두 ‘아저씨’ 또는 ‘선생’이라 부르고, 성인 여자는 ‘아주머니’ 또는 ‘아줌마’라 부른다.

(대) 어 법

① 격식체 경어법과 구어체 경어법의 혼용

일반 사람들의 어법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경어법이다. 우리 겨레는 ‘밥’과 ‘진지’, ‘자다’와 ‘주무시다’, ‘먹다’와 ‘들다, 드시다’와 같이 단어의 차이로 존경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와 ‘께서’와 같이 조사의 차이로 존경을 나타내기도 해 왔다. 또 활용 어미의 차이로 상대방을 대우하는 경어법을 발달시켜 왔다.

그런데 근래의 언어생활에서는 이러한 경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수한 고유어를 쓰려고 한다면, 어휘 중심으로 고유어를 되살려 쓰려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5. 맺는말

흔히 대중의 언어생활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말은 일반 대중이 쓰는 말을 바탕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변해 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특수한 역사가 있다. 19세기까지는 한자와 한문이 공용문서의 글자와 글이었다. 20세기에는 일제 강점기에, 비록 각급 학교에서 1주일에 한 시간 씩 조선어 교육이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공용어로 쓰이던 일본어에 눌러서 우리말이 제대로 발달될 수 없었고, 1938년 이후에는 우리말 사용이 거의 금지되었으므로 우리말을 잊어버리게 된 세대까지 생겼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어, 우리말과 우리글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자, 우리 겨레는 50여 년 동안 꾸준히 우리말을 되살려 쓰고, 우리말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빛나는 민족 유산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언어생활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더라도 '부주전상살이(父主前上白是)'라고 하거나 "기체후 일향만강(氣體候一向萬康)하옵시고"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자연스럽게 "아버님께 올립니다.", "아버님 보옵소서."라고 하게 되었다. 또 친구의 아버지나 작은아버지더러 '춘부장'이니 '완장'이니 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러므로 말의 발전과 변화는 일반 대중의 언어생활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우리말의 발전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고유어만 쓰도록 권장해야 한다. 때로는 강제성을 띤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규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교육 기관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이들이 우리 고유어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전과 고전 작품·방언에서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내어서 아껴 쓰고, 할 수만 있다면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로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

어휘정리와 민족고유어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학사 리 호 경

어휘정리는 민족어의 어휘구성속에 들어온 쓸데없는 외래적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민족고유어로 고침으로써 어휘구성을 민족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고 주체성을 보장하는 언어개조사업으로서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광복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휘정리를 평양문화어건설의 기본문제로 내세우고 불필요한 한자말들과 외래어를 민족고유어로 다듬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진행하여왔다.

어휘정리는 우리 말 발전의 역사적특수성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였다.

지난날 우리 말과 글을 천시한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적책동과 일제의 악랄한 조선민족어말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까다로우며 불필요한 한자말과 일본말들이 적지 않게 들어와 우리 말과 글을 어지럽히고 언어생활에 혼란을 주어 우리 인민의 자주의식을 잠먹고있었다.

우리는 광복직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을 언어와 언어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향유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말속에 들어온 일본말과 일본식 한자말을 없애고 학술용어사정을 기본으로 하는 언어정화사업을 벌렸으며 1960년대부터는 고유어에 기초한 하나의 단어체계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어휘정리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하여왔다.

우리는 어휘정리를 단순한 언어적문제로가 아니라 주체성과 민족성고수의 중요한 고리로 보고 이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갔다. 어휘정리를 위한 중요한 국

가적결정들이 채택되고 《국어사정위원회》와 같은 어휘정리를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국가기관들이 나왔으며 어휘정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국가의 유일한 지도와 통제밑에 진행되었다. 어휘정리사업은 국어학자들만이 아니라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는 군중적인 사업이었으며 일반용어뿐만 아니라 학술용어와 고장이름, 품종이름에 이르기까지 어휘부류의 모든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정리사업이었다.

저는 여기에서 어휘정리가 우리 말 어휘구성과 그 기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한다.

어휘정리의 결과 첫째로,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고유어가 량적으로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우선 오랜 기간 우리 말에 침투하여 우리 말 어휘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언어생활에 부담을 주던 까다롭고 불필요한 한자말들과 외래어들이 고유어로 전면적으로 정리되어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떨어져나가고 고유어가 훨씬 풍부화되었다.

실례로 《거담제, 환기, 격음, 교반, 광견, 권척, 환차》와 같은 한자말들이 《가래삭임약, 공기갈이, 거센소리, 비빔밥, 미친개, 도래자, 차갈이》로, 《쓰메에리, 벤도, 덴뿌라, 노크, 원피스, 슬리퍼, 로쁘, 카텐》과 같은 외래어들이 《달긴깃, 밥곽, 기름튀기, 손기척, 달린옷, 끌신, 쇠바줄, 창가림》으로 정리되었다.

그런가하면 지난시기 실지 언어생활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씌여온것으로 하여 다듬기 어렵다고 보던 한자말들도 고유어로 다듬었다.

《년세, 사료, 동복, 오침, 입장표, 거주지, 금년》과 같은 단어들을 《나이, 먹이, 겨울옷, 낮잠, 나들표, 사는곳, 올해》등으로 정리한것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특히 우리 말속에 들어와 어느 정도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던 한자말학술용어들도 대담하게 고유어로 다듬어 고유어학술용어체계로 만들어 놓았다. 《쇠》를 가리키는 한자 《철》이 들어가있던 《철광석, 철망, 철사, 철삭, 철편》같은것이 《쇠돌이, 쇠그물, 쇠줄, 쇠바줄, 쇠조각》등으로 다듬어지고 《잎》을 가리키는 한자 《엽》이 들어가있던 한자말들인 《엽맥, 엽신, 엽아, 침엽, 활엽》이 고유어학술용어체계 《잎줄, 잎몸, 잎아귀, 뽕죽잎, 넓은잎》등으로 다듬어져 하나의 정연한 학술용어체계로 만들어졌다.

어휘정리에서는 단순히 한자말과 외래어들을 고유어로 바꾸기만 한것이 아니라 지난날 방언에 묻혀 소극화되었거나 없어질변하였던 고유어들, 인민들의 입말에만 남아 비표준적인것으로 인정되고있던 고유어들까지 낱낱이 찾아내여 문화어로 승격시킴으로써 고유어의 비중을 점차 늘여나갔다.

결과 방언으로 취급되어 소극적으로 쓰이던 《게사니, 길나들이, 집난이, 노치, 떠개, 촌바우, 털부숭이, 썰매, 딱친구, 방치, 허재비, 남새》와 같은 고유어들과 비표준적인것으로 인정되었던 《맞은켄, 머리태, 반주검, 산듯하다, 새근거리다, 기겁, 로친네, 종달음, 통발, 건덕지, 괴목, 답새기다, 터치다, 괴명, 남남하다, 신새벽》과 같은 수많은 고유어들이 문화어어휘구성속에 들어왔다.

어휘정리과정에는 고유한 우리말뿌리에 기초하여 새말도 많이 만들어 졌다.

《맛내기, 눈석이, 차림표, 무리등, 손짐, 다락밭, 단술, 맛단추, 발편잠, 새벽길, 제비뽑기, 줄인젓, 뿌무개, 물주머니, 앞치마, 나사돌리개》등은 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씌여왔고 또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고유어이다.

오늘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고유어는 무려 60%이상으로서 어휘체계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다.

어휘정리의 결과 둘째로, 고유어의 기능이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우선 고유어와 2중체계를 이루고있던 한자말과 외래어들이 없어지거나 다듬어짐으로써 고유어에 의한 하나의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의 고유어 《탈춤, 뽕누에, 다시마, 닭알, 벼짚, 꿀, 봄가을, 범가죽, 먼길, 따스하다, 꾸짖다》등과 2중체계를 이루고있던 《가면무, 가잠, 곤포, 계란, 도고, 봉밀, 춘추, 호피, 원로, 온난하다, 질책하다》와 같은 한자말들이 완전히 없어져 고유어에 기초한 단일체계가 수립되었다.

또한 고유어가 높은 단어조성능력을 가지고 단어만들기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유어말뿌리에 기초한 단어만들기수단과 수법이 적극적으로 리용되었을뿐아니라 새로운 단어만들기수단과 수법도 풍부히 발전하였다.

고유어동사, 형용사, 부사의 말뿌리들이 다른 말뿌리와 자연스럽게 합쳐져 《더덜기법, 거스름돈, 단맛, 마른갈이, 마른명태, 부침땅, 후리채, 걸그림, 건늬길, 살짜공, 여러자리수》와 같은 새로운 고유어가 만들어졌으며 《아침모임, 축받이, 게우기, 살림살이, 무계달기, 깨우쳐주기》에서와 같이 뒤붙이 《-ㅁ, -기, -이》를 리용한 단어 조성수법이 활발히 리용되고있다.

고유어가 적극적으로 쓰이는데 따라 고유어의 뜻체계도 보다 풍부화되었다.

실례로 일반단어 《짐》이 학술용어속에 침투하여 《전기짐》에서와 같이 《전력을 흐르게 한 부담 또는 부담의 량》의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마당》이 《전기마당, 자기마당》에서와 같이 《힘을 전달하는 매질공간》의 뜻으로 뜻폭이 넓어지는 등 고유어의 뜻폭이 전반적으로 넓어졌다.

다음으로 수많은 한자말과 외래어들이 우리 말로 다듬어 지고 그것이 적극 쓰임에 따라 실지 언어생활에서도 민족성이 높이 발휘되게 되었다.

지난날 많이 쓰이여온 《돈육, 돈피, 돈사》나 《상전, 상업》과 같은 말들이 《돼지고기, 돼지가죽, 돼지우리》나 《뽕밭, 뽕잎》으로 다듬어지고 언어생활에서 활발히 쓰이면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휘정리과정에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수많은 한자말들과 외래어들이 민족고유어에 자리를 내주고 없어짐으로써 민족고유어는 량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보다 풍부해지고 강화되었으며 우리 말 단어체계에서는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다.

어휘정리과정에 다듬어지거나 새롭게 생겨난 고유어들은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말로서 수용력이 높으며 민족어발전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오늘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에서 중요한 문제는 민족고유어에 기초하여 어휘정리사업을 중단없이 꾸준히 진행해나가는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난날의 어휘정리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이 대대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고유어를 적극 살려 나감으로써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민족어 공동 순화를 위한 제안

박 창 원(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좀 더 우리말답게 만들고자 하는 국어 순화 운동의 역사는 개화기 혹은 구한말로 소급해 간다. 그리고 일제 시대를 거쳐 해방 후 지금까지 국어 순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순화의 목표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써 오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거나 문어와 구어를 일치하기 위한 운동이었고, 그 다음의 순화는 강제적으로 유입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나 서구어를 몰아내거나 국어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 다음의 순화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구의 외국어를 좀더 국어답게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주시경으로 대표될 수 있는 초기의 국어 순화 운동은 문어체의 문장을 구어체로 바꾸고, 학술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구어체의 문장으로 바꾸는 일은 개화기 당시 국어에 관계한 모든 사람들의 글에서 볼 수 있다. 국어학에 관련되는 학술 용어를 토박이말로 바꾸는 작업은 주시경 선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 시대의 말기에는 한국어 말살 정책으로 국어가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지만, 그 이전에는 방언 중 표준어를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른바 '사정환 표준말 모음'은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일제 시대에 들어온 일본어 중 적어도 일상용어는 현재 거의 다 청산된 단계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어의 잔재를 일소하려는 순화 운동을

별이거나, 국어학자나 국어 정책 당국에 의해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운동을 꾸준히 벌인 결과인 것이다. 일본어의 흔적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의 방향은 어휘 자체를 고유어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벤또, 스메끼리, 우와기' 등 근래까지도 세력을 잃지 않고 사용되던 것들도, 지속적인 국어 순화 운동의 결과로 이러한 어휘들이 일본어의 잔재라는 인식이 언중들에게 확산됨으로써, 소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유어인 '도시락, 손톱깎이, 웃웃' 등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한편 고유어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를 차용하여 대체하였다. 예를 들어 '에리, 조시' 등이 '칼라(collar), 컨디션(condition)' 등의 영어로 대체되는 것이다. 또 다른 순화의 과정은 일본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차용된 외래어를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교정하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화한 것이 들어와서 사용되던 '빠꾸(back), 추리닝구(training), 난닝구(running), 도라꾸(truck), 스게또(skate), 도라무(drum)' 등이 '백, 추리닝, 런닝, 트럭, 스케이트, 드럼' 등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특수 분야, 예컨대 복식 분야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나 건축, 인쇄, 기계 등 기술 분야를 비롯하여, 법률과 관계되는 전문적인 분야 심지어는 이발소, 미장원 등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서 일본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국어 순화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의 흔적은 그 생명력을 꽤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해방 후 각기 다른 외국어를 받아들이고, 각기 다른 순화 운동을 펼쳐 순화 작업 자체가 남한과 북한의 언어를 이질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민족어의 동질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순화 작업을 펼칠 필요가 대두되었다. 본고는 이를 위한 약간의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다.

2. 순화 대상어의 공동 선정

국어 순화를 하기 위해서는 순화의 대상이 되는 어휘가 선정되어야 한다. 순화의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민족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음으로는 좀 더 아름답고 곱고 쉬운 우리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으므로,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말, 거칠고 상스러운 말, 그리고 어려워서 학습이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말들은 순화의 대상어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점은 보는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한이나 북한이 공동으로 순화 대상어를 선정기 위한 기준점을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상어를 선정하는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개개 어휘나 문장 혹은 문체를 검토해야 실질적인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어휘의 차원에서 공동으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1. 순화의 대상이 되는 한자어 혹은 외래어

첫째, 국어로 인정할 수 없는 서구어

순화의 대상이 되는 일차적인 어휘는 서구 어원의 어휘이다. 즉 서구 문물과 사상의 무분별한 유입과 함께 들어온 서구어로서 국어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정착한 단계가 아닌 서구어는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순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스처, 조인트, 체인[^]스티치, 재킷, 징크스, 조크, 정크[^]아트, 카-폰, 카운트다운, 카-풀’ 등은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으므로 순화하도록 한다.

둘째, 어려운 한자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가 아닌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한자어는 순화의 대상이 된다. 한자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 적었을 경우 그 의미가 다양하게 되거나 혹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화의 대상이 된다. 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같은 음을 가진 한자어가 많아서 그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상전’은 ‘윗사람’인지 ‘뽕밭’인지 알 수 없으므로 순화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교’의 경우

‘임시 다리’인지 ‘다리 놓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순화의 대상이 된다.

한자 자체가 어려운 것이어서 의미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도 순화의 대상이 된다. ‘압추공(加壓錐孔), 가웅예(假雄藥), 각수(脚鬚), 간극감합(間隙嵌合), 간극감합(間隙嵌合), 자음(煮絨), 자예(雌藥)’ 등은 어려운 한자들이어서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이러한 어휘는 모두 순화의 대상이 된다. 어려운 한자는 아니더라도 생소한 한자여서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경우에도 순화의 대상이 된다. ‘추공(椎孔), 각도(刻刀)’ 등은 개개 한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므로 순화의 대상이 된다.

셋째, 일본어 혹은 일본어의 잔재

일제 시대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어의 잔재는 모두 순화의 대상이 된다. 다음의 예들은 이에 속한다.

"가리방"	"가케-우동"
"곤냐쿠"	"가라(가짜, 헛)"
"가라오케"	"고테"
"가라테"	"가마보코"
소라빛	

이들은 민족적인 정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모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순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식 한자어 혹은 일본식 외래어

일본과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인 관계로 인하여 일본식 한자어 발음 혹은 일본식 외래어 발음이 국어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모두 순화의 대상이 된다. 일본식 외래어는 일본어의 음절 구조와 한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로 인해, 한국의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외래어는 순화의 대상이 된다. ‘그라스(glass), 추리닝구(training), 난닝구(running)’ 등은 일본식 발음을 반영한 외래어로서 한국어의

외래어 발음과 맞지 않으므로 순화의 대상이 된다. 몇 예를 더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가라"(collar)
 "고로케"(chrocket?)
 "고뿌"(cup)
 "게라(galley)
 "간데라"(kandelaar)
 "공구리"(concrete)

다섯째, 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한자어나 외래어

어렵거나 생소한 한자어 혹은 외래어가 아니더라도, 고유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래어나 한자어는 국어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순화의 대상이 된다. ‘석교, 좌대’ 등의 한자어는 그렇게 생소한 한자어는 아니지만, ‘돌다리, 깔판’ 등의 고유어가 있고 이들과 의미가 동일하므로 순화의 대상이 된다. ‘조인트, 조크’ 등의 서구어도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이음새, 우스개’ 등의 고유어가 있고, 이들 고유어가 그 의미 영역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순화의 대상이 된다.

여섯째, 국적 불명의 외국어

현재 통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 중에는 그 어원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원을 추적할 수 있더라도 그 어형이 왜곡되어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순화하여 국어다운 표현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어의 감각에 맞지 않는 신조어

외국어와 국어를 섞어서 새롭게 만든 신조어 중에서 국어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모두 순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개’와 ‘meeting’을 섞어서 만든 ‘소개팅’ 류의 어휘들은 순화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사이 통신 언어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은어나 속어와 같은 어휘들도 순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순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자체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도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어휘를 선별하여 국어다운 어휘를 만들어 가는 작업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2.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자어 혹은 외래어

순화의 대상이 되는 어휘는 기본적으로 외래어나 한자어이다. 이들 중 순화의 대상에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첫째, 토착어가 되어 버린 외래어나 한자어

국어에 차용된 지 오래되어 고유어처럼 되어 버린 외래어는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어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은 그 의미 영역이 고유어에 존재하지 않아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이 일상어처럼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중의 언어생활에서 한자어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친숙한 어휘는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총각, 처녀, 천지’ 등과 같이 한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식으로 의미를 만들어 낸 어휘는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염, 비단’ 등과 같이 한자어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언중에게 친숙한 어휘는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학교, 수업, 문과, 이과’ 등과 같이 한자어로 인식되지만, 이들이 고유어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므로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포, 라디오’ 등 서구어 기원의 어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적, -성, 비-, 불-’ 등과 같이 한자어로 인식되지만 국어의 접두사나 접미사처럼 사용되어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국어로 대체하기 어려운 외래어

새로 유입되는 외래어 중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언어는 지칭

하는 대상인 문물이나 정서, 사상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므로, 외국과의 접촉에 의해 외래의 문물이나 정서, 사상이 유입되면 언어도 같이 유입된다. 그런데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외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국어에 대응되는 짝을 찾을 수 없는 어휘가 외국으로부터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종류의 어휘는 고유어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국어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통용되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생물학이나 화학에서 사용되는 ‘게놈’이라는 단어는 이에 대응될 수 있는 고유어가 없으므로 그대로 국어로서 인정하게 된다.

셋째, 세계적인 공용어로 인정할 수 있는 외래어

국어는 고유어로서의 개별성과 언어로서의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다. 고유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일반 언어로서의 보편성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중 후자의 영역을 공유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어휘는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예 속하는 어휘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에 관련된 용어는 지구상에 한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슛, 리바운드, 헤딩, 스트라이크, 볼’ 등 스포츠 용어에 관련된 것이나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게놈’이나, ‘디엔에이, 알엔에이’ 등과 같은 전문적인 학술 용어 등은 보편 언어의 한 부분으로 공유하게 하여 순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순화 원칙의 공유

순화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화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순화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순화 대상어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좀 더 인지도가 높고 쉽고 간편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순화 대상어와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는 지칭되는 개념의 내포와 외연은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순화어는 기존의 순

화 대상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족(單語族) 안에서의 위치를 승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만을 승계해야 한다. 셋째 순화어는 기존의 언어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들과 관련하여 순화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기된 바 있다. 박철우(미간)에서는 Moskv(1976:6)을 인용하여 언어 수정을 위해서는 '어감(語感), 정밀(精密), 표현(表現), 순수(純粹), 풍부(豐富), 정자(正字)'의 요구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순화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요구를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순화를 위한 이런 요구들은 언어 사용자로서의 언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과 언어 자체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순화의 성패가 궁극적으로 언중들의 사용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언중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순화어는 언중에게 친숙하고 인지도가 높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순화어는 구조적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순화어는 용이성과 간편성, 개념의 동일성과 가치의 동질성, 다른 어휘와의 개념의 차별성과 예견성, 단어족의 호응성, 문법적인 적격성, 발화의 경제성 등의 원리가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순화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들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3.1. 인지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순화어의 성패가 언중들의 사용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인지도 우선의 원칙은 순화의 첫 번째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순화어는 순화 대상어에 비해 언중의 인지도가 높은 것이어서 생소하지 않아야 한다. 언어는 언중이 사용하면 살아남아 생명력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것이 되고, 덜 혹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은 소멸의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순화어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

서는 순화어 자체가 평소에 언중들에게 익숙하여 생소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순화어에 쉽게 익숙해져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체인지 interchange'를 '나들목'이라고 순화하였는데, 이 경우는 '나들이'한다는 개념과 '목'이라는 개념이 이미 언중에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언중들이 이것의 복합어 '나들목'에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개념 역시 '자동차'와 '원거리 나들이'라는 개념이 호응을 일으켜 쉽게 언중들에게 자리 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지도의 문제는 순화어의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인지도 우선의 원칙

3.2. 용이성과 간편성

순화어는 순화 대상어보다 쉬운 것이어야 한다. 쉽다는 개념은 두루두루 알고 있는 개념이든지 아니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순화어에 사용되는 어휘 요소는 한자어보다는 고유어,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쉬운 한자어를 선호하게 되고, 고유어의 경우도 언중들에게 익숙한 어휘가 선호되는 것이다.

⇒ 용이성의 원칙

한편 순화어는 어휘 구조의 측면에서 좀 더 간편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순화어로는 구보다는 단어, 복합어보다는 단일어가 선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순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서 단어보다 구의 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 (1) 가. 가록 --> 추가로 적어 넣음
- 나. 가사 --> 아름다운 말과 글
- 다. 가수금 --> 임시 받은 돈
- 라. 가차 --> 임시로 빌림

(1)의 예는 순화 대상어인 단어를 순화어로 고칠 때 구의 구조로 고친 것들이다. 이런 예는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보다 남한의 <<표준 국어 대사전>>의 순화

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단어를 구로 순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구로 표현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로 순화된 어휘는 사전의 표제어가 되기 어렵고 언중들에게 한 단어로 인식되기 어려워 결국 어휘 목록에서 사라지기 쉽다.

물론 구의 형식을 가지더라도 순화어가 명명적인 특징을 강하게 가지는 경우는 언중들에게 단어로 기억되고 사전에 표제어로 남을 수도 있다.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이나 식물의 학명은 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공적인 순화어로 자리 잡고 있다.¹⁾

(2) 검은얼굴원숭이, 흰줄박이물돼지, 검은머리흰죽지, 긴발톱할미새, 나비꼬리금붕어, 검은반날개배짱이, 알락수염긴하늘소.....

이와 같은 예를 제외하면 대체로 구의 형식보다는 단어의 형식을 갖는 것이 성공적인 순화어로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간편성의 원칙

3.3. 개념의 동일성과 가치의 동질성

순화 대상어가 지칭하는 개념과 순화어가 지칭하는 개념이 동일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은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가 개념상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

(3) 가. 가든 파티 --> 마당 잔치

나. 가십 --> 촌평

다. 가필 --> 고쳐 씌

라. 갈색 --> 밤색

1) 동식물명 순화어의 성공 사례에 대한 지적은 민현식(2002)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동식물의 학명이 구 형식을 가지면서도 순화어로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했던 것은 명명성이 강하다는 점과 전문 분야에만 쓰인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마. 게임 메이커 --> 주도 선수
- 바. 경음기 --> 나팔
- 사. 가루우유 --> 가루젓

(3)의 예들은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가 개념상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 경우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를 모두 쓰거나 순화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

순화어와 순화 대상어가 개념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순화 대상어 1개에 순화어를 여러 개를 대치시키기도 한다.

- (4) 가. 가가호호 --> 짹짹마다, 짹짹이
- 나. 가라오케 --> 녹음 반주, 노래방
- 다. 감안 --> 생각, 고려, 참작
- 라. 건면 --> 마른국수, 말린 국수
- 마. 검은 --> 온도 재기, 체온 재기

⇒ 개념 동일의 원칙

한편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는 중심 의미뿐 아니라 정서적인 의미 내지 연상적인 의미도 동일해야 한다. 즉,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의 가치 개념이 동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마우스'는 '쥐들이'라고 순화했을 경우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순화의 방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마우스'는 컴퓨터 사용의 편리성을 더해 주는 더할 수 없는 소중한 도구 중의 하나인데, 한국어에서 '쥐'라는 개념은 단순한 생물체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에게 해롭고 지저분하다는 연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순화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²⁾

⇒ 가치의 동질성 원칙

2) 만약 '쥐'에 대한 연상적인 의미가 바뀌면, 예를 들어 '쥐'가 '깜찍하고 귀여운 애완 동물' 쪽으로 바뀌면 이러한 류의 순화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3.4. 개념의 차별성과 예견성

실질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사용되는 있는 어휘는 모두 제 나름대로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다른 것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다. '같은 말'이라고 지칭되는 '아버지'와 '부친'도 그 사용되는 환경과 개념에 약간의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순화 대상인 어휘가 실질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은 모두 제 나름의 의미 영역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들을 순화한 어휘 역시 어망 내지는 어휘 체계에서 개념이 정확해서 다른 것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순화어는 자신의 의미 영역을 차지하고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어휘와 차별적인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각기 다른 순화 대상어를 하나로 순화하는 것은 분화되었던 개념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순화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가마보코'와 '오탱'을 모두 '어묵'으로 순화하는 것은 각기 다른 순화 대상어를 동일한 순화어로 순화하는 경우가 되므로, 이들을 구분해서 사용하던 계층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순화어가 되는 것이다.

⇒ 개념 차별성(독립)의 원칙

순화어가 다른 개념과 충돌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휘소 내지는 단어의 구성 요소로써 그 개념이 예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이 있는 접사를 사용한 파생법을 활용하거나 자주 쓰이는 어휘가 포함되는 합성법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5) 가. 가계약 --> 임시 계약

나. 가교--> 임시 다리

다. 가교사 --> 임시 교사

라. 가등기 --> 임시 등기

(6) 가. 가사 --> 가짜죽음

나. 가근 --> 가짜뿌리

다. 가화 --> 가짜꽃

(5)와 (6)의 예는 한자어 접두어 ‘가(假)-’를 상황에 따라 ‘임시’ 혹은 ‘가짜’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순화어를 만든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순화 대상어가 접사를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순화어에 접사나 접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의미가 예측되는 순화어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 개념 예전의 원칙

3.5. 조어 방식의 적격성

순화어는 국어의 조어법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8) 가. 가감법 --> 더덜기(법)

나. 가스청정 --> 가스맑히기

다. 가축성 --> 줄음성

라. 각질층 --> 빨질층

(8가)의 경우 한자어 ‘가감’을 이른바 ‘비통사적 합성어’ ‘더덜-’에 대응시켜 고유어로 순화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고유어의 사용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했던 북한에서의 순화어에 많이 나타나는데, 동사 어간끼리의 비통사적 합성법은 현대 국어에서는 이미 생산적인 단어 형성의 방법이 아니다.³⁾ (8나)는 자연스럽지 않은 사동형을 이용하여 순화한 것으로 역시 북한에서 이루어진 순화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현대 국어에서 사동사나 피동사를 만드는 ‘이, 히, 리, 기’ 등의 접미사는 공식적인 생산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사동형이나 피동형을 이용한 조어법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8다)의 경우는 주로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는 접사 ‘-성(性)’이 고유어와 결합함으로써 어색하게 된 순화어이다. (8라)는 (8다)보다는 쉽게

3) ‘가감 --> 더덜’, ‘가감법 --> 더덜이’와 같은 방식의 순화어는 남한에서도 한글 학회의 <<쉬운 말 사전>>에도 나온다. 한글 학회의 <<쉬운 말 사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고유어로의 순화가 무리가 된다는 비판이 이루어진 바 있다.

받아들여지지만 고유어와 한자어를 조합한 합성어이어서 그리 자연스럽지 못하다.

(8)과 같은 자연스럽지 못한 조어법을 이용한 순화어의 형성은 고유어 사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북한에서의 순화어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경향은 순 한글로의 순화에 집착했던 한글 학회의 <<쉬운 말 사전>>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특징이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필요한 순화어를 만드는 데에 한자어를 사용하는 등 고유어 사용만을 고집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준다.

⇒ 자연스러운 조어 방식의 원칙

3.6. 통사 기능의 동질성

순화어는 순화 대상어와 문법적인 기능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언어가 인간에 의해 사용됨으로써 그 생명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순화 대상어가 사용되는 문법적인 기능과 순화어가 사용되는 문법적인 기능이 다를 경우 순화어는 순화 대상어를 대체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개개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그 단어가 사용되는 화용론적 의미나 문법적인 의미 내지는 기능을 동시에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자식 조어로 된 복합어를 고유어의 명사형으로 순화하는 경우에 그 문법적인 기능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7) 가. 감내 --> 견뎌

가'. 감내하다 --> 견뎌하다

나. 감축 --> 줄이기

나'. 감축하다 --> 줄이기하다

다. 객혈--> 피 토하기

다'. 객혈하다 --> 피 토하기하다

‘어려움을 감내하자’라는 문장이 사용되는데, ‘감내’의 순화어인 ‘견뎌’는 ‘감내’의 문법적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또 ‘견뎌’는 ‘감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문법적인 영

역 즉 동명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순화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화어의 경우

군비의 감축은 ⇒ 군비의 줄이기는

군비를 감축하기는 ⇒ 군비를 줄이기는

‘감축’과 ‘줄이기’가 품사 분류상으로는 동일한 명사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둘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인 기능은 다른 것이다. 명사는 그 기능이 동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기능이 실질적인 문장 내에서는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게 되므로 이것이 순화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통사 기능 동질성의 원칙

3.7. 단어족의 호응성

한편 순화어는 단어족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 순화어는 가능하다면 연어의 형성이나 속어의 형성 등이 가능하여 순화 대상어가 쓰이는 모든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어야 하고, 순화 대상어의 반의 관계, 상하위어 관계 등에서도 만족스럽게 대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순화어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7) 가. 감내 --> 견뎌

가'. 감내하다 --> 견뎌하다

나. 감축 --> 줄이기

나'. 감축하다 --> 줄이기하다

다. 객혈-> 피 토하기

다'. 객혈하다 --> 피 토하기하다

‘감내하다’의 경우를 보면, ‘감내’는 명사로 사용되면서 ‘감내하다’라는 복합어를 만

든다. 이들은 하나의 단어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감내'의 순화어인 '견담'은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감내'는 '인내', '견디다', '참다' 등과도 하나의 단어족을 이룬다. '감내'가 '견담'으로 순화될 경우 '견담'은 '감내'가 가지고 있던 단어족과의 호응 관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단어족 호응의 원칙

3.8. 발화의 경제성

외국의 다양한 언어는 다양한 음운 체계와 음절 구조 및 조음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국어에 그대로 유입될 경우 원발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한국어의 발화 현상에 어긋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순화어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가능한 한 보편적인 쉬운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음소 결합과도 부합하여 조음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순화해야 할 것이다. 초성과 종성의 결합이 복잡한 중국어의 경우나 음절 연결이 복잡한 언어일 경우 한국인의 발음 관습을 고려하여 순화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발화 편의의 원칙

4. 공동 순화를 위한 기구 설립의 자세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국어 순화를 위한 안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의 양해 아래 비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이다. 즉 공동 순화를 위해서는 통일 전인 현재 북한의 국어학자와 만나는 통로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된 후에 갑작스럽게 상이한 단어가 충돌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서로가 공동 순화안이 남한이나 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정리해 본다.

4.1. 남북한 국어학자 협의회 구성

남한과 북한의 학자 전공 영역별로 자유롭게 심의회나 학회 혹은 협의회를 결성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동으로 학문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국어 정책만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는 없기 때문에 국어 정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학자적인 관점이나 취향을 알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유대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유대감을 가지고서 국어 정책에 관한 공동의 이론을 도출하거나 참여한 학자가 개인별로 국어 정책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개화기에 학부의 국문 연구소에서 여러 안건을 놓고 심의한 후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동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유사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4.2. 남북한 국어 정책 심의회 구성

남북한의 공동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어 정책 심의회가 공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국어 정책 심의회(가칭)을 둘 경우에는 이 기구보다 상위의 기구로서 구성원을 달리하여 최고 결정 기구로서의 심의회를 두어야 한다.

이보다 더 우선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남북한 공동의 안건을 가지고, 별도의 심의 기구를 구성하여 협의하는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이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협의에서 결정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 협의회는 남북한 국어학자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최상의 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 남북한 공동 연구 공간의 확보

남북한 학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남한이나 북한 혹은 중국에 연구소를 두고,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한 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상대방 순화안의 수용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체 순화 대상어 중 공통되는 어휘는 약 20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순화 용어를 수용하면 바로 그것이 공통 순화어가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화어를 수용하면 이 역시 남북한 공통 순화어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5. 쟁점의 도출과 토론

남북한 학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을 찾아내고, 좀 더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어 순화의 방법에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방법론이 옳은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는 어떤 어휘로 순화할 것인가, 이렇게 순화했을 경우 한국인의 언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토론되고, 그 결과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제3분과 말뭉치와 부호 표준화



빈 면

구어 자료를 통한 국어 문법의 통계적 분석

권 재 일(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현대 국어의 대화 자료를 대상으로 구어의 문법 현상, 구체적으로는 문장 종결 표지의 사용 빈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국어의 구어 문법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국어의 구어를 반영하는 대화 자료이다. 대화 자료란 ‘순수하게 말해진 것을 전사한 것’을 말한다.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이에 속한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자료-1] 30분, 20대 대학(원) 학생, 서울, 2002년 9월

[자료-2] 60분, 20대 대학(원) 학생, 서울, 2002년 10월

[자료-3] 60분, 20대 대학(원) 학생, 서울, 2002년 10월

[자료-4] 60분, 20대 대학(원) 학생, 서울, 2002년 11월

[자료-5] 60분, 20대 대학(원) 학생, 서울, 2002년 11월

[자료-6] 20분, 20대 대학(원) 학생, 서울, 2002년 11월

국어의 문법 범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문법 범주의 전형적인 실현 방법은 어미와 조사에 의한 것이다. 다음 문장 (1)에서 보면 문장 종결법은 모두 고유한 문장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 ‘-다’는 서술 어미, ‘-느냐’는 의문 어미, ‘-어라’는

명령 어미, '-자'는 청유 어미이다.

(1)ㄱ. 철수는 그 책을 읽었-다.

ㄴ. 철수는 그 책을 읽었-느냐?

ㄷ. 그 책을 빨리 읽-어라.

ㄹ. 우리도 그 책을 읽어 보-자.

그러나 다음의 '-으오'는 서술 어미로뿐만 아니라, 의문 어미, 명령 어미로도 기능한다. 차례대로 각각 명령문, 의문문, 서술문에 '-으오'가 쓰였다.

(2)ㄱ. 어서 서둘러 가-오.

ㄴ. 왜 꾸물거리-오?

ㄷ. 그렇잖아도, 곧 떠나려는 참이-오.

이러한 '-으오'와 같이, 어느 한 문장 종결에만 쓰이지 아니하고 하위 범주인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두루 쓰이는 문장 종결 어미를 '범용 문장 종결 어미' (줄여서, 범용 어미)라 할 수 있다. 범용 어미에는 '-으오'뿐만 아니라 '-어'와 '-지' 등도 있는데, 이들 역시 서술문뿐만 아니라,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도 쓰인다.

고유한 문장 종결 어미, 그리고 범용 어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어미들도 문장 종결을 실현할 수 있다. 의문문의 예를 들어 보자. 문장 (3), (4), (5)의 A는 각각 서술 어미, 명령 어미, 청유 어미가 의문문을 실현한 경우이고, 문장 (6), (7)의 A는 각각 접속 어미 '-구, -면서'가 의문문을 실현한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각각 어미의 고유한 기능이 다른 기능으로 전용된 경우라 하겠다.

(3)A: 근데 얼굴이 안좋-다?

B: 안 좋긴, 차 저쪽에 세워 났냐?

(4)A: 이거까지 하-라-구?

B: 해. 재임용 탈락 되는 건 아니지?

(5)A: 우리반 홈페이지를 만들-자-구?

B: 근데 내용 같은 건 내가 만들어도 되는데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도메인 따는 거 같은 건 니가 좀 도와 줄래? 너 컴퓨터 잘하잖아.

(6)A: 고향엔 안 내려갔다 오-구?

B: 학원을 끊어갔구요. 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7)A: 아니, 그 분은, 저희가, 그런 게 대물림이-라-면서-요?

B: 예.

다음 문장도 의문문이다. 이들은 온전한 문장으로 끝맺지 아니한, 문장 조각으로 의문문을 실현하고 있다. (8)의 A, (9)의 B가 그러하며, (10)의 A는 관형어로 끝맺은 의문문이다.

(8)A: 아이 내가 밥 먹는 거까지?

B: 아니 자기 밥 먹은 거만 가져 갔어.

(9)A: 나갈 수만 있으면 바람 괜히 드는 건 아니구 나가면 좋지.

B: 그래요?

(10)A: 그르른 강의 나가시는?

B: 그거야 딴 사람한테 넘겨 주고 가면 되는 거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문장 종결이 실현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1) 문장 종결의 실현 유형

ㄱ. 고유한 문장 종결 어미

ㄴ. 범용 문장 종결 어미 (줄여서, 범용 어미)

ㄷ. 다른 문장 종결 어미(서술 어미, 의문 어미, 명령 어미, 청유 어미)의 전용

ㄹ. 접속 어미의 전용

ㅁ. (온전한 문장이 아닌) 문장 조각

구어 자료 [자료-1~6]을 분석한 결과 모두 3506 문장이 나타났다. 이를 문장 종결별로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술문(평서, 감탄, 약속 포함)이 전체 65.15%로 가장 많고, 의문문이 30.60%이다. 명령문과 청유문은 각각 3.88%, 0.37%로 극소수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언급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구어에서 이 두 범주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12) 문장 유형별 총 빈도

문장 유형	빈도수	백분율(%)
서술문	2 284	65.15
의문문	1 073	30.60
명령문	136	3.88
청유문	13	0.37
전체	3 506	1 00.00

2. 서술문의 실현 방법

전체 자료에서 서술문은 모두 2284 문장이 나타났다. 이를 실현 유형별로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서술문의 실현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1) 서술 어미	312	13.66
(2) 범용 어미	1522	66.64
(3) 의문 명령 청유 어미	0	0.00
(4) 접속 어미	147	6.43
(5) 문장 조각	303	20.74
	2 284	1 0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용 어미에 의한 실현이 전체 66.64%로 압도적이다. 전체 2/3를 차지한다. 범용 어미에 의한 실현이란, 범용 어미는 문장 종결을 표지하고, 운율적 방법인 내림 억양이 서술문임을 표지2003년 남북 학술 모임 원고 최종본(인쇄용)하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현대 국어의 구어에서 운율적 방법의 도움을 받은 범용 어미가 서술문 실현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고유한 서술 어미에 의한 서술문은 13.66%로, 범용 어미에 의한 서술문의 1/5에 그친다. 그리고 '체언, 체언+조사, 부사어, 감탄어, 관형어' 등으로 끝맺는, 문장 조각의 서술문은 20.74%로 나타나, 오히려 고유한 서술 어미에 의한 실현보다 빈도가 높다. 접속 어미를 전용해서 실현하는 경우는 6.43%로 나타났다. 이제 실현 유형별로 구체적인 빈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2.1. 먼저 서술 어미에 의한 실현이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4) 서술 어미의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다/라	114	4.99
-다/라-어/구/니까	101	4.42
-게	2	0.09
-네	43	1.88
-습니다	5	0.22
-어라	1	0.04
-구나	25	1.09
-구먼/구만	7	0.31
-을걸	5	0.22
-을게	9	0.39
	312	13.66

빈도수를 보면, ‘-다’ 형태가 4.99%로 가장 많다. 여기에는 ‘-다’를 비롯하여 ‘-더-라’를 포함한 것이다. ‘-다’와 ‘-더-라’뿐만 아니라, 이들 형태에 ‘-어’, ‘-구’(문어의 접속 어미 ‘-고’), ‘-니까’ 등이 결합한 ‘{-다/라}+{-어/구/니까+(요)}’(-대/래, -다/라-구, -다/라-니까)도 4.42%로 높다. 결국 ‘-다’ 형태가 서술 어미에 의한 실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5) ㄱ. 색깔 같은 거 안 따지고 입는-다.

ㄴ.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봐도 또 끊임 없이 얘기를 하-더-라.

(16) ㄱ. 아니, 분홍 색 좋아하는 사람이 아빠를 무서워하는 거가 있-대-요.

ㄴ. 내가 자기보다 더 정도가 심하-다-구.

ㄷ.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낫-다-니까.

전통적인 문어 문법에서 청자 높임의 등급을 ‘합니다, 하오, 하네, 한다’와 같이 네 등급으로 나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다’ 형태는 구어에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습니다, -으오, -네’ 형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습니다’를 보면 0.22%로 빈도가 매우 낮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에 국한해서 보면, 적어도 20-30대 나이 화자의 일상 대화에서 이들 서술 어미들은 거의 소멸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에서 다시 밝히겠지만, 이들은 범용 어미, 특히 ‘-어-요’ 형태로 그 기능이 옮겨 간 것이라 하겠다. 즉, ‘-습니다, -으오’는 ‘-어-요’로, ‘-네’는 ‘-어’로 대체되었다. 물론 극히 사무적이거나 혹은 격식을 갖추어 정중해야 할 상황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17B)와 같이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7)A. 아니, 저는 여간해서는 F 안 줘요, 잘.

B. 네, 고맙습니다. 저는 시험도 잘 봤-습니다.

감탄, 혹은 확인을 나타내는 ‘-구나, -구먼’과 약속을 나타내는 ‘-을게’도 실현된다. 그러나 약속의 ‘-으마’는 한 예도 보이지 않는다.

2.2. 다음은 범용 어미에 의한 서술문 실현이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8) 범용 어미의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어	1 004	43.96
-지	243	10.64

-거든	136	5.95
-는데	139	6.09
	1 522	66.64

범용 어미 가운데 ‘-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어’는 구체적으로 ‘-어, -어-요, -시-어-요, -세요, 체언-이-야, 체언-이-예-요’ 등으로 나타나는데, 서술문 전체의 43.96%로 빈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면, 구어에서 ‘-어’는 국어 서술문 표지의 대표 어미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어’가 쓰인 서술문들이다.

(19) ㄱ. 그래서 내가 뽐았던 데 그 쪽은 다른 치과에서 건너온 사람도 많-어.

ㄴ. 그 때 차 끊겨서 못 갔-어-요.

ㄷ. 꼭 그 밑에 자식 분들이 이러케, 한 분씩 돌아가-셔요

ㄹ. 그냥 한꺼번에 많이 나서 지들끼리 놀게 방목하면 좋은 생각이-야.

ㅁ. 그 의미가 5분 동안 준비를 해서 경찰서에서 딱 나가는 거-예요.

범용 어미 ‘-지’는 ‘-지, -지-요, -조[←자-요]’ 등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서술문의 10.64%로 ‘-어’에 비해 훨씬 뒤진다. 이것은 ‘-어’가 ‘-지’에 비해 의미적으로 훨씬 더 중립적, 혹은 포괄적임을 뜻한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어미가 대화 장면에서 빈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은 ‘-지’가 쓰인 예들이다.

(20) ㄱ. 나도 원래 생각이 깊고 배려를 잘했-지.

ㄴ. 장남이라서 부모님 모셔야-지-요.

ㄷ.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인제 취업 쪽으로 많이 나가는거-죠.

접속 어미에서 전용되어 범용 어미로 문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든’과

‘-는데’(-은데, -는데, -던데)도 각각 5.95%와 6.09%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들 접속 어미가 완전히 범용 문장 종결 어미로 자리 잡았다고 하겠다.

(21) ㄱ. 자기네 남성들은 이렇게 귀엽고 여리여리하게 보이-거든.

ㄴ. 나보다 한 살 위인 오빠데 대게 착하-거든-요.

(22) ㄱ. 여자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분홍색 좋아하면 공주병이라고 하-던데.

ㄴ. 저희 동네도 서울 된지 얼마 안 됐-는데-요.

2.3. 접속 어미가 전용되어 서술문을 실현하는 경우는 6.43%로 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 가운데 ‘-구’(문어에서 ‘-고’)가 3.66%로 가장 높으며, ‘-으니까, -어가지구, -어서, -으려고, -으면서, -지만, -게, -느리고, -더니, -어도, -으라고, -으면’ 등의 예가 보이나, 각각 한두 예에 지나지 않는다. 접속 어미 가운데 ‘-고, -구’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 어미가 접속 어미 가운데서 의미적으로 가장 중립적, 혹은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용 어미 가운데 ‘-어’가 의미적으로 가장 중립적, 포괄적이어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하겠다.

(23) ㄱ. 요즘에 따로 한 가지만 뜨는 게임도 없-구-요.

ㄴ. 이걸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니까.

ㄷ. 사랑니가 약간 벌레 먹은 거 같-아서.

2.4. 다음은 온전한 문장이 아닌, ‘체언, 체언+조사, 부사어, 감탄어, 관형어’와 같은 문장 조각으로 끝맺어 서술문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전체 서술문의 20.7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음 (24)를 보면, 전체 대화가 문장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24)A. 기생 애기 하다가 갑자기 무당 애기로.

B. 으음.

A. 그러며는 엄마 쪽으로?

B. 네, 엄마 쪽.

A. 엄마에 그, 왜, 외숙모? 아니, 외숙모가 아니라, 이모?

B. 외할머니 댁도 그렇구, 할아버지 댁도 그렇고.

A. 아, 그렇구나. 아, 그게, 그래요. 어.

B. 그런 집은 이장을 잘 못해가지구 그런 일이.

3. 의문문의 실현 방법

의문문은 모두 2284 문장이 나타났다. 이를 실현 유형별로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의문문의 실현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1) 의문 어미	163	15.19
(2) 범용 어미	600	55.92
(3) 서술 명령 청유 어미	33	3.08
(4) 접속 어미	19	1.77
(5) 문장 조각	258	24.04
	1 073	1 0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용 어미에 의한 실현이 전체 55.92%로 압도적이다. 범용 어미에 의한 실현이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용 어미는 문장 종결을 표지하고,

의문어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어가 의문문임을 표지하고, 의문어가 없는 경우에는 운율적 방법인 내림 억양이 의문문임을 표지하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현대 국어의 구어에서 의문어나 운율적 방법의 도움을 받은 범용 어미가 의문문 실현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고유한 의문 어미에 의한 의문문은 15.19%로, 범용 어미에 의한 의문문에 훨씬 못 미친다. 그리고 문장 조각으로 끝맺는 의문문은 24.04%로 나타나, 오히려 고유한 의문 어미에 의한 실현보다 빈도가 높다. 서술, 명령, 청유 어미를 전용하여 의문문을 실현하는 경우는 3.08%로, 접속 어미를 전용해서 의문문을 실현하는 경우는 6.43%로 나타났다. 이제 실현 유형별로 구체적인 빈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3.1. 먼저 의문 어미에 의한 실현이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6) 의문 어미의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냐	48	13.66
-냐-구	2	0.19
-니	6	0.56
-나	42	3.91
-은가	29	2.70
-는가	6	0.56
-을까	30	2.80
	163	15.19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냐’의 빈도가 가장 높아 13.66%이다. 이들은 평교간에, 또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말할 때 쓰인다. 특히 청소년층 평교간에 많이 쓰인다. 문장 (27)은 청소년층 평교간에, 문장 (28)은 선배가 후배에게 말할 때 쓰인 예이다. 특히 (28)에서 보면, A가 동료 및 후배 여럿을 향해 물을 때는 ‘-은데’를 썼는데, 후배인 B가 대답하자, B에게는 ‘-냐’를 썼다.

(27)A. 너, 맛탕 어떻게 하는 줄 아-냐?

B. 고구마 삶아 갖구 썰어 가지구.

A. 물엿에다가 넣으면 되-냐?

B. 설탕을 저기 녹이거든요.

(28)A. 이거 누구 견데?

B. 제 꺼요.

A. 효숙이두 이거 바르-냐?

B. 째끔 바르구 있어요.

‘-니’는 ‘-냐’와 교체해서 쓰일 수 있는데, 빈도는 낮아 0.56%이다. 그 밖에 ‘-나’는 3.91%, ‘-은가, -는가, -을가’는 각각 2.70%, 0.56%, 2.80%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자 높임의 고유한 의문 어미 ‘-습니까’는 그 예가 보이지 않는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에 국한해서 보면, 적어도 20-30대 나이 화자의 일상 대화에서 ‘-습니까’ 형태는 소멸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다음은 범용 어미에 의한 의문문 실현이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9) 범용 어미의 상세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	-----	--------

-어	406	37.84
-지	152	14.17
-거든	1	0.09
-는데	41	3.82
	600	55.92

범용 어미 가운데서 ‘-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어’는 의문문에서도, 역시 ‘-어, -어-요, -시-어-요, -세요, 체언-이-야, 체언-이-예-요’ 등으로 나타나는데, 의문문 전체의 37.84%로 빈도가 가장 높다. 앞에서 본 서술문과 마찬가지로 구어에서 ‘-어’는 국어 의문문 표지의 대표 어미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어’가 쓰인 의문문들이다.

(30) ㄱ. 나처럼 폰수대기 같은 여자를 좋아해?

ㄴ. 아침에 영어 듣구 또 영어 들으려면 지겹지 않-아-요?

ㄷ. 아가씨 예뻐요? 마음에 드-세요?

ㄹ. 갈매기살은 갈매기 고기-야?

ㅁ. 모텔은 좀 몸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범용 어미 ‘-지’는 ‘-지, -지-요, -죠[←지-요]’ 등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의문문의 14.17%로 ‘-어’에 비해 훨씬 뒤진다. 그러나 의문 어미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냐’보다도 더 높다. 다음은 ‘-지’가 쓰인 예들이다.

(31) ㄱ. 그런데 둘이는 어떻게 친하게 되었지?

ㄴ. 그럼 다들 기숙사에 사는 건 아니죠?

접속 어미에서 전용되어 범용 어미로 문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든’과

‘-는데’는 각각 0.09%와 3.82%로 나타났다. 이는 서술문의 경우(5.95%와 6.09%)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이다. 특히 ‘-거든’은 의문문에서 빈도가 매우 낮다.

(32) ㄱ. 교수님, 애 시험 안 봤-거든-요?

ㄴ. 야, 너 보통 몇 입-는데? 허리.

ㄷ. 오빠는 처음에 날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데-요?

3.3. 다음은 서술 어미, 명령 어미, 청유 어미가 전용되어 의문문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33) 서술|명령|청유 어미의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다/라	2	0.19
-다-구/면서	14	1.30
-네	16	1.49
-구먼	1	0.09
	33	3.08

서술, 명령, 청유 어미가 전용되어 의문문을 실현하는 경우는 전체의 3.08%로 빈도가 낮은 편이다. 서술 어미 ‘-다/라, -네, -구먼’이 의문문에 바로 쓰이기도 하고, ‘{-다}+{-구/면서+(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그 예이다.

(34) ㄱ. 근데 이쪽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 ㄴ. 아빠두 같이 괴롭혔-다-구?
- ㄷ. 그러게, 감기에 좋-다-매?
- ㄹ. 그럼 결국은 인제 다른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네-요?
- ㅁ. 유진이는 안 그렇-구만?

3.4. 접속 어미가 전용되어 의문문을 실현하는 경우는 1.77%로 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 가운데 '-구'가 0.75%이며, '-어가지구, -어서, -으려고, -으면서, -으면'은 각각 한두 예에 지나지 않는다.

(35) ㄱ. 낮에는 쨌냐-구?

- ㄴ. 아, 태도 점수 높여 주-려구-요?
- ㄷ. 몇 시간 안에 똑딱 해치운다-면서-요?
- ㄹ. 아니, 그 분은, 저희가, 그런 게 대물림이-라-면서-요?

3.5. 다음은 온전한 문장이 아닌, 문장 조각으로 끝맺어 의문문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전체 의문문의 24.0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앞의 예 (24)를 보면, 전체 대화의 문장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4. 명령법의 실현 방법

명령문은 모두 136 문장이 나타났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언급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구어에서 이 두 범주의 실제 빈도가 낮다라는 점과 둘째는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명령문의 실현 유형의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용된 어미에 의한 경우, 문장 조각에 의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36) 명령문의 실현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1) 명령 어미	27	19.85
(2) 범용 어미	109	80.15
	136	100.00

4.1. 먼저 명령 어미에 의한 명령문 실현인데, ‘-어라’와 ‘-으라-니까’ 두 형태만 보인다. 각각 19.12%와 0.73%이다. 고유한 명령 어미 ‘-으십시오, -으(시)오, -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에 국한해서 보면, 적어도 20-30대 나이 화자의 일상 대화에서 ‘-으십시오, -으(시)오, -게’ 형태는 소멸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ㄱ. 정아는 가까우니까 호박 하나 들고 와라.

ㄴ. 형, 나, 스카웃하라니까.

4.2. 다음은 범용 어미에 의한 명령문 실현이다. 범용 어미 가운데서 ‘-어’가 70.59%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어’는 역시 ‘-어, -어-요, -시-어-요, -세요’ 등으로 나타나는데, 명령문 전체의 70.59%로 빈도가 가장 높다. 빈도를 고려하면, 앞에서 본 서술문,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구어에서 ‘-어’는 국어 명령문 표지의 대표 어미라 할 수 있다. 범용 어미 ‘-지’는 역시 ‘-지, -지-요, -조[←지-요]’ 등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명령문의 9.56%로 ‘-어’에 비해 훨씬 뒤진다. 다음은 ‘-어, -지’가 쓰인 예들이다.

(38) ㄱ. 기도회 오나 한 번 전화해 봐.

ㄴ. 교수님 저 여기도 남았는데 그냥 출석 좀 인정 좀 해 주-세요.

(39) ㄱ. 나한테 전화 좀 주-지.

ㄴ. 여기 앉아서 이거 과자 드시-쥬[←지-요].

5. 청유법의 실현 방법

청유문은 13 문장만 나타나서, 통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유형별 실현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용된 어미에 의한 경우, 문장 조각에 의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40) 청유문의 실현 빈도

실현 유형	빈도수	백분율(%)
(1) 청유 어미	8	61.54
(2) 범용 어미	5	38.46
	13	100.00

5.1. 먼저 청유 어미에 의한 청유문 실현인데, ‘-자’와 ‘-자-구’와 ‘-읍시다’ 형태만 보인다. 각각 30.77%, 7.69%, 23.08%이다. 고유한 청유 어미 ‘-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41) ㄱ. 야, 이거 교회 하나 넣어 놓-자, 방에.

ㄴ. 그게 아니라 무대 준비해서 이거 마이크하-자-구-요.

ㄷ. 여기에다 저기 하신 분 성함하구 이름하구 나이하구 이런 거 적-읍시다.

5.2. 다음은 범용 어미에 의한 청유문 실현이다. 범용 어미 가운데서 ‘-어’가 15.58%, ‘-지’가 23.08%로 다른 문장 종결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42) ㄱ. 무대 준비해-요, 우리.

ㄴ. 목사님, 이거 여기 딱 대고 오늘 성경 공부 하-죠큐-지-요].

6. 정리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실현 유형별 빈도를 문장 종결의 하위 범주별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런데 명령문과 청유문의 경우는 통계적 결과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고려하지 않겠다. 먼저 고유 어미에 의한 실현인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 평균은 14.55%인데, 서술문이 조금 낮고, 의문문이 조금 높다.

(43) 고유한 문장 종결 어미의 빈도

문장 유형	빈도수	백분율(%)
서술문	312	13.66
의문문	163	15.19
명령문	27	19.85
청유문	8	61.54
	510	14.55

다음은 범용 어미에 의한 실현인데, 전체 평균이 64.78%이다. 범용 어미 가운데 ‘-어’는 전체의 43.01%로 가장 높다.

(44) 범용 어미의 빈도

문장 유형	빈도수	백분율(%)
서술문	1 522	66.64
의문문	600	55.92
명령문	109	80.15
청유문	5	38.46
	2 236	63.78

다음은 서로 다른 문장 종결 어미의 전용에 의한 실현인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의문문만 해당된다.

(45) 다른 문장 종결 어미의 빈도

문장 유형	빈도수	백분율(%)
의문문	33	3.08
	33	0.94

다음은 접속 어미 전용에 의한 실현인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서술문, 의문문에만 해당된다.

(46) 접속 어미의 빈도

문장 유형	빈도수	백분율(%)
서술문	147	6.43
의문문	19	1.77
	166	4.73

다음은 문장 조각에 의한 실현인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역시 서술문, 의문문에만 해당된다.

(47) 문장 조각의 빈도

문장 유형	빈도수	백분율(%)
서술문	303	20.74
의문문	258	24.04
	561	16.00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 구어에 나타난 문장 종결 표지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 자료 [자료-1~6]을 분석한 결과 모두 3506 문장이 나타났다. 서술문이 전체 65.15%로 가장 많았고, 의문문이 30.60%이었다. 명령문, 청유문은 각각 3.88%, 0.37%로 극소수여서, 구어에서 이 두 범주의 실제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범용 어미에 의한 실현이 전체 64.78%로 가장 높다. 이것은 현대 국어의 구어에서 운율적 방법의 도움을 받은 범용 어미가 문장 종결 실현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범용 어미 가운데서도 '-어'가 43.01%로 매우 높다. 참고로 문어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특징이 더욱 더 분명하다. 임홍빈 외(2002:208)의 문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 -어-요, -지, -지-요'가 전체의 6.24%에 지나지 않는다. '-어, -어-요'만은 4.44%이다.

셋째, 고유한 문장 종결 어미에 의한 실현은 전체적으로 14.55%에 그친다. 오히려 '체언, 체언+조사, 부사어, 감탄어, 관형어' 등으로 끝맺는, 문장 조각에 의한 실현이 16.00%로 더 높다. 참고로 임홍빈 외(2002:208)에 따르면, 문어의 경우 고유한 문장 종결 어미에 의한 실현은 90.11%이다.

넷째, 이러한 현상은 문법 현상의 역사적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청자 높임의 등급이 단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습니다, -으오' 등급은 '-어-요'로 통합되며, '-네, -다' 등급은 '-어'로 통합되는 것이다. 범용 어미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운율적 방법의 기능 부담을 확대시켰다.

<참고 문헌>

- 강범모·김홍규·허명희 (2000), 한국어 텍스트 장르, 문체, 유형: 컴퓨터와 통계적 기법의 이용, 태학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등학교 문법, (주)두산.
-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 (2002), 의문문의 실현 방법과 그 언어 유형론적 특성, 한글 257, 한글 학회.

권재일 (2003),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 방법에 대한 실태 연구, 2002년도 서울 대학교 한국학 장기 기초 연구 보고서.

남기심·고영근 (1993), 표준 국어 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서상규·구현정 공편 (2002), 한국어 구어 연구 (1) - 구어 전사 말뭉치와 그 활용 -, 한국문화사.

임홍빈 외 (2002), 국어 문법 현상의 계량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허 응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허 응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원칙과 방향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권 종 성

코퍼스는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고 응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언어자료들을 수집하여 컴퓨터가 읽고 처리할수 있게 구성하여 놓은 대규모의 언어자료모임으로서 정보화시대의 언어정보원천, 전자화된 언어관찰환경이다.

코퍼스의 개발은 방대한 언어자료를 다루게 되고 여러사람들이 함께 작업하게 되는것만큼 개발원칙과 방향이 똑바로 서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특히 코퍼스의 개발 원칙과 방향을 똑바로 세우는것은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에서는 우리 연구집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1.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원칙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자료의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은 코퍼스자료의 수집이나 입력, 가공에서 어떤 주관적요인이나 외적요인에 의해 원전의 자료가 수정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례하면 문서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오늘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오늘의 규범에 맞추어 수정입력하는것이 아니라 그 문서 그대로 입력하는것이다. 만일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 모든 입력자료들을 수정입력

한다면 당시의 언어규범과 언어사용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줄수 없게 된다.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은 다음으로 해당시기와 분야의 언어현상전반을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료들의 모임으로 되도록 하는것이다.

해당 언어현상이 포괄하고 있는 모든 세부분야의 언어자료들을 포함하여 적합한 구성비율을 갖춘 대량의 언어자료모임으로 되여야 그 언어현상을 충분히 대표할만한 코퍼스로 인정될수 있으며 그 가치도 더 커지게 된다.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은 다음으로 시기별에 따르는 언어사용실태와 변화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것이다.

조선어의 력사와 지역적변동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언어자료들을 광범히 수록하는 것은 민족어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어본문코퍼스를 구축하면서 시기별에 따르는 자료의 구획을 명백히 하며 해당 시기와 시대의 어휘, 문법, 규범실태를 정확히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래야 소극화된 고유어의 발굴이나 언어사적고찰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은 다음으로 자료의 범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자료의 범용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지역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든 조선어의 연구와 응용에 쉽게 리용할수 있게 자료리용의 환경과 범위를 넓힌다는것을 말한다. 코퍼스구축과 리용을 위한 조선글입력환경, 론리적 및 언어학적정보의 부가, 코퍼스리용도구의 개발 등 코퍼스개발의 모든 공정이 코퍼스의 범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료의 범용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폐쇄된 코퍼스, 사회적가치를 상실한 죽은 코퍼스로 되여버린다. 특히 이 문제는 오늘 우리 민족어가 처한 실태로부터 더욱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2.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개발방향

1) 본문의 선택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구축을 위한 본문은 시기와 분야에 따라 선택기준을 세우고 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조선말자료는 현재까지 출판된 출판물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년대별구성비율을 정하고 수집하되 최근 년대의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전의 년대로 올라 가면서 점차 적은 량을 취해가도록 한다. 그 분야는 사회정치, 신문보도, 문학예술, 과학기술의 4개분야와 그 세부분야로 가르며 출판물의 발행, 배포, 보급을 고려하여 부류별구성비율을 정한다. 어사 및 방언자료는 가능한것 모두 수집하도록 한다.

2) 본문의 입력과 논리정보부가

본문선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본문원전자료들이 수집되는데 따라 본문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해당한 논리정보들을 부가한다.

본문의 입력은 본문안에 포함된 그림이나 수식, 사진, 도표 등의 비문자자료들은 입력하지 않는다. 비문자자료들에 대하여서는 입력에서 제외된 원인과 본문에서의 위치를 가능한것 알수 있게 논리정보를 부가한다.

논리정보표식언어는 본문파일에 수록된 본문내용의 논리적구성관계와 서지사항, 본문의 주제와 형식, 전자파일제로의 수집 및 수정과 관련한 특기사항 등 언어자료의 외적특징들을 반영할수 있는 표식들이다.

조선어본문코퍼스구축에 리용하는 논리정보표식언어는 우리말 문서의 특성과 국제적인 문서구조화의 발전방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여러 련관기관들과의 협의밑에 표준화하여 나가야 한다.

3) 언어분석정보의 부가

조선어본문코퍼스에 수록된 각종의 본문자료들에 대하여 언어학적분석표식들을 달아주어 언어분석코퍼스를 만들어야 한다.

언어학적분석표식들로는 단어와 토들의 결합상태를 보여주는 형태분석표식, 형태 단어들사이의 문장론적인 결림관계를 보여주는 문장분석표식, 단어와 각종 문장구성 단위들의 의미론적연관관계를 밝히는 의미분석표식, 문장들의 구성관계를 밝히는 본문분석표식 등 여러가지가 있다.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구축에서는 먼저 형태분석표식과 문장분석표식을 붙인 코퍼스를 구축한다. 형태분석표식과 문장분석표식은 문화어규범문법에 준하여 설정한다.

조선어본문코퍼스구축에서 언어분석표식은 계층관계가 나타나도록 하며 앞으로의 수정 및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언어분석단위의 구획은 괄호묶음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언어분석표식을 붙인 코퍼스자료들은 본문파일과 자료기지파일의 두가지형태로 리용할수 있도록 한다.

4) 언어분석기술의 리용

코퍼스구축은 대량의 언어자료에 대한 약속된 표식달기과정인만큼 사람들의 순수 손작업으로는 실현할수 없다. 코퍼스구축작업은 언어분석기술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때 능률적이고 현실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문서편집기술과 조선어자동분석기술을 리용하면 본문자료의 표식 달기를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특히 조선어의 형태론적자동분석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으로 형태분석표식달기를 자동화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정밀한 형태론적분석처리와 문장론적분석을 위한 파라미터들의 계산이 과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언어분석기술을 리용하여 코퍼스를 구축하고 코퍼스에 기초하여 언어분석기술 그 자체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5) 코퍼스의 유지보수와 리용보급

코퍼스의 개발에서는 구축해 놓은 코퍼스자료들을 잘 보관관리하고 부단히 수정 보충하여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코퍼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코퍼스자료전체와 관련프로그램들을 통일적

으로 관리할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고 코퍼스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관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코퍼스의 리용과 개발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처할수 있는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한다.

코퍼스의 구축과 함께 그의 리용기술을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하는것이 중요하다. 코퍼스를 리용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을 옹게 파악하고 주제별자료추출, 련접빈도계산, 항목별문맥조사와 같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부단히 종합하여 보다 완전한 코퍼스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상 조선어본문코퍼스를 개발하는데서 내세운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였다.

우리는 대용량의 조선어본문코퍼스를 개발하여 조선어의 사용실태를 정확히 반영할수 있는 과학적인 언어연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어의 통일적인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

어휘의 역사 검색 및 사전 편찬을 위한 말뭉치 활용 방안

홍 윤 표(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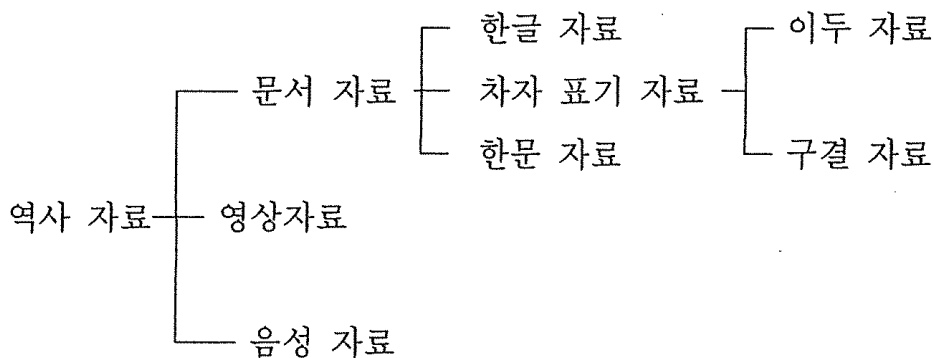
어휘의 역사를 검색하거나 어휘 역사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축하고 활용할 말뭉치는 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이다. 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란 일반적으로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규정된 현대 국어 시기 이전의 국어 연구 자료 말뭉치를 일컫기 때문에, 19세기 말까지의 말뭉치를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시기 제한으로, 20세기 전반기의 국어는 연구 대상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현대 국어 연구자는 주로 현재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전반기의 국어는 근대 국어 연구에서나 현대 국어 연구에서나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

20세기 전반기의 국어 체계는 근대 국어나 20세기 후반의 국어 체계와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 시기의 국어는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의 국어이어서 서로 부분적 유사성과 부분적 상이성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국어를 근대 국어보다는 현대 국어에 편입시키는 편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언중들이 이 시기의 국어를 고어로 인식하지 않고 현대 국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의 국어를 전기 현대 국어에 소속시킬 수 있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세분할수록 한 시대의 국어의 특징을 더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역사 자료'의 대상을 20세기 전반기(특히 8.15 광복)까지의 자료로 삼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말뭉치는 그 형태에 따라 문서 자료, 영상 자료, 음성 자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문서 자료는 고문서(古文書) 자료도 포함하여 문헌 자료를 전산 처리하기 위하여 문서 작성기나 문자 인식기를 통하여 입력해 놓은 자료이고, 영상 자료(이미지 처리를 한 자료)는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문서를 그림으로 인식시켜 그림 파일로 저장하여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음성 자료란 제보자의 실제 발화를 녹취해 놓은 것이나, 이것을 전사해 놓은 전사 자료(방언 자료 포함) 등을 말한다. 문서 자료는 그것이 쓰인 문자에 따라 다시 한글 자료, 차자 표기 자료, 한문 자료로 구분할 수 있고, 차자 표기 자료는 이두 자료와 구결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II. 국어 역사 자료 구축 현황

현재까지 구축된 국어 역사 자료는 입력의 주체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① 국립국어연구원 자료: 『표준 국어 대사전』 편찬을 위해 구축한 것으로 후에 21세기 세종 계획의 말뭉치에 포함되었다.

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 홍윤표, 송기중, 정광, 송철의 등 4 사람이 세기별 국어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자료로 후에 국립국어연구원의 말뭉치에 포

합되었다.

③ 21세기 세종 계획 자료: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의 하나로 구축된 것으로, 이 중에서 특히 역사 자료 말뭉치 구축 계획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④ 장서각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학 정보 센터에서 전산화하여 '한국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로, 장서각 필사본 한글 자료 및 고문서 이두 자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⑤ 한국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 자료: 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가 참여하여 구축한 역사 자료로서, 특히 한문 자료가 주종을 이룬다.

⑥ 디지털 한글 박물관 자료: 문화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주관되어 구축한 한글 자료로서, 주로 한글 문헌과 생활사 자료의 이미지 자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⑦ 선문대학교 박재연 교수 자료: 박재연 교수가 연구 대상으로 하는 중국 소설을 번안한 작품을 입력, 주석한 자료이다. 개인의 입력 자료로서는 상당한 양에 이른다.

⑧ 홍고 테루오 교수 자료: 고려대학교 일문과의 홍고 테루오 교수가 구축한 것으로, 금석문 중 이두 자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⑨ 한국 고음반 연구회 자료: 옛날에 만들어진 유성기 음반들을 디지털화하여 만든 자료로서, 주로 판소리, 동극(童劇), 연극, 교과서 낭송, 각도 민요 등의 음반을 CD로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채록하여 문서 자료로 만들고 있는데, 국어 연구를 위한 자료도 상당수 찾을 수 있다.

⑩ 기타 각 개인이나 학회(예컨대 구결학회 등)의 자료: 전북대학교 이태영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김동소, 이은규, 여찬영 교수,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의 남경란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재영 교수, 서울대 중세 국어 부사 사전 및 형용사 사전 연구 과제 참여자들이 입력한 것 등이 있다.

III. 한글 자료

지금까지 입력된 자료들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¹⁾

1. 세기별 목록

(1) 15세기 자료

연도	문헌명	비고
1446	훈민정음해례본	
1447	월인천강지곡	권 상
1447	석보상절	권 3,6,9,11,13,19,20,21,23,24
1447	용비어천가	125장의 한글 가사. 권 3,4는 한문 원문 입력
1459	월인석보	권 1,2,4,7-15,17,18,20-23,25
1461	능엄경언해	전 10권. 한문 원문 입력
1463	법화경언해	전 7권. 한문 원문 입력(계환解는 제외)
1464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	
1464	선종영가집언해	권 상,하. 한문 원문 입력(주석은 제외)
1464	아미타경언해	한문 원문 입력
1464	금강경언해	한문 원문 입력(六祖解는 제외)
1464	반야심경언해	45장 이후 구결문 입력
1465	원각경언해	한문 원문 입력
1466	구급방언해	권 상,하
1467	목우자수심결언해	한문 원문 입력
1467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간경도감판, 한문 원문 입력
1475	내훈	1611년판
1481	두시언해	권 3,5-11,14-17,19-25. 한문 원문 입력
1481	삼강행실도	대영도서관본. 한문 원문 입력
1482	금강경삼가해	전 5권. 한자음 입력. 한문 원문 입력
1482	남명집언해	권 상,하. 한자음 입력. 한문 원문 입력(주석은 제외)
1485	영험약초(초간본)	
1485	관음경언해	
1489	구급간이방	권 1-3,6,7
1496	육조법보단경언해	권 상,중,하. 한자음 입력. 한문 원문 입력
1496	진언권공	명지대 국문과 영인본. 한자음 입력
1500	개간법화경	권 1,2. 한문 원문 입력

1) 이 목록은 박진호(2003), 국어사 말뭉치 개요, 국어사학회 학술 발표 대회 논문을 보완 수정한 것이다. 자료를 제공해 준 박진호 선생에게 감사한다. 또한 이 목록에는 발표자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는 제외하였다.

(2) 16세기 자료

연도	문헌명	비고
1514	속삼강행실도	전 3권. 서울대 가람문고본
1517	번역박통사	권 상
1517	法語錄	고운사판
1517	몽산화상법어약론언해	고운사판
1517	번역노걸대	권 상,하
1518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
1518	번역소학	권 3,4,6-10. 한문 원문 입력
1518	이륜행실도	옥산서원본
1518	정속언해	이원주교수본
1522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성암문고본
1525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심원사판
1525	간이벽온방	홍문각 영인본
1527	訓蒙字會	叡山本, 尊經閣本
1535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병발암판
154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홍문각 영인본
1542	분문온역이해방	일사문고본(을해자본 복각본, 홍문각 영인본)
1554	구황촬요	고려대본(만력본의 필사본)
1555	字訓諺解	
1559	훈몽자회	내각문고본
156x	여씨향약언해	화산문고본, 일석본
1560	육자선정언해	국립중앙도서관본
1563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송광사판
1567	몽산화상육도보설	취암사판. 한자음 입력
1569	칠대만법	홍문각 영인본(희방사판)
1569	선가귀감	상문각 영인본(보현사판?)
1575	천자문	광주판(小倉文庫本), 大東急紀念文庫本
1576	백련초해	동경대학본
1576	신증유합	나손본
1576	안락국태자전	
1577	초발심자경문	송광사판(명지어문학 10 영인)
1577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송광사판
1579	경민편	쓰쿠바대학본
1581	속삼강행실도_중간	국립중앙도서관본(1727년?)

연도	문헌명	비고
1583	석봉천자문	朴贊成씨본
1586	이응태묘출토언간	
1588	소학언해	전 6권. 도산서원본. 한문 원문 입력
1588	주역언해	내각장판(대제각영인본)(1606년?)
1598	무예제보	
1590	논어언해	도산서원본
1590	대학언해	도산서원본
1590	맹자언해	도산서원본
1590	중용언해	도산서원본
1590	효경언해	尊經閣本(조선학보 27 영인)
1593	宣祖國文敎書	
15xx	삼강행실도	동경대학본
15xx	순천김씨언간	修書院
15xx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경북대 출판부 영인본
15xx	訓蒙字會	동경대 중앙도서관본

(3) 17세기 자료

연도	문헌명	비고
1601	李海龍千字文	
1605	新增類合	啓明大本
1608	언해두창집요	서울대 가람문고본(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608	언해태산집요	홍문각 영인본
1612	연병지남	서울대 고도서본
1613	동의보감(탕액편)	갑인자체 훈련도감자본(태학사 영인본)
1613	訓蒙字會	奎章閣本, 汎文社本
1613	시경언해	내각장판(대제각 영인본, 1820년?)
1617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홍문각 영인본
163x	병자일기	필사본. 박경신 역주본에 의거.
163x	산성일기	김광순 주석본(1985년 형설출판사 간)에 실려 있는 원문 영인을 이용하여 입력
1632	가례언해	홍문각 영인본(규장각본, 가람문고본)
1632	두시언해(중간본)	이회문화사 영인본
1634	石峰千字文	甲戌重刊本
1635	신전자취염소방언해	
1635	화포식언해	홍문각 영인본

연도	문헌명	비고
1637	권념요록	서울대 일사문고본(홍문각 영인본)
1650	石峰千字文	庚寅重補本
1653	벽온신방	서울대 규장각본(홍문각 영인본)
1657	어록해(초간본)	서울대 가람문고본(한국문화 4 영인)
1658	경민편(중간본)	홍문각 영인본
1658	여훈언해	홍문각 영인본
1660	구황촬요	윤석창교수본
1661	천자문	칠장사판
1664	유합	칠장사판
1669	어록해(개간본)	서울대 <奎1539>(한국문화 4 영인)
1670	노걸대언해	
1676	첩해신어	홍문각 영인본
1677	박통사언해	
1682	마경초집언해	목판본(홍문각 영인본)
1686	신간구황촬요	서울대 가람문고본(태학사 영인본)
1690	역어유해	
1691	石峰千字文	辛未夏重刊本
1696	千字文	丙子本
1698	신전자초방언해	
16xx	계녀서	서울대 일사문고본
16xx	계축일기	1981년 형설출판사
16xx	언해납약증치방	서울대 규장각본(홍문각 영인본)
16xx	두창경험방	서울대 고도서본
16xx	서궁일기	홍기원 역주본 『서궁일기(1986년 영남문화사 간)』
16xx	서전언해	
16xx	현풍곽씨언간	
16xx	百聯抄解	洪允杓 소장본
16xx	類合	仙巖寺板
1700	유합	영장사판
1700	천자문	영장사판

(4) 18세기 자료

연도	문헌명	비고
1703	삼역총해	규장각본(1774년 중간본)
1704	미타참략초	예천 용문사판
1711	新增類合	重刊本(高麗大本)
1711	두창경험방	일사문고 소장
1713	병와가곡집	
1721	오륜전비언해	서울대 규장각 <奎1456>
1730	千字文	송광사판
1730	類合	松廣寺板
1737	여사서	서울대 <古 1160-2>(무신자본)
1737	어제내훈언해	서울대 <古 1149-2>(홍문각 영인본)
1745	어제상훈언해	국립중앙도서관본(홍문각 영인본)
1746	어제자성편언해	장서각본
1748	개수첩해신어	파리동양어학교소장본
1748	동문유해	권 하. 규장각본(1956년 연희대 동방학연구소 영인)
1749	논어올곡언해	전 4권. 홍문각 영인본
1749	대학올곡언해	홍문각 영인본
1749	맹자올곡언해	홍문각 영인본
1749	중용올곡언해	홍문각 영인본
1752	註解千字文	初刊本
1752	지장경언해	藥師殿板(홍문각 영인본)
1756	어제훈서언해	규장각본(홍문각 영인본)
1756	천의소감언해	홍문각 영인본
1757	어제계주윤음언해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58	종덕신편언해	규장각본(홍문각 영인본)
1759	어제속주성편언해	장서각 소장 필사본
1760	보현행원품	쌍계사판(서울대 일사문고본)
1760	무목왕정통록	
1761	어제경세문답언해	장서각본
1762	어제경민음	서울대 일사문고본(홍문각 영인본)
1763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장서각본(필사본)
1764	어제조훈언해	장서각본(필사본)
1765	박통사신석언해	서울대 일사문고본(홍문각 영인본)
1765	어제경세편	장서각본
1765	어제백행원	규장각본(홍문각 영인본)
1765	청어노걸대	
1771	남희문견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773	북관노정록	
1775	역어유해보	서울대 고도서본(아세아문화사 영인본)

연도	문헌명	비고
1776	염불보권문	해인사판(서울대 일사문고본. 태학사 영인본)
1776	효유윤음	장서각본
1777	명의록언해	서울대 고도서본(홍문각 영인본)
1777	소아론	연희대 동방학연구소 영인본
1777	팔세아	연희대 동방학연구소 영인본
1778	방언유석	서울대 고도서본(홍문각 영인본)
1778	속명의록언해	국립중앙도서관본(홍문각 영인본)
1781	왜어유해	국립중앙도서관본(태학사 영인본)
1781	御製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2	御製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2	御製諭中外大小臣庶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御製諭京畿民人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御製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御製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御製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境六道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士民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御製諭湖南民人等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3	字恤典則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4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4	御製諭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5	御製諭濟州民人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86-96	옥원지합기연	장서각 소장본
1787	병학지남	壯營藏板本
1788	가채신금사목	
1788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90	몽어노걸대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영인본
1790	몽어유해	규장각본(홍문각 영인본)
1790	몽어유해보	홍문각 영인본
1790	무예도보통지언해	
1790	인어대방	규장각본(태학사 영인본)
1790	첩해몽어	규장각본(홍문각 영인본)

연도	문헌명	비고
1792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92	증수무원록언해	홍문각 영인본
1793	御製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94	御製諭諸道道臣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94	湖南六邑民人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95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劉儀式鄉約條禮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795	중간노걸대언해	규장각본(홍문각 영인본)
1796	경신록언석	불암사판(홍문각 영인본)
1796	전설인과곡	
1797	오륜행실도	서울대 가람문고본(홍문각 영인본)
1799	제중신편	규장각본(태학사 영인본)
17xx	가례석의	
17xx	선조행장	애산학보 1집 영인
17xx	응진경언해	장서각본
17xx	千字文	宮內廳書陵部本
17xx	千字文	嶺南大本
17xx	千字文	淸溪寺板
17xx	訓蒙字會(五字本)	崔範勳教授本
17xx	類合	乎隱齋藏板本
17xx	倭語類解	
17xx	낙천등운	
17xx	빙빙던	
17xx	형세언	
17xx	후수호전	

(5) 19세기 자료

연도	문헌명	비고
1802	物譜	
1804	註解千字文	重刊本
1810	몽유편	권 상
1813	兒學編	강경훈 소장본
1830	을병연행록	승실대본
1832	십구사략언해	국립중앙도서관본(홍문각 영인본)
1840	춘향전	경판 35장본
1846	諺音捷考	
1847	전운치전	경판37장본
1848	토생전	경판본(고소설판각본전집3)
1850	쌍주기연	경판33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1850	제마무전	경판26장본, 고소설판각본전집5
1851	금향정기	경판68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1851	사씨남정기	경판66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1851	옥주호연	경판29장본, 고소설판각본전집2
1852	태상감응편	규장각본(태학사 영인본)
1852	장경전	경판35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1856	字類註釋	
1856	서유기	경판59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1856	징세비태록	경판32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三
1857	李茂實千字文(3판)	
1858	千字文	完山養洞新刊本
1858	월봉기	경판67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1858	장풍운전	경판29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1858-61	千字文	紅樹洞板
1859	삼국지	경판,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一
1860	김원전	경판30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1860	설인귀전	경판30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1860	장백전	경판28장본, 고소설판각본전집5
1860	장한절효기	경판29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1860	홍길동전	경판30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1860	황운전	경판30-29장본, 고소설판각본전집5
1861	구운몽	경판32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一
1861	신미록	경판32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1862	千字文	杏谷開刊本
1864	남원고사	

연도	문헌명	비고
1865	松溪千字文	
1865	주년첨례광익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865	장화홍년전	경판28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1865	홍부전	경판25장본, 도남문고본
1865	金氏世孝圖	
1866	진대방전	경판28장본,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
1868	의종손익	附餘. 규장각본(태학사 영인본)
1869	규합총서	목판본(홍문각 영인본)
1874	로한자전	푸칠로
1875	당태종전	경판26장본, 고소설편각본전집1
1875	백학선전	경판24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一
1875	심청전	경판24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1875	양산백전	경판24장본, 고소설편각본전집2
1875	양풍전	경판24장본, 고소설편각본전집2
1875	홍길동전	경판24장본
1876	남궁계적	홍문각 영인본
1876	가곡원류	
1876	심청전	경판 24장본, 대영박물관 소장
1880	과화존신	태학사 영인본
1880	삼성훈경	규장각본(태학사 영인본)
1880	한불자언	
1880	곽분양전	경판69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一
1880	적성의전	경판23장본, 고소설편각본전집3
1881	조군영적지	태학사 영인본
1881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882	경석자지문	서울대 고도서본(태학사 영인본)
1882	성교절요	활판본(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882	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윤음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1882	女小學	全文
1883	명성경언해	태학사 영인본
1883	易言諺解	규장각본(홍문각 영인본)
1883	진교절요	신식활자본(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883	화음계몽언해	
1884	관성제군오륜경	태학사 영인본
1884	성교백문답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884	정몽유어	국립중앙도서관본
1884	마가전	
1884	진주탑	

연도	문헌명	비고
1885	숙향전	경판64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1885	현수문전	경판65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1886	잠상집요	필사본. 규장각본
1887	예수성교전서	로스역. 경성 문광서원 활판본
1887	驚兎歌	가람본
1888	蒙語類訓	
1888	월왕전	경판63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1889	사민필지	
1889	여사수지	文化 柳氏 家藏 (訥人書庄)
1890	심청전	경판 송동본20장본
1892	성경직해	
1892	심청전	안성판 21장본
1892	화충선상전	나손문고본
1894	턴로력당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1894	훈아진언	박이정 영인본(개화기 국어 자료 집성 8)
1894	李茂實千字文(4판)	규장각본
1895	국민소학독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895	국한회어	규장각본(태학사 영인본)
1895	소학독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895	진리편독삼자경	고려대 도서관본
1895	치명일기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895	中山望月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1896	심청전	미국 하버드대 소장 필사본
1896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6	독립신문	全文
1896	신정심상소학	학부 간본(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897	국문정리	규장각본
1897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7	주교요지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897	증남포목포각국조계장정	규장각 소장본
1898	매일신문	
1898	千字文	西內新刊本
1898	시편촬요	
1898	협성회회보	
1898	퇴별가	완판본, 고소설판각본전집3
1898	협성회 회보	
1900	신약전서	박이정 영인본(개화기 국어 자료 집성 10)

연도	문헌명	비고
1900	마가전	
1900	日淸韓 三國千字文	
18xx	廣才物譜	필사본
18xx	大明聖主賢臣開運傳	
18xx	여소학	
1886	정보연간독	간기 “丙戌十一月治洞新刊”
18xx	청어노걸대	태학사 영인본
18xx	태평광기	서광문화사 영인본
18xx	한중록	1984년 간행된 『閑中錄』의 교주본
18xx	兒學編	필사본(규장각본)
18xx	兒學編	필사본(정문연본)
18xx	類合	滙東書館本
18xx	類合	武橋新刊本
18xx	物名括	규장각 소장본
18xx	識者初程	필사본(홍윤표 소장본)
18xx	增補千字	필사본
18xx	類合	
18xx	千字文	武橋新刊本
18xx	類合	治洞新刊本
18xx	千字文	孝橋新刊本
18xx	낙천등운	
18xx	북송연의	
18xx	화용도	신재효판소리사설
18xx	화용도	고소설 판각본전집 3

(6) 20세기 자료2)

연도	문헌명	비고
1901	訓蒙排韻	필사본(임용기 교수 소장본)
1901-1909	신학월보	감리교 계통 신학 잡지
1903	牖蒙千字	게일 저
1903	樵牧必知	
1904-1910	대한매일신보	
1905	기해일기	활판본

2) 20세기 자료는 그 양이 많아 일부만 제시한다.

연도	문헌명	비고
1905	千字文	乙巳本
1905	註解千字文	華林齋藏板
1906-1907	귀의성	
1906-1910	경향보감	경향신문의 부록 회집
1906-1907	경향신문	
1907	성산명경	신소설
1908	신정천자문	장서각본
1908	兒學編	정약용 저
1908	빈상설	신소설
1908	구마검	신소설
1908	금슈회의록	신소설
1908	설중매	신소설
1908	은세계	신소설
1908	털세계	신소설
1909	字典釋要	지석영 저
1909	言文	지석영 저
1909	幼學字聚	
1910	歷代千字文	규장각본
1910	경세종	신소설
1910	자유종	신소설
1910	홍도화	신소설
1911	목단화	신소설
1911	쌍옥적	신소설
1911	원앙도	신소설
1911	월하가인	신소설
1911	화세계	신소설
1912	改正初學捷徑	
1912	명월당	신소설
1913	모란병	신소설
1913	部別千字文	영남대 소장본
1913	註解千字文	在田堂書鋪本
1914	蒙學二千字	
1915	新字典	朝鮮光文會本
1915	註解千字文	乙卯完山新刊

연도	문헌명	비고
1915	訂本千字文	
1916	千字文	필사본(공주군 방언 자료)
1916	三體註解千字文	
1916	日鮮諺解千字文	
1916	通學徑編	경북 영천 간행
1916	성춘향가	
1916	쌍미괴봉	활자본 고소설전집
1917	圖像註解千字文	
1918	訂本蒙學新編	
1918	初學要選	
1918	漢字用法	
1920	三字經	
1922	圖形千字文	
1922	速修漢文訓蒙	국립중앙도서관본
1923	演經坐談	신약을 4.4조로 엮은 것. 게일/이창직 역, 조선기독교 문학협회 편
1923	漢日鮮作文千字	
1924	新千字	
1925	新訂體法日鮮二千字	
1926	訓蒙日鮮二千字文	
1927	時文新讀本	
1928	朝鮮歷史千字文	
1929	兒學編	김영진 교수 소장본
1929	養正編	
1931	新釋漢日鮮文 四體千字	
1931	日鮮註解千字文	
1932	蒙學圖像千字文	
1933	漢日鮮千字文	三文社板
1934	千字文	필사본(沈昌燮)
1934	日鮮文新訂類合千字	
1935	日鮮四體千字文	
1935	訂正新編千字文	
1936	日鮮圖像千字文	
1936	日鮮千字文	
19xx	訓蒙字略	

2. 장서각 한글 필사본 자료 목록

문헌명	분류번호	비고
계해반정록		
고문백선	<K4-388>	集部 總集類. 3권 10책
국조고사	<K2-168>	史部 雜史類. 5권 5책
낙성비룡	<K4-6786>	소설. 2권 2책
무오연행록	<K2-4518>	史部 地理類 古蹟, 外記. 6권 6책
병자록		
사문대의록	<K3-33>	經部 儒家類. 3권 3책
선보집략언해	<K2-965>	史部 傳記類 璿源譜, 系譜, 1책(130장)
선택요람	<K3-429>	子部 術數類. 1책(42장)
선부군언행유사		
실록초본	<K2-74>	史部 編年類. 1책(137장)
엄씨효문청행록	<K4-6828>	소설. 30권 30책
열성지장통기	<K2-358>	史部 傳記類 叢傳, 王、王后. 10권 4책
열성후비지문	<K2-3926>	史部 金石類 碑文. 2권 2책.
완월희맹연	<K4-6834>	소설. 180권 180책
윤하정삼문취록	<K4-6838>	소설. 102권 102책
임신평난록	<K2-271>	史部 雜史類. 3권 3책
정미가례시일기	<K2-2708>	史部 政書類 典禮, 嘉禮 • 賀禮. 1책(102장)
조야기문	<K2-288>	史部 雜史類. 23권 23책
조야첨재	<K2-291>	史部 雜史類. 53권 53책
조야회통	<K2-97>	史部 編年類. 불분권 54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
학석집	<K4-5693>	集部 別集類 御製2. 1책(56장). 한문 원문 입력
한조삼성기봉	<K4-6860>	소설. 14권 14책
현몽쌍룡기	<K4-6861>	소설. 18권 18책
홍경내전		

3. 고전 소설 자료

강태공전(경판39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一)

고대초한전쟁실기(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15권)

곽해룡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1)

계우사(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1)

곽분양전(경판 69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一)

구운몽(서울대학교 소장 필사본)

구운몽(경판 32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一)
권익중실기(활자본 고소설 전집 1권)
金鈴傳(고소설 판각본 전집 4)

금향정기(경판 68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김원전(경판 30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김진옥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二卷)
김학공전(이준상 소장 필사본)

落泉登雲

남원고사

녀중호걸(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26권)

당태종전(경판 26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1)

도원결의록(경판 17장본)

박문수전(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3)

박홍보가(신재효본)

반씨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二卷)

백학선전(경판24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一)

별주부전(국립도서관 소장본)

鰲兔歌(가람본)

빙빙던

사씨남정기(경판66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산양전(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5권)

삼생기연(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三卷)

삼선기(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三卷)

삼설기(古小說板刻本全集1)

서유기(경판59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설인귀전(경판30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소강절(활자본 고전 소설 전집 26)

소대성전(완판 43장본)

소성전(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7권)

권용선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一卷)

금강취류(활자본 고소설 전집 1권)

금방울전(경판 16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4)

김씨열행록(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二卷)

김인향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二卷)

김학공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二卷)

김희경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二卷)

남강월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二卷)

남원고사(파리동양어학교 소장본)

녀장군전(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26권)

대명영렬전

명주보월빙(필사본)

박씨부인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二卷)

朴興甫傳(임형택 소장)

배비장전 裱裨將傳 雍固執傳

벽허담관제언록

별주부전(권영철 소장)

북송연의

사각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三卷)

山城日記

삼국지(경판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一)

삼생록(필사본 고전소설 전집 7)

삼설기(권지삼 27장본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생륙신전(활자본 고소설 전집 5권)

설인귀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4)

설명산실기(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7권)

소대성전(경판 16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1)

소상강(구활자본 고전 소설 전집26)

소운던(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7권)

소현성록(서울대 도서관본)

水宮驚主簿山中兎處士傳

숙영낭자전(경판 16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신계후전(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8권)

신숙주부인전(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8권)

신재효판소리사설

심청전(경판 24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심청전(경판 송동본 20장본)

심청전(김광순 소장 30장본)

심청전(김동욱 소장 90장본)

심청전(박순호 소장 43장본)

심청전(안성판 21장본)

심청전(정명기 소장 낙장 52장)

쌍주기연(고소설 판각본 전집 4)

쌍유괴연(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26권)

약산동대(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8권)

양산백전(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26권)

양현문직절기(筆寫本古典小說全集 17)

옥누몽(서울대 도서관본)

옥주호연(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용문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월봉기(경판 67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월왕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유충열전(완판 86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이봉빈전(활자본 고전 소설 전집 7)

임화정연(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二卷)

쇼학전(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7권)

숙영낭자전(구활자본 고소설 전집 5권)

숙향전(경판64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신미록(경판32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신유복전(구활자본 고전소설전집 4)

심청가(신재효본)

심청전(가람본 46장본)

심청전(국립도서관 소장 23장본)

심청전(김광순 소장 41장본)

심청전(대영박물관 소장 경판 24장본)

심청전(서울대 소장 완판 71장본)

심청전(정명기 소장 낙 51장본)

심청전(하버드대 소장 필사본)

쌍주기연(경판 33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쌍천기봉

양산백전(경판 24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양풍전(경판 24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열녀춘향수절가

옥주호연(경판 29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웅고집전 裋裊將傳 雍固執傳

월봉기(고소설 판각본 전집 5)

월왕전(경판 63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유옥역전

이대봉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5)

임장균전(27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장경전(경판 35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

장경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장백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5)

장풍운전(경판 29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四)

장한절효기(경판 29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장화홍년전(경판 28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전운치전(경판 37장본)

정을선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10)

제마무전(경판 26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5)

趙雄傳(고소설 판각본 전집 3)

진대방전(경판 28장본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

진주탑

초한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3)

춘향가(백성환 창본)

춘향전(철종 한국 고대 소설 선집)

춘향전(경판 17장본)

춘향전(사재동 87장본)

춘향전(홍윤표 소장 154장본)

토끼전(가람본)

토생전(경판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3)

현수문전(경판 65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玄氏兩雄雙麟記(活字本古典小說全集 第十二卷)

홍길동전(경판 30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홍길동전(완판 36장본)

화산기봉

화용도(국립도서관 소장)

全集 五)

장백전(경판 28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5)

장자방전(경판 58장본 全 3券3冊 木版本 (國之))

장풍운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장한절효기(고소설 판각본 전집 2)

적성의전(경판 23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3)

정수경전(미국하버드대학 연경학회 소장 필사본)

정진사전(活字本古典小說全集 10)

조웅전(30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5)

中山望月傳(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진대방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3)

징세비태록(경판 32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三)

초한전(완판 88장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三)

춘향가(장자백 창본)

춘향전(경판 35장본)

춘향전(도남문고본)

춘향전(충주박물관 소장)

충의소설 십생구사(구할자본 고소설 전집 8권)

兎獐山水錄

퇴별가(완판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3)

현수문전(고소설 판각본 전집 3)

玄氏兩雄雙麟記(국학자료보존회 영인본)

홍길동전(24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3)

홍길동전(정우락본)

화용도(고소설 판각본 전집 3)

화용도(박순호 소장 42장본)

황운전(경판 30-29장본, 고소설 판각본 전집 5)

후슈호던

홍부전(경판 25장본 도남문고본)

효녀실괴심경(박순호 소장)

홍보전(오영순 소장)

4. 고전 시가 자료

가곡원류

憾死別曲(한국 불교 가사 전집)

雇工歌(雜歌)

古今歌曲(國語國文學資料叢書 第5輯)

觀燈歌(校註歌曲集)

廣大募緣歌(대방광불화엄경판)

勸佛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勸往歌(釋門儀範)

歸一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규방가사(망월사친가 외 8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금강별곡(18세기 가사 전집)

기성별곡(18세기 가사 전집)

金塘別曲(存齋歌帖)

樂隱別曲(弄丸齋歌帖)

南草歌(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念佛歌(和請 무형 문화재 조사 보고서 65호)

農夫詞(17세기 가사 전집)

단산별곡(18세기 가사 전집)

魔說歌(樂府 高麗大本)

望月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慕夏堂述懷歌(慕夏堂實記)

夢中回心曲 感應篇

夢幻歌(樂府 高麗大本)

夢幻別曲(樂府 高麗大本)

半回心曲 和請(무형 문화재 조사 보고서 65호)

白馬江歌(17세기 가사 전집)

가집一,二

鏡虛堂 可歌可吟 釋門儀範

雇工答主人歌(雜歌)

關東續別(齋詠言)

觀水齋遺稿 중 喜雪(규장각본)

廣濟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勸禪曲(持經靈驗傳)

歸山曲(枕肱集)

규방가사(계녀가 외 13편_정문연)

규방가사(백발가 외 10편)

紀念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金剛別曲(明村遺稿)

樂道歌(朝鮮歌謠集成)

南征歌(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본)

念佛歌(感應篇)

蘆溪歌(蘆溪先生文集)

陋巷詞(蘆溪先生文集)

獨樂堂(蘆溪先生文集)

마천별곡(18세기 사사 전집)

梅湖別曲(齋詠言)

牧童歌(雜歌)

夢幻歌(釋門儀範)

夢幻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無常歌(和淸 무형 문화재 조사 보고서 65호)

發願文(한국 불교 가사 전집)

白髮歌 (安震湖編 釋門儀範)

法門曲(한국 불교 가사 전집)

別回心曲(釋門儀範)

北關曲

북찬가

莎堤曲(蘆溪先生文集)

賞春曲(不憂軒集)

西征別曲(17세기 가사 전집)

釋尊一代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善心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聖誕慶祝歌(釋門儀範)

속신기별곡(18세기 가사 전집)

松江歌辭(上下) 星州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영인본

水南放翁歌 水南放翁遺稿

修善曲 持經靈驗傳

時歎詞(17세기 가사 전집)

新年歌 釋門儀範

악부上,下

악학습령 홍문각 영인본

애닦은 노래_한국 불교 가사 전집

涅槃歌 釋門儀範

寧三別曲 玉所稿 推命紙

往生曲 불설멸의경

迂闊歌 水南放翁遺稿

月印千江曲 和請_무형 문화재 조사 보고서 65호

六甲十王願佛歌

因果文 彌陀懺 抄

日東壯遊歌

一笑歌 樂府_高麗大本

自悼詞

長安乞食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法華一乘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鳳山曲(一名 天臺別曲) 零潭別集

北征歌 適宜

墳山恢復謝恩歌(清溪歌詞)

四諦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西往歌 普勸念佛文

석문정구곡도가 (18세기 사사 전집)

船上歎(蘆溪先生文集)

聖主中興歌(水南放翁遺稿)

所有亭歌(17세기 가사 전집)

續回心曲(樂府 高麗大本)

送女僧歌(樂府 高麗大本)

修道歌

僧元歌(金鍾雨 所藏本)

신기별곡(18세기 사사 전집)

아악부가집

樂學拾零

악학습령(병와전서9)

燕行別曲(歌辭選)

嶺南歌(蘆溪先生文集)

往生歌(釋門儀範)

龍湫遊詠歌(水南放翁遺稿)

圓寂歌(釋門儀範)

爲君爲親痛哭歌(清溪歌詞)

六甲十王願佛歌(和請 무형 문화재 조사 보고서 65호)

인생탈춤(한국 불교 가사 전집)

逸民歌(支庵日記)

立巖別曲 (17세기 가사 전집)

自責歌(和清 무형 문화재 조사 보고서 65호)

再送女僧歌(樂府 高麗大本)

眞說因果曲 持經靈驗傳

止水亭歌 葛峯先生別集

車天輅 (江村別曲 靑丘永言 六堂本)

採薇歌(17세기 가사 전집)

靑丘永言(珍本)

靑鶴洞歌

草庵歌

出塞曲(齋詠言)

耽羅別曲(迂軒集 附錄)

土窟歌(한국 불교 가사 전집)

八相歌(和淸 무형 문화재 조사 보고서 65호)

한국 고전 문학 전집 3 가사

海東歌謠(周氏本)

回心歌 普勸念佛文

조선민요집성

진여자성가(感應篇)

持經靈驗傳 參禪曲(韓國佛教歌辭全集)

天風歌(存齋歌帖)

靑春寡婦歌 (한국 불교 가사 전집)

청회별곡(한국고전시가연구속)

추풍감별곡

嘆窮歌(水南放翁遺稿)

太平曲(枕肱集)

特別回心曲(樂府 高麗大本)

피역가 (18세기 사사 전집)

합강정선뉴가라 魏伯珪 存齋歌帖

解脫曲(한국 불교 가사 전집)

悔懺曲(한국 불교 가사 전집)

5. 언간 자료³⁾

김일근, “언간의 연구”에 수록된 언간 약 250건.

6. 신소설 자료 (이텍스트코리아 제공)

고목화	구의산	금강문	금국화	금의쟁성	눈물
두견성	비파성	비행선	산천초목	세검정	송뢰금
안의성	애국부인전	옥호기연	우중행인	재봉춘	추월색
추천명월	치악산	한월	행락도	현미경	혈의루
화의혈	화중화	황금탑			

7. 방언 자료

(1) 방언 정리 자료 말뭉치

3) 앞의 목록에 들어 있는 ‘순천김씨언간’과 ‘현풍곽씨언간’과 ‘固城李氏 李應台墓 出土諺簡’은 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21세기 세종 계획의 ‘한민족 언어 정보화’ 팀 중 ‘남한 방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와 ‘북한 방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수집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국어 어휘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①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② 김영배(1997), 평안 방언 연구(자료 편), 태학사.
- ③ 김영태(1975), 경상남도 방언 연구(I), 진명문화사.
- ④ 김태균(1986), 함북 방언사전, 경기대학교 출판국.
- ⑤ 이기갑 외(1997), 전남 방언사전, 전라남도.
- ⑥ 현평효 외(1995), 제주어 사전, 제주도.
- ⑦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방언 자료집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 방언 자료집 3(충북 편)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 방언 자료집 5(전북 편)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한국 방언 자료집 7(경북 편)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 방언 자료집 2(강원도 편)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 방언 자료집 4(충남 편)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 방언 자료집 6(전남 편)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 방언 자료집 8(경남 편)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 방언 자료집 1(경기도 편)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 방언 자료집 9(제주 편)
- ⑧ 이상규(2000), 경북 방언사전, 태학사 출판 예정
- ⑨ 서울대학교(1997), 한국 방언사전
- ⑩ 한영목(1999), 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 ⑪ 표준 국어 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관련 자료
- ⑫ 우리말 큰사전(한글 학회)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관련 자료
- ⑬ 국어 대사전(금성사)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관련 자료
- ⑭ 김주석·최명옥(2001), 경주 속담·말 사전, 한국문화사

IV. 차자 표기 자료

1. 이두 자료 (홍고 테루오 교수 제공 자료)⁴⁾

연도	문서명	출전
369	百濟七支刀銘	黃壽永(1994/412)
414	廣開土大王碑	朝鮮金石總覽(1919上/2-6)
451	瑞鳳塚銀合杼銘 許興植(1984/16)	黃壽永(1994/414)
495?	中原高句麗碑	南豐鉉(2000b/112)
503	迎日冷水里新羅碑	南豐鉉(1990/48)
524	蔚珍鳳坪新羅碑	南豐鉉(2000a/91)
525	蔚州川前里書石銘(原銘)	黃壽永(1994/32)
539	蔚州川前里書石銘(追銘)	黃壽永(1994/33)
540	丹陽新羅赤城碑	南豐鉉(1979b/10)
552	壬申誓記石銘(또는 612년)	홍기문(1957/312)
566	平壤高句麗城壁石刻銘	許興植(1984/37, 38, 43, 44)
578	戊戌塢作碑銘	南豐鉉(2000a/141)
591	南山新城碑銘(1-9)	秦弘燮(1965/1-41) 黃壽永(1994/44, 464, 558)
611	明活山城 作城碑文	南豐鉉(1989b/686)
690?	關門城石刻(7세기 말)	南豐鉉(1993b/10)
719	慶州甘山寺彌勒菩薩造成記	朝鮮金石總覽(1919/34-35)
720	慶州甘山寺阿彌陀佛像造成記	朝鮮金石總覽(1919/35-36)
725	上院寺鐘銘	南豐鉉(1993b/13)
745	无盡寺鐘銘	南豐鉉(1991c/70)
752	正倉院 毛氎貼布記(752년 이전)	南豐鉉(1993b/15)
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南豐鉉(1991b/4)
758	新羅村落文書(正倉院)	南豐鉉(2000a/241-272)
758	第二新羅文書 (758년 전후)	南豐鉉(1979a/34)
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南豐鉉(1989a/7)

4) 이 표의 오른쪽의 출전에 보이는 것은 자료집, 또는 논저 목록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일일이 이 논저 목록을 제시하지 않는다.

연도	문서명	출전
766	永泰二年銘蠟石製壺	南豐鉉(1989a/8)
772	昌寧觀龍寺石佛臺座銘	南豐鉉(2000a/411)
785-98	葛項寺石塔造成記	南豐鉉(1993b/20)
786	靈巖西鳩林里의 埋香碑銘	南豐鉉(2000a/413)
798	永川菁堤碑貞元銘	南豐鉉(1993b/24)
804	禪林寺鐘銘	南豐鉉(1991d/292)
810	昌寧仁陽寺碑銘	南豐鉉(1983/15)
827	中初寺幢竿石柱銘	南豐鉉(1993b/30)
833	菁州蓮池寺鐘銘(越前敦賀鐘記)	南豐鉉(1993b/34)
856	殷興寺鐘銘	南豐鉉(1993b/37)
86-	東海市三和寺鐵佛造像銘	南豐鉉(2000a/415)
865	咸通銘禁口	南豐鉉(1993b/41)
879	禪房寺塔誌石銘	南豐鉉(1993b/42)
889	英陽石佛坐像光背銘	南豐鉉(1993b/43)
891	開仙寺石燈記	旗田巍(1970/6)
904	松山村大寺鐘銘(豊前朝鮮鐘記)	南豐鉉(1993b/43)
939	醴泉鳴鳳寺 慈寂禪師碑陰銘	南豐鉉(1994a/3)
967	星州石佛坐像背銘	黃壽永(1994/261)
977	太平二年銘磨崖藥師坐像銘	李弘植(1960/12-3)
1010	開心寺石塔記	홍기문(1957/317)
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南豐鉉(1997a/15-17)
1044?	普賢寺石塔記	朝鮮金石總攬(1919/264)
1085	通度寺國長生石標銘(A, B, C)	南豐鉉(1994b/663)
1093	羅州西門內石燈記	許興植(1984/530)
1102	僧正景廉石棺銘	許興植(1984/533)
1107	川北觀世音寺鍾銘	黃壽永(1994/310)
1109	密陽五層石塔造成記	李弘植(1964/525), 李丞宰(1992a/30)
1160	正豐五年銘楊等寺半子	許興植(1984/780)
1177	表忠寺含銀香垵	黃壽永(1994/355)
1201	泰和貳年銘半子	許興植(1984/938)
1214	高嶺寺飯子	黃壽永(1994/391)
1224	利義寺飯子	黃壽永(1994/395)
1221-6	修禪社寺院現況記	許興植(1988/269), 李丞宰(1992a/230)
1238	福泉寺飯子	許興植(1984/1027) 李丞宰(1992a/231)
1240	修定寺飯子	李丞宰(1992a/231)
1262	柳璈功臣錄券(尙書都官貼)	許興植(1988/275-79) 李丞宰(1992a/231-35)

연도	문서명	출전
1280	咸昌金氏庚辰年准戶口單子	許興植(1988/280), 李丞宰(1992a/33)
1281	松廣寺奴婢文書	南豐鉉(1974), 李丞宰(1992a/235)
1333	光山金氏金積戶口單子	許興植(1988/272), 李丞宰(1992a/235)
1336	咸昌金氏丙子年准戶口單子	許興植(1988/280) 李丞宰(1992a/33)
1349	淸州牧官文書	許興植(1985/64) 李丞宰(1992a/236)
1351	感恩寺飯子	李丞宰(1992a/236)
1354	海南尹氏奴婢文書	金東旭(1972/42-44) 李丞宰(1992a/236)
1357	白巖寺貼文 至正丁酉僧錄司貼文	홍기문(1957/333), 李丞宰(1992a/237)
1361	慶州司首戶長行案 其一	許興植(1988/178) 李丞宰(1992a/237-8)
1366	李子脩政案	許興植(1988/283), 李丞宰(1992a/238)
1371	白文質子女分給文記	許興植(1988/291), 李丞宰(1992a/238)
1372	密陽朴氏壬子年准戶口	許興植(1988/292), 李丞宰(1992a/238)
1376	李子脩告身 其一	許興植(1988/284), 李丞宰(1992a/238)
1378	洪武戊午長城監務官貼文	홍기문(1957/337), 李丞宰(1992a/238)
1382	慶州司首戶長行案其二	許興植(1988/297), 李丞宰(1992a/239)
1382	南氏奴婢文書	李丞宰(1992a/40, 240)
1383	李子脩告身其二	許興植(1988/284), 李丞宰(1992a/241)
1385	柳從惠告身其一	許興植(1988/299), 李丞宰(1992a/241)
1387	張戢所志	李丞宰(1992a/41, 241)
1387	柳從惠告身其二	許興植(1988/299), 李丞宰(1992a/242)
1390	洪武23年奴婢文書(洪武年間 女奴賣渡文書 第一號)	鮎貝房之進(1934/660)
1390-91	高麗末國寶戶籍文書	李基白(1993/465-72), 李丞宰(1992a/242)
고려시대	庚戌銘白雲寺飯子	許興植(1984/1249), 李丞宰(1992a/244)
고려시대	癸未銘鐘	黃壽永(1994/584), 李丞宰(1992a/244)
고려시대	癸酉銘靑銅神將立像臺座銘	許興植(1984/1255), 李丞宰(1992a/244)
고려시대	乙酉銘菩提寺盤子	許興植(1984/1259), 李丞宰(1992a/244)
고려시대	乙亥銘頭正寺鍾	李丞宰(1992a/244)
고려시대	戊子銘法泉寺光明臺	李丞宰(1992a/244)
고려시대	戊子銘靑銅香垵	李丞宰(1992a/244)
고려시대	丙寅銘禁口	李丞宰(1992a/244)
고려시대	壬午銘資福寺飯子	李丞宰(1992a/245)
고려시대	壬午銘靑銅淨瓶	李丞宰(1992a/245)

연도	문서명	출전
고려시대	乙巳銘銅鐘	黃壽永(1994/335), 李丞宰(1992a/245)
고려시대	乙酉銘華嚴寺半子	許興植(1984/1279), 李丞宰(1992a/245)
고려시대	丁巳銘尙州安水寺鍾	許興植(1984/1283), 李丞宰(1992a/245)
1392	李和開國功臣錄券	朴盛鍾(1993b)
1392	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	許興植(1988/328)
1393	崔珙妻宋氏准戶口	許興植(1988/329)
1395	洪武己亥(乙亥1395)奴婢文書 (洪武年間 女奴賣渡文書 第二號)	鮎貝房之進(1934/662)
1395	大明律直解	朝鮮總督府 中樞院 <校訂大明律直解> 영인본(景仁文化社1974)
1395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	許興植(1988/331)
1395	韓奴介開國原從功臣錄券	許興植(1988/226, 338)
1395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許興植(1988/344)
1395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許興植(1988/354)
1397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許興植(1988/361)
1399	趙溫定社功臣錄券	千惠鳳(1972a/6)
1401	太祖賜給旆致家垵文書	千惠鳳(1972b/1-6)
1401	馬天牧佐命功臣錄券	許興植(1988/365)
1407	長城監務關字	許興植(1988/371)
1409	沈彦冲兵曹朝謝帖	許興植(1988/372)
1415	蔚珍張氏 戶口單子	許興植(1988/372)
1415	養蠶經驗撮要	李喆洙(1989)
1429	金務許與文記	許興植(1988/375)
1429	結城縣牒呈	千惠鳳(1973/3)
1439	牒呈 및 呈狀 5點	박병호(1974/128-131)
1443	權明利許與文記	許興植(1988/386)
1447	琴嵇別給文記	許興植(1988/388)
1461	河源(龜童)所志	鄭求福 외(1997/249 원본도판 p191)
1470-94	尹培許與文記	鄭求福 외(1997/211-14, 원본도판 pp170-171)
1470-73	權邇男妹和會文記	鄭求福 외(1997/201-05, 원본도판 pp160-167)
1475	權玠許與文記	鄭求福 외(1997/205-206, 원본도판 p168)
1479	金淮妻盧氏許與文記	鄭求福 외(1997/207-210)

연도	문서명	출전
1480	金孝之妻黃氏粘連文記(1)	鄭求福 외(1997/257-258, 원본도판 pp201-204)
1480	金孝之妻黃氏粘連文記(2)	鄭求福 외(1997/259-262, 원본도판 pp205-213)
1480	金孝之妻黃氏繼後立案	鄭求福 외(1997/262-264, 원본도판 p214)
1489	河源陳省牒	鄭求福 외(1997/277, 원본도판 p236)
1489	李勳兵曹爲差定牒	鄭求福 외(1997/72)
1490	河源陳省牒	鄭求福 외(1997/278, 원본도판 p237)
1492	金淮妻盧氏許與文記	(문서 번호 8 慶北地方古文書集成)
1498	家舍賣買明文	(문서 번호 313 慶北地方古文書集成)
1517	金孝盧粘連文記	(문서 번호 237 慶北地方古文書集成)
1517	李繼世妻鄭氏粘連文記	(문서 번호 238 慶北地方古文書集成)
1517	農書輯要	李丞宰(1992b/180-94)
1518	定順王后託後書[莊陵誌]	<吏讀集成>(1937)
1528	高林君配位愼夫人明文	崔範勳(1980/199-208)
1541/ 1578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簡易辟瘟方 合綴) 영인본 홍문각1982
1543	貞海君遺書	<吏讀集成>(1937)
1579	土地賣買文記	<吏讀集成>(1937)
1584	萬曆年間 遺券	鮎貝房之進(1934/710)
1592	亂中雜錄卷之一 壬辰 萬曆二十年 八月初一日	奎章閣本 奎 6586(v.1), M/F 82-16-193
1612	招辭(黃愼)	<吏讀集成>(1937)
1640-42	審陽狀啓	서울대 규장각 마이크로 필름 (M/F73-102-42-D, M/F73-102-43-A)
1667/ 1422	李藝鄉吏功牌	(문서 번호 767 慶北地方古文書集成),
1675	義禁府謄錄(救天) 肅宗乙卯二月二 十八日	<吏讀集成>(1937)
1680	庚申逆獄推案(進士李好讓年三十八)	<吏讀集成>(1937)
1680	庚申逆獄推案(萬鐵年三十三)	<吏讀集成>(1937)

연도	문서명	출전
1680	庚申逆獄推案(李元吉年三十八)	<吏讀集成>(1937)
1680	庚申逆獄推案(桷)	<吏讀集成>(1937)
1680	庚申逆獄推案(楚仙年四十五)	<吏讀集成>(1937)
1683/1395	龍天奇開國原從功臣錄券	南權熙(1994)
1684	土地賣買文記(康熙年間 田文券 第一號)	鮎貝房之進(1934/739)
1712	奴婢賣買文書(康熙年間 奴婢賣買文券)	鮎貝房之進(1934/719)
1719	土地賣買文記(康熙年間 田文券 第二號)	鮎貝房之進(1934/741)
1743/1297	淳昌城隍堂懸板	南豐鉉(2000a/593)
1758	農圃集	奎章閣本 奎6739-00(v.1-4), M/F 83-16-218-B
1776	審理錄	奎章閣 古 5120-12(v.1), M/F 84-16-221
1783	字恤典則	정재영(1998/25-47)
1785	慶尙監營關牒	奎章閣本 奎 15126, M/F 73-101-26-H
1786?	慶尙監營關牒 丙午十一月二十五日到付	<吏讀集成>(1937)
1799	土地賣買文記	鮎貝房之進(1934/742)
1841-43	耽羅啓錄	耽羅文化叢書(4)
1881	推案及鞠案 (罪人在鶴鞠案辛巳閏七月初九日)	奎章閣本 奎 15149, M/F 73-101-8-19
1883	推案及鞠案 (癸未罪人樂寬)	奎章閣本 奎 15149, M/F 73-101-8-19
1885	推案及鞠案 (乙酉罪人金春永)	奎章閣本 奎 15149, M/F 73-101-8-19
1888	左右捕盜廳謄錄(戊子年)	영인본 <左右捕盜廳謄錄> 第一冊
1889	左右捕盜廳謄錄(己丑年)	영인본 <左右捕盜廳謄錄> 第一冊
1890	左右捕盜廳謄錄(庚寅年)	영인본 <左右捕盜廳謄錄> 第一冊
1890	土地賣買文記	<吏讀集成>(1937)
1892	推案及鞠案 (壬辰謀叛不道罪人弘根等)	奎章閣本 奎 15149, M/F 73-101-8-19

2. 구결 자료

석독 구결	舊譯仁王經	
	華嚴經	卷 14
	瑜伽師地論	卷 20
	合部金光明經	卷 3
	華嚴經疏	卷 35
음독 구결	祇林寺本 楞嚴經	卷 2-4, 가톨릭대 한상화 제공
	楞嚴經	卷 5, 각종 이본 대비
	金剛經	川老金剛經 등 각종 이본 대비
점토 구결	瑜伽師地論	卷 5, 8.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周本 華嚴經	卷 36,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V. 한문 자료

1. 조선 전기 고문서 집성 수록 자료

(1) 제1권 관료 자료

번호	문서명	연도
1-1-1-1	都膺告身	1393년(太祖 2)
1-1-1-2	都膺告身	1397년(太祖 6)
1-1-2	陳忠貴告身	1394년(태조 3)
1-1-3	康舜龍告身	1395년(태조 4)
1-1-4-1	金懷鍊告身	1395년(태조 4)
1-1-4-2	金懷鍊告身	1397년(태조 6)
1-1-5	趙崇告身	1396년(태조 5)
1-1-6	李全生告身	1398년(태조 7)
1-1-7	李和尚妻李氏告身	1398년(태조 7)
1-1-8	李從周告身	1399년(정종 1)

번호	문서명	연도
1-1-9	成石璘告身	1402년(태종 2)
1-1-10-1	鄭俊告身	1403년(태종 3)
1-1-10-2	鄭俊告身	1404년(태종 4)
1-1-10-3	鄭俊告身	1407년(태종 7)
1-1-10-4	鄭俊告身	1403~1408년(태종 3-태종 8)
1-1-10-5	鄭俊告身	1407년(태종 7)
1-1-11-1	曹恰告身	1406년
1-1-11-2	曹恰告身	1409년(태종 9)
1-1-12	沈彦冲朝謝帖	1409년(태종 9)
1-1-13	南在告身	1415년(태종 15)
1-1-14	田興告身	1416년(태종 16)
1-1-15	馬天牧告身	1429년(세종 11)
1-1-16-1	李澄石告身	1433년(세종 15)
1-1-16-2	李澄石告身	1434년(세종 16)
1-1-17-1	李禎告身	1434년(세종 16)
1-1-17-2	李禎告身	1436년(세종 18)
1-1-17-3	李禎告身	1438년(세종 20)
1-1-17-4	李禎告身	1439년(세종 21)
1-1-17-5	李禎告身	1439년(세종 21)
1-1-17-6	李禎告身	1441년(세종 23)
1-1-18	李友告身	1445년(세종 27)
1-1-19-1	鄭玉堅告身	1454년(단종 2)
1-1-19-2	鄭玉堅告身	1486년(성종 17)
1-1-19-3	鄭玉堅告身	1470년(성종 1)
1-1-19-4	鄭玉堅告身	1471년(성종 2)
1-1-19-5	鄭玉堅告身	1476년(성종 7)
1-1-19-6	鄭玉堅告身	1478년(성종 9)
1-1-19-7	鄭玉堅告身	1479년(성종 10)
1-1-20	李八仝告身	1458년(세조 4)
1-1-21-1	鄭從雅告身	1462년(세조 8)
1-1-21-2	鄭從雅告身	1463년(세조 9)
1-1-21-3	鄭從雅告身	1463년(세조 9)
1-1-21-4	鄭從雅告身	1479년(성종 10)
1-1-21-5	鄭從雅伴尙金海差帖	1478년(성종 9)

번호	문서명	연도
1-1-22	田稼生告身	1463년(세조 9)
1-1-23-1	李崇元告身	1464년(세조 10)
1-1-23-2	李崇元告身	1464년(세조 10)
1-1-23-3	李崇元告身	1472년(성종 3)
1-1-23-4	李崇元告身	1474년(성종 5)
1-1-23-5	李崇元告身	1477년(성종 8)
1-1-23-6	李崇元告身	1480년(성종 11)
1-1-23-7	李崇元告身	1486년(성종 17)
1-1-23-8	李崇元告身	1487년(성종 18)
1-1-23-9	李崇元祖考李伯謙追贈告身	1485년(성종 16)
1-1-24-1	吳凝告身	1466년(세조 12)
1-1-24-2	吳凝告身	1466년(세조 12)
1-1-25-1	金宗直告身	1470년(성종 1)
1-1-25-2	金宗直告身	1471년(성종 2)
1-1-25-3	金宗直告身	1471년(성종 2)
1-1-25-4	金宗直告身	1471년(성종 2)
1-1-25-5	金宗直告身	1473년(성종 4)
1-1-25-6	金宗直告身	1475년(성종 6)
1-1-25-7	金宗直告身	1476년(성종 7)
1-1-25-8	金宗直告身	1476년(성종 7)
1-1-25-9	金宗直告身	1482년(성종 13)
1-1-25-10	金宗直告身	1483년(성종 14)
1-1-25-11	金宗直告身	1483년(성종 14)
1-1-25-12	金宗直告身	1484년(성종 15)
1-1-25-13	金宗直告身	1484년(성종 15)
1-1-25-14	金宗直告身	1484년(성종 15)
1-1-25-15	金宗直告身	1485년(성종 16)
1-1-25-16	金宗直告身	1485년(성종 16)
1-1-25-17	金宗直告身	1486년(성종 17)
1-1-25-18	金宗直告身	1487년(성종 18)
1-1-25-19	金宗直告身	1487년(성종 18)
1-1-25-20	金宗直告身	1487년(성종 18)
1-1-25-21	金宗直告身	1487년(성종 18)
1-1-25-22	金宗直告身	1488년(성종 19)
1-1-25-23	金宗直告身	1488년(성종 19)
1-1-25-24	金宗直告身	1489년(성종 20)
1-1-25-25	金宗直妻曹氏告身	1476년(성종 7)

번호	문서명	연도
1-1-25-26	金宗直妻曹氏告身	1484년(성종 15)
1-1-25-27	金宗直祖考金瑄追贈告身	1484년(성종 15)
1-1-26-1	金孝慮告身	1481년(성종 12)
1-1-26-2	金孝慮告身	1489년(성종 20)
1-1-27	金永銓告身	1485년(성종 16)
1-1-28-1	金珽告身	1494년
1-1-28-2	金珽告身	1496년
1-1-29-1	孫仲噉告身	1490년(성종 21)
1-1-29-2	孫仲噉告身	1491년(성종 22)
1-1-29-3	孫仲噉告身	1491년(성종 22)?
1-1-29-4	孫仲噉告身	1491년(성종 22)
1-1-29-5	孫仲噉告身	1491년(성종 22)
1-1-29-6	孫仲噉告身	1492년(성종 23)
1-1-29-7	孫仲噉告身	1493년(성종 24)
1-1-29-8	孫仲噉告身	1494년(성종 25)
1-1-29-9	孫仲噉告身	1494년(성종 25)
1-1-29-10	孫仲噉告身	1495년(연산군 1)
1-1-29-11	孫仲噉告身	1496년(연산군 2)
1-1-29-12	孫仲噉告身	1496년(연산군 2)
1-1-29-13	孫仲噉告身	1496년(연산군 2)
1-1-29-14	孫仲噉告身	未詳
1-1-29-15	孫仲噉告身	1497년(연산군 3)
1-1-29-16	孫仲噉告身	1497년(연산군 3)
1-1-29-17	孫仲噉告身	1497년(연산군 3)
1-1-29-18	孫仲噉告身	1497년(연산군 3)
1-1-29-19	孫仲噉告身	1499년(연산군 5)
1-1-30-1	金係行告身	1490년(성종 21)
1-1-30-2	金係行告身	1498년(연산군 4)
1-1-30-3	金係行告身	1499년(연산군 5)
1-1-30-4	金係行告身	1499년(연산군 5)
1-1-31-1	李勳差定帖	1489년
1-1-31-2	李勳告身	1491년(성종 22)
1-1-31-3	李勳告身	未詳
1-1-31-4	李勳告身	1496년(연산군 2)
1-2-1	李補丁紅牌	1420년(세종 2)
1-2-2	趙瑞卿紅牌	1435년(세종 17)
1-2-3	權恒紅牌	1441년(세종 23)
1-2-4-1	李崇元白牌	1450년(세종 32)

번호	문서명	연도
1-2-4-2	李崇元紅牌	1453년(단종 1)
1-2-5-1	張末孫白牌	1453년(단종 1)
1-2-5-2	張末孫紅牌	1459년
1-2-6	文孟和承蔭取才白牌	1458년
1-2-7	李淑璜紅牌	1468년
1-2-8	權柱紅牌	1481년
1-2-9	孫仲噉紅牌	1489년
1-2-10	李賢輔紅牌	1498년(연산군 4)
1-3-1	都膺祿牌	1394년(태조 3)
1-3-2	金宗直祿牌	1491년(성종 22)
1-4-1	雙峰寺減役教旨	1457년(세조 3)
1-4-2	龍門寺減役教旨	1457년(세조 3)
1-4-3	李澄石敎書	1433년
1-4-4	權柱 敎書	1497년

(2) 제2권 공신 자료

① 녹권

번호	문서명	연도
1	李和開國功臣錄券	1392년
2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3	韓奴介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4	文係宗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5	朴淳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6	陳忠貴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7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8	李和尚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9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10	金天理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번호	문서명	연도
11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12	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13	龍天奇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14	朴乙富開國原從功臣錄券	1397년
15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1397년
16	張哲定社功臣錄券	1398년
17	馬天牧佐命功臣錄券	1401년
18	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	1411년
19	李楨佐翼原從功臣錄券	1459년
20	崔某佐翼原從功臣錄券	1459년
21	金潤宗佐翼原從功臣錄券	1459년
22	朴元亨佐翼原從功臣錄券	1459년

② 교서

번호	문서명	연도
1	馬天牧佐命功臣敎書	1401년
2	成石璘佐命功臣敎書	1401년
3	張末孫敵愾功臣敎書	1467년
4	孫昭敵愾功臣敎書	1467년
5	李敷敵愾功臣敎書	1467년
6	許琮敵愾功臣敎書	1467년
7	李崇元佐理功臣敎書	1472년
8	金吉通佐理功臣敎書	1472년

③ 사패

번호	문서명	연도
1	趙溫 賜牌	1399년
2	曹恰 賜牌	1401년
3-1	李澄石 賜牌	1433년
3-2	李澄石 賜牌	1458년

(3) 제3권 경제 관련 문서

① 분재기

번호	문서명	연도
1	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	1392년(太祖 元)
2	南閭遺書	1398년(太祖 7)경
3	太祖賜給旆致家垵文書	1401년(太宗 元)
4	張戡妻辛氏同生和會文記	1404년(太宗 4)
5	金務許與文記	1429년(世宗 11)
6	權明利許與文記	1443년(世宗 25)경
7	琴嵒別給文記	1447년(世宗 29)
8	柳義孫兄弟 和會文記	추정 1447-1450년(世宗 29-32)
9	李遇陽許與文記	1452년(문종 2)
10	權深妻孫氏 許與文記	세조연간(1455-1468) 추정
11	張安良家舍許與文記	1467년(세조 13)
12	張安良奴婢許與文記	1465년(세조 11) 또는 1460-1478년
13	權邇男妹和會文記	1470-1473년(성종 1-4) 추정
14	權玠許與文記	1475년(성종 6)
15	金淮妻盧氏許與文記	1479년(성종 10)
16	尹培許與文記	성종연간(1470-1494) 추정
17	金光礪男妹和會文記	1480(성종 11)
18	安謙妻金氏別給文記	1492년(성종 23)
19	金淮妻盧氏許與文記	1492년(성종 23)
20	李璵男妹和會文記	1494(성종 25)
21	李璵男妹遺漏奴婢和會文記	1494년(성종 25)
22	黃珽別給文記	1500년(연산군 6)
23	河緯地 遺書	

② 매매명문

柳自汾妻柳氏 家舍賣買明文

1498년(연산군 4)

(4) 사회 관련 문서 자료

① 粘連文記類

번호	문서명	연도
4-1-1-1	張戡所志	1385년
4-1-1-2	張戡妻辛氏所志(1)	1427년
4-1-1-3	張戡妻辛氏所志(2)	宣德年間(1426-1435년)
4-1-1-4	張安良所志(1)	1435년
4-1-1-5	張安良所志(2)	1435년
4-1-1-6	張安良所志(3)	1465년
4-1-2	河源(龜童) 所志	1461년
4-1-3	李禎妻金氏所志	1463년
4-1-4	金孝盧所志(奴婢許與立案)	1464년
4-1-5	田養智妻河氏所志(傳准立案)	1469년
4-1-6	金孝之妻黃氏所志(田地許與立案)	1480년
4-1-7	金孝之妻黃氏粘連文記(奴婢許與立案)	1480년
4-1-8	金孝之妻黃氏繼後立案	1480년
4-1-9	金孝之妻黃氏粘連文記(生員入格別給許與立案)	1480년
4-1-10	金孝盧繼後司憲府立案	1483년
4-1-11	金孝盧粘連文記(土地賣買立案)	1487년

② 戶口 關聯 文書

번호	문서명	연도
4-2-1	權蹲准戶口	1444년
4-2-2	沈敬宗戶口單子	1456년
4-2-3	沈洋准戶口	1489년
4-2-4	沈守平准戶口	1523년

③ 其他 文記

번호	문서명	연도
4-3-1	河源陳省牒呈(1)	1489년
4-3-2	河源陳省牒呈(2)	1490년
4-3-3	長城監務關字	1407년
4-3-5	眞寶縣監牒呈(牒呈A)	1439년
4-3-6	知永川郡事牒呈(牒呈B)	1439년
4-3-7	軍威縣監牒呈(牒呈C)	1439년
4-3-8	○○縣監牒呈(牒呈D)	1439년
4-3-9	呈狀	1439년

2. 장서각 수집 고문서 자료(274건)

- | | |
|-------------------------|-----------------------|
| ① 敎令類-敎旨-訓令(1건) | ② 牒關通報類-關文類-關文(2건) |
| ③ 牒關通報類-關文類-傳令(8건) | ④ 證憑類-증빙류1-標文: 4건 |
| ⑤ 證憑類-증빙류1-立案: 41건 | ⑥ 證憑類-증빙류1-題音: 1건 |
| ⑦ 證憑類-증빙류1-完文: 3건 | ⑧ 證憑類-증빙류1-傍音: 5건 |
| ⑨ 證憑類-증빙류1-手記: 2건 | ⑩ 證憑類-증빙류1-招辭: 8건 |
| ⑪ 證憑類-증빙류1-立後成文: 1건 | ⑫ 證憑類-증빙류1-私通: 1건 |
| ⑬ 明文文記類-分財記-분재기1: 37건 | ⑭ 明文文記類-分財記-和會文記: 11건 |
| ⑮ 明文文記類-分財記-衿給文記: 20건 | ⑯ 明文文記類-分財記-別給文記: 25건 |
| ⑰ 明文文記類-明文類-奴婢賣買明文: 11건 | ⑱ 明文文記類-明文類-自賣明文: 5건 |
| ⑲ 明文文記類-明文類-土地賣買明文: 55건 | ⑳ 明文文記類-明文類-賣夢明文: 1건 |
| ㉑ 明文文記類-牌旨類-牌旨: 24건 | ㉒ 置簿記錄類-置簿類-田畝置簿: 3건 |
| ㉓ 置簿記錄類-置簿類-奴婢置簿: 6건 | |

3.各司謄錄(근대 편) 자료(국사편찬위원회 구축)

各官廳公文原本, 奎17272, 의정부 편, 1책	各觀察道(去來)案, 奎17990, 의정부 편, 5책
各郡指掌完文, 奎19490, 농상공부 편, 1책	各道郡來報1, 奎17982의 4, 내각 편, 1책
各部去照存案, 奎17242, 의정부 편, 2책	各部指令存案, 奎17750의 1, 의정부 편, 1책
各部請議書存案, 奎17715, 의정부 편, 28책	各部通牒, 奎17824의 2-6, 의정부 등 편, 6책
甲午軍功錄, 奎17185, 군부 편, 1책	經議疏本存案, 奎17233, 의정부 편, 1책
警務廳來去文, 奎17804, 외부 편, 7책	警務廳來去文, 奎17886, 탁지부 편, 2책
警部來去文, 奎17888, 탁지부 편, 2책	啓下咨文冊, 奎7902, 통리아문 편, 2책
公文接受, 奎17277의 23, 법부 법무국 편, 2책	公文編案, 奎18154, 탁지부 편, 99책
宮內府來去文綴(궁내부거래안문), 奎17882, 궁내부 편, 8책	宮內府來文, 奎17757, 의정부 편, 88책
起案, 奎17746, 의정부 편, 23책	內各司(關草), 奎17835, 통리아문 편, 4책
內閣宮內府去案, 奎17758, 내각 편, 1책	內閣往復文, 奎17755, 내각 편, 7책
內部來去文, 奎17794, 외부 편, 17책	內部來去案, 奎17768, 내각 편, 4책
內部來文, 奎17761, 의정부 편, 24책	內部請議書, 奎17721, 내각편록과 편, 5책
內藏院完文, 奎, 내장원 편, 1책	農商工部去牒存案, 奎18152, 농상공부 편, 11책
農商工部來去文, 奎17802, 외부 편, 11책	法規類編所關公文, 奎18027, 내각 편, 1책
法部來文, 奎17762, 의정부 편, 17책	法部來案, 奎17795, 외부 편, 13책
報告書綴, 奎17995, 탁지부 편, 6책	司法照牒, 奎17280, 법부 편, 14책
司法稟報, 奎17279, 52책	上疏存案, 奎17232의 1, 내각 편, 7책
上疏存案, 奎17232의 2, 내각 편, 3책	所志謄錄, 奎18015, 통리아문 편, 5책
驛土所關文牒去案1, 奎17898의 2, 3, 농상공부 편, 4책	驛土所關查員質報存당, 奎17896, 농상공부 편, 15책
驛土所關查員訓指存당, 奎17897, 농상공부 편, 7책	驛土所關訴題存당, 奎17895, 농상공부 농무국 편, 9책
驛訓指, 奎17898의 1, 농상공부 편, 8책	沿途各郡案, 奎17991, 외부 편, 5책
外各府郡公牒摘要, 奎18022, 내부 판적국 편, 1책	外各府郡公牒存案, 奎18022의 2, 내부 편, 1책
外部各官廳來去文, 奎17818, 외부 편, 1책	外部謄來件, 奎19488, 통신원 편, 1책
外部來去文, 奎17889, 탁지부 편, 1책	外部來文, 奎17770, 의정부 편, 7책
外部日記, 奎17841, 외부 편, 10책	外部請議(書), 奎17722, 내각 편록과 편, 1책
外部訓令附報告, 奎17999, 주창한국공서관 편, 3책	元帥府來去案, 奎17809, 외부 편, 4책
議政府來去文, 奎17793, 외부 편, 11책	議政府來去案, 奎17887, 탁지부 편, 1책
李案1, 奎17742, 통리아문 편, 2책	財産調查局來去文, 奎17827, 내각 편, 1책

電案, 奎17740-17741, 통리아문 편, 8책
 照會, 奎17754, 의정부 편, 4책
 照會起案, 奎17277의 22, 법부 감사국 편, 1책
 調查所處辦存案, 奎19375, 탁지부 편, 5책
 牒報存案, 奎17247, 내각 편, 1책
 請議存案, 奎17243, 의정부 편, 1책
 總關公文, 奎17830, 통리아문 편, 8책
 度支部來去案, 奎17766, 내각 편, 8책
 八道四都三港口日記1·2, 奎18083, 통리아문 편, 2책
 漢城府來去案, 奎17984, 외부 편, 2책
 訓令存(編)案, 奎17876, 탁지부 편, 12책
 訓令存案1, 奎18153, 탁지부 편, 8책
 訓令存案, 奎18153, 탁지부 편, 8책

電郵費訓令編案, 奎17892, 탁지부 편, 1책
 照會, 奎17823, 의정부 편, 8책
 照會原本, 奎17234, 중추원 편, 2책
 存案書類, 奎20734, 1책
 請願書, 奎17848, 내각 편, 7책
 總關去函0, 奎17832, 외부 편, 11책
 總關來申, 奎17829, 외부아문 편, 9책
 度支部來文, 奎17765, 내각 편, 7책
 學部來去文, 奎17798, 외부 편, 12책
 漢城府裁判所來去文1'2, 奎17814, 외부 편, 2책
 訓令存案, 奎19144, 내장원 편, 14책
 訓令存案, 奎19144, 내장원 편, 14책

4. 기타 자료

各司受教	규장각본
규장각 소장 고문서	1,016건
금석문 자료	고구려 17건
	백제 17건
	신라 60건
	고려 31건
	조선 10건

5. 국어학사 관련 자료

眉巖日記, 장서각본(1936-38년)

增正交隣志

性理大全

星湖僊說

五洲衍文長箋散稿

頤齋亂藁

通文館志, 1944년 朝鮮史編修會 編

慵齋叢話, 稗官雜記, 筆苑雜記 등 (大東野乘 수록본)

芝峯類說

練藜室記述

增補文獻備考/東國文獻備考

6. 서지 관련 자료

奎章總目, 규장각본

鏤板考, 규장각본

7. 기타

三國史記

花郎世紀

園幸乙卯整理儀軌

進宴儀軌

日本書紀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華城城役儀軌

進饌儀軌

萬葉集

VI. 영상 자료

디지털 한글 박물관 자료로 구축된 역사 자료 중 영상 자료(이미지 자료)는 대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한글 박물관 구축 자료

加鬯申禁事目

簡札

敬惜字之文

誠初心學人文

고산유고

곽분양실기

교간유시언문지(중국판)

구급간이방언해(권 7)

구해남화진경

국문독본

국민소학독본

群頭目抄

궁중잡록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

금강경

금강명경(권 3)

금방울전

금쇄동집(고)

기해일기

김학공전

남이장군실기

남훈태평가

논어언해

농가집성

당태종전

대월서상기

대학을곡언해

童蒙先習諺解

동의보감(탕액편1)

도읍전(趙雄傳)

簡易辟瘟方諺解

改刊法華經

敬信錄諺釋

고불응협명성경

過化存神

關聖帝君明聖經諺解

交隣須知

구운몽

구황촬요(救荒撮要)

국문정리(國文正理)

국어문전음학

宮辭諺解

勸念要錄

閨閣叢書

금강경언해

금강반야바라밀경

금쇄동기

기령현묘경

김유신실기

남궁계적

남훈태평가

낭옹신보

농가집(農家集)

능엄경언해

대성용문전

대학언해

대한국어문법

동언고

동자습구결(童子習口訣)

두시언해(권 2,3,6,7,8,12,13,14,17,21,23)

두시언해 중간본	두창경험방언해
독집전	독천니공횡적
류문성전	림경업전
마하심경	만국지지
맹자언해(권 9-14)	명의록언해
목우자수심결	몽결초한송
몽산법어언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몽유편(蒙諭篇)	무예도보통지언해
물명고(物名考)	박문수전
박통사신석언해	반야심경인교상의직해
반절표	방약합편(方藥合編)
백련초해(百聯抄解)	백병구급신방(百病救急新方)
번역소학(권 10)	범화경언해
벽온신방	병학지남(兵學指南)
보권문(普勸文)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부모은중경(화암사판)	부모은중경(송광사판)
부모은중경(쌍계사판)	부모은중경언해(목판)
부모은중경언해(천룡사판)	북도윤음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불우헌집
불정심다라니경	사명당전
사범어	사서석의
사소절	謝氏南征記
산중신곡	삼문규합록
삼성사실(三聖事實)	삼운성휘(三韻聲彙)
상례언해(喪禮諺解)	상례초언해(喪禮抄諺解)
상원사어첩중창권선문(上院寺御牒重創勸善文)	상훈언해
서정기	서한연의
석보상절(권 9,13)	선세언적(先世言蹟)
설인귀전	설정산실기
성교감략	성교요리문답
성찰기략	소미타(小彌陀)
소학독본(小學讀本)	소학집주언해(小學集註諺解)(1)

소현성록
 속삼강행실도
 송설당집
 숙혜기략(夙惠記略)
 숙향전
 신간구황촬요
 신숙주부인전
 신전자초방언해
 신정심상소학
 심상소학(尋常小學)
 심청전(서계서포)
 십구사략언해
 아미타경(음역)
 아학편(兒學編)
 어록해(語錄解)
 어제내훈(御製內訓)
 언문(諺文)
 언문테집
 언해태산집요
 여소학(女小學)
 여자충효록
 역대가
 역어유해보
 연행록
 예기대문언두
 옥단춘전
 왜어유해
 우의서(牛醫書)
 월왕전
 諡京畿民人綸音
 유몽휘편
 유충열전(완홍사서림)

속명의록언해
 송강가사
 淑香傳
 순천김씨언간
 시경언해(권 10)
 신간증보삼략언해
 신유복전
 신정심상소학
 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심청전(박성칠서점)
 심청전(한남서림)
 아미타경언해
 아속가사
 양귀비
 어부사, 도산십이곡
 언간(諺簡)
 언문초학
 諺解痘瘡集要
 여사서언해
 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
 여장군전
 역어유해
 연병지남
 염불보권문언해(홍률사판)
 옥낭자
 왕장군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권 3,4)
 원각경구결(상)
 월인석보(권 4,21,23,25)
 諡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
 유제도도신윤음
 육자선정

윤음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二先生遺訓

이화정서전

임진록

장수경언해(長壽經諺解)

장풍운전

장화홍련전

적벽대전

정을선전

조군영격지(寵君靈蹟誌)

조사법보

조양반서

주시경선생유고

주원장창엽기

주해천자문(註解千字文)

중간진언집

중용언해(中庸諺解)

증보언간독(增補諺簡牘)

지구약론(地畧略論)

지장경구결(地藏經口訣)

직지심경

척사윤음(斥邪綸音)

초패왕실기(항우전)

추풍감별곡

충무공이순신실기

턴당직로

한글공부

한글제문

홍계월전

홍길동전(한남서림)

화어유초(華語類抄)

은사첩

이문대사

이해룡전

임경정념결(臨終正念訣)

자훈전축(字恤典則)

장자방실기

장학사전

적벽가, 황부인전

전우치전

정포은전

조만민광(照萬民光)

조선지지(朝鮮地誌)

조자룡실기

주역전의구결

주해어록총람

중간노걸대언해

중간첩해신어

중용을곡언해

증수무원록언해

지심다라니경

지장경언해(地藏經諺解)

진언집(신흥사판)

천로역정

최고운전

춘향전

태상감응편도설언해

한글가승(全州李氏)

한글독본

해동제국기

홍길동전(박성철서집)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

화용도실기

화음계몽언해
황새결송
훈몽자회
홍부전(한남서림)

화포식언해
효경언해
홍몽자략

(2) 한글 서체 연구 목적 자료(김두식 학위 논문)

등문유해
두시언해(권 2)
매화전
名物小學(茶山)
몽어유해(보)
선세언적
시경언해(만력41년내사기)
언해태산집요
역어유해(보)
월인천강지곡(상)
유가사지론-각필자료(권 8)
유합[필사본]1901년
재물보
중간노걸대언해
태상감응편도설언해
漢語抄

두시언해(권 15)
만국약사
물명찬
몽어유해
삼역총해
소아론
언해두창집요
역어유해
월인석보(권 8)
유가사지론-각필자료(권 5)
유몽천자
인어대방
주역언해
천의소감언해
팔세아
훈민정음 해례본

(3) 청주고인쇄박물관 구축 자료 중 한글 관련 자료

논어언해(권 1)
두시언해(권 21)
소학언해(권 3,4)
향약집성방

대학언해
맹자언해(권 3,4)
시경언해

(4) 소창진평 문고 귀증본 자료(동경대학 문학부 언어학연구실)

牧牛子修心訣(1467년, 刊經都監板)

佛說大報父母恩重經(1720년, 金山寺板)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4년, 文化 明葉寺板)

杜詩諺解(1481년, 권 17)

五大眞言(1485년 刊本の 覆刻版)

法語(1467년, 刊經都監板)

誠初心學人文(1583년, 龍仁 瑞峯寺板)

千字文(1575년, 光州板)

佛說大報父母恩重經(1676년, 高山 影子庵板)

佛說大報父母恩重經(1635년)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53년, 長端 華藏寺板)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寫本)

法語(松廣寺 萬曆頃刊)

發心修行章(1583년, 龍仁 瑞峯寺板)

野雲自警(1583년, 龍仁 瑞峯寺板)

VII. 음성 자료

음성 자료는 주로 유성기 음반으로 남아 있는 자료이다. 유성기 음반이란 유성기로 재생하기 위해 제작된, 셀락이란 물질로 만들어진 음반을 말하는데, 음반 1면당 녹음 시간은 대략 3분에서 3분 30초 정도이다. 역사 자료 중 음성 자료의 역사는 기록상으로는 1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1907년 이후의 자료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육성이 처음 취입된 것은 1896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미국으로 이민간 우리나라 노무자들을 상대로 문화 인류학적 차원에서 민속 조사를 하던 학자들이 인디언들의 노래와 함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래를 에디슨식의 원통형 레코드에 취입한 것이다. 남도 육자배기와 서도소리가 실려 있다고 한다. 그리고 1899년 무렵에 노래를 녹음했다는 기록이 독립신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이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 (만고 절창) 외부에서 일전에 류성기 留聲機를 사서 각항 노리 곡조를 불너 류성기 속에다 넛코 히부 대신 이하 제관인이 춘경을 구경하랴고 삼청동 감은정에다 존치를 비설하고 서양 사람의 모든 기계를 운전하야 쓰논디 몬져 명창 광터의 춘향가를 넛코 그 다음에 기성의 화용과 밋 금랑 가샤를 넛코 말경에 진고기피 계집 산홍과 밋 사나히 학봉등의 잡가를 너엇논디 귀관되는 작은

괴계를 밟고아 쏜이면 몬져 너엇던 각항 곡조와 꺾치 그 속에서 완전히 나오는지라 보고 듯는 이들이 구름 꺾치 모혀 모도 괴이하다고 칭찬하며 종일토록 노라다더라 (독립신문 1899년 4월 20일)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907년 경기 명창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첫 취입을 하여 미국 콜럼비아에서 원음반형 음반으로 제작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1907년 첫 음반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음반의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⁵⁾

회사	음반 수	회사	음반 수
미국 콜럼비아	7	빅타	993
미국 빅타	11	포리돌	650
日蓄	479	시에론	270
日東	169	오케	1,300
合同蓄音機	5	태평	620
콜럼비아	1,473	群小會社	300
총계	6,377		

그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세부 내용
전통 음악	雅樂, 正樂, 正歌(歌曲, 歌詞, 時調, 詩唱, 誦書), 각 지방 민요 (경기, 서도, 남도, 기타 민요), 잡가 巫歌 佛歌 탈춤, 판소리, 창극, 가야금 병창, 散調, 시나위 등 민속 기악 및 전통 음악
양악	창가, 찬송가, 외국 민요, 성악곡, 기악 독주곡 등
대중가요	
口演 資料	각종 연극, 신파극, 변사들의 무성 영화 해설, 대중적 스캔들나 난센스를 비롯한 각종 코메디류, 시낭송, 연설, 동화, 야담, 만담 등
특수 자료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이나 외국어(일본어) 학습 자료 취입 자료

이 중에서 국어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것은 특히 구연 자료와 특수 자료이다. 기

5) 이 통계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8), 한국 유성기 음반 총 목록, 민속원의 앞에 쓰인, 배연형: '한국 유성기 음반 총 목록 해제'에 의한다.

술이 발달하여 유성기 음반의 소음을 제거하여 디지털화할 수 있어서 현재 전통 음악은 많은 수가 디지털화되어 상품화되고 있고, 특수 자료와 구연 자료는 개인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국어 음운론과 음성학 연구에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아직까지 역사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의 목록과 소장처를 조사할 기회가 없어서 전체 목록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신 1935년 12월에 발매된 음반의 목록을 예시한다.

보통학교 제2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2) 제29과 산울림
 보통학교 제2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2) 제31과 한석봉
 보통학교 제4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4) 제8과 흑뱀 이야기(上)
 보통학교 제4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4) 제8과 흑뱀 이야기(下)
 보통학교 제4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4) 제○과 아침바다
 보통학교 제4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4) 제28과 夫餘
 보통학교 제5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5) 제9과 漁夫歌
 보통학교 제5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5) 제12과 諺文의 制定
 보통학교 제6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6) 제2과 時調五首
 보통학교 제6학년 교육용 조선어독본(권 6) 제6과 孔子와 孟子

이들은 모두 讀書指導 : 沈宜麟, 作曲及音樂指導 : 李鐘泰, 音聲指導 : 鄭寅燮, 京城師範附屬 普通學校兒童 吹入, 伴奏 : 오케-管絃樂團으로 되어 있다.

VIII. 역사 자료 말뭉치 구축의 특징

문서 자료는 보통 텍스트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자료의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않고, 단지 문자의 내용만 보여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자료의 검색, 빈도수 조사, 연구자의 필요에 따른 가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상 자료는 그 자료의 거의 모든 형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반면에, 현재의 컴퓨터 처리 기술로는 아직까지 그 자료로서 연구자가 원하는 형태의 자료로 가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 자료는 문서 자료이다.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역사 자료 중 상당수가 문서 자료로 입력되어 있어서 이를 활

용하였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연구자들이 합심하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전자 자료로 연구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 입력 자료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옛 문헌을 입력하면서 입력자의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입력되어 있지 않다.
- ② 대부분, 원문이나 한자음은 입력하지 않고 언해문이나 번역문만을 입력하여 놓았다.
- ③ 언해문에 방점을 입력하여 놓은 자료가 흔하지 않다.
- ④ 옛 문헌을 입력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한자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문서 작성기에서는 이 한자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문서 작성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한자가 상당수 있다.
- ⑤ 현대 국어 자료는 문법 정보를 입력하여 놓은 자료가 많은데 비해서, 역사 자료는 아직 문법 정보를 입력하여 놓은 것이 거의 없다. 즉 역사 자료는 원시 말뭉치(raw corpus)의 상태일 뿐, 그 자료에 형태 통사적 주석을 가하여 단어 구성 정보와 품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소위 주석 말뭉치(annotated corpus)는 거의 없다.
- ⑥ 이들 입력된 문서 자료에 대한 헤더(header)가 충실하지 않아서, 문헌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않고 있다. 단지 입력자나 입력기의 이름, 입력 일자, 그리고 입력 문헌명과 간행 연도 등만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 ⑦ 문헌별로 입력된 자료의 파일 이름이 입력자마다 달라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IX. 문헌 자료의 약호

이들 말뭉치를 검색하기 위하여서는 이 문헌 자료들의 출전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을 정하고, 또한 그 약호를 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⁶⁾

1. 출전의 표현 형태

- ① 문헌 자료의 출전은 모두 문자판의 < > 사이에 표기한다.
- ② 약호는 문자판에 있는 부호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놀림키의 사용도 최소화한다.
- ③ 문헌의 권, 張次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④ 페이지의 앞뒷장은 영문자 a, b(소문자)로 구분한다.
- ⑤ 문헌 이름과 쪽수 사이, 그리고 문헌 이름과 권수 사이에는 쉼표를 한다.
- ⑥ 권과 장 사이에는 쉼표를 한다.
- ⑦ 권수, 장수 뒤에 오는 쪽수는 쉼표로 구분한다.
- ⑧ 출판 연도나 필사 연도는 앞에 4자리수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간행 연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영문자 X(대문자)를 쓴다. 전반기와 후반기는 구분하지 않는다.

2. 약호 제정의 원칙

- ① 약호는 책 또는 작품 이름의 첫 3음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책 또는 작품 이름이 1 또는 2음절일 경우에는 원래의 이름을 사용한다.
- ③ 모든 약호는 한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음이의어가 될 경우에는 한자를 쓸 수 있다.

6) 이에 대한 것은 소강춘(2003), 문헌 자료의 약호 제정에 대하여, 국어사학회 학술 대회 발표 논문을 참조하였다.

- ④ 문헌의 원이름과 약호 이름이 있을 때에는 약호 이름을 기준으로 삼는다.
 - ⑤ 초간본인 경우에는 중간본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 ⑥ 중간본은 '중', 개간본은 '개', 언해본은 '해'를 마지막 음절에 넣는다.
 - ⑦ 소설의 경판본과 완판본은 '경'과 '완'으로 구분한다.
 - ⑧ 소장처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장처의 첫 글자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글자로 구분할 수 있다.
 - ⑨ 개간, 개수가 이루어져 책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른 책으로 본다.
 - ⑩ '어제', '우암선생'과 같이 저자가 문헌의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⑪ 지명이 나오고 책명이 나올 때에는, 책명을 2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각 문헌의 약호를 제정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서 여기에 제시하지 않는다.

X. 검색 프로그램

역사 자료 말뭉치 구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 국어의 변천사를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② 어원 및 의미·용법의 변화를 정밀하게 밝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③ 어원 연구를 활성화하고 비교 언어학적 연구 토대를 마련한다.
- ④ 우리말 어휘와 표현 자원을 발굴·응용하는 데 기여한다.
- ⑤ 방언사 자료를 통해 지리적 분포에 따른 국어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국어 생활과 언어 정책의 운용에 기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 자료 말뭉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역사 자료 말뭉치를 검색하고 계산하기 위한 도구는 많은 한자와 우리글(옛 우리글 포함), 그리고 구결 글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은 유니코드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종류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컴퓨터와 연관시켜 언어를 연구하는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컴퓨터를 위한 언어 연구(Linguistics for the Computer)이고 또 하나는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 연구(Linguistics with the Computer)이다. 특히 후자는 주로 자연 언어 처리를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우리글을 처리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소개하도록 한다.

계산과 검색을 위한 도구는 색인(index), 문맥 색인(concordance), 주요어 문맥 색인(KWIC, KWOC)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단순한 단어의 정보 추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어나 형태소의 결합 단위 등을 다양하게 검색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것들이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예컨대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산학과에서 개발한 KOCP, 고려대학교 자연언어처리연구실에서 개발한 KCAT, 연세대학교 한국어 사전 편찬실에서 개발한 '말샘' 등이 있으나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그 이외에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개발한 HGREP, HDB가 있는데, 이들은 이미 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는 전주대학교 소강춘 교수팀이 개발한 '깜짝새'라는 검색 도구가 공개되어 국학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어학자나 대학원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주대 소강춘 교수팀이 개발한 깜짝새(SynKDP)로 보인다.

역사 자료 말뭉치와 방언 자료 말뭉치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인 일명 '깜짝새'(SynKDP V.1.5)는 검색이 용이하여 국어 어휘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용례를 찾아 줄 뿐만 아니라 용례를 보이는 문헌을 연도 별로 정렬해 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휘 역사 사전을 위한 자료의 검색이 매우 용이하다. 어느 단어가 다른 어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다른 어형이 아닌 이상, 표기법의 차이로 인한 것도 추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 물론 그 검색 자료에서 취사선택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효용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공개되어 있다. 역순 사전 만드는 프로그램, 정

럴 프로그램, 용례 사전 만드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XI. 역사 자료 말뭉치를 이용한 어휘 역사 사전의 편찬

21세기 세종 계획의 어휘 역사 검색 시스템 개발 연구진에서는 어휘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력 구조를 정하여 어휘의 역사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
&
//제목 : 어휘 역사 검색 시스템
//일련번호 : 00001
//작성자 :
//작성 날짜 :
//검색어 :
//표준어 :
//품사 :
//현대 뜻풀이 :
//관련 한자어 :
//15세기 형태 :
//15세기 예문 :
//16세기 형태 :
//16세기 예문 :
//17세기 형태 :
//17세기 예문 :
//18세기 형태 :
//18세기 예문 :
//19세기 형태 :
//19세기 예문 :
//20세기 형태 :
//20세기 예문 :
//종합 설명
//끝
$
```

이 입력 구조는 어휘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1) 표준어

표제어를 현대 국어의 표준어로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휘의 역사가 비록 어느 한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현대까지의 변화사를 기술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은 현대어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품사

표제어에 대한 가장 간단한 문법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휘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므로 어휘의 세밀한 문법적 기능까지도 기술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3) 현대 뜻풀이

표제어에 대한 간략한 뜻풀이를 하는 것이다. 어느 어휘는 의미 변화를 겪어서 오늘날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변화를 세기별로 기술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4) 관련 한자어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관련 한자를 적는 것인데,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하여 쓰는 일보다는 한자를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15세기 ~ 20세기의 형태와 예문

각 형태와 예문을 어떻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어사의 시대 구분인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의 구분을 따라 각 시기에 나타나는 형태와 예문을 제시

하면,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나 예문들을 정밀하게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기별 분류를 택한 것이다.

예문을 제시하는 원칙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예문은 각 세기별로 3개 정도로 제시해 주되, 3개 이내일 때에는 그대로 다 전재하고, 3개 이상일 때에는 가능한 그 세기의 전기 중기 후기의 자료 하나씩 제시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예문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예문의 길이는 뜻이 통할 정도로 하고, 특히 한 화면의 한 줄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6) 종합 설명

표제항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말한다. 이 종합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 | | |
|-------------------|----------------|
| ① 음운 변화 | ② 표기법 및 형태의 변화 |
| ③ 의미의 변화 | ④ 어원 |
| ⑤ 형태소 분석 | ⑥ 이설(異說) |
| ⑦ 속담 사전 등의 표제항 원용 | |

이러한 구조로 기술된 예를 대표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송곳’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한다.

&

//표준어 : 송곳

//품사 : 명사

//현대 뜻풀이 : 작은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도구.

//관련 한자어 :

//15세기 형태 : 솔웃

//15세기 예문 : 즘은 :솔웃·오로·싸·덜·오미·무·뵈·살브·로·훈·번 :눌로·미·곶디 :문
 흥·나라<1482금 강해,4,049b>

훈 老:룡廬룡·도·오·직·솔웃·그티·눌카·오몰·보·나라<1482남명천,077b>

//16세기 형태 : 송곳, 솔웃

//16세기 예문 : 錐 송곳 추<1576신유합,上,028a>

錐 솔웃 초<1527훈몽자,중,007b>

//17세기 형태 : 송곳, 송곤, 솔웃

//17세기 예문 : 송곳과 칼긋만흔 자근 니로 송스롤 니르혀리<1658경민해,022b>

실은 밀터 잇고 송고손 ㄱ롤고 노흔 굴그니<1670노결언,하,048a>

하늘 뜰는 송곳 아리 큰 물이여 이거슨 이 탑이로다<1677박통해,상,038a>

하늘 뜰는 솔오재 <1677박통사,상,42>

錐子 송곳<1690역어유,하,018a>

송곤 추 錐<1664유합원,017b>

집마다 솔웃 ㄱ 니르리 ㄷ토미 썬르도다<1613두시중3,005b>

錐 솔웃 초<1700유합영,017b>

//18세기 형태 : 송곳, 송곤

//18세기 예문 : 錐子 송곳<1748동문해,하,017a>

하늘 쏘는 송곳 아리 큰 물이여 이논 이 寶塔이로다<1765박신해,1,041a>

錐子 송곳<1768몽유하,013a>

錐子 송곳<1778방언유,성부방언,029b>

지 죄 이시면 주머니 속에 송곳 ㄱ트여 온갓 ㄱ에 다드르면 반다시 ㄱ치 나느니<1790첩해몽,1,014b>

송곳슨 ㄱ늘고 실은 ㄱ으니<1795중노해,하,050a>

송곤 추 錐<17??왜유해,하,016a>

//19세기 형태 : 송곳

//19세기 예문 : 송곳 錐<1880한불자,429>

비록 송곳 세울 따히 업서도 익덕이 잇스면 가음 ㄱ이 되느니라<1892성경직,7,013b>

송곳 錐<1895국한회,185>

錐 송곳 錐芒 송곳뿔 徹錐 통송곳 錐穎 송곳즈루 觸 뿔송곳<18??광재물,器用,003a>

//20세기 형태 : 송곳

//20세기 예문 : 錐 송곳 추<1908신정천,033>

錐 송곳 추<1913부별천,017b>

錐 송곳 추<1916통학경,023b>

송곳 추(錐)<1918초학요,062>

다리와 팔이 사뭇 송곳으로 쭈시는 것 ㄱ균요<19??영원의미소,061>

송곳과 같은- 송곳만도 못한 才操를- 果然 나는 녹슬은 송곳 모양으로 멋도 없고<1949공포의기,155>

//종합 설명

‘송곳’은 15세기에 ‘솔웃’으로 나타난다. ‘솔웃’은 ‘솔곳’의 ‘곳’의 ‘ㄱ’이 ‘ㄴ’ 앞에서 탈락하여 된 것이

다. 따라서 이것은 '솔 + 꽃'으로 분석된다. '솔'은 '좁다'의 뜻을 가진 단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비어천가에 '손돌'(筍梁)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손'은 '가늘다'의 뜻을 지닌다. 15세기에 '송곳'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솔웃'과 연관되는 단어인 것 같다. '솔다'의 어간 '솔-'에 관형형 어미 '-은'이 붙으면 '손-'이 된다. '늘다'의 관형형 어미가 '논'이 되는 것처럼. 이 '손'에 '꽃'이 연결되면 '손꽃'이 되는데, 이것이 비음화 현상을 일으켜 '송곳'이 된 것으로 보인다.

//끝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배열 순서와 형태로 나타난다.

- ① 표제어
- ② 품사
- ③ 현대 뜻풀이
- ④ 종합 설명
- ⑤ 형태별 사용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솔웃	○	○	○			
송곳		○	○	○	○	○
송곳			○	○		

- ⑥ 세기별 형태와 예문

XII. 마무리

지금까지 역사 자료 말뭉치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어휘 역사 사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역사 자료 말뭉치들이 연구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정리되면 국어사 연구에 엄청난 자극과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들은 저작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 자료를 입력한 사람이나 이를 정리한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쉽게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료들이 공개되고 활용되어 국어의 세기별 국어사전, 고어사전, 어원사전, 어휘 역사 사전, 한자 자석 사전, 각종 품사별 역사 사전 등의 각종 사전이 편찬되고 이것이 국어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코퍼스자료의 논리정보언어와 부호 덧붙이기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학사 방 정 호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여 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국토의 분단으로 하여 생기는 불행가운데는 정보화시대에 원활하고도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속하여 있다.

사람과 컴퓨터와의 정보교환이 시대의 주요특징으로 되고 있는 오늘 하나의 언어에 기초한 정보의 교환이야말로 민족어의 이질화를 막고 통일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언어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실제로 사용된 말이나 글을 자료로서 모아 축적한 다량의 언어자료기지로서의 코퍼스는 그 내용물에 대한 형식의 통일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호상교환이 불가능하며 리용가치가 없다.

개별적인 단체나 연구기관들에서 만든 코퍼스들을 손쉽게 구입하여 연구에 리용하기 위해서는 코퍼스자료에 대한 논리정보언어의 표준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표준적으로 형식화함으로써 코퍼스자료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서 국가적인 범위에서 코퍼스를 구축하고 리용할수 있게 하며 조선어의 통일적인 언어기반을 축성할수 있게 한다.

1. 코퍼스자료의 논리정보언어

논리정보언어란 텍스트의 논리적구조를 형식화하는데 필요한 논리정보표식들의 모임과 표현기술의 총체를 말한다.

제목, 머리말, 차례, 본문, 색인 등 텍스트의 논리적구조를 논리정보언어로 형식화하여 자료의 구축과 갱신, 교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논리정보언어의 표준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 논리정보언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우선 논리정보의 표식들을 잘 선정하여야 한다.

○ 무엇보다먼저 논리정보의 표식들은 텍스트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할수 있게 설정하여야 한다.

논리정보는 코퍼스에 구축되는 다양하고 방대한 언어자료들을 리용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즉 텍스트의 어디서부터가 제목이고 문단이고 문장이며 날자인지, 그것들은 어디에서 구획되는가 하는 구조적특성을 서술해 주는데 있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구조적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본문정보라고 한다.

본문정보에서는 텍스트의 계층적인 구획 또는 하위구획들이 바로 지정될수 있는 표식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계층적인 구획은 신문이나 운문, 극, 사전 등과 같은 텍스트들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며 매 유형별로 하위구획들도 여러가지이다.

신문자료를 실례로 들어본다면 우선 같은 주제의 여러텍스트들의 묶음(〈group〉)과 개별적텍스트(〈text〉)들을 구획지을수 있다. 다음 개별적인 텍스트는 그 안에서 제목(〈head〉)과 본문(〈body〉), 저자(〈author〉)로 구획된다. 본문은 그 안에서 더 작은 소제목부분(〈div〉)들로 구획되며 개별적인 문장(〈p〉)들로 구획된다.

시작품과 같은 운문의 경우에는 제목과 함께 시의 련(〈lg〉), 시의 행(〈l〉)으로 구획되며 극작품인 경우는 대화자(〈speaker〉), 대화내용(〈p〉), 장면 (〈stage〉) 등으로 구획된다.

본문정보에서는 이와 함께 텍스트내에서 정보적가치를 가지는 필수적요소들도 표식으로 선정될수 있다.

실례로 신문의 본문안에서 통신, 보도물의 출처정보(실례로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도쿄 1월 22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 등)들이나 기사들의 문체적특성을 표시해주는 정보(실례로, 사설, 론설, 정론, 수필, 단상 등), 본문내에 있는

사건이름이나 날자, 시간 등과 관련한 정보 등은 그의 정보적가치에 따라 표식으로 잡을 수 있는것이다.

신문에서 페이지정보도 표식으로 설정할수 있다.

전자문서에서 페이지정보는 인쇄나 출판을 위해 설정하는 물리적정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신문에서 페이지는 그것이 매 페이지(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분야 등의 소식들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신문구조안에서 페이지정보는 정보적내용을 가지며 표식으로 설정할수 있는것이다.

텍스트의 앞부분, 뒤부분요소인 <front> 나 <back> 도 그 구조적깊이에 따라 이름이나 날자, 기관 등과 관련한 세부정보들에 따르는 표식설정이 가능하다.

○ 다음으로 론리정보의 표식들은 텍스트의 리용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코퍼스에 구축되는 자료들은 언어학적인 연구나 분석에 리용될수 있게끔 텍스트의 내용외에 서지적인 정보(출판형태, 주제, 제목, 발행시기, 저자정보 등)를 함께 가진다. 이러한 정보를 머리부정보(header정보)라고 하며 해당 텍스트의 시작전위치에 부가한다. 이 정보는 해당 텍스트의 일반적이며 핵심적인 특성들이 리용자들에게 쉽게 공유되며 살아날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머리부정보에서 중요한것은 전자텍스트자체에 대한 원전정보(File Description), 전자텍스트의 목적(Encoding Description), 전자텍스트의 종류(Text Profile), 수정정보(Revision History)이다. 특히 전자텍스트에 대한 원전정보는 머리부정보에서 필수성분이다.

머리부정보에서는 이와 함께 리용자를 위한 일련의 표식도 설정될수 있다. 사용자가 텍스트의 머리부정보만을 보고도 그것이 적절한 문서인가를 알수 있도록 초록과 같은 형태로 명시해주거나 원전과 관련한 안내정보도 표식으로 설정할수 있다. 이러한 표식들은 주제나 내용, 형식이 서로 다른 텍스트들의 집합체안에서 필요한 정보의 추출을 쉽게 하며 필요한 서지로 안내해주는데서 의의가 있다.

○ 또한 론리정보의 표식들은 TEI와 같은 국제적인 규격화방안에 접근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TEI는 컴퓨터와 인문학학회, 컴퓨터언어학회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여러해동안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텍스트부호화방식의 하나이다.

문서파일에서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요소들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문서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용자들사이의 자료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된 지침은 컴퓨터와 전자화된 텍스트를 리용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만큼 국제적인 텍스트부호화의 방법과 원리를 해당 코퍼스구축에 적극 도입하는것은 코퍼스의 표준화를 담보하는 근거로 된다.

- 론리정보언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다음으로 정보표식들의 규칙성이 잘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론리정보언어는 텍스트의 특성이 충분히 나타나면서도 그의 효율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자들이 쉽게 확장하여 사용하며 부가적인 표식들도 쉽게 덧붙여지거나 제거될수 있게 표식들의 규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우선 론리표식들의 시작과 끝의 대응을 명백하게 해주어야 한다.

텍스트의 여러 층위에서의 구성요소들은 그 시작과 끝을 해당하는 표식태그들로서 표현한다. 요소의 시작태그는 <태그이름>, 끝태그는 </태그이름> 형태이다. 즉 요소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텍스트의 외적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것으로부터 텍스트의 구조를 표현하는것이다.

문서의 시작에는 반드시 태그를 열며 마지막에는 닫긴 태그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만일 태그의 표식이 중복되거나 짝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식부가의 규칙이 위반되는것으로 된다.

○ 또한 종속관계를 명백하게 정의하여 규칙화하여야 한다.

텍스트의 요소들은 구조적성분으로서 그것들은 나타나는 위치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실례로 산문에서 단락 <p> 는 <text> 라는 요소에 나타날때 의미가 있으며 <poem> 이라는 요소에는 나타날수 없다. 또한 <body> 내에 <p> 가 나타나는것이지 <p> 안에 <body> 는 나타날수 없으며 <body> 안에서 <p> 는 여러개라도 나타날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간의 관계는 텍스트의 종속관계에 관한 정의에 기

초한다.

종속관계에 관한 정의는 문서내용에 따라 모든 세부사항들이 정연한 규칙성을 띠고 나타날수 있게 만든 규정이다. 그런것만큼 어떤 표식들은 자체내에 다른 표식들을 더 가지거나 혹은 가질수 없으며, 또 어떤 표식들은 반드시 어떤 표식을 동반하여야 한다는 것, 어떤 표식들은 텍스트의 임의의곳에 나타날수 있다는 등의 정의에 근거하여 표식들이 부가되어야 하는것이다.

2. 논리정보언어의 부가문제

첫째로, 논리정보언어의 매개 표식들은 해당 텍스트의 구성에 맞게 부각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코퍼스에 구축되는 자료들은 텍스트들의 문체적특성이 서로 다를뿐아니라 그 구성과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들이 모아져 있는 합성텍스트는 개별적인 유형의 전문텍스트와 내용과 규모, 사용목적도 다르다. 그런것만큼 해당 텍스트들은 머리부정보나 본문정보에서 차이하며 그에 해당하는 표식들도 텍스트의 구성에 맞는것들을 부가하여야 할것이다.

실례로 신문의 기사 한가운데에 노래가사나 시의 토막, 대화 등과 같은 유형이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여기에 <poem> 이라는 시의 표식을 부가하거나 대화자나 대화내용을 표시하는 <speaker> 나 <p> 등을 부여해줄 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신문기사에 나오는 단편적인 운문의 토막이나 대화가 일정한 정보적내용이 있고 구획이 명백하더라도 여기에서는 해당 텍스트의 구성에 맞는 표식을 부가하는 것으로서 무시하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러나 신문에 실리는 사진에 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신문의 사진은 전자화할 경우 그림이기때문에 원전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수 있다. 그렇지만 사진은 신문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정보적가치를 가지는 요소로 된다.

따라서 <gap reason= "사진"> 이라는 표식과 함께 사진에 관한 설명부분에도 표식을 부가해 주는것이다.

신문의 구성부분인 기능문체의 표식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자.

신문에는 신문의 특성에 따른 사설, 론설, 정론, 평론 등 여러가지 기능문체들과 가사, 서정시, 시 등 장르에 따르는 표식들이 텍스트의 첫머리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문에서 각이한 기사들에 대한 문체별구획과 함께 리용자들의 정보 검색에서 필요한 요소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을 어떠한 표식으로 어디에서 부가할것인가 하는것이다.

한가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텍스트의 구성상특성을 표현한다는데로부터 <text> 요소에 속성으로 부가 (<text type= "정론"> , <text type= "평론"> 등) 할수도 있고 텍스트의 앞부분성분 <front> 에 <표제면> 이라는 요소로 표식을 부가할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합성텍스트를 전문텍스트로 갈라서 따로 구축하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다양한 기능문체들을 서로 다른 파일로 구축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표본 추출의 기준을 달리 정해야 하는만큼 고려할 문제점들이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표식을 부가하겠는가는 개발과정에 더 논의되어야 할것이다.

둘째로, 론리정보언어의 표식들은 해당 텍스트의 세부요소들에도 부가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세부요소들은 해당 텍스트에서 정보적가치를 가지는 기본요소들을 내놓은 나머지 요소들로서 여기에는 텍스트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라는가 텍스트의 상태정보 등이 포함된다.

텍스트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하여 페이지구분을 나타내는 <pb> , 단락을 나타내는 <lb> , 본문내의 인용문을 나타내는 <g> 등과 같은 표식들이 해당 텍스트의 세부정보로 설정될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상태정보(실례로 <poem status= "원고" (출판)>)도 여러가지 속성으로 부가될수 있는 세부요소의 한가지이다.

이러한 세부정보들에 어떤 표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부가해주는가 하는 문제는 코퍼스의 개발목적과 류형에 따라서 논의되고 설정되어야 할것이다.

셋째로, 론리정보언어의 표식부가를 위한 프로그램적보장을 실현하는것이다.

코퍼스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자동화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논리정보표지들을 자동적으로 부가하는 방법은 아직은 본격적인 활용단계에 이르지 못한 형편이다.

현재는 전자조판, 전자출판이라는 형태가 광범히 도입되어 통일된 논리태그들이 부여된 텍스트들에 한해서는 일정한 변환만 하면 코퍼스구축단계에서 새롭게 논리정보표식들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기계가독형의 텍스트나 CD-ROM과 같은 매체에 의거하여 텍스트를 수집하는 조건에서 자료의 형이나 품질, 사용된 문자의 특성의 차이로 하여 태그의 자동부가는 여전히 어려운것으로 되고 있다.

머리부정보를 비롯하여 점이나 인용부호와 같은 문장표식들이 붙은 요소들, 시나회곡과 같이 서식의 통일이 보장된 텍스트요소들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자동부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도 보다 구체적인 정보부가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람의 수동적작업이 필요한것이다.

논리정보언어의 자동부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다그쳐야 한다.

논리정보요소들의 규칙성을 모형화하여 그것을 프로그램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정보부가에서 오류를 막고 수동적인 작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이와 함께 코퍼스의 리용과정에 생성되는 새로운 텍스트파일에 대한 표식부가 프로그램도 연구개발하여야 할것이다.

코퍼스의 정보표현형식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북과 남은 컴퓨터를 리용한 언어정보처리분야에서 호상 밀접한 협력을 이룩해 나감으로써 민족어의 통일적발전과 정보산업발전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남북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

소 강 준(전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현대 조선 문헌어를 한국의 문헌어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¹⁾

이는 일차적으로 남북한의 정서법 차이와 한글 코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남북한의 이질화된 언어의 극복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언어의 차이는 이질화된 것보다는 동질적인 요소가 아직은 훨씬 많다. 그러나 교류 협력이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은 양의 이질화된 언어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는 조선 사람들과 직접 접촉해서 특정 사안의 문제를 놓고 회의나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는 달리 언어의 기계적 처리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남과 북의 정서법 차이와 어휘의 차이, 문장 구성의 차이 등등은 남북 언어 자료를 같은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한다.

1) 이 연구에서는 북조선어는 조선어로 대한민국어는 한국어로 칭하고, 남북을 동시에 부를 때는 남북한어로 칭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조선의 정서법에 맞게 입력된 자료를 한국의 정서법에 맞게 변환하는 변환기 기능을 하고 있다.

1.2. 연구 목표

이 연구는 현대 조선의 정서법에 맞게 입력된 자료를 한국의 정서법에 맞게 변환하는 데 목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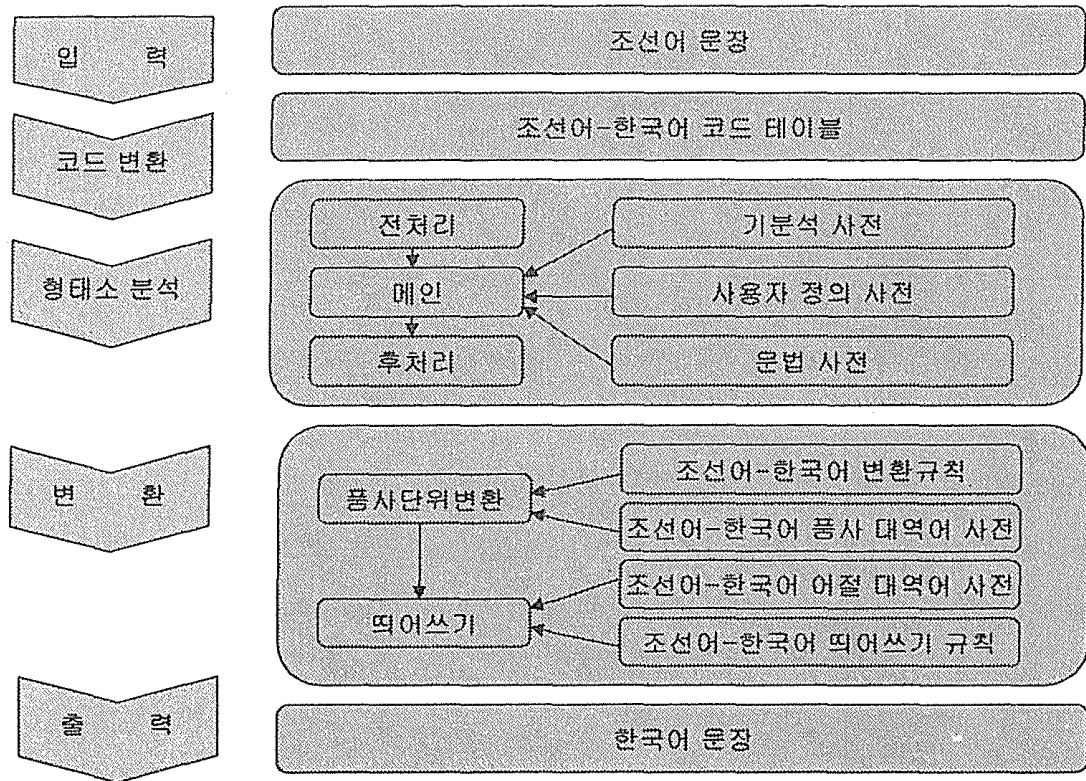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의 모든 자료를 다 완벽하게 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1세기 세종 계획 특수 자료 분과에서 구축한 약 300만 어절의 조선 자료를 한국 정서법에 맞게 변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프로그램 구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① 남북한 정서법 변환 엔진 개발, ② 엔진에 필요한 대역어 사전 구축, ③ 조선-한국 코드 변환기 개발과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

‘남북한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은 Borland사의 Delphi와 Microsoft사의 Visual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개발되었다. 특히, 형태소 분석과 조선어-한국어 변환 엔진 부분은 Microsoft Visual C++로 개발되었으며,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부분은 Borland사의 Delphi를 사용해 개발했다.

‘남북한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의 정서법 변환 기능은 문서 파일을 통한 변환과 사용자 입력을 통한 변환으로 나눌 수 있다. 문서 파일을 통한 정서법 변환에서 입력 파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서 파일은 조선 코드로 된 조선어 문서 파일과 한국 코드로 된 완성형 한글 문서 파일 2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서 파일을 통한 정서법 변환 출력은 유니코드 문서 파일로 출력이 된다. 사용자 입력을 통한 정서법 변환은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컨트롤 박스를 두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조선어를 대응하는 한국어 정서법 형태로 출력한다.



[그림 1] '남북한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

2.1. 코드 변환

'코드 변환' 단계는 조선 코드로 된 조선어를 한국 코드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조선 코드에서 한국 코드로의 변환은 코드 테이블을 만들어 처리했다. 여기서 사용한 조선 코드는 국규 9566-97이다.

2.2.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 단계는 코드 변환 단계에서 결과로 넘어온 한국 코드로 된 조선어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부분이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문장으로부터 형태소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추출하고, 문장 부호를 분리하며, 숫자나 특수 문자열을 처리한다. 또한 문자열의 최대 크기를

초과하는 단어나 직관적으로 판별 가능한 오류 단어를 찾아낸다.

‘메인 단계’는 실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문법 형태소 분리, 체언 분석, 용언 분석, 단일 형태소 분석, 복합어 추정, 명사 추정 등을 수행한다. 이때 사용하는 사전은 크게 3개의 사전을 사용하는데, 기분석 사전, 사용자 정의 사전, 문법 사전을 사용한다.

기분석 사전은 조선어 말뭉치로부터 어절 빈도를 구해 빈도가 높은 어절을 미리 형태소 분석해 놓은 사전이다.

사용자 정의 사전은 사용자가 임의의 어절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해 놓는 사전으로, 형태소 자동 분석시 형태소 오분석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문법 사전은 품사들에 대한 철자법적 어휘들과 해당 어휘들에 대한 문법적 정보를 가진 사전으로, 어휘로 등재된 표제어는 세종 계획 특수 자료 분과에서 구축한 약 300만 어절의 조선 자료에서 사용된 어휘들을 기준으로 했다. 이 문법 사전에 사용한 사전의 구조는 trie 구조를 사용했으며, 내부 사전 탐색 알고리즘은 이진 탐색(Binary Search)을 사용했다.

‘후처리 단계’에서는 미등록어의 추정이라든지 언어 종속적인 특이한 언어 현상들을 처리한다. 또한 단어 자체만으로 혹은 이웃하는 단어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해결 가능한 형태론적 모호성을 해결하고 조선어-한국어 변환 단계에서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태소 분석 결과를 정형화한다.

2.3. 조선어-한국어 변환

‘조선어-한국어 변환’ 단계는 실제 조선어를 한국의 정서법 형태로 변환하는 부분으로,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 결과로 넘어온 문장을 사용해 정서법 변환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2가지의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품사 단위 변환’ 부분에서는 먼저 ‘조선어-한국어 품사 대역어 사전’을 통해 대역어가 존재하는지 검사를 해 만일 존재하면 해당 대역어로 변환시키고, 만일 존재하

지 않으면 ‘조선어-한국어 변환 규칙’을 통해 변환시킨다. ‘조선어-한국어 변환 규칙’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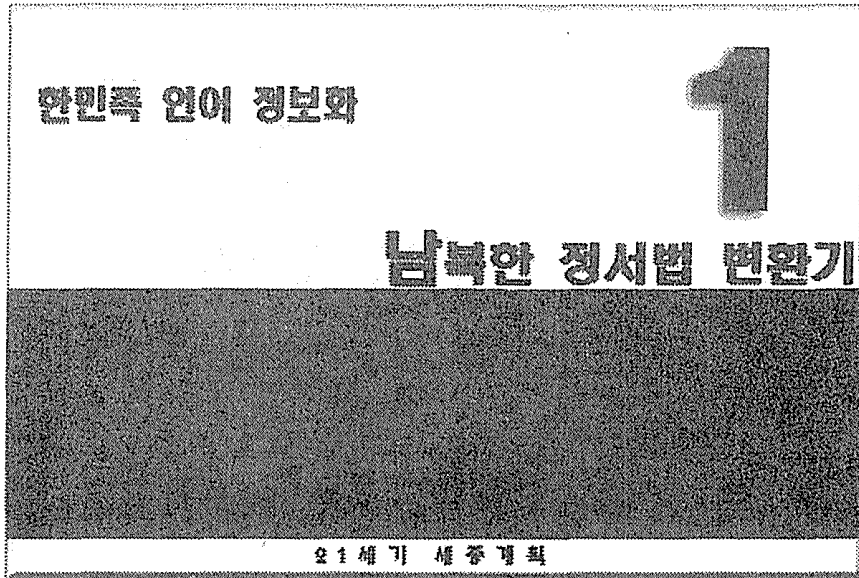
- 규칙 1. 두음 법칙 관련 어휘면, 해당 음소로 변환시켜 결합시킨다.
- 규칙 2. 용언에 ‘여’가 붙어 있으면, ‘어’로 변환시켜 결합시킨다.
- 규칙 3. 용언에 ‘였’이 붙어 있으면, ‘었’으로 변환시켜 결합시킨다.

‘띄어쓰기’ 부분에서도 먼저 ‘조선어-한국어 어절 대역어 사전’을 통해 대역어가 존재하는지 검사를 해 만일 존재하면 해당 대역어로 변환을 시키고, 만일 존재하지 않으면 ‘조선어-한국어 띄어쓰기 규칙’을 통해 변환을 시킨다. ‘조선어-한국어 띄어쓰기 규칙’은 크게 8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 규칙 1. (명사 또는 대명사 또는 ‘적’ 또는 ‘들’) + 명사면, 띄어 쓴다.
- 규칙 2. 조사 + 의존 명사면, 띄어 쓴다
- 규칙 3. 어미 + (보조 용언 또는 의존 명사 또는 명사)면, 띄어 쓴다.
- 규칙 4. (관형사 또는 수사) + (명사 또는 의존 명사)면, 띄어 쓴다.
- 규칙 5. 부사 + 용언이면, 띄어 쓴다.
- 규칙 6. 접두사 + 숫자면, 띄어 쓴다.
- 규칙 7. 의존 명사 + (의존 명사 또는 명사)면, 띄어 쓴다.
- 규칙 8. 명사 파생 접미사 + 명사면, 띄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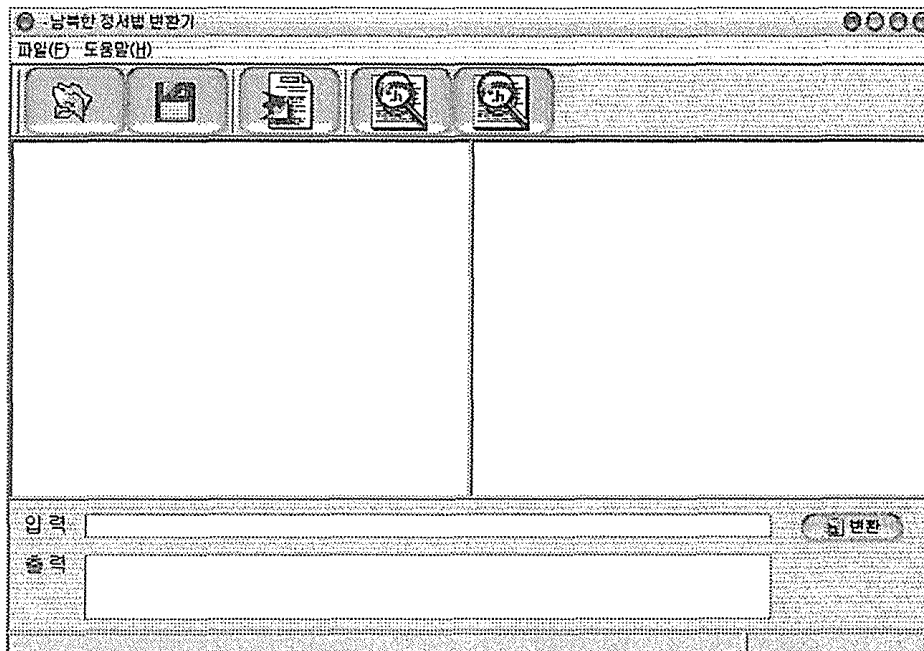
3. 프로그램 기능

‘남북한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림 2]와 같은 로고 화면으로 시작된다.



[그림 2] '남북한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 로고 화면

이 로고 화면이 없어도, [그림 3]의 주 프로그램 창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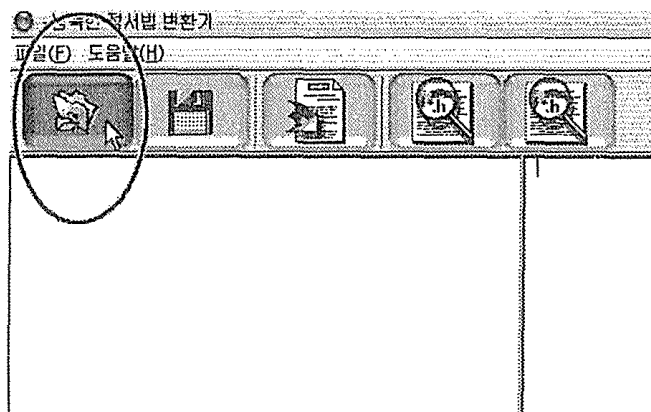
[그림 3] '남북한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 창

‘남북한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기능 1. 파일 열기(코드 변환)
- 기능 2. 정서법 변환
- 기능 3. 변환 파일 저장
- 기능 4. 문자열 찾기
- 기능 5. 해당 원본/변환 문단 보기
- 기능 6. 동시 스크롤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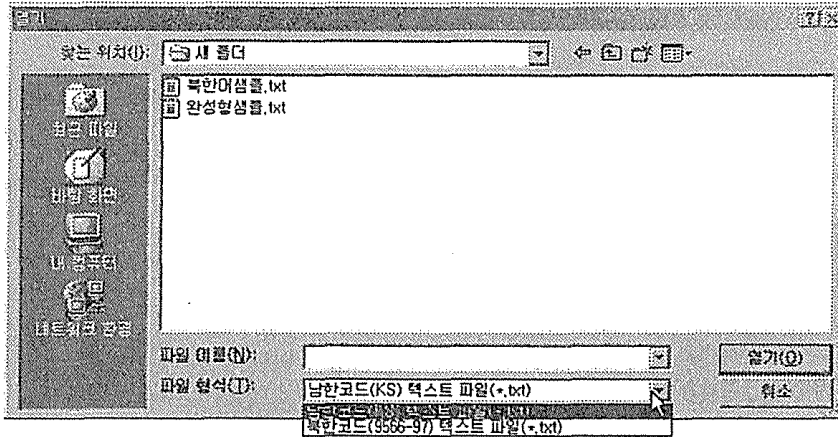
3.1. 파일 열기(코드 변환)

‘열기’ 기능은 한국 정서법 형태로 변환할 조선 문서 파일을 여는 기능을 한다.



[그림 4] 파일 열기

[그림 4]의 ‘열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5]와 같은 열기 창이 나온다.



[그림 5] 열기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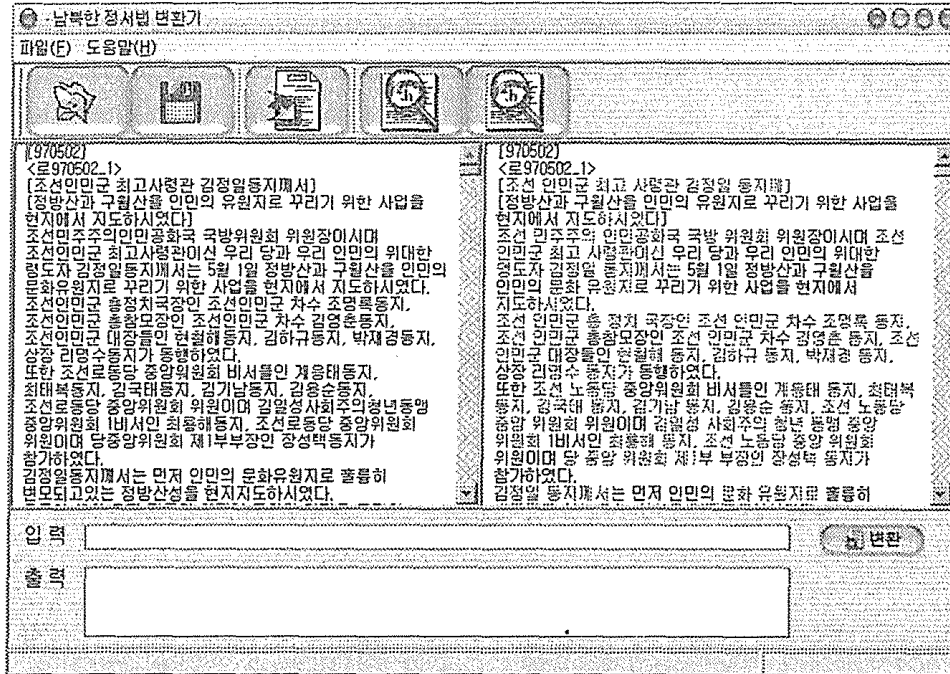
[그림 5]를 보면 입력 파일 형식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 코드(KS) 텍스트 파일'은 완성형 코드로 된 텍스트 파일을 말하고, '조선 코드(국규 9566-97) 텍스트 파일'은 국규 9566-97 코드로 된 텍스트 파일을 말한다. 만일 '조선 코드(국규 9566-97)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한국 코드로 변환되어 화면에 출력된다.

3.2. 정서법 변환

정서법 변환은 파일과 입력 문자열을 통한 2가지 변환이 있다.

3.2.1. 파일에서 정서법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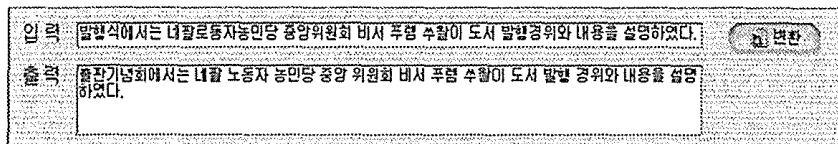
[그림 6]은 파일을 통해 변환된 모습을 보여 준다. 왼쪽은 입력(원본) 파일의 내용을 보여 주고, 오른쪽은 변환된 내용을 보여 준다.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이 실제 변환된 부분이다.



[그림 6] 파일을 통한 변환

3.2.2. 입력 문자열에서 정서법 변환

[그림 7]은 '입력'란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문자열이 '출력'란에 변환된 결과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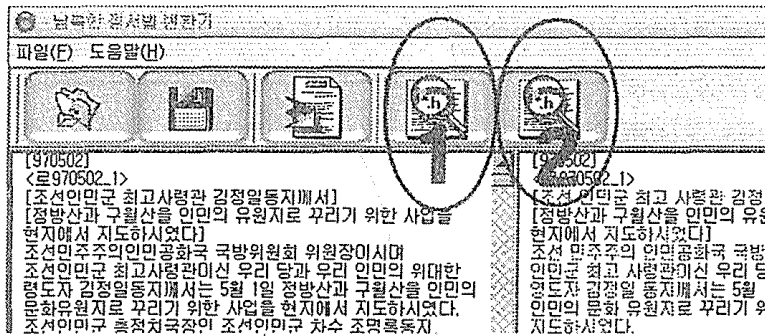
[그림 7] 입력 문자열을 통한 변환

3.3. 변환 파일 저장

파일은 기본적으로 유니코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게 되어 있다.

3.4. 문자열 찾기

원본 문서와 변환 문서에서 문자열 찾기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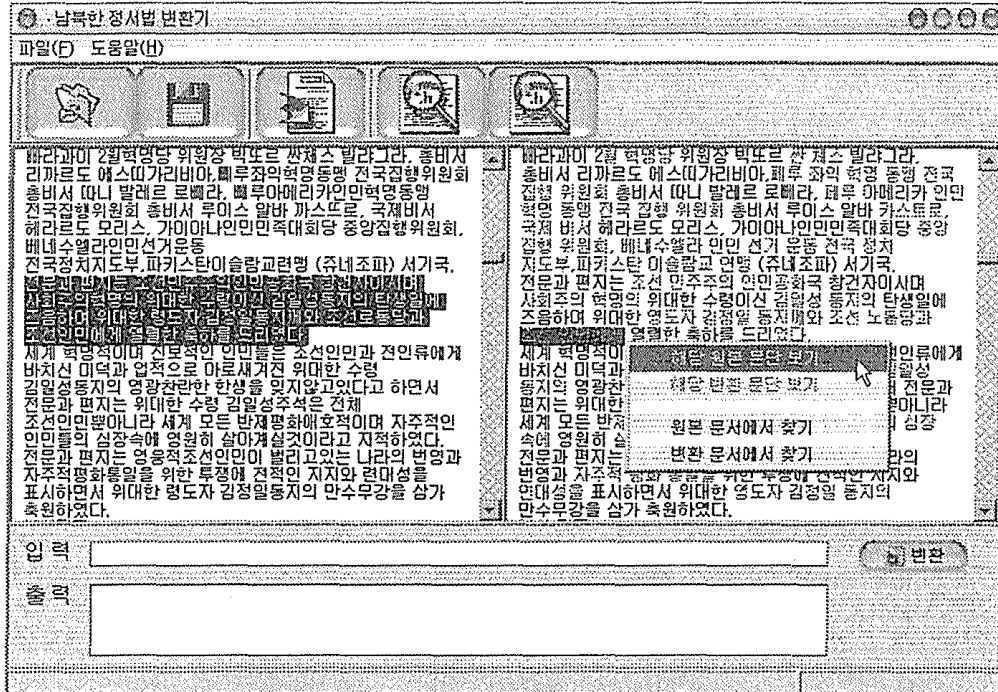
[그림 8] 찾기 버튼들

[그림 8]에서 ①은 원본 문서(왼쪽에 있는 문서)에서 문자열 찾기 기능을 수행하고, ②는 변환 문서(오른쪽에 있는 문서)에서 문자열 찾기 기능을 수행한다.

3.5. 해당 원본/변환 문단 보기

이 기능은 변환 어절에 대응하는 원본 어절을 찾기 위해, 또는 그 반대로 원본 어절에 대응하는 변환 어절을 찾기 위해 구현한 기능이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해당 어절에 대응하는 상대 어절이 위치한 문단을 표시해 주어 대응 어절이 어떤 것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기능은 해당 어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난다. 아래 [그림 9]는 변환 어절 '조선 인민에게'를 선택하고 '해당 원본 문단 보기' 메뉴를 선택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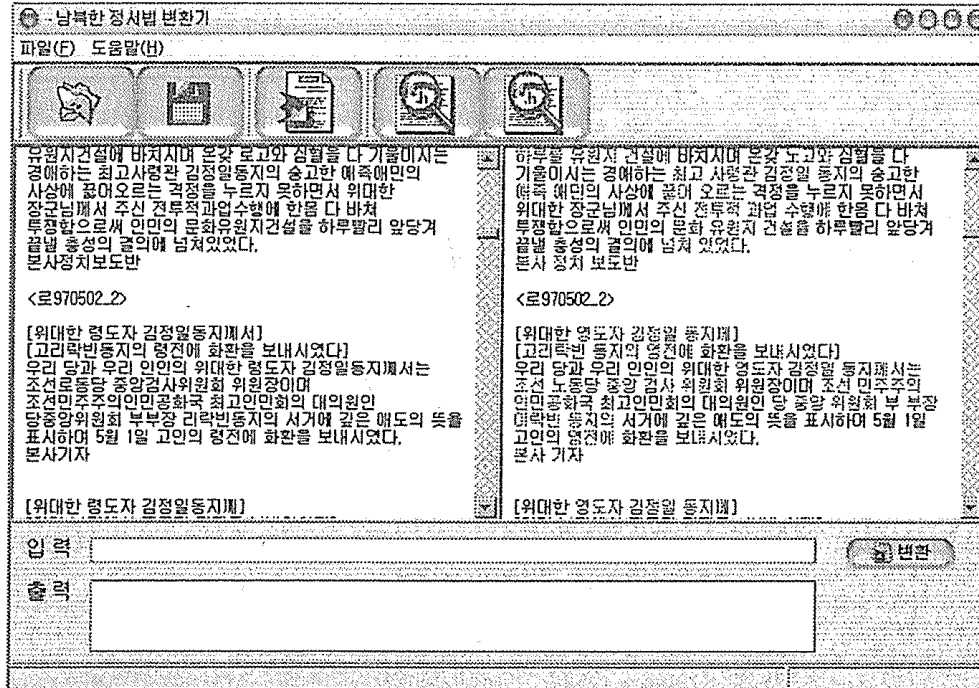


[그림 9] 해당 원본/변환 문단 보기

3.6. 동시 스크롤 기능

원본 문서와 변환 문서의 내용을 같이 스크롤하는 기능으로 마우스의 휠을 사용하면 된다.

아래 [그림 10]은 같이 스크롤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림 10] 같이 스크롤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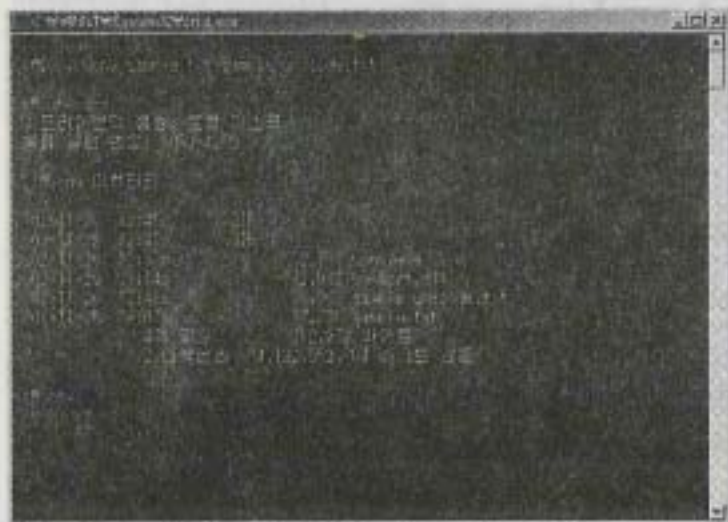
3.7. 개별 파일 코드 변환 기능

코드 변환만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도스창에서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된다.

c:\>conv file1 file2 	
conv	: 실행 파일명
file1	: 변환할 조선 텍스트 파일
file2	: 저장할 유니코드 파일

아래 [그림 11]은 조선 문서 sample.txt를 유니코드 문서 sample-unicode.txt로 변

환한 예이다.



[그림 11] 코드 변환

4.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4.1. 기대 효과

이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선의 문서 편집기로 작성된 파일을 직접 한국의 코드로 변환해서 한국에서 개발한 문서 편집기나 기타 자료 처리기, 검색기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길도 열어 주었다.

첫째, 이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 있는 언어 차이의 극복은 남북한 정서법 차이의 극복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조선에서 사용된 문화어 어휘의 일부를 한국의 표준어 어휘로 대응시킨 부분이 있다. 물론 후자는 아직 많은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조선에서 입력된 자료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PIC(평양 컴퓨터 센터)에서 개발한 변환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구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조선의 문서 편집기 '창덕'으로 구축된 자료를 직접 읽어 들여 한국의 코드로 저장할 수 있는 코드 변환기를 탑재하고 있어 많은 편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 정서법 변환기의 구축을 통해 세종 계획에서 구축된 300만 어절에 대한 대역어 사전을 구축했다. 한국어를 조선어로 변환하는 대역어 사전이 추가된다면 남북한 자료 검색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넷째, 전산학자들이 조선어에 대한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4.2. 활용 방안

이 프로그램은 조선 자료의 전산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첫째, 남북한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둘째, 조선 자료를 한국의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조선의 자료에 대한 웹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남북 교류 현장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본문코퍼스구축을 위한 조선글입력환경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리 승 길

조선어본문코퍼스는 조선어의 어휘 및 문법적표현수단과 수법들을 비롯한 각이한 언어적분석단위들을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과학적으로 분석고찰할수 있게 하는 자료원천으로서 민족고유어에 기초하여 조선어의 주체적이고 통일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도 주요한 자료적토대를 제공해준다.

통일적인 민족어건설의 튼튼한 자료토대로 될 조선어본문코퍼스를 건설하는데서 코퍼스구축을 위한 입력환경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입력환경의 완비성과 표준성에 의해 코퍼스구축의 속도와 질, 교환리용의 가능성 등이 결정되기때문이다.

본문코퍼스구축을 위한 입력환경은 크게 본문내용의 입력을 위한 글자입력환경과 본문의 언어자료들에 대한 론리언어학적분석정보들을 달아주기 위한 부가정보입력환경의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론문에서는 조선어본문코퍼스구축의 시점에서 조선글입력환경을 검토하고 본문자료의 입력과 교환리용을 위한 몇가지 대책적의견을 간단히 제기하려고 한다.

1. 조선글입력환경의 검토

조선글의 콤퓨터입출력을 위해서는 조선글자들을 부호화하여놓은 문자코드모임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 문자코드모임에 준하여 조선글자를 생성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력기)과 폰트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본은 문자코드모임이라고 할수 있다. 어떤 글자나 기호를 입력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그 글자나 기호가 문자코

드모임에 정의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따른다. 조선글입력기의 실현방식은 달라도 동일한 문자코드모임을 리용한다면 조선글입력환경은 같다고 말할수 있다.

조선글의 입출력에 많이 쓰이는 문자코드모임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부호화의 원리에 따라 확장코드형식과 유니코드형식, 전용코드형식의 세가지로 크게 갈라볼수 있다.

확장코드형식은 민족글자의 부호화를 위해 제공된것으로서 현재 많이 쓰이는것은 국제규격 ISO-2022에 따른 문자코드모임이다. 이 코드형식은 국제규격을 따르고 국제통신에도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 유니코드형식은 다국어환경을 지원할수 있게 되어 있어 현재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용코드형식은 《창덕》과 같은 특정한 프로그램들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코드모임으로서 자료호환의 견지에서 결함이 있다.

조선어본문코퍼스구축의 요구에 비추어 조선글입력을 위한 문자코드모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찾아볼수 있다.

첫째로, 옛글자를 포함하여 조선글자모두를 완성된 음절글자형태로 입력하기 곤란하다는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확장코드형식의 문자코드모임에는 2400여자의 조선어음절글자가 완성된 글자형태로 등록되어 있으며 자음과 모음글자들이 정의되어 있다. 현대조선글자모로 조합이 가능한 11,172자의 음절글자 전부를 완성된 음절글자형태로 수용하고 있는 유니코드에서도 옛글자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음절글자들은 부호화되지 못하고 다만 자모글자형태로 풀어서 표현할수 있게 되어 있다. 유니코드규격에서 초성과 중성, 종성의 글자들을 부호화하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옛글자와 현대글자모두를 통일적으로 표현하자는 조합방안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처리를 실현하는 입력기가 아직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조선어본문코퍼스가 현대조선어와 함께 옛문헌이나 방언자료까지도 수록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넘두에 둘 때 조선글입력환경에는 문자코드모임에 지원되어 있지 않는 많은 미등록글자들이 있게 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전용코드형식을 리용하여 사용자정의영역에 미등록글자들을 부호화하여 표현할수

도 있으나 이러한 입력환경은 자료의 교환리용의 곤난한 폐쇄된 자료들만을 만들어 낸다.

둘째로, 현재 북과 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글입력환경의 차이로 하여 입력자료의 교환리용이 곤난하다는것이다.

조선글입력환경의 차이는 문자코드모임안에 정의된 글자들의 수와 내용, 배열순서와 부호화의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차이로 하여 서로 다른 조선글입력환경에서 만들어진 본문자료들의 교환을 위해서는 부득불 코드변환이라는 중간공정을 거치게 되는것이다. 코드변환은 서로 다른 두개의 조선어문자코드모임들사이의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다. 확장코드형식의 문자코드모임사이의 코드변환이나 확장코드형식과 유니코드사이의 코드변환이나 다 이러한 글자들사이의 대응짓기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이때 코드변환이 진행되는 두 문자코드모임사이에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글자가 있으면, 다시말하여 어느 하나의 문자코드모임에만 속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의 변환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결국본문자료들의 원만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구축을 위하여 조선글입력환경에서 문자코드모임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글자의 입력과 코드변환이 주요한 문제로 나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2. 미등록글자의 입력

미등록글자의 입력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① 있을수 있는 조선글자모두를 조사장악하여 완성된 문자코드모임을 마련하여 글자입력환경을 완성시키는 방향과

② 현재의 글자입력환경을 최대한 리용하면서 그 표현범위안에서 미등록글자를 표현하는 규약을 만들어 리용하는 방향이 있을수 있다.

①의 방향은 많은 로력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조선어본문코퍼스구축의 절박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인 대책이 못된다. 미등록글자표현의 가장 현실적이고 신축성있

는 대책은 ②의 경우라고 본다.

조선어의 미등록글자를 표현하는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방법은 사소단위로 갈라서 입력하는것이다 이러한 입력방법은 조선글자의 글자조성원리와 사람들의 글자인식원리에도 부합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입력방법이다. 조선글자는 자모글자로 되어 있으나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음적단위로 조합하여 념적글자로 쓰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간》이라는 글자가 《ㄱ》, 《ㅏ》, 《ㄴ》의 자모글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대로 《ㄱ》, 《ㅏ》, 《ㄴ》의 자모자들의 라렬이 곧 《간》이라는 글자를 풀어 쓴것임을 쉽게 판단한다.

조선어의 미등록글자를 자소단위로 풀어 쓰는 경우에 자소들을 초성, 중성, 종성의 단위로 부호화하여 리용하는것이 좋다. 자소들을 초성, 중성, 종성단위로 부호화하여 리용하면 어떤 경우에도 음적글자의 구성소재로 되는 초성, 중성, 종성의 자모를 쉽게 구획할수 있고 따라서 풀어쓰기의 구획이 명백해 진다. 유니코드의 BMP 행 OX11에는 옛글까지 포함하여 조선글자모들을 초성, 중성, 종성의 단위로 할당해두고 있다.

초성, 중성, 종성을 단위로 조선어자모글자들을 부호화하는것은 미등록글자의 입력을 위해서뿐만아니라 형태분석코퍼스작성에서 분석된 형태부들의 정확한 표기를 위해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초성과 종성을 구별하여 부호화하면 순수 자음으로서의 《ㄴ》이나 《ㄹ》과 받침토로서의 《ㄴ》과 《ㄹ》을 쉽게 분간할수 있을것이다.

조선글자모의 부호화가 초성, 중성, 종성단위로가 아니라 자음과 모음단위로만 되어 있는 현행의 조선글입력환경을 그대로 리용하여 미등록글자를 풀어쓰는 경우에는 풀어쓰기의 시작과 끝을 구별해 주는 식별표식(tag)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례로 풀어쓰기의 시작과 끝을 《 [[] 》와 《]] 》로 구별하기로 약속한 경우 《ㅁㅅㅁㅌ》라는 옛글표현은 《 [[ㅁ ·]] [[ㅅ ·]] [[ㅁ ·]] 》로 쓸수 있다.

자소분리에 의한 풀어쓰기입력방법은 한자나 상징기호인 미등록글자의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을것이다. 실례로 《ㅊ唐》이라는 한자가 문자코드모임에 부호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구성부분인 《ㅊ》와 《唐》을 리용하여 《 [[ㅊ唐]] 》으로 갈라

적을수 있다. 한자나 상징기호에 풀어쓰기입력을 적용하는 경우에 풀어쓴 자소들의 조합 형식을 알수 있게 보충적인 표식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선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의 위치에 놓이는 글자들의 자형에 따라 넘적글자의 조합형식의 자연스럽게 결정되지만 한자나 상징기호의 경우에는 그 적기순서에 따라 조합형식이 쉽게 얻어지지 않기때문이다.

이러한 미등록글자입력방법에 따라 구축한 코퍼스본문자료들은 조선글입력환경을 보다 완성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리용될것이며 조선글입력환경의 완성과 함께 쉽게 완성된 본문자료로 갱신되어갈것이다.

3. 조선글코드변환

조선글코드변환은 과거와 현재에 각이하게 존재하였던 여러 조선글입력환경에서 만들어진 전자문서들을 재생리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북과 남사이의 조선글입력 환경이 당장 어느 하나로 일원화되기 곤란한 조건에서도 그렇고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 글로 된 본문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도이며 현실적인 과제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글코드변환에서 문제로 되는것이 문자코드모임들사이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등록글자들에 대한 원만한 넘기기가 보장되지 못한다는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위에서 서술하였다. 현재의 변환프로그램들에서는 미등록글자들에 대하여 그대로 지나치든가, 빈문자나 특수기호로 채워 넣든가, 코드번호를 밝혀 주든가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코드변환과정에 적지 않은 정보가 류실되거나 외곡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조선글코드변환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구나 출구로 되는 조선글입력환경들에서 미등록글자의 표현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미등록글자의 입력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조선글코드변환의 과제는 입구쪽의 음절글자를 출구에서 풀어쓰기로 출력하든가 아니면 입구쪽의 풀어쓴 자료를 출구에서 음절글자로 모아서 출력하든가 하는 기능을 갖추는것으

로 된다.

이렇게 미등록글자의 입력방법과 결합된 조선글코드변환을 실현하면 현대조선글이나 옛 조선글자나 다 원만히 변환리용할수 있게 될것이며 조선글입력환경상의 문제들이 다소 해결될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상 조선어본문코퍼스구축을 위한 조선글입력환경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당면한 대책적의견을 정리하여 보았다.

조선글자의 입력과 관련하여서만이 아니라 한자나 상징기호 등에 대하여서까지 미등록글자의 범위를 넓혀 생각하는 경우에 미등록글자의 입력과 관련하여 더 구체화할 내용들이 남아 있다고 본다. 또한 코퍼스구축의 다른 입력환경인 부가표식입력환경의 경우에는 부가표식모임(tag set)의 통일, 부가표식을 할당할 언어적 분석단위의 한계 등 통일적인 조선어본문코퍼스의 구축과 리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각도에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조선어언어관찰환경을 민족어의 통일적인 고수 발전을 위한 민족공동의 재보로 마련해가는데서 우리 언어학자들앞에 많은 책임적인 일들을 놓여져 있다. 우리는 민족통일의 위대한 대강인 《6.15공동선언》의 리념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치여 우리 민족의 자랑인 우리 말과 글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자료 교환을 위한 파일 형식과 부호 표지 추가 방안

이 승 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였을 때 컴퓨터에서 한글과 한자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글과 한자를 처리하지 못 하는 컴퓨터란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정보 교환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하였다. 남과 북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지만 그것의 자모 배열 순서가 다르고 사용하는 문자 코드가 달라 컴퓨터로 만든 자료를 서로 이용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4년부터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하여 자모 배열 순서, 문자 코드, 한글 자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모임이 되지는 못 하였다.

남북의 언어는 서로에게 관습으로 굳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의 정보 처리 환경도 어느 정도 굳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의 전산 자료를 교환하고 이를 통하여 국어 연구나 국어 정보 처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정보 처리 환경을 돌아보고 그에 맞는 자료 구축 지침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서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남북의 국어 정보 처리 환경을 살펴보고 남북의 전산 자료, 특히 말뭉치 자료를 교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본 다음 자료 교환에 필요한 파

일 형식과 부호 표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한글과 한자의 정보 처리 환경

2.1 남과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 코드 체계

컴퓨터에서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자 코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남쪽의 문자 코드 체계

- ① 2바이트 완성형 한글 코드(KS X 1001)
- ② 2바이트 조합형 한글 코드(옛 한글, 확장 한자 포함: OCHP 코드)
- ③ 유니코드(KS X 1005)(인코딩 방식: UTF-8, UTF-16, UTF-32)
- ④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형 한글 코드
- ⑤ 국립국어연구원의 4바이트 한글 코드
- ⑥ 훈글의 2바이트 조합형 한글 코드
- ⑦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워드 2000, 2002의 옛 한글 코드

현재 남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 코드는 (1)-①의 2바이트 완성형 한글 코드와 (1)-③의 유니코드이다. (1)-① 코드는 한글 2,350자와 한자 4,888자를 지원하는데 한글과 한자 코드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 많은 시스템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1)-②의 코드는 (1)-①의 완성형 한글 코드 규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많이 사용하였던 상용 조합형 코드 규격에 일부 옛 한글을 추가하여 만든 코드이다. 이 코드는 OCHP라는 특정 카드에 하드웨어 방식으로 문자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OCHP 코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규격은 KS 완성형 한글 코드가 만들어지면서 차츰 사라지게 된 규격이다. 그러나 훈글 프로그램에서는 내부적으로 2바이트 조합형 한글 코드인 (1)-⑥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훈글로 만들어진 문서를

OCHP 코드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③은 국제 규격인 유니코드 규격인데 이 규격은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부호화(인코딩)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니코드는 대부분 기본 문자 영역(BMP)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 코드를 정의한 이 영역의 크기와 한글과 한자를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글에서 만든 2바이트 문자 코드 영역은 크기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1)-④ 규격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350자의 한글을 확장하기 위하여 만든 규격인데 윈도 95나 윈도 98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드이다. (1)-⑤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사전 편찬 작업을 벌이면서 국어사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코드이다. (1)-⑦은 (1)-③ 규격을 사용하면서 유니코드에 문자 코드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옛 한글과 일부 확장 한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워드 등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 규격이다.

북쪽에서는 표준 코드를 국규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규9566-1993, 국규9566-1997, 국규9566-2000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국규9566-1993에 포함되어 있는 한글의 글자 수는 2,420자이고 국규9566-1997에 포함되어 있는 한글의 글자 수는 2,679자이기 때문에 남쪽의 KS X 1001 규격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북쪽의 국규9566-1993이나 국규 9566-1997로 바꾸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규로 만들어진 문서를 KS X 1001 규격으로 바꿀 때에는 변환하지 못 하는 글자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북쪽의 문자 코드로 입력되어 있는 문서를 남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서로 바꿀 때에는 반드시 유니코드 규격을 이용하여 바꾸어 주어야 한다. 남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KS X 1001 규격은 예전에 사용하던 KS C 5601-1987 규격이고 KS X 1005 규격은 예전에 사용하던 KS C 5700 규격이다. 이들 규격을 다시 국제 표준 규격으로 표시하면 KS X 1001 규격은 ISO 2022 규격을 준수하는 표준이고 KS X 1005 규격은 ISO 10646-1 규격을 준수하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표준 규격에 속하지 않는 상용 조합형 코드(2바이트 조합형 코드)나 가변 바이트를 사용하는 N 바이트 코드 등을 형태소 분석 작업 등에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코드가 조합형 방식이어서 자소를 분리하는 작업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준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여러 가지 문자 코드가 사용되는 것은 현행 문자 코드를 사용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인데 현행 문자 코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현행 문자 코드 사용상의 문제점

- ① 유니코드를 비롯한 표준 규격이 완성형 체제로만 되어 있어 형태소 분석이나 자소 분리 작업 등을 할 때 불필요한 코드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
- ② 아직까지 옛 한글의 처리에 관한 마땅한 표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 ③ 유니코드의 경우 기본 다국어 평면(BMP)을 넘어서는 문자들을 정의하여 부족한 한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에서 이를 모두 지원해 주기는 쉽지 않다.
- ④ 남쪽에서는 유니코드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만 글자체나 문자 코드 변환 문제 때문에 2,350자만 지원하는 완성형 한글 코드 규격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⑤ 유니코드의 경우 이를 시스템에서 구현할 때 아시아 지역에 불리한 UTF-8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나 검색 엔진 및 각종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UTF-8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⑥ 남과 북의 전산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완벽한 코드 변환 프로그램(북→남)이 없다.

(2)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시간이 가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남과 북의 자료들을 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당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다. 남과 북의 전산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우선 북쪽의 문자 코드로 컴퓨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WINK나 단군과 같은 다국어 입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들은 영문 윈도에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 안에는 남쪽의 KS X 1001 규격으로 문자 코드를 변환할 수 있는 코드 변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이 코드 변환 프로그램은 텍스트 파일이 아닌 북쪽의 대표적인 문서

편집기인 창덕으로 만든 문서 파일도 남쪽의 KS 텍스트 파일로 코드 변환을 해 준다. 그리고 남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 편집기는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워드인데 한글은 한글 97버전까지 독자적인 2바이트 조합형 한글 코드 규격을 사용하여 윈도의 언어 종류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글 워디안 버전부터는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윈도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워드 프로그램은 윈도에서 제공하는 문자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 워드 97 버전까지는 옛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워드 2000에서는 유니코드의 사용자 정의 영역(PUA 영역)을 사용하여 옛 한글과 확장 한자를 구현하였고 한글 워드 2002에서는 이를 다시 표준 코드 체계를 사용한 자모 결합 방식으로 바꾸어 옛 한글만 옛 한글 자모를 사용하여 가변 바이트 방식으로 조합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2 자료 구축을 위한 파일 형식과 문자 코드 변환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은 문서 편집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남과 북에서 생산된 문서는 대부분 문서 편집기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다. 창덕이나 한글 워드 등으로 만들어진 파일은 문자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는 있으나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문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호환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해당 운영 체제(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등)에서 제공하는 문자 코드 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언어(한국어 등)를 지원하는 윈도 버전을 설치해야 작성된 문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서 편집기 형식의 파일이라도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문서 파일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한글 프로그램(한글 97 버전 이하)은 윈도의 문자 코드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문자 코드(2바이트 조합형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한글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한글로 만들어진 파일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 다른 문자 코드를 가지고 자료 구축 작업을 할 때에는 한글 파일로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큰 강점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 파일도 역시 특정 문서 편집기의 형식에 의존하는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범용적인 파일을 만들려면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특히 여러 나라의 문자 코드를 모아 놓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XML 방식의 부호를 붙여 자료 구축 작업을 한다면 남과 북의 문자 코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파일로 자료 구축을 하면 호환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하지만 유니코드의 경우 아직 옛 한글 처리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확장 한자의 추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등 아직까지 안정적인 문자 입력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문자 입력의 측면에서는 한글 파일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과 북의 전산 자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문자 코드 변환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문자 코드 변환 작업은 텍스트 파일 수준만이 아니라 문서 편집기의 형식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rtf 파일과 같은 형식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코드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과 북의 문자 입력 환경은 같은 언어에서 코드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 편집기 형식의 파일을 문자 코드만 변환하여 다른 코드로 만들어진 제2의 문서 편집기 파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작업한 북쪽의 파일이 있다면 이 안에 들어 있는 인용 객체, 표, 그림, 수식,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등의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문자 코드만 남쪽의 코드로 바꾸어 남쪽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워드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변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정확한 코드 변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코드 변환 테이블이 필요한데 이는 남북이 서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3. 자료 교환을 위한 부호 표지의 추가

3.1 분석 표지의 유형

입력하는 전산 자료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하는 자료에 체계적인 분석 표지를 붙여 놓아야 한다. 분석 표지에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문서 파일 및 문서의 관리, 형식에 관련된 표시와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형태 분석 표지, 그리고 구문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구문 분석 표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자료의 경우 형태 분석이나 구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항목 구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 구분 표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 표지는 독자적인 표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SGML이나 XML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제적인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SGML이나 XML과 같은 언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SGML이나 XML 언어는 확장성과 개방성을 중요시하여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문서의 구조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SGML이나 XML 언어를 사용하여 표지를 붙이려면 문서 형식이나 구조에 대한 정의(DTD: data type declaration)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표지 형식을 일반적인 입력기로 입력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입력 도구를 만들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정확한 표지를 붙이기가 어렵다. 그런데 문서의 형식이나 구조에 대한 정의가 상세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각 문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문서마다 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입력 도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XML 형식의 표지를 부착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표지를 어렵게 붙인 만큼의 활용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하고 있는 세종 말뭉치의 경우 대부분의 표지가 SGML 방식의 TEI 언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이 표지를 일단 모두 떼어낸 다음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료 구축 작업을 할 때에는 범용적이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지 형식을 개발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표지와 호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전 자료의 경우 말뭉치와 달리 분석 표지보다는 항목 구분 표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항목 구분 표지는 복잡한 SGML이나 XML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간단한 규약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입력 작업의 부담을 매우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사전 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입력 작업의 효율을 높이면서 부표제어나 속담, 관용구와 같은 복잡한 사전 구조를 잘 반영하여 입력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입력한 사전 자료의 형식을 국제 표준 형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표지 부착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3.2 국어사전 자료의 성격과 구조

국어사전은 국어를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한글, 한자, 로마자, 가나 문자, 국제 음성 기호 등 각종 다국어 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자료이다. 그래서 국어사전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문자의 입력이 가능한 문자 코드부터 선정하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유니코드를 사용한 텍스트 파일을 입력하여 작업을 하는데 옛 한글이나 수식의 입력 등을 생각하면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낫고 인터넷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 처리 등을 생각하면 유니코드로 입력하는 것이 낫다.

국어사전은 사용하는 문자도 다양하지만 그 구조도 말뭉치보다 훨씬 복잡하다. 우선 국어사전은 표제어, 어원, 발음 등과 같이 최대 길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형 자료와 뜻풀이와 같이 최대 길이를 예측하기 힘든 비정형 자료가 섞여 있다. 그리고 표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항목(레코드)이 만들어지지만 이 안에는 어원, 발음 등과 같이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이루는 항목도 있고 부표제어, 속담, 관용구와 같이 일대다의 대응 관계를 이루는 항목도 있다. 또한 부표제어는 주표제어의 하위 항목이지만 대부분 주표제어와 비슷한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표제어는 주표제어의 하위 항목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주표제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사전에 따라서는 부표제어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

고 모든 단어를 주표제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부표제어는 표제어 안의 표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표제어의 처리 방식은 사전마다 조금씩 다르다. 현행 사전에서 다루고 있는 부표제어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3) 부표제어의 처리 방식

- ① ‘-하다’, ‘-되다’ 등이 붙은 파생어를 부표제어로 처리
- ② 복합어나 관용 표현을 부표제어로 처리
- ③ 복합어나 관용 표현을 부표제어로 처리하고 ‘-하다, -되다’ 등이 붙은 파생어는 주표제어의 뜻풀이 뒤에 배열

(3)-①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고 (3)-②는 연세한국어사전이나 조선말사전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며 (3)-③은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의 경우에는 부표제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하다’, ‘-되다’ 등이 붙은 파생어도 모두 주표제어로 처리하여 사전 표제어를 배열하고 있다. 이처럼 부표제어의 처리 방식은 사전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표제어의 뜻풀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사전들이 주표제어의 뜻풀이에 의존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어 부표제어의 뜻풀이 항목은 대부분 주표제어의 뜻풀이를 참조하라는 형식의 처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어사전 구조를 참조하여 국어사전 자료의 구조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4) 국어사전 자료의 구조

<기본 구조>

표제어-(표제어 색인)-어원-발음-활용 정보-
뜻풀이(품사 정보, 전문 영역 정보, 용례 정보 포함)

<부표제어, 속담, 관용구, 관련 어휘 관련 구조>

부표제어-(부표제어 색인)-부표제어 어원-부표제어 발음-
부표제어 활용 정보-부표제어 뜻풀이-속담-속담 뜻풀이-
관용구-관용구 뜻풀이

관련 어휘(본말, 준말, 비슷한 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등)-참고 어휘

위 (4)의 구조에서 음영 부분은 다중 항목에 관련된 부분이다. 위에서 보인 구조를 반영하여 항목 구분 표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자료의 검색을 가능하게 만든 프로그램이 HDB.EXE이다. 이 프로그램은 1992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사전 편찬 작업을 하면서 사전 자료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위하여 만든 프로그램인데 1997년에 사전 자료의 구조를 확장하고 일부 검색 기능의 보강을 했던 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자 입력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입력한 명령어 파일(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HDB.EXE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글 프로그램만 가지고 별도의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도 다양하게 사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HDB.EXE(1997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의 입력 구조는 아래와 같다.

(5) HDB.EXE(1997)의 파일 입력 구조

#1원표제#2표제#3어원#4발음#5뜻풀이#6부표제어#\$부표제뜻 #7속담#%속담뜻#8관용구#^관용구뜻#본#준#비#반#높#낮#참

#1은 사전에 있는 표제어 형태이고 #2는 #1에서 각종 기호(장음 표시(:), 줄표(-), 띄어쓰기 표시(^), 어깨 번호 등)를 제거하여 표제어 색인을 만든 것이다. #3은 한자나 기타 어원을 밝힌 항목이고 #4는 표기와 다르게 발음되는 항목의 발음을 밝힌 항목이다. #5는 뜻풀이 항목인데 여기에는 품사 표시, 전문 영역 표시, 특수어 표시, 활용 정보, 문형 정보, 용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뜻풀이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항목들은 단선적으로 항목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뜻풀이 항목에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6부터#^까지는 부표제어, 속담, 관용구를 각각 표제어와 뜻풀이로 나눈 것이고 '#본'부터 '#참'까지는 본말, 준말, 비슷한 말, 높임말, 낮춤말, 참고어휘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6부터 '#참'까지는 다중 항목으로 처리되고 #1부터 '#참'까지는 모두 한 문단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의 구조를 이용하여 입력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 HDB.EXE(1997)를 이용한 사전 입력 자료의 예

#1농한#2농한01#3弄翰#4농 : -#5「명」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씀.
또는 그 그림이나 글씨. #비농필 [2] .#6농한-하다#\$[농 : ---]「동」=>농
한01. #비농필하다 [2] .

#1바느질#2바느-질#5「명」바늘에 실을 꿰어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일.
≡침선03(針線) [2] .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웬만한 옷 수
선을 똑딱 해치웠다./한때는 솜씨가 소문나 샀이 후한 다방 골 기생
{바느질만} 도맡아 했답디다.《박완서, 미망》/임이네는 일손이 빨라서
머슴 옷을 승덩승덩 마르고 지어 냈으나 {바느질은} 거칠었다.《박경리,
토지》§[<바느질<박언>←바늘+질]#6바느질-하다#\$「동」【...을】
=>바느질. 『등잔불 밑에서 밤새워 주문받은 옷을 {바느질하시던} 어머
니/정성스레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신} 어머니의 손길이 옷에서 그대로
느껴졌다./논개는 주섬주섬 {바느질하던} 것을 주워 모아서 고리에 담
아 장 밑으로 치워 버린다.《박종화, 임진왜란》 §[<바느질하다<가언>
<←바늘+-질+ㅎ-]#7바느질하는 사람은 썰어 버리는 솜씨가 있고 쪼신
삼는 이는 골 치는 솜씨가 있어 어렵게 산다#%『복』 샀바느질하는
사람과 쪼신 장사 하는 사람의 살림이 피지 못함을 비꼬는 말.

#1바느질감#2바느질-감#4---감#5「명」바느질할 옷이나 옷감 따위. ≡바느
질거리.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반질고리에 담아 넣고 부엌으로 나가셨
다./그녀는 보자기를 풀어 꺼낸 {바느질감을} 가위로 마른 후 곧 솔기
와 단을 꿰매기 시작하였다.§

HDB.EXE(1997) 프로그램은 사전 자료 이외에도 항목의 속성만 잘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면 비정형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전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HDB.EXE(1997)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입력 형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보다 범용적인 XML 형식의 표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XML 형식의 표지는 사전 자료의 구조가 인쇄 사전과 같이 단선적이지 않고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연 언어 처리용 전자 사전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하고 있는 자연 언어 처리용 전자 사전의 경우 XML 형식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전에서는 형태

정보, 통사 정보, 속어/관용 정보 등을 각각 하나의 구획으로 다루고 있어 XML 형식의 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7) 세종 전자 사전의 입력 형식

<superEntry>	
<entry> ...	
<toplevel> ...	-항목(유지정보구획)
<morph_a> ... </morph_a>	-최상위구획(...표제정보구획)
<morph_b> ... </morph_b>	...형태정보 A구획
<froz> ... </froz>	...형태정보 B구획
</toplevel>	...속어/관용 구획
<sense> ...	
<lr> ... </lr>	-다의어구획(...의미정보구획)
<synt_a> ... </synt_a>	...어휘의미관계 구획
<synt_b> ... </synt_b>	...통사정보 A구획
<synt_c> ... </synt_c>	...통사정보 B구획
<synt_d> ... </synt_d>	...통사정보 C구획
</sense>	...통사정보 D구획
</entry>	
</superEntry>	

세종 전자 사전은 2003년도에 위 구조를 활용한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규모 전자 사전 CD를 만들 예정이다. XML 형식의 표지는 구조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매우 효율적인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서로의 형식과 기타 제반 여건이 다른 자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을 고려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작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 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현실적인 대안은 추후에 보다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재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전산 자료 교환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언어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에 따른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어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방언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 토론회

◆ 2003. 11. 6. ~ 2003. 11. 9

국립국어연구원 · 국제 고려학회 아시아분회 및 평양



빈 면

민족어 관련 사업의 회고와 전망

전 수 태(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국립국어연구원은 문교부 소속의 임의 기관인 ‘국어연구소’가 문화부 소속이 되면서 국립기관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학술원 안에 설치된 국어연구소는 1984년 5월 10일 개소되어 1991년 1월 23일 국립국어연구원이 개원될 때까지 6년 6개월간 존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나온 최초의 민족어 연구 성과물이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Ⅰ~Ⅲ)이다. 이는 남한의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과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1)에서 발음·맞춤법(Ⅰ), 고유어(Ⅱ), 한자어·외래어(Ⅲ)를 각각 비교한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도 민족어 연구는 계속되었는데 연구 인력이나 예산 사정으로 상황이 국어연구소 시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겸하게 되었다가 2000년대에 와서야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주로 북측의 언어 정책이나, 교과서 내용 그리고 1992년에 나온 『조선말대사전』과 우리 사전을 비교하는 일이 주요 관심사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주로 어휘 비교에 힘을 기울이었는데 한자어, 외래어 등 어휘를 어원별로 구분하여 조사 연구하기도 하고 문학 작품이나 신문, 방송, 영화, 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남북의 언어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996년, 2001년에 민족어 문제를 주제로 남북학자들이 만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에 남북 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중국과 독립 국가 연합의 동포들과 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학계에서는 민족어 연구 열기가 최고조에 달

했다. 이에 따라 질적 수준 여하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많은 성과물들이 나왔다. 그러나 남북의 언어 차이가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그 열기는 진정되었다. 1990년대 후반기와 2000년대 초반인 지금은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언론 기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언론 쪽이 민족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민족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온 발표자로서는 남북한 사이에 정말 언어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어휘 비교로 요약되는 이런 작업 성과들이 민족어 통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북 학자와 동포 중국 학자들이 함께 한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고견을 듣고자 이를 공개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좋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조언을 바란다. 그간 감추어 두었던 내밀한 어떤 것을 북측 선생님들에게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에는 얼마간의 용기가 필요하였다는 것도 아울러 밝힌다.

2. 민족어 관련 사업 현황

1989년의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국어연구소)에서 2002년의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I』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민족어 관련 사업의 성과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편의상 이들 단행본의 내용을 언어 정책 연구, 국어사전 비교 연구, 어휘 비교 연구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여기에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자 한다.

2.1. 언어 정책 연구

2.1.1.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1991년 6월)

민족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북한어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한의 초등학교(국민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와 북한의 인민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 내용은 1. 단원별 주제, 2. 어문 규정(사이시옷 규정, 두음 법칙 규정, 띄어쓰기 규정 등) 3. 어휘 사용(남한 사전에는 없는 단어들, 표준

어, 외래어 사용 등) 4. 어휘 빈도수 5. 문법 현상 등에서의 남북한의 차이이다. 북한 교과서에 나타나는 어휘 면의 특징으로는 ‘보초, 수류탄, 불구멍’ 등 군사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농장원, 경위대원’ 등 체제를 반영하는 용어가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으며 특이한 문법 현상으로서 ‘-께서’와 ‘-님’이 특정 인물에게만 쓰인다.

2.1.2. 『북한의 언어 정책』 (1992년 7월)

북한어 연구 사업의 하나로 『북한의 언어 정책』을 발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언어 정책의 개관, 북한의 언어 정책 추진 기관, 어문 규정의 변천과 언어 연구, 북한의 현행 어문 규정, 북한의 어휘 정리, 북한의 국어 교과서 분석, 북한의 한자 한문 교육, 북한의 국어사전, 신문 방송 언어 등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남북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 빈도표’를 수록하였다.

2.1.3.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1995년 12월)

서울과 남한 각 지역의 친족 호칭어, 지칭어와 평양과 북한 각 지역의 친족 호칭어, 지칭어의 사용 실태를 표준 화법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조선말대사전』(1992)의 친족 용어를 부록으로 처리하여 북한의 화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표준 화법의 친족 용어와 서울, 평양의 친족 용어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표로 보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과 평양 이외의 남북한 각 지역의 사용 실태는 본문 해설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 화법에 대하여는 『표준 화법 해설』(1992, 국립국어연구원)의 내용을 그대로 빠짐없이 담았으므로 따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형부’를 북한에서 ‘아저씨’라고 하고 남편을 ‘세대주(평양)’ 또는 ‘나그네’(함경북도)로 지칭하며,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등 호칭·지칭어가 북한에서는 쓰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2.1.4.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2002년 12월)

2001년 12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서 남과 북 그리고 중국 사이에 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학술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내용은 (1) 순화할 용어를 대상으로 한 남북 순화 용어 비교, (2)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한 남북 순화 용어 비교, (3) 서로 같게 순화한 용어 목록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여 최종 결과로 제시한 1,482어 가운데 남과 북에서 같게 순화한 용어는 705어이다. 세탁하다→빨래하다, 세척하다→씻다, 이식하다→ 옮겨심다, 적재하다→ 싣다, 제조작업→풀뽑기, 인덱스(색인)→찾아보기 등이 그 예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1992년에서 2001년에 이르기까지 남한(국립국어연구원)에서 순화한 어휘가 22,600어이고 북한에서는 『다듬은 말(1986)』에 24,370어, 『조선말대사전』에 13,940어의 순화한 어휘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2.2. 국어사전 비교 연구

2.2.1.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1)』 (1992년 12월)

남한의 어문 규정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기준으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 사회과학출판사)을 조사한 것인데 한글 맞춤법 관련 어휘(가나다순), 표준어 규정 관련 어휘(가나다순), 한글 맞춤법·표준어 관련 어휘(규정별 가나다순) 등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남한 어휘는 『한글 맞춤법 해설』(1988, 국어연구소)의 각 규정 본문(규정에 어긋나는 형태 제외), 비고란 및 해설 부분에 나타나는 어휘 1,417어, 『표준어 규정 해설』(1988, 국어연구소)의 표준어 사정 원칙의 각 규정 본문과 이에 대한 해설 부분에 나타나는 어휘(비표준어 포함) 1,461어, 『표준어 모음』(1990, 국어연구소: 『국어생활』 제22호 별책)의 어휘 선택 부분에 나타나는 어휘(비표준어 포함) 1,210어가 기준이 되었다. 또 남북한 어문 규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표준 발음법 등에 대한 남북한 어문 규정을 조항별로 비교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2.2.2.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Ⅱ)』 (1994년 3월)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Ⅰ)』의 후속 보고서로서 북한의 『조선말사전』(1962, 과학원 출판사)과 『조선말대사전』(1992, 사회과학출판사)의 장단의 변화를 조사하여 I. 장모음(62)→장모음(92), II. 장모음(62)→단모음(92), III. 단모음(62)→장모음(92), IV. 단모음(62)→단모음(92)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총 표제어 수 13,745항목). 그리고 남북한의 장단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한의 장단도 조사하여 비교란에 실었으며,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제시된 고저의 수치도 그대로 실어 북한의 발음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3.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Ⅲ)』 (1994년 12월)

북한 사전에 반영된 다듬은 말을 바탕으로 북한 언어 정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다듬기 사업의 성격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전은 『현대조선말사전』(1981)과 『조선말대사전』(1992)이며, 연구 목표는 북한 사전에 나타난 ‘다듬은 말’의 성격과 실상을 드러내는 것과, 『현대조선말사전』(1981)과 『조선말대사전』(1992)에 반영된 ‘다듬은 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후자의 작업은 전체 북한어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는 데에도 유력한 실마리가 되었다. 두 가지 작업의 결과 다듬은 말의 특성으로 대략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 ① 단어로 보기 어려운 구 형식들이 많다.
- ② ‘-기’ 형식으로 다듬은 경우가 많다.
- ③ 한자 표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④ ‘관형사형+명사’ 구성이 ‘명사(형)+명사’ 구성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 ⑤ 다듬은 말이 기존 단어에 비해 그 의미 전달력이 약한 경우가 있다.

2.2.4.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Ⅳ)』 (1995년 12월)

속담과 관용구의 사전 수록 실태에 관한 남북한 비교 보고서이다. 북한에서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는 총 16,451 항목의 속담과 관용구가 실려 있다.

이를 남한에서 간행된 두 종류의 국어 대사전과 속담 사전과 비교하여 그 등재 여부를 조사하였다. 비교 결과 북한 사전의 속담·관용구 중 남한 사전에 실려 있는 것들이 약 52%에 이르렀고, 48%의 속담과 관용구는 북한 사전에만 실려 있었다. 남북한 사전 편찬 담당자들의 편찬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달리 수록된 것들을 제외하고, 북한 사전에만 실려 있는 속담·관용구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남북의 어휘 차이로 인해 남한에는 없는 속담이나 관용구들이 있다.
- (2) 남한 기준으로는 속담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체제를 홍보하기 위한 구호나 어구들이 포함된다.
- (3)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 낸 속담이나 관용구들이 있다. 이 중에는 전래하는 속담의 일부를 어감이 강한 어휘를 사용해서 바꾼 것들도 있다.

2.2.5.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V)』 (1996년 12월)

북한 사전의 이중 체계 어휘를 조사하였다. 이중 체계 어휘란 말다듬기의 과도기적 처리 방안의 하나로, 이미 북한 언중들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린 한자어나 외래어를 다듬은 말과 함께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가리킨다.

다듬은 말이 본격적으로 사전에 수록되기 시작한 『현대조선말사전』(1981, 제2판)과 그로부터 10년 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된 이중 체계 어휘는 7,080 항목에 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 어휘들의 총목록을 우리말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어휘에 대해서 한자어와 외래어의 원어를 밝히고, 『현대조선말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서의 처리 상황을 기술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북한의 문화어 운동이 각각의 개별 어휘에 대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2.3. 어휘 비교 연구

2.3.1. '남북한 신문의 어휘 사용 실태 비교'(1992년 7월)

남북한의 신문에 나타난 어휘 사용의 실태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1992년

4월~7월), 이 조사에서는 남한의 '동아일보'와 북한의 '로동신문'을 대상으로 하여 신년사, 사설 및 1면 기사(광고, 제목 글 제외)를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먼저 각 문장 단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띄어 쓰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 명사(국명, 지명, 인명 등)에 대하여 각각 일정한 구분 기호를 붙여 원문을 입력, 단어 색인을 작성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조사 결과 밝혀진 남북한 신문에서의 고유어, 한자 외래어 및 고유 명사의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로동신문
신년사	고유어	496회(60.05%)	2,221회(37.18%)
	한자어	314회(38.01%)	3,619회(60.58%)
	외래어	1회(0.12%)	23회(0.39%)
사설	고유어	1,248회(37.60%)	1,393회(35.53%)
	한자어	11,924회(57.97%)	2,374회(60.55%)
	외래어	41회(1.24%)	9회(0.23%)
	고유 명사	106회(3.19%)	144회(3.67%)
1면 기사	고유어	3,717회(27.15%)	8,440회(34.43%)
	한자어	8,507회(62.14%)	1,4523회(59.24%)
	외래어	203회(1.48%)	164회(0.67%)
	고유 명사	1,264회(9.23%)	1,287회(5.66%)

2.3.2.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 (1995년 2월)

1990년대에 서울과 평양에서 각기 발간된 국어사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골라, 어형, 의미, 뜻풀이 등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우선 어형 면에서 자모순·유형별로 제시한 후, 의미 면은 남북한 사전을 비교하여 의미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의미가 남북에서 달리 분화되는 것, 남북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의미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서구 외래어를 한자로 바꾸었는지의 여부, 스트레이퍼(남)/스크레퍼(북) 등 간결성 여부 등 차이를 살폈다. 그리고 남북한 사전에만 각기

실린 외래어 목록을 제시했다.

2.3.3.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 (1998년 12월)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에 걸쳐 북한에서 간행된 장편 소설 『고난의 행군』, 『두만강 지구』, 『압록강』 등 24책(총 5,100여 쪽)에서 남한 사전에는 없고 북한 사전에만 나오는 2,500어를 조사하여 여기에 예문을 붙여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어휘 차이를 그 문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보고서이다. 이에 더하여 남북한 사전 모두에 안 나오는 300단어 정도를 조사하여 여기에 역시 예문을 붙여 보임으로써 사전에는 없지만 북한 작가들이 구사하고 있는 어휘의 양상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2.3.4.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2000년 7월)

최근 남한의 방송, 신문, 잡지, 일상 대화에서 북한 주민이 모르는 말, 3,600단어를 모아 뜻풀이하어 사전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순으로 되어 있고 남한 말에 대하여 북한 대응어가 있는 것은 이를 어휘 풀이의 맨 끝에 제시하였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말의 어떤 부분에 낯설어 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생생한 생활 언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서기 2000년 현재의 우리말 어휘의 특징을 조감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2.3.5.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 (2001년 12월)

시나리오와 영화 테이프가 함께 있는 ‘그날의 맹세’(김희봉, 1984)에서 ‘편지’(김국성, 1990)에 이르기까지 9편의 영화에서 남북한 발음의 차이, 어휘의 차이를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 앞부분에 각 시나리오의 이야기 줄거리를 읽을거리로 제시하여 본문을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시나리오 본문을 보인 다음 이에 따르는 구어로 된 영화 대사를 들어 그 차이를 살핀 것이다. 남한 사전에 없는 북한 어휘 250어는 『조선말대사전』 (1992)에서 찾아 각주로 풀이하였고 ‘어머니’가 ‘오마니’로 발음되는

등 구어의 특색을 나타내는 약 600여 부분은 돌음체로 처리하고 발음 부호 속에 발음 부호를 표시하였다.

2.3.6.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 (2002년 12월)

북한의 라디오 방송 언어에 나타나는 생생한 구어의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범위는 1999년 1월에서 2002년 4월에 걸치는 것으로서 북한의 주요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의 자료이다. 앞부분에는 북한 주요 방송국에 대하여 소개하고, 남북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북한 방송의 형식과 내용 등을 개괄하였다. 본문에서는 남한 사전에 나오지 않는 어휘, 구 등 1,600어를 각종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뜻풀이하고 용례를 보였다. ‘안받침하다, 애기젓 가루’ 같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3. 결 어

지금까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민족어 관련 사업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남북 학자와 중국 동포학자들이 민족어 문제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를 공개한 것은 많은 지도 조언을 들어 앞으로의 민족어 연구에 도움을 얻고자 함이었다.

<세계미래학회>는 ‘21세기 전망 중에 가장 중요한 열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제1위가 ‘세계 언어의 90% 소멸’이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문자 없는 언어나 소수 민족의 언어는 소멸되기 마련이다. 우리말은 사용 인구로 말하면 세계 12~13위로 대단히 힘이 있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장래는 영원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보화를 대표하는 영어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분단에 따른 언어 동질성의 일부 훼손은 우리들의 손을 거쳐 하루 속히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독일은 분단 상태에 있으면서도 ‘두텐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일어 정서법을 동서 양측이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통일된 뒤에 통합 사전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가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독일어는 '처음부터 하나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올림말의 조정만으로 쉽게 통합 사전을 만들 수 있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벗어나 자국어 교육 정책을 미처 수립하기도 전에 다시 국토가 양단되었다. 그리하여 어휘 면에서 한자어와 베트남 어, 문법 면에서 베트남 어 고유 문법과 외국어 문법이 혼재하여 분단 시기를 보냈는데 여기에 더하여 분단 20년 동안에 남과 북에서 각각 여러 분야의 전문 용어 사전을 편찬하여 통일된 지금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수상이 직접 나서서 '베트남 어 어휘의 순수성 보존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베트남 어 전문 용어 규정'을 발표하였지만 교육 기관 일부에서만 적용될 뿐 일반의 언어생활에서는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는 분단 상태이면서도 언어가 하나였던 독일의 예와 통일 후에도 언어가 하나 되지 못한 베트남의 예에서 민족어의 통합이 꼭 국토 통일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민족어의 장래를 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족어 순화 자료의 구축 현황

이 승 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남과 북의 관습과 변화들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민족어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어의 동질적인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 자료 정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쪽의 국어 순화 작업으로 이루어진 자료들과 북쪽의 말다듬기 사업으로 이루어진 자료들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의 고유어로 바꾼 자료라는 점에서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좋은 기초 자료가 된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2002년에 북쪽의 말다듬기 자료와 남쪽의 국어 순화 자료를 정리하여 비교한 다음 이 중에서 바꾸려고 한 말(순화 대상어)이나 쉽게 바꾼 말(순화어)이 서로 같은 항목을 정리하여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을 발간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를 만들었던 작업 과정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국어 순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 언어 순화 자료의 비교 과정을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 순화 자료를 정리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남북의 국어 순화 사업 추진 현황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1년부터 해마다 『국어 순화 자료집』을 발간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 용어, 일본어투 용어, 법령 용어 등을 비롯하여 건설, 미술, 식

생활, 경제, 농업 등 각종 전문 분야의 학술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1년부터 추진한 국어 순화 사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 순화 추진 현황

제 목	발행 연도	영역(항목 수)	총 항목 수
국어순화자료집	1991	일반, 행정, 법령, 교육, 일본어투 용어	5,082
국어순화자료집	1992	행정(9,219), 미술(738), 건설(392), 신문 제작(144), 식생활(264) 용어	10,757
국어순화자료집	1993	행정(319), 선거 정치(451), 생활(751), 전산기(1,068)	2,589
국어순화자료집	1994	임업(241), 봉제(331), 국악(447)	1,019
국어순화자료집	1995	행정(1,051), 일본어투(702)	1,753(5,021)
국어순화자료집	1996	1992~1995 모음집(행정, 국악만 제외)	5,575
국어순화자료집	1997	임업(997), 일본어투(338)	1,335(6,921)
국어순화자료집	1999	패션디자인(1,471), 언론 외래어(106)	1,577
국어순화자료집	2000	문화재(1,174), 언론 외래어(387), 전기전자(353), 경제(159), 농업(120), 지하철 운전(140), 정보통신(31)	2,364
국어순화자료집	2001	운동 경기	1,490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2001	언론에 나타나는 외래어	627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2002	1991~2001 모음집	953
국어순화자료집	2002	연극(323), 금융(178), 법의 부검(413)	914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작업한 국어 순화 자료의 총 어휘 수

는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고 나면 약 23,000여 개 정도이다. 이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어휘는 『국어 순화 자료집』에 순화를 권장한다는 표시가 있는 항목 중에서 표제어로 사전에 넣을 수 있는 2,687 항목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순화어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순화어의 유형

① 뜻풀이와 함께 순화어를 제시: 2,392항목

예) 팸플릿→ 설명이나 광고, 선전 따위를 위하여 알파하게 맨 작은 책자.
'소책자, 작은 책자'로 순화

② 순화어만 제시: 295항목

예) 구루마→'수레', '달구지'로 순화

북쪽에서 말다듬기 사업으로 만든 자료는 1986년에 발간한 《다듬은말》과 1992년에 발간한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다듬은 말에 관련된 어휘이다. 《다듬은말》에는 총 2만 4천여 항목의 표제 항목이 수록되어 있고 《조선말대사전》에는 총 13,939 항목의 관련된 항목이 등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북쪽의 말다듬기 자료 현황

① 《다듬은말》(1986, 과학백과출판사) : 24,000여 항목 수록

② 《조선말대사전》(1992, 사회과학출판사) : 13,939항목 수록¹⁾

- '다듬은 말로'라는 표시가 있는 항목 : 3,966 항목

예) 각판01→새김판, 인피02→질긴껍질, 일사07→해빛쪼임

-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고유어에 보내 준 항목 : 6,581 항목

1) 《조선말대사전》에는 이러한 3가지 유형 이외에도 지난 날에 쓰이던 한자말이나 한문투의 말(생계비←가계비, 편지←간찰 등) 22,645항목과 고유한 우리말로 다듬어 썼거나 쉽게 풀어 쓴 말(건조하다→마르다, 감소하다→줄이다 등) 791항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대부분 3가지 유형에 나왔던 말들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이들을 작업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예) 가배일→가위날, 계란빛→닭알색, 마제02→말발굽

- 말다듬기와 관련하여 쓰지 말아야 할 한자말이나 외래어로 된 학술 용어 관련 항목 : 3,392 항목

예) 가공종이←가공지, 가죽벗기기←탈피

《다듬은말》에는 전문 용어로 분류할 수 있는 많은 학술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국어사전인 《조선말대사전》에 반영된 어휘는 채 반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다듬은말》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 중에서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될 때 그 형태가 바뀐 것도 있는데 이는 《조선말대사전》을 만들 때 그 어휘에 대한 말다듬기 작업을 다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다²⁾.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말다듬기와 관련하여 뜻풀이에 ‘《다듬은 말로》’라는 표시를 해 놓았다. 그러나 어려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설명하면서 쉽게 풀어 쓴 말을 설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듬은 말에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도 추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항목들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조선말대사전》에 반영된 다듬은 말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3. 남북 언어 순화 자료의 비교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의 순화 자료 중에서 바꾸어야 할 말(순화 대상어)이나 바꾼 말(순화어)이 서로 같은 항목들을 찾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가지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남쪽의 순화 자

2) 《말다듬기》에 있는 어휘 중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휘들이 《조선말대사전》을 편찬하면서 폐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말다듬기》에는 각종 학술 용어와 단어를 넘어서는 구 형태의 어형들이 많아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조선말대사전》에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말다듬기》에 있던 어형들이 재정비되면서 없어지거나 형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형들은 다른 이유에서 국어사전의 표제어에서 빠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국어 순화 자료집』에 있는 순화어 중 일부만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된 것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 데이터베이스와 북쪽의 말다듬기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항목 비교 작업을 진행하였다.

남북 순화 자료 데이터베이스에는 남쪽이나 북쪽 모두 중복된 항목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를 제거하고 난 후 남쪽과 북쪽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색인을 작성하였다. 남과 북의 언어 규범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규범 차이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표기되는데 순화 자료를 비교할 때에는 이들을 서로 같은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해야 할 이들의 색인을 같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쪽에서는 ‘임시 다리’라는 항목으로 순화를 하고 북쪽에서는 ‘림시다리’라는 항목으로 순화를 했을 경우 이들을 서로 다르게 순화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언어 규범 차이에 의한 이러한 예들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4) 언어 규범 차이에 의한 항목의 예

- ①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 표기의 차이: 임시 다리/림시다리, 구석 깃발/구석기발, 핏줄/피줄, 잣난아기/잣난애기
- ② 띄어쓰기 차이: 갈아타는 역/갈아타는역
- ③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앨범/앨범

위와 같은 차이를 통일한 후 이를 하나의 색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북쪽의 표기들을 모두 남쪽의 표기로 바꾸었다³⁾.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바꾼 말(순화어)이 같은 항목을 700항목 정도 추출할 수 있었다.

(5) 남북의 순화어가 같은 예(괄호 안은 남과 북의 순화 대상어)

3) 이 과정은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일단 2002년도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분과에서 개발한 ‘북남 정서법 변환 프로그램’으로 북쪽의 표기를 남쪽의 표기로 변환한 후 이를 수작업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흘날리다(비산(飛散)하다), 가로채기(인터셉트), 갈아타는 역(환승역, 러객중계역), 갓난아기(영아(嬰兒)), 겨울잠(동면(冬眠)), 고인돌(지석묘(支石墓)), 구석 밧발(코너플래그, 우측기), 글자체(자체(字體)), 깊이(심도), 꼬리등(미등), 낀 돈(차입금), 꿰어치기(커트샷, 력점타격), 꿰어오르다(비등하다), 나무베기(벌목), 단목(양갱), 던져넣기(스로인), 돌림병(전염병, 류행병), 말손자(장손), 먹이(식이물(食餌物)), 모내다(이양하다), 물막이벽(지수벽(止水壁)), 바탕흙(태토(胎土)), 빈속(공복), 빈자리(공석), 뽕나무심기(식상(植桑)), 사슬(체인, 첸), 사진첩(앨범, 알범), 서릿발(상주(霜柱)), 센물(경수(硬水)), 소음기(마후라), 신다(착용하다), 싣다(적재하다), 썰물 바위(간출암(干出岩)), 알뿌리(구근(球根)), 어미돼지(모돈(母豚)), 연보라(라벤더, 성청은), 외양간(우사(牛舍)), 이삭 가지(지경(枝莖)), 잃다(망실하다, 유실하다), 사진첩(앨범, 알범)임시 다리/림시다리(가교(假橋)), 주름치마(폴리츠스커트, 주름스카트), 차체(보테), 찾아보기(인덱스, 색인목록), 칠(도료), 크기(사이즈, 싸이즈), 틀(가타/가다)

위에서 보인 예들은 형태가 같은 항목들을 최대한으로 뽑는다는 원칙 아래 작업을 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어 순화의 한계점을 다소 내포하고 있는 어형들이다. 하나의 어형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 다른 어형으로 바뀌려면 그 어형이 지시하는 의미 영역의 범위가 변동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단어나 다의어의 경우 이를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 원래 단어들이 가지고 있던 의미 중에서 중심 의미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의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전문 영역에 속하는 단어의 경우 바꾸어야 할 말이나 바꿀 말에 대한 세밀한 의미 파악이 이루어져 의미별로 바꿀 말(순화어)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은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생명력이 강한 말을 선정하여 순화 작업을 벌여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 언어를 다듬는 작업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남북 언어를 다듬기 위해서는 우선 쉽게 바꾸어야 할 말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외래어나 외국어, 한자어 등이 그 일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나 한자어 중 일반인에게 매우 친숙한 말이라면 그 말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는 순화어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할 말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쉽게 바꾸는 말은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간결한 것이어야 한다. 한자어나 외래어를 단순히 구 형식으로 길게 풀어 쓴 형태는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 언어 순화 작업은 일반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분야의 어휘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같거나 남북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부터 다듬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남북 언어 순화 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남 대역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양 명 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북남 대역사전의 필요성

남북 교류의 활성화에 힘입어 북의 언어에 자주 접하게 되면서 북의 언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북의 자료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이 가능했기 때문에 북남 대역사전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북의 방송이나 신문, 책자 등을 보기가 쉽고 각계의 전문 분야에서는 북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북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북남 대역사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현재 남쪽에서 발행된 북의 언어와 관련한 사전류¹⁾에는 <북한 어휘 사전>(2002, 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본부) 정도가 있는데, 이 사전은 사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나 책의 일러두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사전적인 성격보다 북의 문화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²⁾

전문 분야의 남북 통합 사전 발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남북한 의학 용어'(1996, 대한의사협회), '남북 과학 기술 용어집'(200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남북 마스크 용어 사전'(2001, 한국교열기자협회·한국언론재단) 등이 있다.³⁾

1) 이외에도 조재수(1995)의 '남북한말 비교 사전'이 있는데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 지역 방언 등이 모두 표제어로 올라 있어 비교 사전이라기보다 통합 사전의 성격이 강하다. 최근에 나온 북한 용어집으로는 '북한 상용 특이 용어집'(1999, 3,500여 개), '북한 관광 용어집'(1996, 한국관광공사) 등이 있다.

2)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실용적인 언어(1,026개)를 선정해 알기 쉽게 풀이를 달아 놓았다.

또 문화관광부의 세종 계획(1988~2007)의 한 분과인 '한민족 언어 정보화 연구 분과' 소속의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구축 소분과'에서 보고서로 낸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1998~2000)이 있는데 빈도수를 기준으로 한 기초 어휘 10,000개를 대상으로 남북의 의미를 비교하였고 2001년에는 북에서만 사용되는 표제어 3,000여 개를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각에 대해서는 남북 언어 비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검색이 가능한데 빈도를 기준으로 한 기초 어휘의 비교라는 점에서 표제어 수는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이 외에는 대역사전은 아니지만 남의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9년에 발간한 대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이하 <표준>으로 약칭함.)에 북의 단어가 약 7만 개 정도 실려 있다.

2. <표준>의 문화어 표제어

1999년 발간된 <표준>은 북에서 사용되는 주요 표제어를 사전에 실도록 하여 민족어 통일을 위한 국어사전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참고할 수 있었던 자료는 <조선말대사전>(1992, 사회과학원)(이하 <조대>로 약칭함.) 정도였기 때문에 단순히 남북 사전의 표제어를 비교하여 남쪽 사전에 없는 <조선말대사전>의 표제어를 수록하는 정도에서 문화어를 수록하였다.

이렇게 해서 <표준>에 수록된, [북] 표시가 되어 올라간 표제어는 모두 72,063 항목이다. 이 수는 전체 표제어의 14.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남북 언어가 규범뿐 아니라 어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겼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수치이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 있는 <표준>의 문화어 표제어의 풀이에는 몇 가지 면에서 단점이 있다. 이운영의 "표준 국어 대사전의 연구 분석"(2002)에 따르면 <표준>의 문

3) 이 외에도 각종 전문 분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남북 전문 용어를 비교해 놓은 사이트가 많다. 경제, 지리·지질, 농업, 축산 등 분야가 다양한데 본격적인 북남 대역사전이라고 하기에는 표제어 수가 많지 않다.

화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남측과 표기법이 달라서 형태가 달라진 어휘(예를 들면 ‘로동, 로인’ 같은 예), 둘째는 남측의 ‘벼락부자’와 북측의 ‘갑작부자’처럼 뜻은 같으나 어휘가 다른 어휘, 셋째는 ‘밥공장, 단작맛다’처럼 남쪽 사전에 대응어가 없는, 북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이들 세 유형 중 규범의 차이로 인해 문화어로 오른 표제어와, 뜻풀이는 같으나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북의 문화어로 오른 표제어는 모두 “대응하는 남쪽말”의 북쪽말”로 풀이되어 있다. 이렇게 남쪽의 대응어로 올린 표제어는 20,883항목이다.⁴⁾ 그런데 이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어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혼동을 준다.

가달 [명] [북] ‘가닥’의 북쪽말.

‘가달’은 북의 문화어로 남의 ‘가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북에서는 ‘가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 하면 <조대>에는 ‘가닥’도 표제어로 올라 있다. 그러나 위의 풀이만을 보면 ‘가닥’은 북의 문화어가 아닌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뜻풀이를 수정하고 관련 어휘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달 [명] [북] = 가닥. [동] 가닥. 가다리.

더 큰 문제는 북에서만 사용되는 표제어가 아닌데 북의 문화어로 올라 있는 표제어들이다.

가로등주 [명] [북]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기둥.

가루간장 [명] [북] 간장을 말리거나 고체 상태의 간장 원료들은 섞어서 가루 상태로 만든 간장.

가루소지 [명] [북]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덩어리 흙을 부수어서 만든 가루.

4) 이운영(2002:43) 참고. 직접 풀이된 것과 대응어로 들린 것이 혼합된 표제어 505항목까지 합하면 대응어로 들린 표제어는 모두 21,388항목이다.

매대 [명] [북] 상점에서 물건을 놓고 파는 자리.

위의 단어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검색된, 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위의 단어들은 북의 문화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위의 단어들을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제어로 사전에 올리는 것은 표제어 수록 원칙에 따라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북의 문화어로 올라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준>과 <조대>의 표제어를 비교해 보면 <조대>에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고어 표시 없이 꽤 올라 있는 듯하다. 이런 의심이 가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예들이다.

가경(假景) [명] [북] 거짓으로 꾸며진 정경.

가관노(假官奴) [명] [북] [역사] 관노비가 부족할 때 노비 대신 양인을 끌어다가 임시로 부리던 노예.

가기생(假妓生) [명] [북] 가짜 기생.

특히 ‘가관노’와 같은 역사 전문어는 북의 문화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용례 검색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3. 북남 대역사전의 목적과 집필

3.1. 북남 대역사전의 목적

북남 대역사전의 목적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앞서 밝힌 <표준>의 북쪽 표제어에 대한 수정, 보완이다. <표준>의 문화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표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남쪽 대역어의 추적이다. 사전 편찬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대역어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아주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각 전문 분야의 남북 통합 사전 편찬으로 대역어 추적이 좀 더 용이해진 면이 있다. 문제는 인터넷상의 텍스트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는 점과 인터넷을 통한 대역어 추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셋째는 남북 규범 통일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남북의 어문 규범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 규범의 일반적인 차이점은 여러 책에 설명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 축적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남북 표기법의 가장 큰 차이로 거론되는 사이시옷 표기 문제만 하더라도 발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의 문화어에는 발음 표시가 없고 남북이 같이 쓰이는 표제어에는 남쪽의 발음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의 발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대>를 펼쳐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사이시옷과 같은 표기법 자료뿐 아니라 문화어/표준어 자료 역시 남북 규범 통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북남 대역사전의 넷째 목적은 세종 계획에서 개발한 북남 정서법 변환기의 사전을 보충하는 것이다. 현재 북남 정서법 변환기는 300만 어절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사전이 보충되어야 변환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쪽의 텍스트에서 남쪽 대역어가 없는 표제항은 따로 뜻풀이까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2. 북남 대역사전의 집필

현재 위의 네 가지 목적을 가진 북남 대역사전 편찬을 위해 <표준>에 있는 7만여 개의 문화어 표제어를 대상으로 집필 작업을 하고 있다. <표준>이나 <조대>나 동·식물 전문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⁵⁾ 따로 분류를 하였고, 그 밖의 전문어도 따로 분류를 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의 북쪽말’로 풀이되어 있는 표제어도 따로 분류를

5) <표준>의 동물 영역 표제어는 11,695개, 식물 영역 표제어는 13,127개로 25,000개가 조금 못 된다.

하였는데 앞에서 지적한 잘못을 수정할 뿐 아니라 잘못된 대역어를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 외의 일반어 목록도 따로 분류하여 집필을 하고 있으며, 다의어는 대역어를 제시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⁶⁾ 역시 따로 분류를 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집필은 다음의 순서로 되어 있다.

#01문화어 표제어 #02문화어 원어 #03문화어 발음 #04문화어 활용 정보 #05문화어 품사 #06남쪽 대역어 #07남쪽 원어 #08풀이 #09대역어의 용례 #10대역어의 출전 #11문화어 어휘 정보 #12남쪽 어휘 정보 #13차이의 성격 #14비고

#11은 북의 문화어 어휘 정보로, 동의어, 순화어, 방언, 비규범어 등 <조대>에 실린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여 북쪽 어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역이다. #12는 남쪽 어휘 정보로 남쪽 대역어의 동의어 등을 기술하는데, 다음 예처럼 북쪽의 상징어와 음상과 의미가 비슷한 상징어를 제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01가굴가굴 #05「부」 #12(참)고불고불 #13어휘-상징

☞ 대응하는 남쪽 어휘가 없는 상징어는 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서 관련 있는 상징어를 표시

#13의 차이의 성격은 남북 언어의 차이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맞춤법/맞춤법-된소리/맞춤법-두음 법칙/맞춤법-모음/맞춤법-사이시옷/맞춤법-자음
동화/맞춤법-접미사/맞춤법-합성어/외래어
표준어/표준어-방언/표준어-순화/표준 발음
어휘-사회/어휘-상징/어휘-전문
의미-추가

6) 정서법 변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몇 개의 집필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1가내편의봉사원 #02家內便宜奉仕員 #05「명」 #13어휘-사회

☞ 사회나 체제의 차이로 말미암은 어휘 차이는 어휘-사회

#01가느스름하다 #03[---카-] #05「형」 #12(참)가느스름하다 #13어휘-상징

☞ 의성·의태 부사 및 상징 형용사는 어휘-상징

#01가까이하다 #05「동」(타) #08어느 지점에 접근하다. 차가 평양을 가까이하면서 속도를 늦추었다. #13의미-추가

☞ 형태는 남에서도 사용되나 북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 의미-추가

지금 현재의 작업은 사전을 만들기 이전의 자료 구축 단계이므로 사전의 모습은 현재 집필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남북 공동의 대역사전 집필

대역사전 집필을 위해서는 남북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남 대역사전이 절실한 만큼 남북 대역사전의 필요성도 절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쪽의 경우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쪽의 대역어를 찾는 과정은 우리말을 살려 쓰는 순화와 관련하여 남북이 모두 우리말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남북 학술 교류의 정례화와 남북 언어 협력 사업을 통하여 이와 같은 민족어 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문헌>

국립국어연구원(2001), 표준 국어 대사전 CD, 두산동아.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2002), 2002 한민족 언어 정보화 CD.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본부(2002), 북한 어휘 사전, 연합뉴스.
이운영(2002), 표준 국어 대사전의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국제 한자 코드 표준화 활동의 현황

이 준 석(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I. 머리말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자형의 복잡함으로 인해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다분히 구시대적인 문자로서 취급되었다. 그러던 한자가 컴퓨터가 보급되고, 고전 문헌의 전산화를 학술·문화의 기반 구축에서 중요한 척도처럼 여기게 되면서 전산화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전산화의 기초인 표준 코드의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80년대 초·중반에는 국가적인 표준 코드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8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 참여하여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 코드를 제정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글과 한자에 국제적인 표준 코드를 부여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로 중국과 일본의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인 표준 문자 코드를 제정하려는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국제적인 표준 코드를 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측은 우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80년대 중반까지 국제 표준화 무대에 모습을 보인 북측이 80년대 후반부터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 무대에서 모습이 사라졌고 국제 무대에서의 북측의 실종은 9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모든 전산 분야의 국제 표준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국제 표준은 우리의 표준을 중심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국제 표준화 기구에 북측이 처음 모습을 보

이기 시작하였는데, 남북의 문자와 관련한 국제 표준화 기구의 협의에서 북측은 2000년 3월 그리스에서 열린 WG2 회의에 처음 참석하였고, 한자와 관련해서는 남북의 만남은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제15차 회의(2000. 6. 중국 쿤밍)에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지는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의 활동과 북측이 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한자의 국제 표준 코드를 제정하기 위해 보였던 주요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남북측 전산 한자 통합의 전망과 과제를 점검해 보겠다.

II.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개요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1984년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TC97분과 위원회에서 국제 규격의 電算 符號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업 계획안을 확정하였고, 1988년 4월 이 기구 산하에 文字 符號 分科를 제2분과로 삼아 그 명칭을 다음과 같이 ISO/IEC/JTC1/SC2/WG2로 정하였는데 이때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 쓰이는 문자와 한자 문화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산 한자의 字數 등에 부여할 符號의 표준화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등도 세계 우수 컴퓨터 회사들의 연합(consortium)인 유니코드를 통해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세계 주요 문자를 모두 수록함으로써 전 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문자 표준 부호 체계의 제정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총회, 기술 위원회, 분야별 분과 위원회, 실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99년 5월 현재 기술 위원회 TC 169개, 분과 위원회 SC 645개, 실무 위원회 WG 1,738개 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한중일 삼국은 1991년 2월 서울에서 한자 특별 위원회 성격의 CJK-JRG(한중일의 Joint research group)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그해 7월에 도쿄에서 열린 CJK-JRG 제1차 회의에서 ISO 10646의 한자 부문에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표준 한자를 통합하여 배치하기

로 결정하였다.

5차에 걸친 CJK-JRG의 활동은 하와이 회의를 끝으로 1993년에 국제 표준화 기구의 정식 조직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해체되었고, WG2 산하의 정식 기구인 IRG(Ideographic Rapporteur Group)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출발 배경을 지닌 IRG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문자 정보 처리 분과(SC2)에 속하는 기구로서 회원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홍콩 등인데, 미국에서는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홍콩은 행정 부서인 ITSD(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Department)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한자 문화권의 상호 정보 교류 및 문화 발전을 위해 전산적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통의 코드 배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국제 표준 문자 부호 체계인 基本 多國語 平面(Basic Multilingual Plane)에 각국이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한자의 字體와 부호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끝내고, 제9차 난징 회의부터는 Plane2에 한자를 추가로 배치하려는 Plane2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제10차 호치밍 회의에서는 한자의 典據인 Source Set이 제출되었고, 제11차 도쿠시마 회의에서 일본을 제외한 한국, 베트남, 대만, 홍콩은 BMP에 올라 있지 않은 한자들을 제안하였고, 중국은 강희자전과 한어대자전을 통합한 Super CJK를 제안하였다. 한자 문화권의 각국이 제안한 4만여 자의 한자들을 통합하여 배열하려는 노력이 제12차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현재 19차 회의(2002. 5. 마카오)까지 IRG에서는 Super CJK 14.0 버전의 70,205자의 한자 배열에 대한 검토와 Ext. C1에 한자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III.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의 연혁 및 활동

다음은 지금까지 CJK-JRG와 IRG가 활동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 제1차 CJK-JRG 회의 1991.7
(일본 Tokyo)
- Ideographic CJK character 통합 필요성에 합의
 - 일본이 제의한 3-dimensional Conceptual Model에서 Y-축의 문자를 통합함을 기본 rule로 함.
 - X: ideographic character (字種)
 - Y: ideographic forms (字體)
 - Z: type face difference (字形)
 - 중국이 제의한 HCS-A 2.1(Han Character Set Level A Version 2.1)을 통합자료 논의의 기본으로 함.
 - 문자 배열의 일반 원리는 중국이 제의한 안에 따름
- 제2차 CJK-JRG 회의 1991.9
(중국 북경)
- Unification/Classification Rule 토의, 합의
 - KS 오류 수정
 - KS C 5601-1989 誤字 2 수정 (岫수, 駁양)
 - KS 확장 코드와 기존 코드와의 중첩자 8자 수정
- 제3차 CJK-JRG 회의 1991.11
(홍콩)
- CJK-JRG Version 1.0 최종안 결정 - 1991. 12. 1일자
 - ISO/IEC JTC1/SC2/WG2에 'Unified Ideographic CJK Character Repertoire and Ordering V.1.0'과 'Explanatory Note'를 제출
 - Maintenance 방법 결정
 - AFII가 ISO/IEC 10646 인쇄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font data 요청
- 제4차 CJK-JRG 회의 1992.3
(서울)
- CJK V.1.0의 오류 수정, 제작성 (1992.5.15) --> V.2.0으로 명명
 - V.2.0을 DIS 10646-1.2에 반영 --> 반영 후 투표 예정
 - 추가 한자 세트에 대한 의견 검토 -- 한국, 중국, 홍콩, 대만 긍정적, 일본 관망
- 제5차 CJK-JRG 회의 1992.11
(하와이)
- 한국 추가 한자(KHC-A, KHC-B) 세트 제안
 - Vietnam 추가 한자안 제안

제1차 IRG 회의 (일본 후쿠오카)	1993.10	• CJK-JRG를 IRG로 편성 의결 - 한중일 찬성 - Rappatour: Shigenobu Kato(일본) - Editor: 중국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확장안 제출: 총 27,069자
제2차 IRG 회의 (베트남 하노이)	1994.2	• 확장 세트 편성 합의 • 통합 규칙 재심의 • 베트남 한자를 포함하기로 결정 • UCS Annex-1 편찬 합의 (분과 위원장: 일본 Adio Kido)
제3차 IRG 회의 (중국 북경)	1994.8	• 보완용 한자 세트 확정: 10월 초까지 완성 • 추가용 한자 세트는 분류 범주(Category)를 표시하여 중국 측에 송부: 1995년 11월까지 • 중국 측 조합형 한자 제안하고 이를 논의 • 이체자 목록 편찬에 대한 중국 측 제의 논의
제4차 IRG 회의 (대만 타이페이)	1995.3	• 베트남 한자 추가(HS): V-column • IS/HS, VE 일정 합의 • 한자 구성소(component) 및 조합(composition) 정의
제5차 IRG 회의 (한국 서울)	1995.8	• VE Level I, II, III 규모 결정 • VE core 영영 확정 • Annex 개정 준비 • 구성소(component)를 BMP에 위치 • 각국이 구성소 세트를 제출하기로 의결
제6차 IRG 회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1996.2	• 구성소 판정 기준 설정 • VE 범주(categorization): Level I, II, III

제7차 IRG 회의 (홍콩)	1996.6	• VE Level I, II, III을 VE Extension A, B, C로 改名 • WG2에 VE Extension A를 UCS에 포함하고 BMP에 위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함. • IS/HS, Clause 26, Annex S, VE Extension A에 대한 Annex 및 설명을 WG2에 제출 • 조합 한자용 結構文字, 部首, 構成素, Variation Mark를 WG2에 제출
제8차 IRG 회의 (중국 남경)	1997.1	• VE Extension A BMP 배치안 재확인 • VE Extension A HQP 계획 • IS HQP 2.0 교정 • Annex S 초안 Editor: Jenkins • Component/Composition Scheme에 한국 Component 추가
제9차 IRG 회의 (중국 남경)	1997.5	• IS, HS HQP 4.0으로 교정 완료 • 추가 한자 A 정정 완료 • UCS Plane 2 프로젝트 출범 - source set 제출: 제10차 IRG 회의까지 (1997년 12월 15일) - 최종안 작성: 제11차 IRG 회의까지 (1998년 3월경) - 24×24 폰트 제출 - 전거는 제한 없음 (예상) 중국(3,000여 자), 대만(660여 자), 일본(2,000~5,000자), 홍콩(1,121자) • 부수 추가안 및 명칭 심의: 6월 10일까지 필요 부수 제출하기로 함 • Components/Composition Scheme 연구 계획 확정: WG2에 승인 요청
제10차 IRG 회의 (베트남 호치밍)	1997.12	• 추가 한자 A 자형 정정 • UCS Plane 2 Source Set 제출 - 전거는 제한 없음 • 부수 추가안 및 명칭 확정 • Components/Composition Scheme 연구 계획 WG2에서 승인

제11차 IRG 회의 (일본 도쿠시마)	1998.5	• 추가 한자 A 정정 • UCS Plane 2 프로젝트 Ext. B 한자 제출 (한국 278자 홍콩 290 대만 8,744 베트남 4,127 중국 강희자전과 한어대자전을 통합한 Super CJK 제안)
제12차 IRG 회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1998.5	• UCS Plane 2 프로젝트 진행 Super CJK 4.0과 Ext. B 2.0의 검토 (한국 168자 코드 배열)
제13차 IRG 회의 (홍콩)	1999.5	• UCS Plane 2 프로젝트 진행 Super CJK 5.0과 Ext. B 3.0의 검토 추가로 Ext. B에 한자 배열 논의 (중국, 일본, 홍콩이 14차 회의에서 제안할 것임.) 중국이 팔괘의 추가 배치를 제안했으나 거부됨.
제14차 IRG 회의 (싱가포르)	1999.12	• UCS Plane 2 프로젝트 진행 Super CJK 9.0과 Ext. B의 검토 추가로 Ext. C 한자 배열 논의 (15차 회의에서 Ext. C 한자 제안할 예정임.)
제15차 IRG 회의 (중국, 쿤밍)	2000.6	• UCS Plane 2 프로젝트 진행 Super CJK 10.0과 Ext. B의 검토 추가로 Ext. C 한자 제출(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북측) 북측 회원 자격 획득, 북측 독자의 칼럼을 요구했으나 거부됨.
제16차 IRG 회의 (한국, 서울)	2000.12	• UCS Plane 2 프로젝트 진행 Super CJK 12.0과 Ext. B의 검토 추가로 Ext. C 한자 제출(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북측)

제17차 IRG 회의 (중국, 홍콩)	2001. 6	• UCS Plane 2 프로젝트 진행 추가 한자 Ext. B(UCS/Plane2) WG2 제출본 완성 Super CJK 13.0. 추가 한자 Ext. C 한국 23,385자 제출. 마카오 회원국으로 등록. (북측 참석)
제18차 IRG 회의 (일본, 동경)	2001. 12	• UCS Plane 2 프로젝트 진행 추가 한자 Ext. B(UCS/Plane2) WG2 최종 제출본 완성 Super CJK 14.0. 추가 한자 Ext. C1의 제출 기준 확정 • UCS Plane 2 프로젝트 진행
제19차 IRG 회의 (중국, 마카오)	2002. 5	추가 한자 Ext. C1 4,073자 제출 • UCS Plane 2 프로젝트 진행
제20차 IRG 회의 (베트남, 하노이)	2002. 11	Basic Subset 협의, 제출 기준 확정

IV. 전산 한자 표준 코드 배열 작업과 통합(Super CJK) 작업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에서 배열을 완료한 ISO 10646-1과 첫 번째 추가 한자(Ext. A)의 구성과 각국별 제출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6년 6월 홍콩에서 열린 제7차 IRG 회의에서는 추가 한자를 ISO/IEC 10646(UCS)의 BMP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 합의가 있었다. 전문위원회(IRG)에서는 첫 번째 추가 한자(CJK Unified Ideograph Extension A v.1.0)가 아래의 이유로 UCS에 포함되어야 하고 BMP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 합의가 있었으며, 계속되는 추가 한자는 B, C로 표시해서 UCS의 향후 버전에 포함하는 것을 WG2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때에 제정한 국가 간 표준 코드 제정을 위한 통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국가에서 국가 표준이나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
- ② 각 국가에서 비표준이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자
- ③ 1개 회원 국가 이상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
- ④ 효율적인 한자 자료 처리에 필요한 최소 한자 세트
- ⑤ 기본 다국어 평면(BMP)에 추가 한자 A를 포함함
- ⑥ 추가 한자 A 이외에 평면(BMP) 공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첫 번째 추가 한자가 기본 다국어 평면(BMP)에 영역을 차지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니코드 측을 제외하고는 반대가 없었으나 제31차 WG2 회의 이후에는 유니코드 측에서도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IRG는 이들 한자에 대한 표준화 작업 가운데 첫 번째 추가 한자는 Ext. A로서 ISO 10646-1(1999)에 포함시켜 완성하였고, 1998년 5월 제11차 IRG 회의 때부터 시작된 Ext. B 작업은 최근에 완성하였으며, Ext. C 작업은 제17차 홍콩 IRG 회의에서 정식으로 출발하였다.

추가 한자(Extension A, B, C)의 배열 경위를 살펴보면 추가 한자는 새로운 부호 영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완 한자(IS, HS)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BMP(Basic Multilingual Plane)에는 총 65,536개의 문자 배열이 가능한 코드 공간 가운데 한자는 약 32%를 차지하면서 한글 17%와 함께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회원국에서 제출한 추가 한자를 모두 UCS에 반영하는 방향보다는 제출된 추가 한자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6,000여 자를 UCS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즉, BMP 영역 가운데 0x3400~0x3DFF의 6,566자를 추가 한자(VE)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각국이 제출한 추가 한자를 수준(Level) I, II, III으로 구분하고 수준 I은 기본 다국어 평면(BMP)에 배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는데, 제7차 IRG 회의(1996년 6월, 홍콩)에서 추가 한자에 대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UCS에서 적용 수준(Implementation Level)을 구분할 때 수준(Lev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었는데, 추가 한자의 각 수준은 Extension A, B, C로 하기로 하였다.

추가 한자 A에 대한 선정 기준은 제6차 IRG 회의(1996년 2월, 미국)에서 결정되었

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 ① 확장 한자로 제출한 각 회원 국가의 한자 가운데 범주 A(category A)로 구분되는 한자
- ② ISO/IEC 10646-1 부록에 표시된 한자 근거 세트가 포함하는 한자
- ③ 최소 2개 국가에서 제출된 한자
- ④ 특정 국가 고유의 한자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는 한자
 - 국가 표준 규격인 경우
 - 공적 파일에 문서화 된 경우
 - 현대 사전에 존재하는 경우
 - IT 공급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통합의 실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추상적 형태가 다른 예 (분리)

1 이러한 방법의 통합, 분리, 배열 규칙은, 일본 인쇄 산업 연합의 「이체자 판별 원칙」에 관한 보고서(1985년)와 일본 규격 협회에서 설치한 문자 폰트 개발 보급 센터의 「이체자 연구」 과제(1991년)를 통해 정리된 3차원 개념 모델(3-Dimensional Conceptual Model)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a) 구성소 개수가 상이 崖·厓, 肱·肱, 降·夆	(b) 구성소의 상대적 위치가 상이 峰·峯, 荊·荊																								
(c) 대응 구성소의 구조가 상이 <table> <tr> <td>扌·擴</td> <td>策·箭</td> <td>𠂇·𠂇</td> <td>𠂇·𠂇</td> </tr> <tr> <td>𠂇·𠂇</td> <td>𠂇·𠂇</td> <td>夾·夾</td> <td>𠂇·𠂇</td> </tr> <tr> <td>𠂇·𠂇</td> <td>𠂇·𠂇</td> <td>贊·贊</td> <td>𠂇·𠂇</td> </tr> <tr> <td>𠂇·𠂇</td> <td>𠂇·𠂇</td> <td>朶·朶</td> <td>𠂇·𠂇</td> </tr> <tr> <td>恒·恆</td> <td>奐·奐</td> <td>𠂇·𠂇</td> <td>𠂇·𠂇</td> </tr> <tr> <td>𠂇·𠂇</td> <td>𠂇·𠂇</td> <td>𠂇·𠂇</td> <td>𠂇·𠂇</td> </tr> </table>		扌·擴	策·箭	𠂇·𠂇	𠂇·𠂇	𠂇·𠂇	𠂇·𠂇	夾·夾	𠂇·𠂇	𠂇·𠂇	𠂇·𠂇	贊·贊	𠂇·𠂇	𠂇·𠂇	𠂇·𠂇	朶·朶	𠂇·𠂇	恒·恆	奐·奐	𠂇·𠂇	𠂇·𠂇	𠂇·𠂇	𠂇·𠂇	𠂇·𠂇	𠂇·𠂇
扌·擴	策·箭	𠂇·𠂇	𠂇·𠂇																						
𠂇·𠂇	𠂇·𠂇	夾·夾	𠂇·𠂇																						
𠂇·𠂇	𠂇·𠂇	贊·贊	𠂇·𠂇																						
𠂇·𠂇	𠂇·𠂇	朶·朶	𠂇·𠂇																						
恒·恆	奐·奐	𠂇·𠂇	𠂇·𠂇																						
𠂇·𠂇	𠂇·𠂇	𠂇·𠂇	𠂇·𠂇																						

(2) 실제 형태(actual shape)가 다른 예 (통합)

成·成，
 會·曾，
 單·內，
 爲·專，
 食·食，
 食·包，
 食·爭，
 食·者，
 食·呂，
 食·眞

회전된 자획과 점으로 상이	자획의 시작과 끝에서 상이
半・半, 勻・勻, 羽・羽・羽, 酋・酋, 兼・兼, 益・益	身・身, 雪・雪, 拐・拐, 不・不, 非・非, 周・周, 告・告

자획의 접점이 상이 奥·奥, 酉·酉, 兕·兕, 查·查, 奔·奔	자획의 겹친 구석에서의 돌출이 상이 巨·巨
구부러진 자획이 상이 西·西	자획의 끝에서 비침이 상이 朱·朱
자획의 시작에서 강조 형식이 상이 父·父, 丈·丈, 夂·夂	갓머리의 모양이 상이 八·八, 宀·宀
상기 상이한 사항의 복합적인 형태 刃·刃·刃	

(3) 국가 표준 분리 규칙(Source code separation Rules)에 따라 분리하는 한자 예(분리)

丟丟 4E1F 4E22	T	兗兗 5156 5157	T	俣俣 4FC1 4FE3	TJK	刪刪 5220 522A	T
么么 4E48 5E7A	GT	冊冊 518A 518C	TJ	兪兪 4FDE 516A	T	別別 5225 522B	T
争爭 4E89 722D	GTJ	净淨 51C0 51C8	G	俱俱 4FF1 5036	T	券券 5238 5235	T

이러한 기준에 따라 ISO 10646-1에 제출된 각국의 한자와 첫 번째 추가 한자(Ext. A)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IS/HS	보완 한자 수	전체 한자 수	비고
중국	IS	3,778	20,902	GB16500
대만	IS	1,108	18,363	T1, T4, T5, T6, T7, TF
일본	IS	0	12,157	
한국	IS	7,912	15,388	K2(KHC 2.1)
베트남	HS	582	582	※3,288자 최종 제출

각국의 보완 한자/수평적 보완 한자-중간 자료 (제4차 IRG 회의 자료 IRG N172)

추가 한자(Ext. A)의 제출 현황

국가 (Set)	제출 (Submitted)	추가 한자 A (Extension A)	통합 (unified)	고유 (unique)	비고 (Remarks)
중국(G)	6,709	3,737	3,551	186	Unified VE Core = 2,147자 (G/T/J/K/S/V 가운데 2 개 이상 공통인 경우를 Core라 함.) * 35개 S 한자는 G에 존 재하는 관계로 삭제
대만(T)	3,116	5,807	4,460	1,347	
일본(J)	679	661	569	92	
한국(K)	2,149	1,834	1,552	282	
베트남(V)	1,775	128	128	0	
싱가포르(S)	312	227*	58	169	
합계	14,740	6,585	4,509	2,076	

(1996년 7월 9일 Tateo Koike 자료)

기본 다국어 평면2에 한자를 배열하여 국제적인 표준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은 처음에 각국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용적인 한자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인터넷의 보급과 각국의 IT 산업의 발달, 중국의 문헌 전산화 등의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기본 다국어 평면(BMP)에 첫 번째 추가 한자를 포함하여 총 27,484자의 한자만으로는 한자 문헌을 전산화하면서 발견되는 다양한 종류의 한자들을 전산 처리하기에는 적은 숫자였다.

물론 기본 다국어 평면에 등재된 한자를 기본자로 하고, 기본자에 대응되는 이체자의 한자들에 표준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글자꼴을 이미지로 처리하여 기본자 중

심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체자들을 처리하면 이체자들을 교감(校勘)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전산화 작업이 느려질 수 있고, 원전의 문헌에서 사용된 대로 한자의 자형을 검색하지 못하므로 전산화의 효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박제화된 고전 문헌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기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한자의 자형을 원전에 실린 대로 살려서 전산화하는 방법이 전산화의 한 방법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처음에는 이러한 원전의 자형대로 전산화하는 방법 대신에 자신들이 전산화한 사고전서의 전산화 방법대로 기본 다국어 평면에 등재된 27,484의 한자를 기본으로 하고 이체자들은 이들 기본자를 중심으로 이미지 파일로 처리하여 전산화하는 방법을 주장하였으나 한자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때문이었는지 1998년 일본의 도쿠시마에서 열린 11차 IRG 회의에서부터 한자를 통합해서 국제적인 표준 코드를 부여하는 Super CJK 작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한자 문화권의 한자들을 전산적으로 통합하여 공통의 표준 코드를 부여하겠다는 프로젝트는 자연히 회원국들이 출판되거나 인쇄된 모든 한자들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혔다. 따라서 강희자전의 한자와 한어대자전의 한자, ISO 10646-2의 기본 다국어 평면의 한자 27,484자, 이외에 각국에서 제안한 한자들을 통합한 Super CJK 70,205자의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통합 한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ISO/IEC 10646-1(1993)의 한자 20,902자 가운데 20,890자
2. ISO/IEC 10646-1 pDAM 17의 Extesion A의 한자 6,582자 가운데 5,830자
3. 강희자전의 한자 42,267자
4. 한어대자전의 한자 54,780자

다음 표는 이러한 통합 한자를 기초로 두 번째 추가 한자(Ext. B)를 완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통합 한자(Super CJK)의 현황이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베트남	홍콩	합계
한중일 통합 한자 (Super CJK 14.0)	57,623	54,452	13,119	17,392	9,299	1,101	70,205
두 번째 추가 한자 (Ext. B)	30,527	30,177	302	166	4,232	1,081	42,711

현재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에서는 세 번째 추가 한자(Ext.C)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은 고려대장경을 전산화하면서 발견된 한자들과 서울대학교의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추진위원회 등에서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일차로 발견되어 정리된 신출 한자들 4,073자에 표준 코드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V. 북측의 통합 작업 참가와 독자적인 배열란의 제안

북측은 2000년 3월 WG2 회의와 그해 6월에 중국 쿤밍에서 열린 제15차 회의에 처음 참석하여 회원국으로 승인받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15차 회의에서 북측은 독자적인 한자의 배열란을 요구하였다. ISO 10646의 배열이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베트남의 한자를 배열하고 있는 것에 추가로 북측의 한자를 배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서 이러한 요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한자 배열이 중국, 대만, 홍콩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배열에서 남북의 독자적인 한자 코드가 각각 올라가고, 남북의 한자 자형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었고, 국제 사회의 여론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15차 IRG 회의에서 북측의 독자적인 배열란의 요구는 좌절되었다. 다만 Ext.B에 추가할 한자의 제출만이 인정되었고, 독자적인 배열란을 부호계에 추가로 배열하는 문제는 상위(上位) 위원회(SC2/WG2)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결정이 유보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어려웠다. 통과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미 기존의 배열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 그러면서도 실제의 이익은 거의 없는 노력에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동의할 리가 없었고, 한중일 통합 작업

(Super CJK)이 진행되면서 각국의 독자적인 배열란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북측의 국가 코드 부호가 표기되도록 조정되었다.

이때 북측은 총 24,127자의 한자를 제안하였는데 14,938자의 한자는 기본 다국어 평면의 기본자에 배열하기를 희망하였고, 3,181자의 한자는 첫 번째 추가 한자로, 5,669자의 한자는 두 번째 추가 한자(Ext. B)로, 339자의 한자는 세 번째 추가 한자(Ext. C)로 배열하기를 희망하였다. 북측이 한자를 제출하면서 전거(典據, source set)로 제출한 목록은 31책으로 다음과 같다.

1. 새옥편(1963. 과학원출판사)
2. 東國正韻
3. 奎章全韻
4. 全韻玉篇
5. 訓蒙字會
6. 三國史記
7. 三國遺事
8. 高麗史
9. 李朝實錄
10. 備邊司謄錄
11. 大典會通
12. 六典條例
13. 萬機要覽
14. 通文館志
15. 大東野乘
16. 五洲衍文長箋散稿
17. 牧民心書
18. 新增東國輿地勝覽
19. 古今釋林
20. 韓漢清文鑑
21. 吏文輯覽
22. 八萬大藏經
23. 月印釋譜
24. 七政算

- 25. 九數略
- 26. 九章術解
- 27. 東醫寶鑑
- 28. 鄉藥集成方
- 29. 醫方類聚
- 30. 農事直說
- 31. 增補山林經濟

이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두 남측의 문헌과 일치한다. 이 문헌에 나온 한자들 가운데 어떤 자형을 표준으로 하는가는 별개로 하지만 일단 발견된 자종은 우리도 제안할 수 있는 한자의 자종이다. 다음은 북측에서 이들 전거 목록에서 찾아서 제안한 한자의 목록이다.

Proposed
Ideograph

慈 心 1-5C2E
 滛 水 1-5C2F
 通 田 1-5C30
 瞋 目 1-5C32
 眦 肉 1-5C33
 蘋 艸 1-5C34
 甬 一 1-7EC5
 魚 一 1-7EC6
 𩺰 丨 1-7EC7
 𩺱 丿 1-7EC8
 𩺲 乙 1-7EC9
 况 二 1-7ECA
 内 人 1-7ECB
 全 人 1-7ECC
 你 人 1-7ECD
 養 人 1-7ECE
 佣 人 1-7ECF
 僦 人 1-7ED0
 僦 人 1-7ED1
 僦 人 1-7ED2
 充 儿 1-7ED3
 𩺴 冂 1-7ED4
 梁 一 1-7ED5
 効 力 1-7ED7
 𩺶 匚 1-7ED8
 𩺷 匚 1-7ED9
 𩺸 十 1-7EDA
 𩺹 卩 1-7EDB
 廌 厂 1-7EDC
 𩺻 口 1-7EDD
 盆 口 1-7EDE
 𩺽 口 1-7EDF
 𩺾 口 1-7EE0
 喝 口 1-7EE1
 𩺿 口 1-7EE2
 嗜 口 1-7EE3
 𩺻 口 1-7EE4
 𩺼 口 1-7EE5
 𩺽 口 1-7EE6
 𩺾 口 1-7EE7
 𩺿 土 1-7EE8
 𩺻 土 1-7EE9
 奄 大 1-7EEA
 𩺼 大 1-7EEB
 𩺽 大 1-7EEC
 𩺾 大 1-7EED
 𩺿 女 1-7EEE
 𩺻 女 1-7EEF
 𩺼 女 1-7EFO

Proposed
Ideograph

𩺻 女 1-7EF1
 𩺼 女 1-7EF2
 𩺽 女 1-7EF4
 𩺾 宀 1-7EF5
 𩺿 寸 1-7EF6
 𩺻 寸 1-7EF7
 𩺼 小 1-7EF8
 𩺽 九 1-7EFA
 𩺾 山 1-7EFB
 𩺿 山 1-7EFC
 𩺻 山 1-7EFD
 𩺼 山 1-7EFE
 𩺽 己 1-7EFF
 𩺾 己 1-7F00
 𩺿 巾 1-7F01
 𩺻 巾 1-7F02
 𩺼 巾 1-7F03
 𩺽 巾 1-7F04
 𩺾 广 1-7F05
 𩺿 广 1-7F06
 𩺻 广 1-7F07
 𩺼 弓 1-7F08
 𩺽 彡 1-7F09
 𩺾 彡 1-7F0A
 𩺿 彡 1-7F0B
 𩺻 心 1-7F0C
 𩺼 心 1-7F0D
 𩺽 心 1-7F0E
 𩺾 心 1-7F0F
 𩺿 心 1-7F10
 𩺻 心 1-7F11
 𩺼 心 1-7F12
 𩺽 心 1-7F13
 𩺾 心 1-7F14
 𩺿 心 1-7F15
 𩺻 心 1-7F16
 𩺼 心 1-7F17
 𩺽 戈 1-7F18
 𩺾 戈 1-7F19
 𩺿 戈 1-7F1A
 𩺻 手 1-7F1B
 𩺼 手 1-7F1C
 𩺽 手 1-7F1D
 𩺾 手 1-7F1E
 𩺿 手 1-7F1F
 𩺻 手 1-7F20
 𩺼 手 1-7F21
 𩺽 手 1-7F22
 𩺾 手 1-7F23

Proposed
Ideograph

𩺻 支 1-7F24
 𩺼 支 1-7F25
 𩺽 支 1-7F26
 𩺾 支 1-7F27
 𩺿 支 1-7F28
 𩺻 支 1-7F29
 𩺼 文 1-7F2A
 𩺽 文 1-7F2B
 𩺾 文 1-7F2C
 𩺿 斤 1-7F2D
 𩺻 方 1-7F2E
 𩺼 方 1-7F2F
 𩺽 方 1-7F30
 𩺾 日 1-7F31
 𩺿 日 1-7F32
 𩺻 木 1-7F33
 𩺼 木 1-7F34
 𩺽 木 1-7F35
 𩺾 木 1-7F36
 𩺿 木 1-7F37
 𩺻 木 1-7F38
 𩺼 木 1-7F39
 𩺽 木 1-7F3A
 𩺾 木 1-7F3B
 𩺿 木 1-7F3C
 𩺻 木 1-7F3D
 𩺼 木 1-7F3E
 𩺽 木 1-7F3F
 𩺾 木 1-7F40
 𩺿 木 1-7F41
 𩺻 木 1-7F42
 𩺼 木 1-7F43
 𩺽 木 1-7F44
 𩺾 木 1-7F45
 𩺿 木 1-7F46
 𩺻 欠 1-7F47
 𩺼 欠 1-7F48
 𩺽 止 1-7F49
 𩺾 止 1-7F4A
 𩺿 歹 1-7F4B
 𩺻 歹 1-7F4C
 𩺼 歹 1-7F4D
 𩺽 殳 1-7F4E
 𩺾 毛 1-7F4F
 𩺿 水 1-7F50
 𩺻 水 1-7F51
 𩺼 水 1-7F52
 𩺽 水 1-7F53
 𩺾 水 1-7F54

滂水 1-7F55
 滂水 1-7F56
 滂水 1-7F57
 滂水 1-7F58
 滂水 1-7F59
 滂水 1-7F5A
 滂水 1-7F5B
 滂火 1-7F5C
 滂火 1-7F5D
 滂火 1-7F5E
 滂火 1-7F5F
 滂火 1-7F60
 滂火 1-7F61
 滂火 1-7F62
 滂爪 1-7F63
 滂爻 1-7F64
 滂牛 1-7F65
 滂牛 1-7F66
 滂犬 1-7F67
 滂玉 1-7F68
 滂玉 1-7F69
 滂瓜 1-7F6A
 滂瓦 1-7F6B
 滂瓦 1-7F6C
 滂瓦 1-7F6D
 滂瓦 1-7F6E
 滂瓦 1-7F6F
 滂田 1-7F70
 滂田 1-7F71
 滂田 1-7F72
 滂广 1-7F73
 滂广 1-7F74
 滂白 1-7F75
 滂白 1-7F76
 滂皿 1-7F77
 滂皿 1-7F78
 滂目 1-7F79
 滂目 1-7F7A
 滂目 1-7F7B
 滂目 1-7F7C
 滂目 1-7F7D
 滂目 1-7F7E
 滂目 1-7F7F
 滂石 1-7F80
 滂石 1-7F81
 滂石 1-7F82
 滂示 1-7F83
 滂肉 1-7F84
 滂禾 1-7F85

稷禾 1-7F86
 稷禾 1-7F87
 稷禾 1-7F88
 稷禾 1-7F89
 稷禾 1-7F8A
 稷穴 1-7F8B
 稷穴 1-7F8C
 稷竹 1-7F8D
 稷竹 1-7F8E
 稷竹 1-7F8F
 稷竹 1-7F90
 稷米 1-7F91
 稷米 1-7F92
 稷系 1-7F93
 稷系 1-7F94
 稷系 1-7F95
 稷系 1-7F96
 稷系 1-7F97
 稷系 1-7F98
 稷系 1-7F99
 稷系 1-7F9A
 稷系 1-7F9B
 稷系 1-7F9C
 稷系 1-7F9D
 稷缶 1-7F9E
 稷耳 1-7F9F
 稷色 1-7FA0
 稷色 1-7FA1
 稷艸 1-7FA2
 稷艸 1-7FA3
 稷艸 1-7FA4
 稷艸 1-7FA5
 稷艸 1-7FA6
 稷艸 1-7FA7
 稷艸 1-7FA8
 稷艸 1-7FA9
 稷艸 1-7FAA
 稷艸 1-7FAB
 稷艸 1-7FAC
 稷艸 1-7FAD
 稷艸 1-7FAE
 稷虫 1-7FAF
 稷虫 1-7FB0
 稷虫 1-7FB1
 稷虫 1-7FB2
 稷虫 1-7FB3
 稷虫 1-7FB4
 稷虫 1-7FB5
 稷虫 1-7FB6

衡行 1-7FB7
 衡行 1-7FB8
 衡行 1-7FB9
 衡衣 1-7FBA
 衡衣 1-7FBB
 衡衣 1-7FBC
 衡衣 1-7FBD
 衡角 1-7FBE
 衡言 1-7FBF
 衡言 1-7FC0
 衡言 1-7FC1
 衡言 1-7FC2
 衡言 1-7FC3
 衡言 1-7FC4
 衡言 1-7FC5
 衡言 1-7FC6
 衡言 1-7FC7
 衡言 1-7FC8
 衡言 1-7FC9
 衡豕 1-7FCA
 衡豕 1-7FCB
 衡貝 1-7FCC
 衡貝 1-7FCD
 衡貝 1-7FCE
 衡貝 1-7FCF
 衡走 1-7FD0
 衡走 1-7FD1
 衡走 1-7FD2
 衡足 1-7FD3
 衡足 1-7FD4
 衡足 1-7FD5
 衡足 1-7FD6
 衡身 1-7FD7
 衡車 1-7FD8
 衡車 1-7FD9
 衡車 1-7FDA
 衡走 1-7FDB
 衡走 1-7FDC
 衡走 1-7FDD
 衡邑 1-7FDE
 衡邑 1-7FDF
 衡邑 1-7FE0
 衡西 1-7FE1
 衡金 1-7FE2
 衡金 1-7FE3
 衡金 1-7FE4
 衡金 1-7FE5
 衡金 1-7FE6
 衡金 1-7FE7
 鐻金 1-7FE8
 鐻金 1-7FE9
 鐻門 1-7FEA
 鐻門 1-7FEB
 鐻阜 1-7FEC
 鐻阜 1-7FED
 鐻隹 1-7FEE
 鐻青 1-7FEF
 鐻面 1-7FF0
 鐻革 1-7FF1
 鐻革 1-7FF2
 鐻韋 1-7FF3
 鐻韋 1-7FF4
 鐻頁 1-7FF5
 鐻頁 1-7FF6
 鐻頁 1-7FF7
 鐻食 1-7FF8
 鐻馬 1-7FF9
 鐻馬 1-7FFA
 鐻馬 1-7FFB
 鐻馬 1-7FFC
 鐻骨 1-7FFD
 鐻骨 1-7FFE
 鐻影 1-7FFF
 鐻影 1-B000
 鐻鬼 1-B001
 鐻鬼 1-B002
 鐻魚 1-B003
 鐻魚 1-B004
 鐻魚 1-B005
 鐻魚 1-B006
 鐻鳥 1-B007
 鐻鳥 1-B008
 鐻鳥 1-B009
 鐻鳥 1-B00A
 鐻鳥 1-B00B
 鐻麥 1-B00C
 鐻鼓 1-B00D
 鐻鼓 1-B00E
 鐻齊 1-B00F
 鐻齒 1-B010
 鐻刀 1-7ED6
 鐻女 1-7EF3
 鐻小 1-7EF9
 鐻龜 1-B011

VI. 전망과 대책

북측이 제안한 한자와 우리 측이 제안한 한자에는 그 특성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전거의 차이나 한자 자종의 차이라기보다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던 데에서 오는 차이라 할 것이다. 우리 측이 제안한 한자들은 대개가 한자 전산화 과정에서 발견된 이체자들이다.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나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발견된 신출 한자들로써 특이한 형태의 이체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북측은 그들의 사정상 전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된 한자의 자종은 각국이 이미 제출한 한자들과 중복되어 통합(unified)이 불가피한 한자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물론 우선순위의 문제로 그들만이 제안한 한자도 없지 않으나 우리 측에서 제안한 한자들과 중복되는 한자들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측이 제안한 한자들을 우리 측의 코드 체계에 편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남북의 한자 자형을 통일하기 위해 협의를 제안한다면 남북 전산 한자의 통일적 통합이 가능하리라 보고 본다.

현재 북측은 평양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글꼴을 개발해 나가는 상황이다. 한자를 제안할 때는 반드시 폰트라는 컴퓨터에서 쓰이는 글꼴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 역시 필연적으로 평양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표준 자형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남북이 전산 자형을 통일하고 통일된 자전을 편찬하기 위해 교류를 시도하는 것도 남북의 격차를 줄이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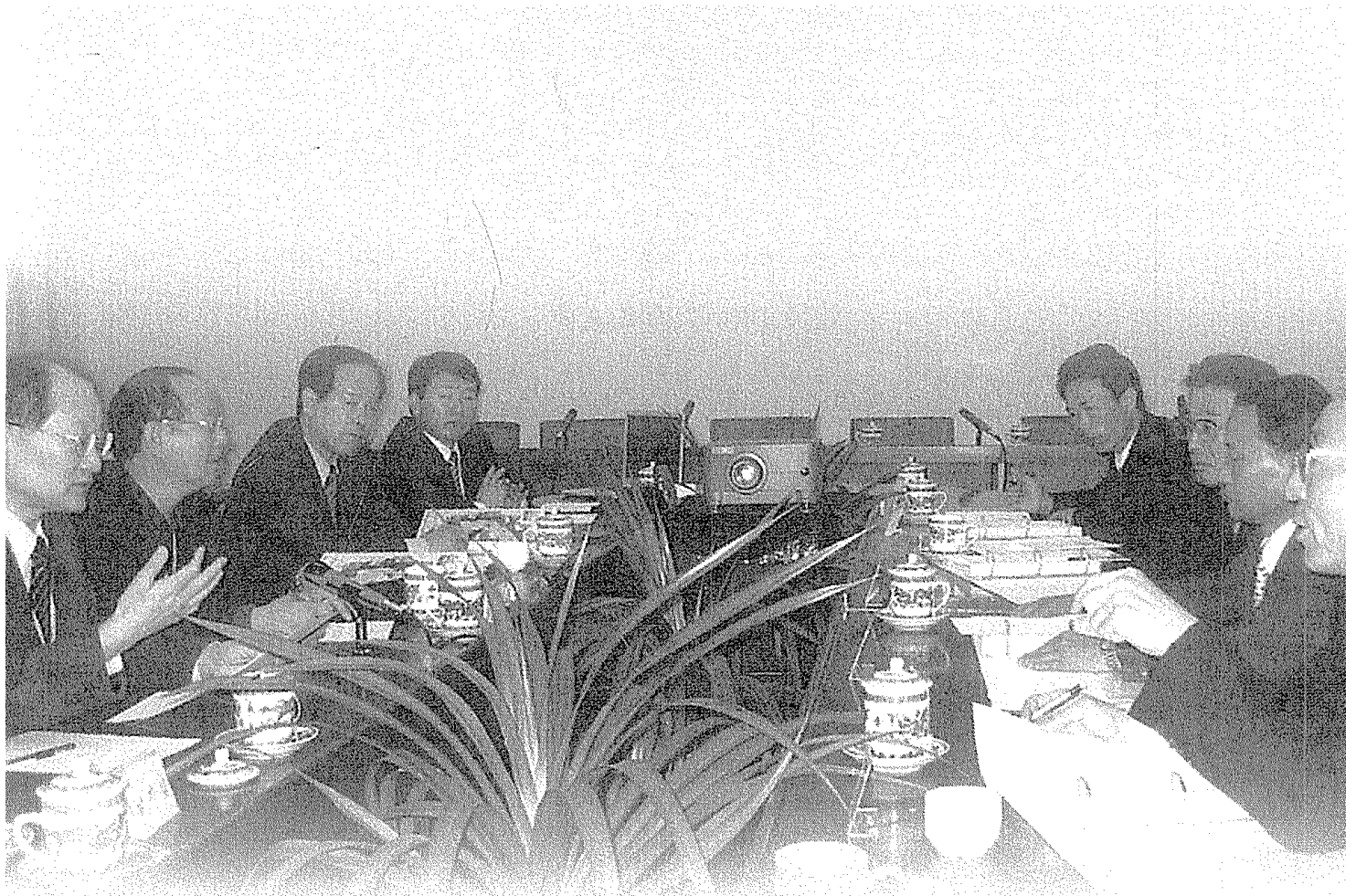
그리고, 전산 한자의 코드 표준화는 서로 다른 문자 코드로 인해 정보 교환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문자 코드 표준화가 완성되면 향후 한자 문화권 국가들의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른 코드 시스템으로 인해 겪어야 할 문자 인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학 자료의 전산화, 규장각, 고려대장경,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전산화 등의 한자 문헌 전산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전산 한자를 국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남북측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류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이준석(1997). 국제 표준 문자 코드 제안 한자에 대한 연구. 문화체육부, 서경호 외 공동
- 서경호(1998). 국제 문자 코드 제안 한자에 대한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 보고서
- 이준석(1999). 漢字 異體字典 編纂 研究,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 봄 호(공동 연구)
- 이재훈(2000). 국제 문자 코드 한자 Super CJK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3년 학술 회의 관련 사진





학술 회의 참가자 전원



민찬 때의 모습, 남이십 원장과 문영호 소장



학술 회의 발표장의 북쪽 참가자들



학술 회의 발표장의 남쪽 참가자들



방언 분과의 토론 모습

대기호텔 ◆ 2003. 11. 6. ~ 2003. 11. 10.
국어학연구소 · 한국 국립국어연구원 · 국제 고려학회 아시아분회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업 소개 모습



북쪽의 방언 관련 발표 모습

주요일 ◆ 2003.11. 6. ~ 2003.11. 10.
 한국언어연구소 · 한국 국립국어연구원 · 국제 고려학회 아시아분회



말뭉치 분과의 발표 모습



베이징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베이징대학교, 왼쪽부터 유병한 과장, 남기심 원장, 문영호 소장, 권재일 부장







◇ 담당 연구원 : 이 승 재 (李承宰)
(이문규범연구부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연구원 2003-1-9

제2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2003년 12월 22일 인쇄

2003년 12월 29일 발행

발 행 인 남기심

발 행 처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전 화 (02) 2669-9712

전 송 (02) 2669-9777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

전자우편 kacademy@korean.go.kr

인 쇄 크리홍보 주식회사

(전화: 02-737-5377)
